

일반서신 이야기
옛 것과 새 것의 식별
조동호 지음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A Story of the General Epistles
of James, Peter, Jude and John:
DIFFERENCES BETWEEN OLD AND NEW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21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Gyeryongsi,
Choongnam, Korea 32815
Tel(042)841-9697

머리말/일반(공동)서신에 대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이삼서, 유다서를 통틀어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바울의 편지들과 같이 독자가 어느 특정 교회나 개인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어느 독자나 또는 어느 교회나 공동으로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각 서신들의 수신자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히브리서 - 독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야고보서 -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

베드로전서 -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흠어진 나 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

베드로후서 -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

요한일서 - “너희.”

요한이서 -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요한삼서 -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유다서 -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

여기서 보듯이 요한 삼서만이 특정한 독자에게 쓴 순수한 편지이고 나머지는 교회 전체, 모든 교회, 모든 교인이 공동으로 읽을 수 있는 공개편지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들 편지들을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이란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이다.

‘공동서신’의 명칭들은 히브리서를 제외하고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 그러나 바울서신들은 편지를 받는 교회나 개인의 이름을 따랐다. 히브리서가 수신자의 이름을 따서 호칭된 것은 아마도 히브리서가 바울서신의 하나라는 전승 때문이었을 것이다.

신약성경의 책들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계시록을 제외한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은 그 순서가 크기순서로 되어 있다. 신약성경의 순서가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공동서신, 계시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레코로만 전기방식을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학자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신약성경의 책들 가운데 바울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된 글들이란 점이다. 따라서 공동서신은 그 정확한 기록시기

를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바울서신보다는 후대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바울서신 가운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공관복음서처럼 그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데, 공동서신 가운데는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그런 케이스이다. 학자들은 베드로후서가 유다서를 자료로 사용하여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믿고 있다.

내용면에서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공동서신이 바울서신보다 늦은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모든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나라나 교회들의 시대적 요구와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기록 당시의 이스라엘 나라나 교회들의 정황과 지역의 특성이 드러나 있다. 우리가 이런 점을 잘 살피게 되면 바울서신과 공동서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낼 수가 있고, 그렇게 파악된 내용들을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 바울서신의 내용이 특정한 교회들이 직면한 각기 문제들에 집중되어져 있는 반면에 공동서신의 내용은 여러 교회들에게 공동으로 또는 회람용으로 보내졌으므로 그 내용은 바울서신보다 훨씬 더 많이 일반적이고 보편성을 띠는 점이다.

둘째, 공동서신 가운데는 베드로전서와 요한일서를 제외한 나머지 글들이 정경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다.

셋째, 공동서신에서는 바울서신에 등장하는 유대교와의 문제나 교리적인 논쟁들이 이미 지나간 일들이고, 교회성장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문제들, 곧 물리적인 박해, 이단들의 도전, 믿음과 행위의 일치, 교회질서나 직제정비, 윤리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었음을 읽을 수 있다.

넷째, 교회들의 성장과 주의 재림의 지연으로 인한 신학적 설명의 필요성과 교회들을 적대자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내기 위한 노력들이 요구됐던 시기가 공동서신들이 기록되던 시기였다.

다섯째, 바울선교 초기에 나타났던 교회들의 특수한 정황이 공동서신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정황으로 변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 직면해서 히브리서는 논문으로 시작해서 설교로 발전하여 편지로 마치면서 독특한 그리스도론 해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과 인내를 당부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순종의 믿음 즉 실천과 행함의 믿음을,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는 영지주의 경향을 가진 이단의 도전에 대하여 격분하고 공동체의 순수성과 정체성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한다. 요한 서신들도 교회 내의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사랑과 진리로 교회를 지켜나갈 것을 가르친다. 요한일서가 사랑의 서신이라면, 요한이서는 사랑의 한계를 다룬 서신이며, 요한삼서는 목회자에 관한 문제를 다룬 서신이다.

필자는 지면을 통해서 1세기 교회질서의 회복, 곧 1세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하여왔다. 특히 이 책에서는 옛 것과 새 것의 차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 한 때 좋았던 것과 더 좋은 것의 차이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것이 신약성경의 큰 강조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서를 읽고 그 내용을 재창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1세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래성과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 주신다면 필자에게는 더할 나위없는 보람이요 보상이 될 것이다.

2021년 6월 5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차례

머리말/일반(공동)서신에 대해서	3
-------------------------	---

야고보서 이야기: 신행일치**신행일치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1)(약 1:1)/19**

야고보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19
야고보서 집필 배경과 동기	20
야고보서의 장르	20

신행일치02: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2)(약 1:1)/23

야고보서의 문학적 구조	23
야고보서의 신학	23

신행일치03: 믿음과 인내(약 1:1-4)/27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27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28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29

신행일치04: 지혜의 사모(약 1:5)/31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31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32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33

신행일치05: 기도와 확신(약 1:6-15)/35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35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36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	37

신행일치06: 시련을 견디어낸 자(1)(약 1:16)/3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1)	3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2)	40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3)	41

신행일치07: 시련을 견디어낸 자(2)(약 1:17-18)/43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43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1)	44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2)	45

신행일치08: 말씀을 들음과 행함(1)(약 1:19-20)/47

“듣기는 속히 하고”	47
“말하기는 더디 하며”	48
“성내기도 더디 하라”	49

신행일치09: 말씀을 들음과 행함(2)(약 1:21-27)/51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51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52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53

신행일치10: 말씀을 들음과 행함(3)(약 2:1-7)/55

“영광의 주”	5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56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57

신행일치11: 말씀을 들음과 행함(4)(약 2:8-13)/59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59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60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61

신행일치12: 행함이 없는 믿음(1)(약 2:14-26)/63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63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64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65

신행일치13: 행함이 없는 믿음(2)(약 3:1-8)/67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67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68
“혀는 ...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69

신행일치14: 행함이 없는 믿음(3)(약 3:9-18)/71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71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72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73
신행일치5: 행함이 없는 믿음(4)(약 4:1-12)/75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75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76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77
신행일치6: 행함이 없는 믿음(5)(약 4:13-17)/79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79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80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81
신행일치7: 행함이 없는 믿음(6)(약 5:1-6)/83	
“들으라, 부한 자들아”	83
“너희 재물은 썩었고...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84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샅이 소리 지르며”	85
신행일치8: 인내의 믿음(1)(약 5:7-11)/87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7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88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89
신행일치9: 인내의 믿음(2)(약 5:12-20)/91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91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92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93
베드로전서 이야기: 산 소망, 산 돌	
산 소망, 산 돌1: 인사(벧전 1:1-2)/97	
박해시대의 문서	97
“흠어진 나그네들”	98
“택하심을 받은 자들”	99
산 소망, 산 돌2: 산 소망(1)(벧전 1:3-5)/101	
“산 소망”	101

예수님의 강림은 그 희망(Ha-Tikvah)의 새 출발점	102
제2, 제3의 떠돌이들을 위한 그 희망	103

산 소망, 산 돌03: 산 소망(2)(벧전 1:6-12)/105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105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106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107

산 소망, 산 돌04: 산 소망(3)(벧전 1:13-25)/109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109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10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111

산 소망, 산 돌05: 산 소망(4)(벧전 2:1-8)/113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113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114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15

산 소망, 산 돌06: 교회(1)(벧전 2:9-10)/117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117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118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9

산 소망, 산 돌07: 교회(2)(벧전 2:11-12)/12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121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123

산 소망, 산 돌08: 교회(3)(벧전 2:13-17)/125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125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126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27

산 소망, 산 돌09: 교회(4)(벧전 2:18-25)/129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129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130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131

산 소망, 산 돌10: 교회(5)(벧전 3:1-7)/133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133
“너희의 단장은...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134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135

산 소망, 산 돌11: 교회(6)(벧전 3:8-22)/137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137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여덟 명이라”	138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139

산 소망, 산 돌12: 교회(7)(벧전 3:19)/141

구약시대의 음부	141
헬라시대와 신약시대의 음부	142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143

산 소망, 산 돌13: 그리스도인들의 삶(1)(벧전 4:1-6)/145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145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146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147

산 소망, 산 돌14: 그리스도인들의 삶(2)(벧전 4:7-11)/149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49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150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151

산 소망, 산 돌15: 그리스도인들의 삶(3)(벧전 4:8)/153

의식주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153
생사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라.	154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155

산 소망, 산 돌16: 그리스도인들의 삶(4)(벧전 4:12-19)/157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157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158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59

산 소망, 산 돌17: 그리스도인들의 삶(5)(벧전 5:1-14)/16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161
“양 무리의 본이 되라”	162
“젊은 자들아 ...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163

베드로후서 이야기: 보배 믿음, 보배 약속

보배 믿음, 보배 약속01: 보배로운 믿음(1)(벧후 1:1)/167

“사도인 시몬 베드로”	167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168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169

보배 믿음, 보배 약속02: 보배로운 믿음(2)(벧후 1:1-11)/17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171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172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173

보배 믿음, 보배 약속03: 더 확실한 예언(벧후 1:12-21)/175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75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176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177

보배 믿음, 보배 약속04: 이단자들의 최후(1)(벧후 2:1-4)/179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179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180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181

보배 믿음, 보배 약속05: 이단자들의 최후(2)(벧후 2:5-12)/183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183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184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185

보배 믿음, 보배 약속06: 이단자들의 최후(3)(벧후 2:13-22)/187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187
바알브올의 사건	188
우상숭배와 음행의 맥락	189

보배 믿음, 보배 약속07: 이단자들의 최후(4)(벧후 3:1-9)/191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191
--------------------------------------	-----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192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193

보배 믿음, 보배 약속08: 이단자들의 최후(5)(벧후 3:10-13)/195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195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96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97

보배 믿음, 보배 약속09: 새 하늘과 새 땅(벧후 3:13-18)/199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199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200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201

유다서 이야기: 믿음을 위해 싸우라

믿음을 위해 싸우라1: 부르심의 본질(유 1:1-2)/205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205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206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207

믿음을 위해 싸우라02: 단번에 주신 믿음(유 1:3-4)/209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1)	209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2)	210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211

믿음을 위해 싸우라03: 예배와 회개의 반복(유 1:5-7)/213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213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214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215

믿음을 위해 싸우라04: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유 1:8-10)/217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217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218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219

믿음을 위해 싸우라05: 멸망의 길(1)(유 1:11)/221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221
“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222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223
믿음을 위해 싸우라06: 멸망의 길(2)(유 1:12-13)/225	
“너희의 애찬에 암초요”	225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226
“감감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227
믿음을 위해 싸우라07: 신약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라(유 1:14-25)/229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229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230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231
요한서신 이야기: 하나님과의 사귄	
하나님과의 사귄01: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요일 1:1-2)/235	
기록 시기와 역사적 배경	235
요한일서의 주제	236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237
하나님과의 사귄02: 참 빛 하나님(요일 1:3-4)/239	
참 빛이신 하나님	239
사랑이신 하나님	240
희생이신 하나님	241
하나님과의 사귄03: 사귄(요일 1:5-10)/243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243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244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245
하나님과의 사귄04: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요일 2:1-6)/247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247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248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249
하나님과의 사귄05: 새 계명(요일 2:7-17)/25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251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252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253

하나님과과의 사립06: 기름 부음(1)(요일 2:18-20)/255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255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56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257

하나님과과의 사립07: 기름 부음(2)(요일 2:21-29)/259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59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260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261

하나님과과의 사립08: 기름 부음(3)(요일 2:20, 27)/263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	263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의 차이	264
예수님의 그리스도 임직식	265

하나님과과의 사립09: 그리스도인의 신분(요일 3:1)/267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267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268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269

하나님과과의 사립10: 주의 재림(요일 3:2)/271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271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272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273

하나님과과의 사립11: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일 3:3-24)/275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275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276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277

하나님과과의 사립12: 하나님은 사랑(1)(요일 4:1-10)/279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279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280
하나님의 사랑	281

하나님과과의 사립13: 하나님은 사랑(2)(요일 4:11-21)/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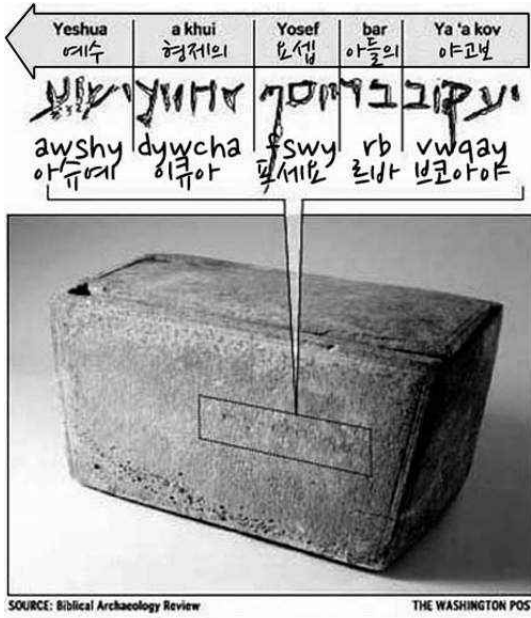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283
-------------------	-----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284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285
하나님과과의 사립4: 하나님은 사랑(3)(요일 5:1-8)/287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니”	287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288
“성령과 물과 피라”	289
하나님과과의 사립5: 하나님은 사랑(4)(요일 5:9-15)/291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291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292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293
하나님과과의 사립6: 증보기도(요일 5:16-21)/295	
“누구든지 형제가 ...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295
“사망에 이르는 죄”	296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297
하나님과과의 사립7: 그리스도교 장로(요일 1:1)/299	
그리스도교 장로는 본래 제사장(사제)이 아니었다.	299
그리스도교 예배는 유대교 회당 기도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300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세 명의 장로들이 있었다.	301
하나님과과의 사립8: 택하심을 받은 부녀(요일 1:1-13)/303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303
“서로 사랑하자”	304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305
하나님과과의 사립9: 네 영혼이 잘됨 같이(1)(요삼 1:1-8)/307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307
“네 영혼이 잘됨 같이”	308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309
하나님과과의 사립20: 네 영혼이 잘됨 같이(2)(요삼 1:9-15)/311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311
“선한 것을 본받으라”	312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매”	313



신행일치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1)(약 1:1)

야고보서의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 구조와 특징



야고보서를 시작으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 일삼서가 이어진다. 이들 일곱 개의 서신을 일반서신 또는 공동서신이라고 부른다. 야고보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이복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주후 64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야고보서의 기록 시기는 순교 이전인 40년에서 60년 사이가 될 수 있다.

저자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한다.”(1:1)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서 수신자는 “세계에

흠어져 사는 열 두 지파”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호칭이 전 세계에 흠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야고보서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들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는 누구를 말한 것인가? 그 가능성은 다섯 가지가 된다. 첫째는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 둘째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셋째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넷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다섯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다. 초대교회는 그들 자신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곧 본향을 향해서 가는 동안에는 잠시 나그네로 흠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야고보서는 실천의 종교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글이다. 바울이 일부 서신에서 강조한 ‘칭의의 믿음’이 ‘구원을 위한 믿음’ 즉 초신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면, 야고보가 그의 글에서 강조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성화의 믿음’ 또는 ‘순종의 믿음’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 바울도 그 대상이 이미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과 성결을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목적은 선행을 위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종교개혁가 루터는 야고보서를 일컬어 “지푸라기 서신에 불과하다”고 했다. 야고보서가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루터의 이 언급에 대해서 19세기의 헤르데르(Johann Gottfried Herder)는 “만약에 본서가 ‘지푸라기’라면, 바로 그 지푸라기 속에 매우 핵심적이고 단단하고 영양가가 풍부한 알곡이 아직 해석되지 않고 정미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고 평가했다.

바울이 일부 서신에서 강조한 ‘칭의의 믿음’이 ‘구원을 위한 믿음’ 즉 초신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야고보가 그의 글에서 강조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성화의 믿음’ 또는 ‘순종의 믿음’ 즉 이미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야고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이들에게 신앙교육의 차원에서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다.). 바울도 그 대상이 이미 구원을 받은 신앙인들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과 성결을 강조했다(롬 6-8장).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목적은 선행을 위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야고보서 집필 배경과 동기

야고보서에는 우상숭배라든지, 성적문란과 같은 언급이 없다. 또 유대인들의 할례나 율법문제도 없고 고기 먹는 문제도 없다. 다만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며 정치 마당화 되어 가는 회당(교회)이 있을 뿐이었다. 야고보 저자는 빛과 소금의 역할도 없고,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없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공동체를 향해서 주의 강림과 심판의 다가움을 경고하고, 그 때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하였다(5:11).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계시니라(5:7-9).

야고보는 특히 심판과 언행을 강조했다. 행함이 없는 쪽정이 같은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 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기 때문이다(4:17). 주의 강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고(2:5)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쓸 수 없기 때문이다(1:12).

야고보서의 장르

야고보서의 형태는 첫 구절을 제외시킨다면 편지의 성격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수신자의 실제적 형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또 야고보서는 전체 108절 가운데 54개의 동사가 이인칭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서 윤리적 권고를 목적으로 한 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교적 복음의 선포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적 설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야고보서의 가치는 서신에 수집되어 있는 다양한 교훈의 말씀에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야고보서는 유대인의 지혜문학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권면의 내용이 많아서 ‘신약성경의 잠언서’로도 불린다. 잠언서의 권면과 닮은 야고보서의 권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약 1:5, 잠 2:6);

둘째, 말에 대한 경고와 당부(약 1:19-20, 잠 29:20-21);

셋째, 의의 열매(약 3:18, 잠 11:30);

넷째, 세상 자람에 대한 경고(약 4:13-16, 잠 27:1);

다섯째,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에 대한 권고(약 5:20, 잠 10:12).

야고보서에는 독특한 어법들이 나온다. 야고보서는 물음법을 자주 사용한다. 물음법은 말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또 야고보서는 직유법을 자주 사용한다. 직유법은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에 직접적으로 빗대어 나타내는 표현법으로써 ‘~같은’, ‘~처럼’, ‘~듯’ 등이 연결어로 쓰인다. 그밖에도 야고보서는 생생한 예화, 상상적인 대화, 그리고 독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야고보서에는 공동체 전체를 지칭한 ‘나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와 같은 표현이 14회 나오고, 공동체내의 특정인을 지칭한 ‘너희 죄인들아’,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죄인들아’, ‘너희 부한 자들아’와 같은 표현도 나온다.

학자들이 야고보서를 보는 입장은 편지, 설교, 권면의 글, 지혜문학, 네 가지로 나뉜다.

첫째, 편지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러나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를 제외하고는 편지 형태도 없고, 인사도 없고, 부탁도 없고, 결미도 없다.

둘째, 설교로 보는 입장이 있다. 2장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와 같은 말씀이 있기는 하나 히브리서나 요한일서에서와 같은 선포가 한 줄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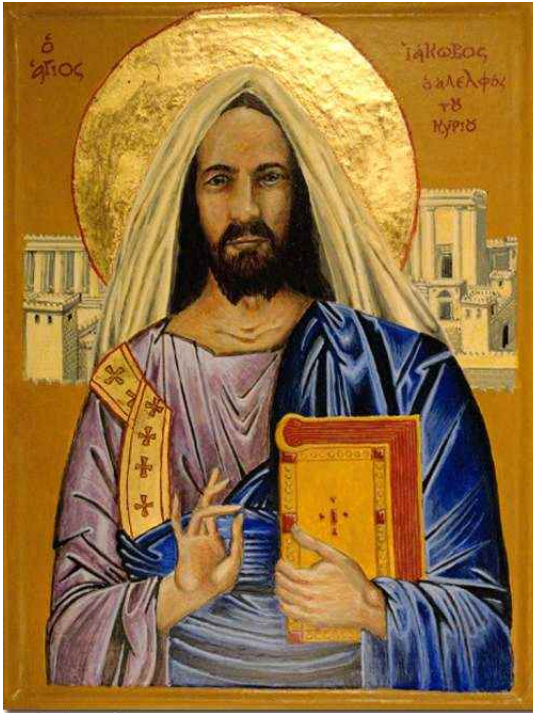
셋째, 권면의 글로 보는 입장이 있다. 짧은 교훈과 권면의 말씀과 간단한 에세이 형태로 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1장에서는 시험, 시련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교육시키는 방편으로 시련을 주셨다고 말한다. 2장에서는 모든 것을 심판의 개념으로 전개한다. 심판의 표준은 자유의 율법인데(2:8-13), 자비를 베푸는 자는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된다(2:12). 아무도 심판을 피하지 못한

다(2:19). 사랑의 법만이 온전하게 된다(2:15-16). 간간이 신앙에 대하여(2:14-16), 말에 대하여(3:1-12), 시기에 대하여(3:13-4:10) 간단한 에세이형태로 논증한다. 그러나 권면의 글이라고 분류할 때에 야고보서는 아무런 목적이나 의도가 없는 잡다한 사랑방 이야기로 전락하고 만다.

넷째, 지혜문학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구약에서 지혜전승은 율법이나 예언과는 다른 하나님의 계시의 형태로 참 삶, 곧 구원의 문제를 다룬다. 야고보서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데, 주께서 오시면 자유의 율법에 따라 공흠을 행한 자에게는 공흠로 심판하는 엄정한 심판을 따라,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긴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터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어떻게 주의 오심을 대처할 것인지 묻는다. 그러므로 단순히 잠언이나 격언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나 말이나 자기 삶을 준비하도록 위에서 내려오는 참된 지혜를 구하여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지혜전승을 따르는 지혜문학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신행일치02: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2)(약 1:1)

야고보서의 문학적 구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c. 64년 순교,
written by Tobias Stanislas Haller, BSG)

야고보서는 단편적인 교훈들을 수집해 놓은 글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구조를 밝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야고보서는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산만하게 옮겨 다니며 지혜의 보석을 던지고 있다. 심지어 이들 주제들은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들 사이에 아무런 관련도 없이 연결되기도 한다.

유대인들은 청중들의 관심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한 주제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설교를 카라즈(charaz)부르는데, 이 말은 실에 꿰여 있는 진주를 뜻한다고 한다. 야고보가 사용한 방법이 바로 한 움큼의 진주를 연달아 하나씩 독자들의 마음속에 꿰어 넣는 것이었다.

야고보서의 신학

1) 실천의 종교(Religion of Praxis)

야고보서는 기독교인들에게 실천의 종교, 행함의 신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야고보는 이 서신의 중심부에 믿음과 행함에 대해 논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2:17)이라고 못 박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라고 말함으로써 바울의 칭의 교리를 보충해주고 있다. 이 같은 야고보의 가르침은 마태의 교훈과 비슷하다. 또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것이 죄”라는 죄에 대한 독특한 정의를 내려 범법죄만이 아니라 태만죄까지도 강조하여 예수님의 정신에 더 근접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

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2:14-26).

실천과 관련된 야고보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①시련은 온전한 인격을 만들어 낸다(1:2-4).
- ②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당하는 시험과 잘못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않는다(1:13-15).
- ③교회 내에서 부유한 자들에게는 아첨하고 가난한 자들은 업신여기는 속물 근성은 죄다(2:1-7).
- ④부는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며, 정의보다 부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1:10; 5:1-6).
- ⑤참된 종교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1:27).
- ⑥지혜에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다(3:13-17).
- ⑦혀에 재갈을 먹여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다(1:26; 3:1-12).
- ⑧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2:14-26).

2)생명의 면류관(The Crown of Life)

야고보서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마음에서 짝이 나고 자라 열매를 맺고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을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써야 한다. 말씀을 듣기만 하거나 교회당에 출

석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구원을 완성시켜야 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1:12).

3)위로부터 난 지혜(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 하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지만 땅에서 나오는 지혜는 오직 심판과 사망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3:15, 17).

4)자유 의 율법(The Law of Liberty)

야고보서는 신앙이 행동으로 구현되고, 공동체가 유지되며, 마지막 날에 심판을 이기는 것은 자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한다(1:25; 2:12).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1:25).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2:12).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큰 사실에 기초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자유의 율법아래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판단을 받게 될 근거는 자유의 율법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정통파 유대인들처럼 외적인 613개의 율법항목과 수많은 율타리(게자이로트) 법들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사랑의 요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 강요나 두려움 때문에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율법을 말한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긍휼을 베푸는 자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란 점을 기억해야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2:13).

5)하나님의 벗(Friend of God)

야고보서는 철저히 신본주의 신학을 수립하여 독자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한다. 모든 원리는 하나님께 귀결된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벗”이 되라고 권면한다(4:4).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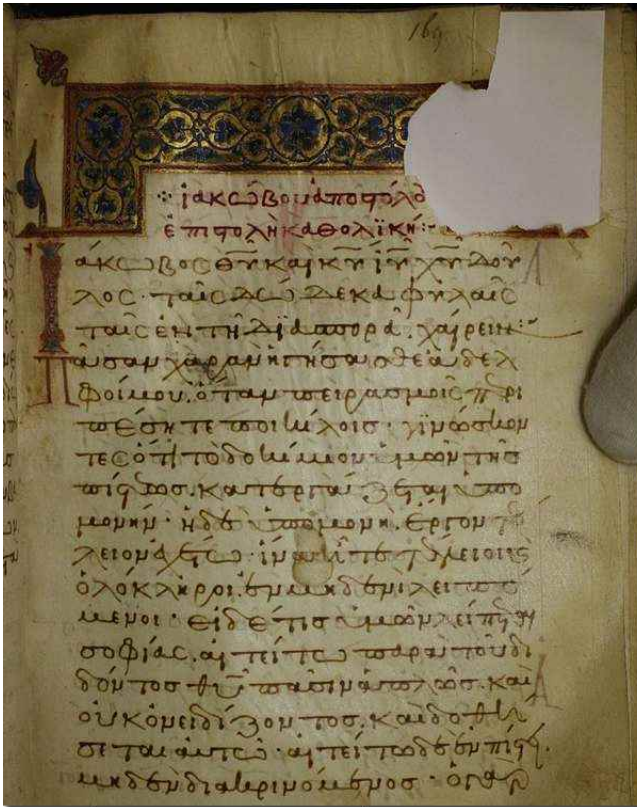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4:4).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4:8).

하나님의 벗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 친구란 같은 태도, 같은 가치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입장에서 사물을 보는 자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벗과 세상의 벗이 되려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는데, 세상의 욕심과 표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벗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4:4).

신행일치03: 믿음과 인내(약 1:1-4)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야고보서 첫 페이지(12세기경, Christ's college, Cambridge 소장)
Byzantine text-types의 소문자(Minuscule) 필사본 319번이다.

독생자 하나님으로 성육신하신 분으로 여겼다. 이점에 있어서 야고보는 자기를 추종했던 에비온파(Ebionites)와 달랐다. 에비온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이었다. ‘다른 예수’란 신성을 빼버린 예수를 말하고, ‘다른 복음’이란 할례를 포함한 토라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말한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난 친 동생이었다. 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을 뿐 아니라, 세 명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행 15:13, 행 21:18).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란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상은 사는 곳이 어디이든지 본향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향인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 순례하는 떠돌이들인 것이다.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란 표현에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 하나님은 신성이시고 영이시며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되었다면, 예수님 또한 신성이시고 영이시며 창조주이시다. 둘째, 야고보는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친형제이면서도 스스로를 낮춰 예수님의 종으로 취급하였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테반의 순교직후 박해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행 8:1).

“흩어져 있는 열 두 지파”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한다. 떠돌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영토를 희망하였고, 그의 희망은 최소 430년에서 최고 645년 만에 이뤄졌으나 아브라함이후 4000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대략 3000년을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들에서 떠돌이와 노예로 살았다. 그들이 노래하는 그토록 오랜 희망(Ha-Tikvah)은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야고보가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지상 가나안땅에 대한 희망과 떠돌이와 노예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된 후 본향인 하늘 ‘시온에로의 오름(aliyah to Zion)의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스라엘의 애국가, “희망”(Ha-Tikvah)
유대인의 정신이 마음 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한,
눈을 동쪽으로 향하여 시온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으로써 지상의 모든 담 곧 민족의 담, 성별의 담, 신분의 담, 계급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자매가 되게 하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형제님,” “자매님”하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에서 “시험”(peirasmois)은 밖에서 오는 시련을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다양한 형태의 시련을 겪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크기를 테스트 받게 된다.

2절 “내 형제들아”는 야고보서에서 15번 쓰였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분 아버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혈통을 떠나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다. 예수님은 본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요 1:18)이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다”(롬 8:29, 히 1:6). 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상속자)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갈 4:6) 자들이다. 이뿐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뜨림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믿음과 인내를 권면하는 글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은 도전이요 기회이다. 시련을 통해서 발전하고 성장하며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3-4절에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바울도 로마서 5장 3-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나 시련이나 환난을 슬퍼하기보다는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고 하였다. 계시록의 저자도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삼년 반으로 묘사한바가 있다. 삼년 반이란 숫자는 ‘마흔 두 달’ 혹은 ‘일천 이백 육십일’ 혹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단어로 표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의 세력에게 당하는 고난의 기간이요 악의 세력이 가하는 탄압의 기간이다. 따라서 삼년 반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이다. 삼년 반은 ‘시련의 기간이 짧다’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에 계시록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영광을 천년으로 표현한다. 천년은 축복의 기간으로써 복이 영원하다는 뜻이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1610, El Greco, Prado, Madrid 소장)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노예와 떠돌이란 시련에서 태동했고, 그리스도의 나라도 박해 가운데에서 태동하였다. 그러나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부활승천하신 후 월계관을 받아쓰시고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것과 같다는 것이다.

시련은 짧지만 그 영광은 영원하므로, 시련은 많아도 결코 실패는 없으므로, 시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불과하므로, 시련은 축복을 기약하는 연단이므로, 시련이 무한

정 지속되지 않으므로, 막힘의 위기 속에 반드시 트임이 있으므로,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전 10:13)고 하였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고후 4:17)고 하셨다. 욥이 시련 후에 전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고난은 축복에 대한 시샘과 같은 것이며, 햇살이 있기 위해서 한바탕의 비바람과 천둥이 치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 소나기를 맞은 식물은 더욱 푸르게 자란다. 우리는 시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시련은 소나기처럼 지나가기 때문이다. 소나기 몇 번 맞고 나면 시들어 죽어가던 것조차 싱싱하게 되살아난다.

시련은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장막이요, 영원한 처소가 예비 되어있다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되며, 시련을 통해서 이웃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서로 돕고 의존하는 이웃사랑의 필요성을 깨우치게 된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이 사랑을 알게 되고, 강박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며, 나뻛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인식하는 새 삶을 찾게 되기도 한다. 특히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식어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분의 한없는 은총을 체험하게 된다.

신행일치04: 지혜의 사모(약 1:5)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비잔틴시대의 주화(미카엘 4세, AD 1034-41)
전면에 왼손으로 복음서를 안고, 오른손으로 강복하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IC XC NIKA)라고 새겼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말씀은 2-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

가 얹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한 말씀에 연결된다. “여러 가지 시험” 곧 여러 형태의 시련이나 환난을 당할 때, 이것들을 잘 대처하여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과 불굴의 인내뿐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할 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걸었던 순례자로, 이 길을 승리의 길, 시온의 길, 영광의 길로 바꾸시기 위해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기도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우신 운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셨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초기교회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 및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대로의 방법으로 그들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승리의 길, 시온의 길, 영광의 길로 바꾸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5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면서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였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시험” 곧 나를 가두는 무덤의 현실, 나를 죽이는 십자가의 현실, 그곳에서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 나오는 부활의 삶을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이기신, 무덤을 이기신, 죽음을 정복하신 승리자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

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다. 이뿐 아니라, J장군 그리스도께서 적장과 적군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개선장군이 되셨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받아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용사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함께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월계관을 받아쓰게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이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베트라니오 로마황제의 주화(AD 350)
전면에 월계관을 쓰고, 동체갑옷을 입은 베트라니오(Vetranio, AD 350)를 새겼고, 둘레에 우리의 주 베트라니오 경건하고 다복한 아우구스투스(DN VETRANIO PF AVG)라고 썼으며, 뒷면에 손에 군기와 홀을 손에 쥔 베트라니오에게 여신 승리(Nike)가 월계관을 씌우는 장면을 새겼고, 둘레에 “이 표식(XP)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다”(HOC SIGNO VICTOR ERIS, In this sign, conquer)라고 새겼다. 이 글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꿈에 하늘에서 들은 음성이다.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를 대전투를 앞두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꿈에 “이 표식(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 키(X)와 로(P)를 겹쳐놓은 표식)으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는 환상을 보았으며, 이 표식을 자기 군대의 군기(라바룸)와 병사들의 방패에 새긴 후 전투에 임함으로써 312년 10월 28일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 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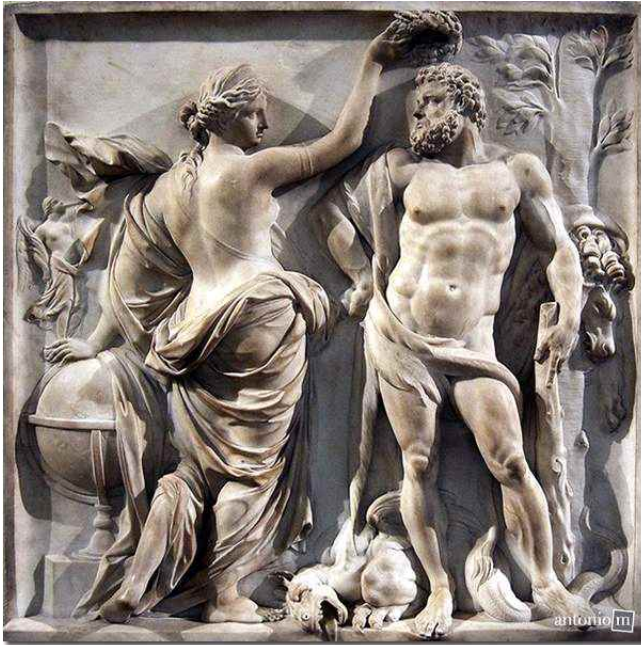
제국의 아우구스투스(정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 때문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이 표식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문구는 주후 350년 베트라니오 황제의 주화에 새겨짐으로써 로마제국내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에도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헤라클레스를 묘사할 때 언제나 그의 곁에 여신 아테나를 함께 그려 넣었다. 그 같은 그림들이 도자기에 많이 남아 있다. 그 그림들은 대개 지혜와 용기의 여신인 아테나가 헤라클레스에게 능력을 덧입히거나 헤라클레스 곁에서 응원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거나 지친 헤라클레스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며 안식(쉬)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다.

헤라클레스의 영웅담은 시인들이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하지만, 고대 그리스 인들은, 인간이 겪는 시련이 아무리 크고 힘겨운 것일지라도, 신이 내리는 지혜와 능력만 있다면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하다. 일찍이 광기로 인해 아내와 자식을 살해한 헤라클레스는 그 벌로써 아르고스의 지배자

(에우뤼스테우스)로부터, 일찍이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12가지 과업을 지시받고 한 가지씩 척척 해결해 나간다. 그 첫 번째 과업이 네메아의 사자를 죽이는 것이었다. 네메아의 사자는 창이나 칼이나 활로써는 죽지 않고, 꼭 30일 동안 목을 조르고 있어야 죽는 괴물이었다. 그 괴물을 죽이려면 천하장사인 헤라클레스일지라도 그는 먼저 30일 동안 한순간도 눈을 붙이지 말아야하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했다. 그리고 이어서 머리가 아홉 개나 되는 죽음의 씨앗이라 불리는 물뱀 휘드라, 청동발굽을 가진 뿔 달린 암사슴, 에뤼만토스 산의 멧돼지, 스팀팔로스의 요사스러운 새들, 크레타의 황소, 디오메데스의 암말, 게뤼오네스의 소떼를 사로잡거나 죽이는 일들을 차례로 수행한다. 열거한 이들 짐승들은 괴물들 중에서도 괴수들이기 때문에 쉽게 죽이거나 사로잡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라클레스는 그런 일들을 잘 수행해낸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헤라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헤라클레스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부과된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곧 인생의 가시밭 길을 영웅적으로 마친 후 신들이 머무는 대전에 올라 헤라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모습.
(Martin Desjardins, 1671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헤라가 오른손에 월계관을, 왼손에 지구본 위에 세운 여신 승리를 붙잡고 있고, 헤라클레스가 오른손에 헤라의 라수원인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서 리물 라돈(용)을 무찌르고 장취한 불멸을 주는 황금 사과를 쥐고 있고(Atlas와 비교), 왼손에 물리브 동굴이를 쥐고 있으며, 죽은 라돈이 바닥에, 네메아의 사자 가죽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범하지 않는다. 타고난 운명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인내와 신들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로써 헤라클레스는 지혜와 용기와 전투의 여신인 아테나의

그밖에도 소뿔을 치우거나 여인국 아마존 여왕의 허리띠와 라돈(용)을 물리치고 헤라의 황금사과를 손에 넣는 등, 일찍이 그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과업들을 해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의 세계인 음부에까지 내려가 음부의 신 하데스의 궁전을 지키는 머리가 세 개 달린 케르베로스를 사로잡고, 망각의 의자에 앉아 벌을 받고 있던 테세우스를 구해서 이생으로 데려오기까지 한다. 이로써 헤라클레스는 음부의 권세자인 죽음조차도 이긴 불세출의 영웅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만에 빠지거나 신들을 모독하는 어리석음을

마음을 얻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를 그토록 괴롭혔던 여신 헤라를 포함한 모든 신들로부터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로써 그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었고, 신들로부터 보상과 위로(월계관과 보좌)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다. 그 점에 관해서 독일의 시인 셸러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비겁자의 종으로 전락해 있으면서도 (여기서 비겁자란 헤라클레스에게 12번이나 불가사의한 과업을 지시한 아르고스의 지배자 에우뤼스테우스를 말한다.) 용감한 헤라클레스는 끝없이 싸우며 괴로운 가시밭길을 걸었다. 휘드라를 죽이고, 사자의 힘을 빼고, 친구를 이승으로 데려오기 위해 죽음의 강에 조각배를 띄웠다. 헤라의 증오는 지상의 모든 고뇌를, 지상의 모든 수고를 그에게 지웠으나, 운명의 생일로부터 저 장렬한 최후의 날까지 그는 이 수고를 훌륭하게 참아내었다.

이윽고 지상의 옷을 벗어던진 신의 모습이, 불길에 탄 인간의 모습에서 떨어져 나와 하늘의 가득한 정기를 마셨다. 일찍 맛보지 못하던 몸의 가벼움에 기뻐하면서 지상에서 어둡고 무거운 고통을 죽음에다 버리고, 천상의 빛을 향하여 비상했다. 올림포스 신들은 그를 맞으러 사랑하는 아버지의 대전으로 모이니, 빛나는 청춘의 여신은 뺨을 장밋빛으로 물들이고, 지아비 된 그에게 신들이 마시는 술을 따랐다.

신행일치05: 기도와 확신(약 1:6-15)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오디세우스와 아테나를 그린 암포라(440 BC, Vulci)
아테나가 오디세우스와 알키누스의 딸 나우시카아와의
만남을 주선하는 모습. 손에 쥔 나뭇가지들은 알몸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써 그가 당한 처지를 상징한다. 이로써 오디세
우스는 나우시카아의 도움으로 고향 땅을 밝게 된다.

야고보 시대의 그리스인들은 신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다. 이 시대의 신화들은 주전 8세기경에 시인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아>에서 비롯되었고, 주전 1세기경에 시인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에 의해서 보강되었다. 신화는 시인들이 지어낸 허구에 근거한 이야기이지만, 오늘날보다는 훨씬 강도가 센 여러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위로와 재미를 주기 위한 이야기들이다. 신화에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대인들이 악을 심판하고 제거하는 슈퍼맨, 스파이더맨, 원더우먼, <다이 하드> 시리즈 등에 등장하는 영웅들에 열광하는 것도 다 같은 이유에서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에는 바다와 선원들의 이야기가 많다. 에게 해, 아드리아 해, 이오니아 해, 티레니아 해, 지중해 등을 끼고 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바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영웅들이 이아손(야손), 오디세우스, 아이네아스 등이

다.

출애굽기(주전 15세기)가 약속의 땅을 찾아 고난의 길을 떠난 히브리인들의 광야(사막)이야기라면, 이아손, 오디세우스, 아이네아스의 이야기는 금양모피를 찾거나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혹은 약속의 땅을 찾아서 거친 바다에 배를 띄

운 이야기들이다. 히브리인들이 40년간 광야(사막)에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망했던 가나안땅을 끝내 차지하고 그곳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끝까지 야훼를 신뢰했기 때문이고, 야훼의 자비를 입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구름기둥은 성령님의 예표였다. 반면에 이아손, 오디세우스, 아이네아스는 10년 혹은 7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을 거친 바다에서 겪었던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얻고자 했던 것을 손에 넣거나 본향에 당도하거나 약속의 땅에 도달하여 새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끝까지 신들을 믿고 섬겼기 때문이고, 신들의 자비를 입어 용기와 지혜를 얻거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테나는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그리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성령님의 예표였을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트로이 멸망 때 아버지 앙키세스를 들쳐 멘 아이네아스가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손을 잡고 불타는 트로이 성을 탈출하는 모습(나폴리).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인들을 이끌고 7년의 바다유랑 끝에 수호신들이 약속한 새 땅 로마에 이르러 건국의 기초를 쌓는다(아이네이스).
*** 아이네아스는 트로이의 여호수아, 낡은 세대의 가장의 듄직한 모습.



히브리인들이 떠돌이와 노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약속의 땅을 찾아 고난의 길을 떠난 후 숫한 고난을 이기고 끝내는 그들이 얻고자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쟁취하여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신화에서 헤라클레스는 헤라의 정원을 지키는 라돈(용)과 싸워 이긴 후 황금사과를 손에 넣었고, 이아손도 금양모피를 지키는 용을 무찌른 후 금양모피를 손에 넣었다.

〈오디세이아〉(주전 8세기)는 트로이전쟁을 마치고 고향 땅을 찾아 고난의 길을 떠난 오디세우스의 항해 이야기이다. 오디세우스는 숫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전쟁터에서 10년과 고향으로 향하던 바다에서 10

년을 보낸다. 이 영웅이 20년 만에 고향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신 아테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테나는 ‘멘토르’로 변신하여 오디세우스에게 나타나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응원하고 격려하였다.

〈아이네이스〉(주전 1세기)는 트로이패망 때 아이네아스가 신들의 계시를 따라 소수의 트로이인들을 이끌고 새로운 트로이건설을 위해서 미지의 땅을 찾아

험난한 길을 떠난 트로이인들의 항해이야기 또는 로마건국이야기이다. 그들은 조국 트로이가 멸망한 이후 7년이란 시간을 험난한 바다와 싸워야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한 아프로디테와 같은 수호신들의 자비를 입어 새 땅에 정착하여 로마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이처럼 영웅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시험을 참는 자”가 되어 복을 받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토아철학의 영향으로 자신의 몫으로 태인 숙명의 십자가를 받아드린 동시에 그 숙명을 수호신들에 의지하여 잘 감당하려고 했다. 그리스도교를 받아드린 후에는 지혜와 용기와 전쟁의 여신인 아테나가 성령님의 예표였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선신과 악신의 구별이 따로 없다. 신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응보를 내렸다. 자비를 베풀 것인지, 응보를 내린 것인지는 인간들이 신들에게 어떻게 비쳐지느냐에 달렸다. 여신 헤라는 헤라클레스를 끔찍이 미워하여 괴롭힌 악신이었지만, 금양모피(황금양의 털가죽)를 찾아 거친 바다에 배를 띄운 이아손에게는 아프로디테와 그의 아들 에로스를 통해서 메테이아가 이아손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만들고 이아손이 시련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마법의 힘을 써 돕게 만든 선신이었다.

“악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은 아이네아스를 몹시 괴롭혔지만, 아프로디테는 아이네아스를 아들을 대하듯이 그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나타나 돕거나 응원하였다. 그러나 3만 명이 넘는 다신을 믿다가 삼위일체 유일신을 강조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그리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헤라클레스와 이아손이 싸웠던 라돈 혹은 용을 악신의 예표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용은 사탄(마귀)의 상징적 동물이자 사탄(마귀)의 예표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작고한 이윤기의 작품, <그리스 로마 신화: 아르고 원정대의 모험>이 2010년 10월 15일 유고(遺稿) 작으로 출판되어 서점에 나왔다. 이 책의 내용은 영웅 ‘이아손’(제이슨)이 콜키스 땅에 있는 금양모피(황금양의 가죽)를 찾는 과정에서 겪는 모험담이다. 콜키스는 일찍이 그리스인으로서 누구도 가본 적이 없고,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미지의 땅이었다. 그런데도 이아손은 이곳 미지의 땅으로 가기위해서 아르고 원정대(아르고나우타이)를 꾸려서 험한 바다에 배를 띄웠다.

이아손은 싸늘한 역풍과 물보라로 휘감아 배들을 산산조각을 낸다는 악명 높은 보스포루스 해협의 충돌하는 바위섬들을 무사히 통과했고, 흑해를 지나 금양모피가 있다는 콜키스 땅을 밟았다. 이 과정에서 이아손은 온갖 시련을 참아냈다. 무엇보다도 금양모피가 걸린 나무를 지키는 거대한 용과 싸워 이겨야했다. 심지어 이아손은 헤라클레스가 용(라돈)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들었듯이, 이



영웅 이아손, 용과 금양모피, 아테나와 지혜의 상징 볼배끼리(kylix, 58c) 금양모피를 얻기 위해서 이아손은 용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들었고, 용은 이아손을 삼키지만 아테나 때문에 이아손을 게워내는 모습과 나무에 걸린 금양모피를 좌측에 그렸고, 거리에 투구를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지혜의 상징인 볼배끼리를 쥔 여신 아테나를 우측에 그렸다. 이아손의 수호신은 헤라이다. 헤라의 복たく으로 아테나와 아프로디테가 이아손을 종종 돕는다. 오비디우스는 “금양모피조차도 손에 넣는 수고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라고 노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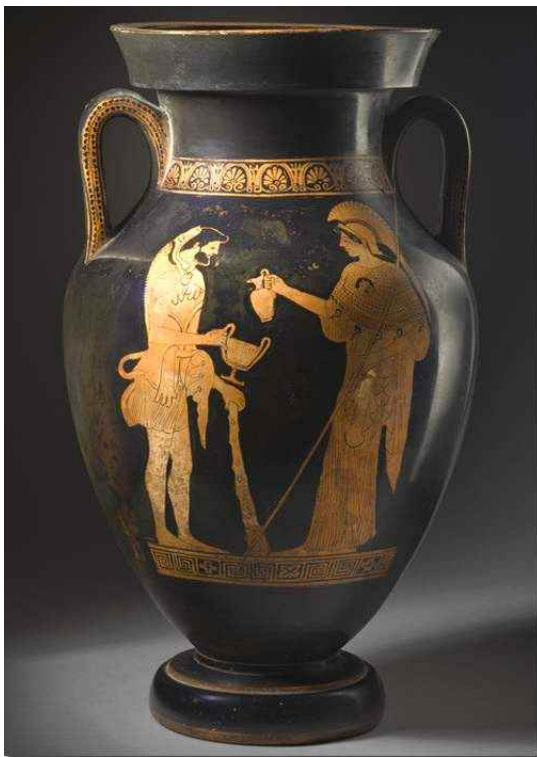
용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용의 아가리 속으로 용의 뱃속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 헤라클레스와 이아손이 용의 아가리 속으로 용의 뱃속으로 들어가 싸웠다는 것은 그리스인들에게는 아마도 혈혈단신으로 적진 깊숙이까지 쳐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했을 것이다. 시련은 금양모피와 황금사과로 상징된 영생과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지, 결코 결과물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최후승리이기 때문이다.

용의 아가리 속으로 뛰어 들어야 했다. 이것은 이아손이 이전에 겪었던 그 어떤 시련보다 더 강한 것이었다. 이점에 있어서는 황금사과를 손에 넣어야했던 헤라클레스가 맞닥뜨렸던 난관과 다를 것이 없었다. 헤라클레스는 자기를 그토록 증오하고 괴롭히는 헤라의 동산 헤스페리데스에 있는 황금사과를 손에 넣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동산을 지키는 라돈(용)과 싸워서 이겨야 했다.

목표가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과 바다가 있으며, 싸워서 이겨야 할 용(사탄)이 있다.

신행일치06: 시련을 견디어낸 자(1)(약 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1)



지혜와 용기와 전전적의 여신 아테나가 타고난 고난과
동감히 싸우는 헤라클레스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암포라)
잠언서는 하나님의 속성인 지혜를 여성(Lady Wisdom)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중간기시대에는 유대교에서는 이미 이 지혜
(Holy Wisdom)와 성령을 동등하게 여겼다(지혜서 7:7,
9:17). 따라서 바울의 적대자들이었던 유대교적 영지주의
예비온파는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일신론자들이었으므로 성령을
지혜로 인식하였고, 그들이 지혜로 침례를 받았다고 주장
한다는 암시가 고린도서에 담겨있다(지혜서 10:18, 잠언서
15:3, 6:31, 잠 18:4).

그리스도교 복음은 전적으로 새
로운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 계시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
자들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비
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전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들이다(엡 3:1-5). 다만 그 복음
을 전한 방법에 있어서는 이전 것
들을 재창조한 면이 없지 않다. 예
들 들어서 유대교 예비온파들은, 그
들이 비록 한 분 하나님 야훼만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
성을 부정하였지만, 예수님이 이전
의 토라 곧 율법을 새로운 의미, 참
된 의미, 본래적 의미를 밝힌 분이
라고 믿었던 것과 같다.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율법을 재해석함으로써 율
법의 본래적이고 참된 의미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의 자자들도 새로운 것을 만들
어 전하지 않고, 이전의 것, 옛 것,
구약을 재해석함으로써 옛 것의 본
래적이고 참된 의미를 밝혀 주었던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독생하신 하나님이 되심과 부활승천하심과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심에 대한
것과 복음의 진수들을 옛 것들을 재해석하여 전한 것들이다. 다만 이 해석은
문자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영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뤄졌다.

구조적으로 보면, 이전 것들 곧 옛 것들은 병든 것들이고 불완전한 것들이며
일시적인 것들이고 잠정적인 것들이며 땅의 것들이다. 이것들은 건강한 것들,

완전한 것들, 영원한 것들, 항구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이 나타나면 사라질 것들이다. 그것은 마치 밤에는 달빛이 유용하지만, 햇빛이 나타난 낮에는 무용한 것과 같다. 한국 그리스도교 초기 신학자였던 최병헌(崔炳憲, 1858-1927) 목사가 “성산유람기”(聖山遊覽記)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먹을 것이 없고 가난했을 때에는 풀죽도 마다하지 않지만, 먹을 것이 풍부하고 부유한 때에는 풀죽이 필요 없어지는 것과 같다. 율법시대가 달빛시대라면 복음시대는 햇빛시대인 것이다. 율법시대보다 더 뛰어나고 완벽한 복음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율법시대가 필요 없게 된 것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2)



옛것은 새것의 그림자로 모형이다.
율법이 나뻐서나 악한 것이 아니다. 당대에는 최고로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좋은 복음이 나타날 때까지만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좋은 것이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켰다”(엡 2:15).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시켰다”(히 7:18).
“완전한 것이 올 때에는 비본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할 것이다”(고전 13:10).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율법시대가 나뻐서나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시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대라서 당대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다.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고대 근동세계와 고대 그리스로마세계에 이스라엘의 율법과 유대교보다 더 뛰어난 성문법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유일신만을 섬기는 종교는 없었다. 그 세계는 다신 세계였고, 제왕을 포함한 각종 동물과 같은 피조물을 신들로 섬겼던 시대였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교수는 <역사의 연구> ‘제4편 문명의 쇠퇴’에서, 당대의 유대인들이 천부적 재능으로 유일신사상이란 정신적 보물과 탁월성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과도적 단계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절대시하고 우상화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제공한 한층 더 큰 보물을 거절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응보로써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2천년 가까운 세월을, 한때 그들이 괴롭혔던 그리스도교가 국교인 나라들에서, 방랑자처럼 떠돌았다.

작고한 이윤기 신화연구가가 그리스로마신화의 헬레니즘문화와 성경의 헤브라이즘문화를 모르면 루브르박물관에 가봤자 헛것이라고 말한바가 있다<월간중

양 2009년 6월호>. 고대문화의 두 주류였던 이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모르면 유럽문화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을 것이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은 모두 그리스도교의 모형과 그림자였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이들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모두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드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복음을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받아드렸다. 그러므로 20세기 초반을 장악한 유명했던 신학자 루돌프 볼트만이 신약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고대근동과 헬라세계의 영웅적 전기에서 차용했거나 모방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온당치 않다. 그의 이런 주장은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것은 모방이나 차용이 아니라, 옛 것들, 문자적인 것들, 땅의 것들, 일시적인 것들, 잠정적인 것들을 새 것들, 영적인 것들,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 항구적인 것들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보고 참되고 진실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3)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구약이 나빴거나 약한 것이 아니다. 구약시대에는 초신앙의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좋은 신약이 나타날 때까지 잠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좋았을 뿐이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켰다”(엡 2:15).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시켰다”(히 7:18).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히 10:9).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될 것이다”(고전 13:10). “그(그리스도)는 홍하여야 하겠고, 나(노한)는 쇠하여야 하리라”(로 3:30).

합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7장 18절에서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였다”고 했고, 10장 9절에서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관련된 것들을 나쁘다거나 약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즐겨 쓴 “더 좋은 것”이란 표현은 ‘그냥 좋은 것’과 비교해서 ‘더욱 좋은 것’이란 뜻이다. 저자의 이 비교는 총체적으로 ‘더 좋다’가 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여년에 이미 플라톤은 지상의 것 곧 현존하는 것은 하늘의 것 곧 보이지 않는 것의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로 통

니라 최소한 ‘구원에 속한 것에서 더 좋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약의 것들이 구원에 속한 것에서 한층 더 큰 보물로 새로 부각된 것이라면, 구약의 것들은 구원에 속한 것에서 이전시대에 일시적으로 좋은 것에 불과하였다는 뜻이다. 여기서 구약의 것들이 좋은 것이었다는 뜻은 흠이 없거나 완전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것들에 비교해서 탁월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나면 이전에 좋았던 것이라도 더 이상 이전 것을 고집하지 않게 되듯이 새 것으로 인해서 옛 것은 자연스럽게 폐기되고 만다.

옛 것의 상징이었던 세레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따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였다. 세레 요한이 왜 “그분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고 말했는가?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을 지칭한 것으로써 예수님은 그리스도교를 세우신 분이다. 따라서 “그분은 흥하여야 한다”는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교가 흥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나는”은 세레 요한 자신을 지칭한 것으로써 신약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이다. 따라서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세레 요한의 쇠함과 더불어 유대교가 쇠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세레 요한의 이 유명한 말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말이겠지만, 그리스도교 입장에서는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다. 그리고 세레 요한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말은 그대로 성취되었다.

신행일치07: 시련을 견디어낸 자(2)(약 1:17-18)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오디세우스와 세이렌들(Stamnos, ca. 480-470 BC, 대영박물관)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의 섬 이타카의 왕이었다. 트로이 전투에 참전해서
모과계축을 고안하여 트로이 성을 함락시켰으므로 지루했던 10년 전쟁을
종식시킨 영웅이다. 그는 승전소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랐으나 이번에는 거친 바다와 또 다시 10년간 싸워야 했다. 숱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늘 그의 곁을 지켜줬기 때문이다.
그림은 밀랍으로 귀를 막은 부하들이 담담히 노를 젓는 모습과 독대에 걸박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암초)들의 죽음을 부르는 노래에 몸부림치며 반응하는
모습이다. 스타모스는 암포라와 크라테르의 기능을 모두 가진 항아리였다.
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또 성막이나 성전의 성소를 밝혔던 메노라가 필
요 없게 될 것도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
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을”만큼 훨씬 더 좋은 빛이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희망이 처음 성취된 것은 주전 15세기경의 모세
때였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희망의 나라 가나안에 이르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
고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광야사막을 지나 요단강을 건넜다. 이아손의 아
르고 원정대와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바다와 강을 건너기 위해서 배를 띄
우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라진 바다와 갈라진 강을 육지를 걷듯이

계시록의 저자도 21장
22-23절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
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
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했
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
살렘”은 하나님의 성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는 광야 성막시대에서 보
았던,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배치한 이스라엘 12부족
중앙에 설치되었던, 성막이
나 성전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좀 더 구
체적으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건넌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바다 못지않게 거칠고 험난한 광야사막이란 가시밭길이 있었다. 그리고 먼 훗날 그들은 그들의 희망을 주전 6세기경에 바빌론제국에 빼앗겼고, 그리고 다시 먼 훗날 유난히 빛나는 별의 출현을 보고 페르시아의 유대인 박사들이 원정대를 꾸려서, 이아손의 아르고 원정대처럼, 희망을 찾아 나섰던 것이다. 그 별이 바로 주전 5년경에 출현한 메시아별이었다. 그 같은 역사들은 모두가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1)



오디세우스와 세이렌들(그리스 우표, 1983)

오디세우스는 그리스의 섬 이타카의 왕이었다. 트로이 전투에 참전하여 목마게작을 고안하여 트로이 성을 함락시킴으로써 지루했던 10년 전쟁을 종식시킨 영웅이다. 그는 승전소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에 올랐으나 이번에는 거친 바다와 또 다시 10년간 싸워야 했다.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늘 그의 곁을 지켜줬기 때문이었다. 그림은 밀랍으로 귀를 막은 병사들이 담담히 노를 젓는 모습과 독대에 걸박된 오디세우스가 세이렌들의 죽음을 부르는 노래에 동요함치 않고 반응하는 모습이다.

〈오디세이아〉(주전 8세기)는 트로이전쟁을 마치고 고향 땅을 찾아 고난의 길을 떠난 오디세우스의 항해이야기이다. 오디세우스는 숏한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전쟁터에서 10년과 고향으로 향하던 바다에서 10년을 보낸다. 이 영웅이 20년 만에 고향땅을 밟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신 아테나의 자비를 입었기 때문이다. 아테나는 ‘멘토르’로 변신하여 오디세우스에게 나타나 그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격려하였다. 아테나 역시 그리스로마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

님의 예표였다.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시대에 신화를 만들고 신봉했던 그리스로마인들은 복음을 접한 후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아온 사람들이다.

아이네이스(주전 1세기)는 트로이패망 때 아이네아스가 신들의 계시를 따라 소수의 트로이인들을 이끌고 새로운 트로이건설을 위해서 미지의 땅을 찾아 험난한 길을 떠난 트로이인들의 항해이야기 또는 로마건국이야기이다. 그들은 조국 트로이가 멸망한 이후 7년이란 시간을 험난한 바다와 싸워야 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신뢰한 수호신들의 자비를 입어 새 땅에 정착하여 로마를 건국하기에 이른다.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은 스토아철학의 영향으로 자신의 몫으로 태인 숙명의 십자가를 받아드리는 동시에 그 숙명을 수호신들에 의지하여 잘 감당하려고 했다.

그런 그들을 격려한 글이 그리스로마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의 이야기이다. 성경도 고난을 겪는 신앙인들에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격려와 응원과 권면의 글들이다.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2)



오디세우스(율리시스)와 세이렌들(1909년, 허버트 제임스 트레이퍼)
그리스 시인들은 선악과나무(창세기)를 휘감고 있던 뱀을 영생을 주는 선악과를 지는 뱀으로 이해한 듯하다. 그리스신화에서 아레스의 숲의 금양 모피를 지는 자나 헤라의 정원의 황금사과를 지는 자를 뱀으로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반면에 르네상스시대에는 선악과나무에 상주한 뱀을 여인으로 형상화했다. 화가 허버트 제임스 트레이퍼도 뱀사람들의 뱀을 뱀에 갖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이렌(악초)들을 인어들로 형상화했다. 오디세우스는 수호신들(아테나, 키르케)의 도움으로 이 유혹을 이기게 되었고 고향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다. 갈릴리 호수 이야기에서 보듯이,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바는 교회로, 뱀사람들(제사장)은 그리스도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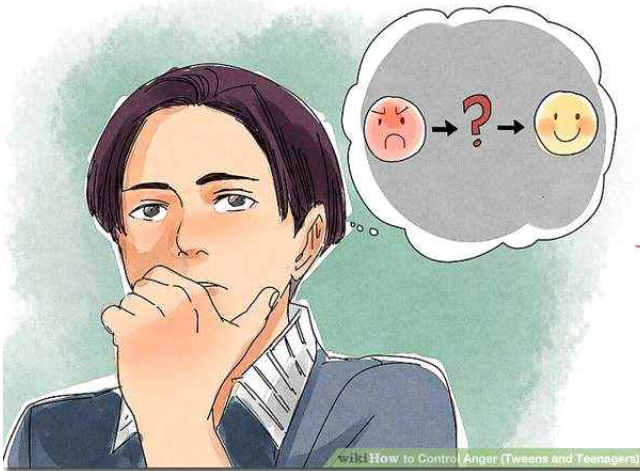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테나가 영웅들에게 능력을 덧입히기도 하였다. 헤라클레스에게는 스팀팔로스 숲의 새를 쫓을 수 있도록 청동으로 된 딱따기를 만들어주었고, 페르세우스에게는 메두사의 목을 벨 수 있도록 칼과 방패를 주었으며, 벨레로폰에게는 하늘을 나는 페가수스를 잡아타고 괴물 키마이라를 물리칠 수 있도록 황금고삐를 주었다. 이처럼 그리스 신화에서는 영웅들이 신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그 은혜 가운데서 영웅이 될 수 있었다. 조상대대로 수백년 이어져온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고 이스라엘 나

라를 세울 가나안땅을 향해서 역경의 길을 떠난 히브리인들을 인도한 것은 구름기둥이었다. 여기서 여신 아테나로 의인화된 지혜나 하나님의 쉼기나였던 구름기둥은 모두 삼위일체의 성령 하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또 성령님의 인도, 위로, 격려, 능력 덧입힘 속에서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했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다. 또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딜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스 시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나무를 휘감고 있던 뱀을 영생을 주는 선악과를 지키는 용으로 재해석한 듯하다. 그리스신화에 금양모피를 지키는 자나 헤라의 정원에 있는 황금사과를 지키는 자를 용으로 표현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르네상스 시대에는 선악과나무에 상주한 뱀을 여인으로 형상화시켰다. 위의 그림에서도 화가는 배를 파선시키고 뱃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암초(세이렌)들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는 인어들로 형상화하였다. 뱃사람들의 세이렌에 얽힌 이야기는 항구 주변의 흥등가뿐 아니라 삼손과 들릴라(Delilah)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아무튼 오디세우스는 치명적인 유혹과 싸워 이겼고, 수호신의 은총으로 끝내 고향땅을 밟았다.

신행일치08: 말씀을 들음과 행함(I)(약 1:19-20)

“듣기는 속히 하고”



화가 낼 때는 감정을 추스를 방법을 생각해 본다.

말과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행동이 중요하다.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는 말씀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과 같다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나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나와 상대방은 피차 불편한 관계가 되고, 이 불편한 관계가 서로에게 수치심과 미움을 낳게 만들고 그 나쁜 감정의 층이 커져이 쌓이게 하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들 사이에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에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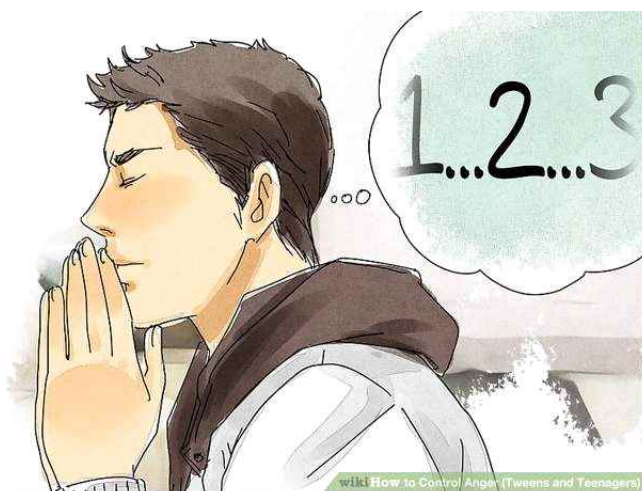
그러므로 말과 행동을 가려서 해야 한다. 특히 말에 조심해야 한다. 이왕이면 좋은 말, 격려와 용기가 되는 말, 응원하는 말을 골라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말보다는 가급적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 혼자서만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내 생각만 옳다거나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 비난하는 말,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오만한 자들을 신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생각했고, 신들은 반드시 그런 자들을 보유했다고 믿었다.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 제노(Zeno, 335BC-263BC)는 말하기를,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뿐인 입을 갖고 있다. 이것은 듣고 또 듣데 말은 적게 하라는

19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는 말씀은 말과 행동에 조심하라는 권면이다. 말과 행동에서 말은 “말하기”에, 행동은 “듣기”와 “성내기”에 해당된다.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이겨도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뜻이다.”고 했다. 한자로 청(聽)은 귀 이(耳)와 임금 왕(王), 그리고 열십 십(十)과 눈 목(目) 그리고 한 일(一)과 마음 심(心)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은 큰 귀와 열 개의 눈 그리고 하나의 마음을 뜻한다. 귀는 크게 열고, 눈은 넓게 열 되, 마음은 하나여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또 “신은 인간에게 두 개의 귀와 하나의 혀를 주셨다. 인간은 말하는 것의 두 배만큼 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말하기는 더디 하며”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하면서 숫자를 세어본다.
이 있다.”고 하였다.

외경 집회서 5장 11-13 절은, “듣기는 빨리하고 대답은 신중히 하여라. 네가 이해했거든 이웃에게 대답 하여라. 그러지 못했거든 손을 입에 얹어라. 영광과 치욕은 말에 있고 인간의 혀는 파멸이 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잠언 29장 20절도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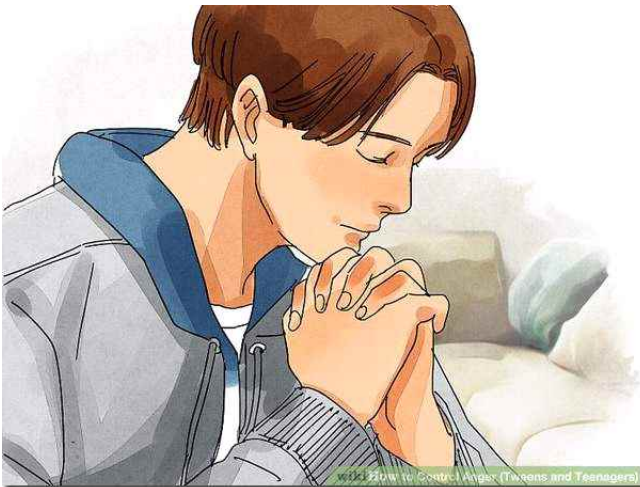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1907-1978)는 야고보서 주석에서 말하기를, 현명한 사람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싫어하는 것의 위험성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했다. 그는 듣기와 말하기에 관련해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다. 첫째는 빨리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얻은 것을 빠르게 내버리는 사람이라고 했다. 둘째는 천천히 듣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얻은 것이 많아서 내버린 것을 상쇄시킨다고 했다. 셋째는 빨리 듣고 천천히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현명한 자라고 했다. 넷째는 천천히 듣고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최악이라고 했다.

윌리엄 바클리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다. “사소한 것에 화내거나 조바심을 갖지 않게 하시며...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른 사람과 당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하옵소서. 내게 뛰어난 감각을 주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 주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중원대학교 유경미 교수는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이란 글에서 “듣는 것이 에너지다. 듣는 것이 사랑이다... 듣는 것은 보는 것이다. 듣는 것이 기쁨

이다.”고 했다. 대화할 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자기를 비우지 못하기 때문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또 유경미 교수는 경청하는 태도로써 다섯 가지를 말했는데, 첫째는 귀담아 듣는다. 둘째는 도중에 차단하지 않는다. 셋째는 판단하지 않는다. 넷째는 반응을 보이면서 듣는다. 다섯째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든다고 했다. 또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고, 입으로 듣는 네 가지 경청공식을 말했는데; 첫째, 귀로는 소리를 듣고 내용을 파악한다. 둘째, 눈으로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듣고 감정을 파악한다. 셋째, 가슴으로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의도를 파악한다. 넷째, 입으로는 재구성하면서 듣고 재 진술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듣는다고도 했다.

“성내기도 더디 하라”



화가 날 때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드린다.

본문에서 ‘성내기’의 헬라어는 ‘오르게’(ὀργή)이다. 충동, 분노, 걱정 등을 나타낸다. 성을 낸다는 것은 화가 있다는 뜻인데, 화는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스트레스성의 분노이다. 돈이나 권력 또는 명예를 얻기 위한 다툼에서 밀려난 사람들 가운데 화가 많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화병에 걸릴 이유가 없고, 또 걸렸더라도 고칠 수 있다. 반면에 매사에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그로 인해서 원망과 질투와 시기가 많아지면 평생 화병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다.

그리스신화에도 성내기로 인한 불행한 사례가 나오는데 헤라의 분노와 헤라클레스(알키데스)의 분노가 그것들이다. 헤라의 분노는 유한한 인간 여인 알크메네의 몸에서 태어난 헤라클레스(알키데스)가 영존한 신인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보다 더 위대하게 되리라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치욕으로 생각했고, 그 분노가 헤라클레스를 끝없이 괴롭힌 원인이었다. 그로 인해서 헤라클레스의 일생은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길을 속명으로 알고 참아내야 했다.

헤라클레스가 델포이 신탁소에서 받은 아폴론의 신탁은 본명인 알키데스 대

신에 헤라의 영광이란 뜻을 가진 헤라클레스로 개명하라는 것과 티린스의 영주인 에우리스테우스(*Εὐρύσθευς*)가 내리는 12가지 과업을 잘만 수행하면 신들의 대전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헤라클레스가 고난의 길을 걷게 된 데에는 자기 자신의 광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헤라클레스가 수행한, 인간이 수행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들은 자신에게 분노하는 헤라의 광기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광기를 다스리고 치유하는 수행과정이었다. 신화는 헤라클레스가 광기에 사로잡힌 것은 헤라의 질투 때문이었다는 말도 있다. 그 광기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활을 쏘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다.

우리 각자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치유하는 수행과정일는지 모른다.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였다. 성내기는 자기중심적 광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플라톤은 이런 육체적 광기를 신앙이나 학문 혹은 예술을 통해 정신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야한다고 말했다.

신행일치09: 말씀을 들음과 행함(2)(약 1:21-27)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는 더러운 옷을 벗어 던져 버리듯이 성내기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들을 버리라는 뜻이다. 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마음 밭에 심겨진 영혼을 살릴 말씀의 씨앗을 남에게 빼앗기거나 싹을 틔운 후 말라죽게 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라는 권면이다.

이 권면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곧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운 길 가에...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더러운 가시떨기에...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비유와 맥을 같이 한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에서 마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밭이고, 온유함은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좋은 밭인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네 종류의 마음 밭이 나온다.

첫째, “길 가” 마음 밭을 가진 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천국복음의 씨앗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람에 낙엽이 날리듯,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치우듯,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듯, 천국을 빼앗기는 자들이다.

둘째, “돌밭” 마음 밭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이다.

셋째, “가시떨기” 마음 밭을 가진 자들은 말씀을 듣고서 깊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

실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넷째, “좋은 땅” 마음 받을 가진 자들은 영의 눈이 열려 만물을 밝히 보는 자들이요, 귀먹고 어눌한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한 자들이다. 이 범주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 아니라,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를 맺는 자”들이다. 이들은 또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여 백 배,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결실을 거두는 자들이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스웨덴에서 한 여성이 입에 재갈을 물고 워터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서먼지 체포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2010년말)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오랜 기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워 예수님의 팬이 되었으나 제자가 되지 못한 자에 해당된다. 또 이 사람은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에 해당된다 (약 4:17).

23-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써 자신의 얼굴을 희미한 청동거울로 보는 사람에 비유했다. 청동 거울이 희미했던 만큼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본 사람의 기억도 희미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마치 말씀의 씨앗이 길 가나 돌밭 또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 끝내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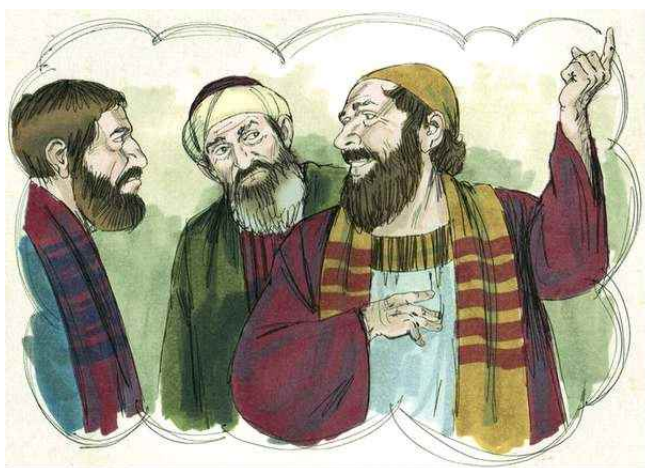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 놓으신(렘 31:33) 새 언약 곧 복음을 말한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는 말씀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이, 말씀을 자기 욕심이나 필요를 채울 혹은 이익을 위한 조건이나 수단으로 받거나하여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과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규범으로 받아 아무리 희생이 크더라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한다.

마태복음 8장 18-27절에서 예수님은 천국까지 동행하는 무리(伴天連)에 합류 곧 교회라는 배에 오르는 제자가 되어 건너편(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

처도 머리 둘 곳도 없는 떠돌이의 삶과 폭풍 같은 박해까지도 각오해야한다고 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가 심겨지는 밭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스도교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삼십 배, 육십 배, 백배까지 결실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하면, 복음의 씨앗을 받는 순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는 굳어진 심령의 불신자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의 단물인 감동만 빨아먹고 믿음의 단련인 시련의 쓴물은 내뱉어버리는 포기자도 있으며,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에 짓눌려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 허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허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에 잇대어져 있다. 이들은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킬 뿐 아니라, 하루에 세 번 오전 오후 저녁에 기도회에 참석하고, 매일 100여개의 기도문을 낭송하며,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고, 십일조도 철저히 바쳤다. 그들은 모세의 심판석에 앉는 자들로서 가난한 자들과 세리들과 창기들과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여 무시하고 경멸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 난채 하는 자, 높은 자리와 섬김 받기를 탐하는 자,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선 자, 교인을 오히려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 자, 화를 당할 자,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자, 눈은 있지만 소경인 자,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

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할 자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책망하셨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회개한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에 대입하는 일을 잘하는 반면에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에 대입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역할을 좋아할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든지, 믿음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과 자기우상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 중에도 자기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은혜를 받았다는 점에서 보면, 세리와 창기와 죄인의 역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맞고 또 필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충고하셨고(마 6:8, 23:3), 바울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본받으라(살전 1:6, 롬 15:4, 고전 11:1, 빌 3:10, 엡 5:1, 딤후 1:13)고 권면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2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고 하였다.

신행일치0: 말씀을 들음과 행함(3)(약 2:1-7)

“영광의 주”



로마황제 비텔리우스(Aulus Vitellius, 69년 4-12월)의 데나리온
전면에 월계관을 쓴 아우루스 비텔리우스 게르마니쿠스 황제 호민관
(VITELLIVS GERMANICVS IMP TR P)의 두상을 새겼고,
뒷면에 권좌에좌정한 승리자 유피테르(IVPPITER VICTOR)가
오른손에 여신 승리를, 왼손에 홀(권력의 상징)을 쥐고 모습을 새겼다.
이것이 1세기 그리스-로마인들의 지존에 대한 이미지였다.

을 결정지을 권한은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예들은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둘째는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자 아버지였고, 부인과 자녀들은 가장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가장의 주도권에 얽매어있었다. 따라서 가장은 부인과 자녀들의 주인이었다.

셋째는 황제가 백성의 주인이었다. 신성을 주장했던 황제들은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혹은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이란 표현을 자신들의 두상이 새겨진 주화에 새겨 넣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로마제국에서 뿐 아니라, 고대 근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황제의 신성이나 숭배가 가능했던 것은 당대에는 다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신들의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 황제신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해서 문제가 될게 없었다. 당대에 발행된 주화들에 새겨진 문구들을 볼 때, 황제들은 국가와 시민의 보호자(PR VINDEX), 대중의 희망(Spes PVBLICA), 영원한 왕(PRINC PERP), 공정한 통치자(AEQUITAS AVG), 행복(FELICITAS)과 자유(LIBERTAS)와 풍요와 행운(TYCH)과 운명(FORTVNAE)과 평화(PAX, PACI)와 승리(NIKE)를 가져다주는 자, 국가와 백성의 수호신(THEOS, DEUS), 만왕의 왕(BASILEUS BASILEON), 만주의 주(KYRIOS KYRION), 평화의 왕(BASILEUS EIRENES), 신의 아들(DIVI FILIUS), 신의 현현(THEOU EPIPHANOUS)이었다.

이런 준엄한 시기에 “신은 한분뿐이요, 주도 한분뿐이다.”를 주장했고, 각종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영광의 주”란 표현은 당대의 그리스-로마의 사회상에 잇대어져 있다.

첫째는 주인과 노예의 개념인데, 당대에는 대다수의 노예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힌 자들이었거나 그 노예들의 자녀들이었다. 스스로 된 노예든, 강제에 의한 노예든 노예들의 운명

신상들과 신전들 및 제단들을 부정할 뿐 아니라, 황제숭배를 거부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당국의 대접이 어떠했겠는가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다. 본문에 표현된 “영광의 주”란 당대의 신들과 황제들에게 적용됐던 말인데, 야고보를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당국의 박해를 무릅쓰고 이 표현을 오직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십자가에 못 박힌 성자와 성령께만 적용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비잔틴시대의 주화(AD 976-1025, 콘스탄티노플)
전면에 복음서를 가슴에 품고 계신 그리스도의 상반신을 새겼고, 두상 배후에 십자가 후광을 좌우 어깨 위쪽에 예수 그리스도(IC XC)라고 새겼다.
뒷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IHESUS XPISTUS BASILEU BASILE)이라고 새겼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과 복음으로 만왕의 왕 승리가 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지존에 대한 이미지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이 야고보의 권면이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민족성별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음을 강조한 복음정신과 동일한

맥락에서 야고보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하나님 한 분외에는 모두가 동등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형제자매이다.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을 “내 형제들아”라고 부른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이런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동일한 가족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를 자들이라고 믿었다. 그리스도교는 이 형제애와 평등사상으로 대 로마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등사상은 바로 이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후 69년에 주조된 로마황제 비텔리우스(Aulus Vitellius, 69년 4-12월)의 테나리온을 보면, 전면에 월계관을 쓴 아우루스 비텔리우스 게르마니쿠스 황제 호민관(VITELLIVS GERM IMP TR P)의 두상을 새겼고, 뒷면에 권좌에 좌정한 승리자 유피테르(IVPPITER VICTOR)가 오른손에 여신 승리를, 왼손에 홀(권력의 상징)을 쥔 모습을 새겼는데, 이것이 1세기 그리스-로마인들의 지존에 대한 이미지였다. 그러나 비잔틴시대의 주화(AD 976-1025, 콘스탄티노플)를 보면, 전면에 복음서를 가슴에 품고 계신 그리스도의 상반신을 새겼고, 두상 배

후에 십자가 후광을, 좌우 어깨 위쪽에 예수 그리스도(IC XC)라고 새겼으며, 뒷면에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IhSUS XRIStUS bASILEU BASILE)이라고 새겼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과 복음으로 만왕의 왕 승리자가 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지존에 대한 이미지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가 되신 것은 세속적 권력과 권세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희생과 자기권한의 제한과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동일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성취하신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와 자매가 되었으므로 피차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서 2장 2-7절은 헬라인들의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교회 분위기를 보여준다. 복음서의 정황에 비춰볼 때, 2절의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는 부유한 유대인들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금가락지는 부의 상징일 뿐 아니라, 그것을 낀 사람의 인장일 가능성이 크다.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눅 20:46) 사람들일 수 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지목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며 “멀리하라”고 권면하셨다(막 12:39, 눅 11:43).

3-4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에서 “눈여겨보고”는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우러러 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반면에 “내 발등상 아래에”는 무시와 무관심으로 경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에서 “가난한 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야고보는 예루살렘교회의 기둥 장로였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갈 2:10)고 특별히 부탁했는데 예루살렘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예루살렘교회에 에비온파(Ebionites)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들’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는 말씀은 상황적으로 혹은 문맥적으로 이들 예루살렘교회의 가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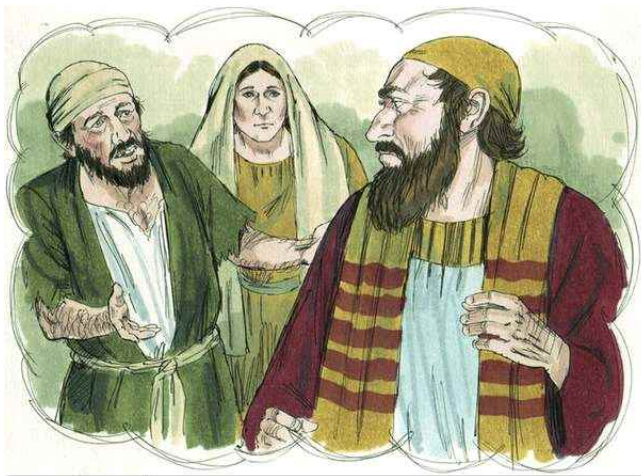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최우선순위로 지칭한 말이다.

6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에서 법정은 회당 또는 교회를 말한 것일 수 있다. 1세기 교회들은 유대교 회당의 전통에 따라 세 명의 장로들을 장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교 회당에는 세 명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들은 회당장과 지방공회원(지방재판장)을 담당했는데, 1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이런 유대교 전통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7절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에서 “그 아름다운 이름”은 ‘예슈아’ 혹은 예슈아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히브리서 1장 4절은 예수님께서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고 했고, 이사야 62장 2절은 “여호와와 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 예언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에서 성취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신행일치III: 말씀을 들음과 행함(4)(약 2:8-13)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약 2:1).

8-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야고보는 최고의 법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도 최

고의 법을 ‘사랑’이라고 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셨다(마 22:35-40, 막 12:28-31).

십계명은 두 개의 계명으로 압축 된다. 제1-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제5-10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을 ‘죄’라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것을 ‘허물’이라 일컫는다. 대체로 속죄제(贖罪祭)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바쳤고, 속건제(贖愆祭, 愆=허물)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한 허물을 사함받기 위해서 바쳤다.

유대교인들은 모세오경에 613개의 계명이 담겼다고 말한다. 이들 중 248개는 ‘~하라’는 계명들이고, 나머지 365개는 ‘~하지 말라’는 계명들이라고 한다. ‘~하라’는 248개(유대교인들은 남성의 뼈마디 숫자가 248개라고 말한다.)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이고, ‘~하지 말라’는 365개(한 해의 총 날 수)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한 것이 ‘허물’이다. 그리고 이들 613개의 계명들을 압축한 것이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이 결국 하나인 셈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사랑

하지 못한다. 분명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점이다. 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약 2:2-4).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점은 친구 약성경이 동일하다.

시편 41장 1절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여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실 것이다.”고 했고, 113장 7-8절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삼상 2:8)고 했으며, 잠언 17장 5절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라고 하였다. 반면에 잠언 19장 17절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하였다.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롬 2:11, 고후 5:12, 갈 2:6, 엡 6:9, 골 3:25, 벰전 1:17).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행동을 하면 허물이 된다.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허물이 된다. 잠언 17장 5절과 19장 17절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이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고 하였다.

10-13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에 잇대어진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롬 1:18, 3:20). 유대교인들은 율법과 규례 곧 613개의 계명들과 그 계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수많은 율타리법들(Gezairoth)까지 지켜야하는데, 아무리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다할지라도,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들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군가 완전하신 분이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마침이 되실 필요가 있었다(롬 10:4). 그래야 그분을 믿고 신뢰함으로 의(義)에 이를 수 있고(롬 10:4, 9-13),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롬 8:4)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목 7미터의 깊은 계곡을 뛰어 넘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8미터 정도까지 멀리 뛸 수 있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부족한 존재라서 그 같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비록 어떤 사람이 멀리 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6미터를 뛰었다 해도 살아남을 수 없지는 마찬가지이다.

야고보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고, 바울도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폭 7미터의 깊은 계곡을 뛰어 넘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8미터 정도까지 멀리 뛸 수 있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부족한 존재라서 그 같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비록 어떤 사람이 멀리 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6미터를 뛰었다 해도 살아남을 수 없지는 마찬가지이다. 6미터를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6미터를 율법의 행위로 간주할 때, 그 율법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성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모든 율법과 규례의 최고의 법인 사랑(공화)을 실천하라고 권면하였고, 바울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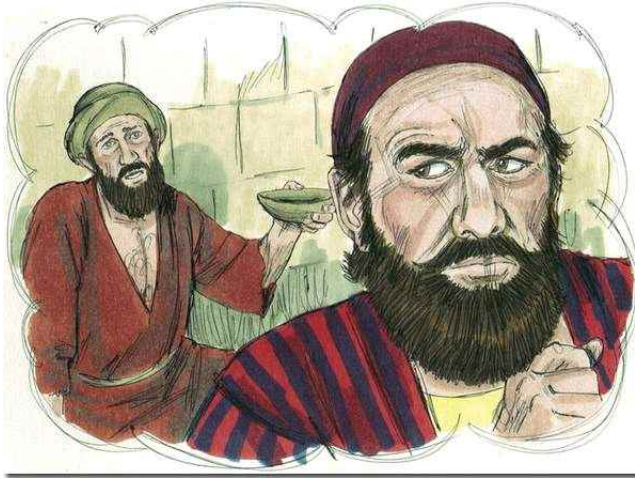
위에서 숫자 6(혹은 666=사람의 수)은 영적인 피조물(천사, 마귀, 사람) 혹은 율법을 상징하고, 숫자 7(혹은 777)은 완전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며, 숫

자 8(혹은 888='예수'의 수치)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혹은 넘치는) 십자가의 도(케뤼그마=복음)와 예수님을 상징한다. 여기서 인간은 무능해서 아무 선행도 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7중에 최고로 6까지도 가능하지만, 그 하나의 부족 곧 마이너스 1(-1)이 결국 가능했던 6을 무효화시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야고보와 바울의 권면은 모든 율법과 규례를 100퍼센트 완벽하게 지켜야한다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법인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12-13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공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은 로마서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다.”고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義)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야고보의 사랑(공흠)의 행위와 바울의 믿음의 의는 모두가 하나님사랑을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신행일치2: 행함이 없는 믿음(1)(약 2:14-26)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혈병고 일종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덩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약 2:15-17)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글이다. 바울이 강조한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으로써 죄인에게 요구되는 믿음이고,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순종과 성화를 위한 믿음’으로써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 바울도 서신서들에서 그 대상이 이미 구원을 약속받은 신자들일 경우에는 반드시 선행과 성

결을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목적은 선행을 위한 것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말하였고,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7장 4절에서 강조하였다.

죄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영생을 약속하신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며 살아 있는 자들의 몸에 신령한 변화가 생기기까지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현재 구원은 약속이기 때문에, 현재구원은 영적이기 때문에 또 육체의 본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육체의 죄성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죄악이 만연(蔓延)한 세상도 그대로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고 불렀다.

구약성경 39권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일컫는 유대교인들을 위해서 쓰였다. 신약성경 27권은 새 언약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였다. 그런데도 성경의 큰 주제는 “회개”이고, 회개하면 회복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성경이 회개를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십계명 1-4계명과 “~을 하라”는

248개의 계명들을 범한 것이요, 허물은 이웃에게 대한 십계명 5-10계명과 “~을 하지 말라”는 365개의 계명들을 범한 것을 말한다. 죄의 사함을 위해서 속죄제를 바치거나 허물의 사함을 위해서 속건제를 바치거나 혹은 죄와 허물의 사함을 위해서 회개해야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대로 살지 아니한 행위 때문이다. 따라서 14, 17절,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에서의 믿음은 사랑의 행위가 없는 믿음을 말한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22장 37-40절에서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고 하셨다. 또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다. 이들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사랑과 계명이 하나요. 사랑과 믿음도 하나요. 믿음과 계명도 하나이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이

것이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야고보서는 총 108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 절반인 54절이 명령으로 되어 있다. 두절 가운데 한절이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다. 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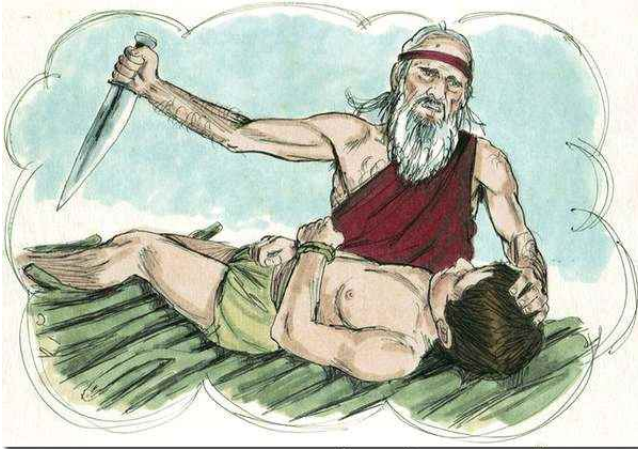
첫째는 하나님께 관한 것이다. 4장 7-8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였다. 10절에서는 “주 앞에서 낮추라”고 하였고,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다.

둘째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여기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한다. 1장 22절에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다. 1장 25절에서는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다. 2장 17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였고,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4장 17절에서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고 하였다.

셋째, 사랑에 관한 것이다. 2장 1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하였고, 8절에서는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하였다. 4장 11절에서는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고, 5장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하였다. 또 1장 26절에서는 자기 혀를 재갈 먹이라고 하였다. 3장 2절에서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였고, 4-5절에서는 작은 키(rudder)로 큰 배를 조종하듯이,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세치 혀는 무서운 것이라고 했다. 3장 6-8절에서 “혀는 곧 불ियो, 불의의 세계라... 쉬지 아니하는 악ियो,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였다. 세치 혀의 놀림이 형제나 자매에게 주는 해악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하였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 2:21)

넷째, 소망 중에 인내로 하라는 것이다. 1장 2절에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였고,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였으며, 12절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5장 7-8절에서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였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였다.

하나님께 관한 것, 믿음에 관한 것, 사랑에 관한 것, 인내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명들에 관계된 것들이고, 순종에 관한 것들이며, 행위와도 연관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의 실천적 행위 곧 사랑과 긍휼의 행위로써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18절에서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한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다. 험뵈고 있는 사람에게 “뭘 좀 입으세요.”라고 말하고 입을 옷을 주지 않는다든지,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뭘 좀 잡수세요.”라고 말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험뵈고 굶주린 사람에게 그 같은 말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사랑이나 긍휼의 행위가 없는

믿음에 역사하는 무슨 힘이 있을 리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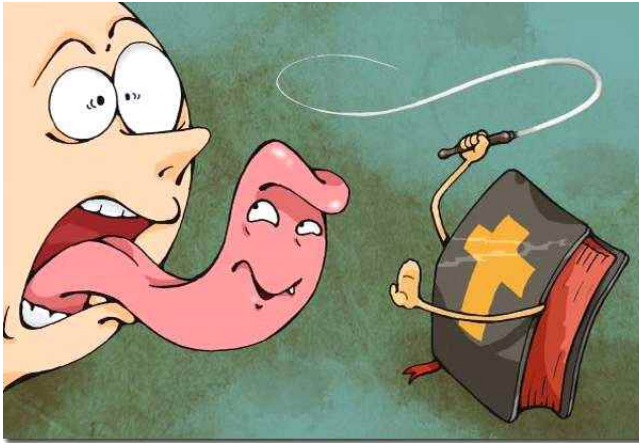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얻은 외아들조차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제물로 바칠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 같이 무모한 일을 하고자했을 리가 없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만한 제사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였다. “의인의 간구에 역사하는 힘이 큰”(약 5:16)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엔 응답이 없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과 긍휼의 행위로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복을 받기가 어렵다. 믿음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는 믿음에 역사하는 힘이 있을 리가 없다. 야고보가 5장 16절에서 말한 “의인의 간구”에서 의인은 하나님과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반면에 행위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행위가 이익의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를 문제 삼았던 것은 그들의 행위에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몹시 교만했고, 소외계층의 사람들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신행일치3: 행함이 없는 믿음(2)(약 3:1-8)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약 3:1-2)

야고보서 3장 1-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하였다. 이 구절은 “능히 온 몸에 굴레”를 씌워 말에 실수가 없고 온전한 자라야 선생의 자격이 있다는 말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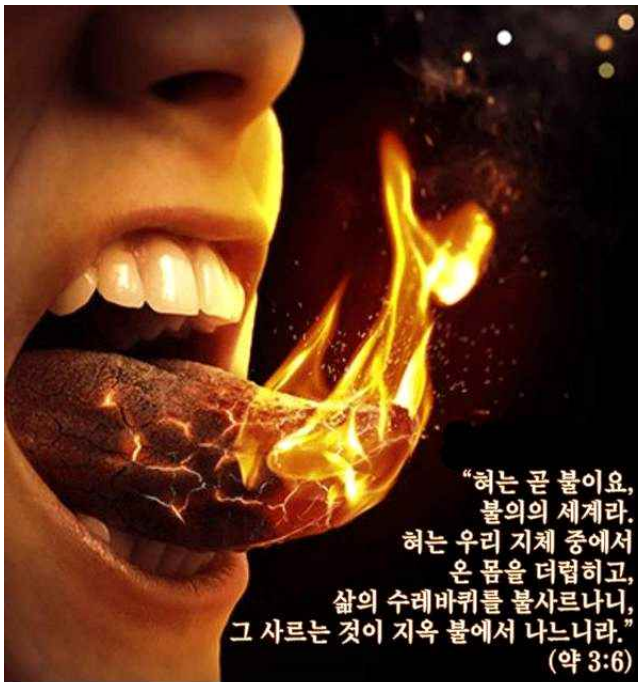
다. 또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자인만큼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책임도 작지 아니하니 선생이 되기를 조심하라는 말씀이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 8-1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다.”고 하였다. 여기에 언급된 랍비, 아버지, 지도자는 모두 선생을 말한다. “랍비”는 히브리어로 선생이란 뜻이고, “땅에 있는 자”와 “아버지” 역시 선생을 뜻한다. 가톨릭사제를 신부라 부르듯이 일찍이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왕하 2:12, 6:21, 13:14),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랍비들을 아버지라 부르곤 하였다. 바울도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와 같은 제자들을 아들이라고 불렀다(딤후 1:2, 18, 딤후 1:2, 2:1, 딤후 1:4, 몬 1:10).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잠 16:5). 교만한 자의 문제점은 오류와 실수를 피할 수 없는 유한한 피조물인 주제에 남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려 드는 것이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데 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충고였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예수님은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마 23:2)고 하셨는데, 이들이 모세가 전한 율법(Torah)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Rabbi)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강론할 때 앉았던 의자가 ‘모세의 자리’였다. 회당에서 ‘모세의 자리’는 율법을 담은 법궤가 놓인 서편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커튼 앞 회중을 마주보고 앉는 강단(Bema)에 있었다. 이 의자에 앉아서 율법사들이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의 성문법(Torah)과 구전법(Mishnah)을 가르쳤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첫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첫 기록 토라를 주셨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장로들을 통해서 구전 율법을 주셨다고 믿는다. 이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출애굽 직후 처음 100년간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및 장로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주전 200년까지 약 1000년간은 선지자들과 학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며, 주전 200년부터 예수님 때까지 약 200년간은 학문과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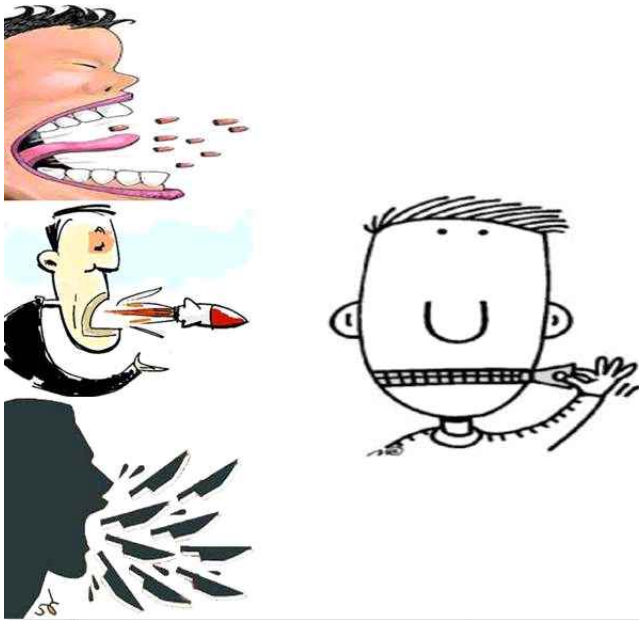
에 있어서 쌍벽을 이뤘던 다섯 쌍(Zugot)의 가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후 첫 200년간은 선생들(Tana'im)을 통해서, 그리고 주후 200-500년까지 약 300년간은 해석자들(Amora'im, 낭송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믿고 있다. 예수님의 직전 세대인 힐렐과 샴마이가 마지막 ‘주고트’이고, 교회가 창립되고 신약성경이 기록된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는 ‘타나임’이라 불린 선생들의 활동 초창기였다.

야고보는 혀를 말과 배와 불에 비유하였다. ‘마력’(馬力)이란 말에서 보듯이, 말은 달리는 힘과 짐을 끄는 힘이 크고, 큰 배는 수송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아무리 말의 힘이 강하다고 해도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 없고, 말을 제어할 기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또 배가 아무리 수송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배를 조종할 작은 키와 기술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고대 헬라 작가들에 따르

면, 말에 있어서의 재갈은 연상적으로 배의 키에 비유되곤 하였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3-4절에서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고 했고, 5-6절에서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고 하였다.

톨스토이의 민화들 가운데 <불을 놓아두면 끄지 못한다>가 있다. 톨스토이가 말한 불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지만, 야고보가 말한 불은 ‘혀’이다. 불이든 혀 놀림이든 놓아두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되고 결국 잿더미만 남게 된다.

“혀는 ...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약 3:7-8).

7절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를 입증하는 동영상은 2020년 9월 초에 나돌았다. 이 동영상에는 당나귀, 젓소, 염소, 사자, 개, 거위, 바다표범, 닭, 고양이, 돼지, 물고기, 칠면조, 코끼리, 송아지, 산양, 말, 고래, 돌고래 등이 사람에게 안기고 애무하며 교감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나온다. 또 영화 <아름다운 비행>에서는 인간과 기러기들이 교감하는 장면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이 영화에서 길들여진 기러기들이 모터글라이드와 함께 비행하는 장면은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필자도 소년시절에 때까지 새끼를 잡아 길들였고 성체가 되면 날려 보내곤 했었다.

8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를 입증하는 사례가 인터넷공간에 널려있다. 오늘날에는 사람의

혀를 대신하는 것이 ‘땃글’이다. 선한 땃글이 없지 않지만, 비난과 험담을 일삼는 악성 땃글이 만연(蔓延)하다. 이로 인해서 자살한 젊은 연예인들(설리, 구하라, 유니, 정다빈, 최진실 등)이 많다.

혀가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시상하부의 본능을 통제할만한 전전두엽(초자아)이 인성교육으로 발달되었다면, 그 사람의 혀는 잘 길들여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쏟아낼 것이다. 반면에 인성교육의 결핍으로 전전두엽(초자아)이 발달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혀는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성을 품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언어는 긍정의 언어이다. 하나님은 직면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현실 앞에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이 생겼고, 결과도 보시기에 좋았다. 그 이유는 흑암이 변하여 빛이 되었고,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되었으며,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생명체에게 절대필수인 ‘빛’의 창조는 살림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에서 비롯되었다. 살림의 언어,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에 문제해결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적은 긍정의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언어습관을 본받아야 한다.

신행일치4: 행함이 없는 믿음(3)(약 3:9-18)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이것(해)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약 3:9-10).

9-12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을 나무라는 말씀이다. 이 이중성은 위선과 외식으로 나타나곤 한다. 예수님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중성을 심하게 책망하신바가 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613개의 계명들과 수많은 율타리 법들을 사랑하고 또 눈물겹도록 철저하게 지켰지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눅 18:9)이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 높은 자리와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자,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선 자, 교인을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자, 외식하는 자, 정의와 공훈과 믿음을 버린 자, 맹인 된 인도자,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이었다(마 23장).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이들이 없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람을 통해서 이뤄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행하는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헐뜯고 저주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같은 입으로 찬송도 하고 남을 비방도 하고 저주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단 물과 쓴 물을 낼 수 없

듯이,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듯이, 잔물이 단 물을 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 해를 당할 확률은 줄어들고 반면에 받을 복은 커진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은혜를 입히기도 하고, 은혜를 입으면서 살게 되면 마음에서 감사와 자긍심의 물결이 넘실거리게 된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것(혀)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약 3:9-10).

13-14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자기 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말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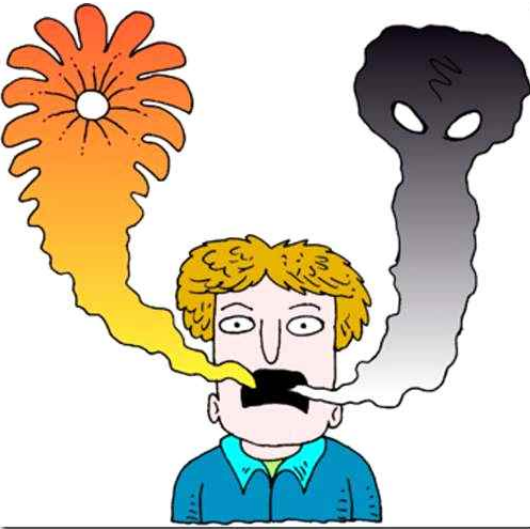
당나라 말기에 23년간이나 재상의 자리를 지킨 풍도(馮道,

882-954)라는 정치인이 있었다. 풍도는 자수성가한 인물로서 난세의 격랑 속에서 후당, 후진, 요(遼), 후한, 후주의 다섯 왕조에 여덟 성씨, 열한명의 군주를 차례로 섬기며 재상의 지위를 굳건히 지켰다. 풍도는 ‘설시’(舌詩)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口是禍之門),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舌是斬身刀). 입을 봉하고 혀를 깊이 감추면(閉口深藏舌),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安身處處牢).” 이 시는 풍도 자신이 성공한 비결이 바로 입과 혀를 잘 다스린데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말들이 명심보감에도 나온다. “입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도끼요, 말은 혀를 베는 칼이니, 입을 막고 혀를 깊이 감추면, 가는 곳마다 몸이 편안하리라”(口是傷人斧 言是割舌刀 閉口深藏舌 安身處處牢)고 하였고, “군평이 가로되, 입과 혀는 재앙과 근심의 문이요, 몸을 망치는 도끼이다.”(君平曰 口舌者禍患之門 滅身之斧也)고 하였으며,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말은 따뜻하기가 솜옷과 같고, 사람을 해치는 말은 날카롭기가 가시 같아서 한 마디 말로 사람을 이롭게 함은 값어치가 천금과 같고, 한 마디 말로 사람을 해침은 아프기가 칼로 베이는 것과 같다.”(利人之言 煖如綿絮 傷人之語 利如荊棘 一言利人 重值千金 一語傷人 痛如刀割)고도 하였다.

석가모니(부처)도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고, “혀를 지켜라. 맹렬한 불길 이 집을 태워버리듯 입을 삼가지 않으면 입이 불길이 되어 온몸을 태우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이밖에도 말에 대한 격언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혀 아래 도끼가 들었다,” “말로 천 냥 빚을 갚는다,” “웃자고 한 말에 초상난다,” “세치 혀가 사람 잡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세치 혀가 백 명의 군사보다 낫다.” 이처럼 입과 혀에서 나온 말은 약(藥)이 될 수도, 독(毒)이 될 수도 있다. 혀를 잘 놀리면 천 냥 빚을 갚는가 하면, 혀를 잘못 놀리면 공들여 쌓은 탑을 하루 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 따라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세치 혀를 잘 놀리는 자이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이것(혀)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느니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약 3:9-10).

15-18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 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눅 18:9),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 높은 자리와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선 자들, 교인을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 맹인 된 인도자들,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자들이야말로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요, 혼란과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임을 경고한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며,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경배와 섬김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

한 자들로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공홀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며,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주인 크산투스가 자신의 종 이솝에게 초청된 손님들을 위해서 제일 귀한 재료를 써서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그날 이솝이 만들어 내온 음식은 짐승의 혀로 된 요리뿐이었다. 화가 난 크산투스는 이솝을 불러 야단을 쳤고, 혀로 만든 요리들을 내온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이솝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재료를 사왔습니다. 세상에 혀보다 더 귀한 요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혀야말로 진실의 기관입니다. 또한 혀는 설득의 수단이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따질 수 없었던 주인은 다음날도 손님이 올 것이니, 이번에는 가장 나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라고 명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솝이 준비한 음식은 혀 요리뿐이었다. 그것을 보고 주인이 또다시 야단을 치자, 이솝은 이렇게 대답했다. “혀는 신성을 모독하는 도구입니다. 불화와 싸움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혀는 한번 잘못 사용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보다 더 나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행일치5: 행함이 없는 믿음(4)(약 4:1-12)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약 4:1-3).

야고보서 4장 1-2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에

서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으로 정욕과 욕심을 지적하였다. 정욕과 욕심 때문에, 그 같은 정욕과 욕심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살인(미움)과 시기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 야고보는 정욕과 욕심이 충족되지 못한 이유로서 두 가지를 짚었는데, 첫째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둘째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여기서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와 동일한 표현으로써, 첫째는 구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뜻이요, 둘째는 구하는 목적과 동기와 방법이 옳지 않다는 뜻이다. 구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사람에게 취한 행동이 하나님께 취한 행동과 다르지 않다는 것에 연결된다. 무언가를 얻고자하여 싸움과 다툼을 야기했다면, 목적이나 동기가 사악했을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또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사기와 강탈 또는 착취와 같았을 것이다. 그 같은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며, 싸움과 분쟁만 일으킬 뿐이다. 무언가를 구하거나 얻고자한다면,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동의를 얻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욕은 세상의 쾌락을 쫓고자 하는 욕심을 말한다. 정욕은 육체적 성적 본능

(시상하부) 또는 ‘리비도’(Libido)라 불리는 자생적 정신적 에너지에서 발산된다. 생존에 직결된 자연스런 육체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3장에서 혀의 통제수단을 말의 재갈과 배의 키에 비유했듯이, 후천적으로 교육과 학습 또는 신앙과 사회전통에 의해서 형성되는 초자아(전전두엽)란 것이 있다는 점이고, 그것이 정욕을 일정 부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이성과 양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 역할이 작을수록 싸움과 다툼과 살인(미움)과 시기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많아지고, 반대로 이성과 양심의 역할이 클수록 싸움과 다툼과 살인(미움)과 시기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뜸해진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욕망을 상징하는 손들(백색석사원 Wat Rong Khun, 태국 치앙라이)
교황청이 2009년 2월 발표한 신자들의 고해성사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는 정욕, 탐식, 나태, 분노, 교만, 시기, 탐욕 순으로 자주 죄를 짓고, 여자는 교만, 시기, 분노, 정욕, 탐식, 탐욕, 나태 순으로 자주 죄를 짓는다고 한다.

4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에서 세상은 버려두면 망가지는 자연의 법칙에 혹은 육체적 성적 본능과 ‘리비도’라 불리는 자생적 정신적 에너지에 지배되는 곳을 말한다. 바꿔 말해서 아무런 통제나

가책도 없이 인간들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돌아가는 세상을 말한다. 그런 세상과 짝짜꿍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고 만다. 세상 돌아가는 대로 제 몸을 내맡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게 된다.

교황청 신학자인 보이치에흐 기에르티흐(Giertych) 몬시뇰(명예칭호)은 교황청 신문(‘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서 “남자와 여자는 각기 다른 죄를 짓는다.”고 말했다. 가톨릭이 규정하고 있는 7대 죄악 중 여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는 교만이고, 남자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는 정욕이라는 연구 결과를 담은 교황청의 보고서가 2009년 2월에 소개된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예수회 신부 로베트로 부사(Busa, 95)가 가톨릭 신자들의 고해성사를 분석한 것인데,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가 주로 저지르는 죄는 정욕, 탐식, 나태, 분노, 교만, 시기, 탐욕 순이고, 여자가 자주 저지르는 죄는 교만, 시기, 분노, 정욕, 탐식, 탐욕, 나태 순이라고 했다.

성격심리학자 매슬로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를 피라미드 구조로 단계별로 설명한바가 있다. 가장 밑바닥에 자리한 욕구를 ‘생리 욕구’(physiological)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허기를 면하고 생명을 유지하려는 욕구로서 의식주와 성욕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단계가 충족되면 찾아오는 욕구가 ‘안전 욕구’(safety)인데, 위험, 위협, 박탈(剝奪)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이다. 안전욕구가 채워지면, ‘애정과 소속 욕구’(love/belonging)가 찾아온다. 그 다음은 ‘존경 욕구’(esteem)로서 자아존중과 자신감, 성취, 존중 등에 관한 욕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자아실현 욕구’(self-actualization)가 생기는데,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욕구이다. 이것은 다른 욕구와 달리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 ‘성장 욕구’로 불리기도 한다. 마지막 단계가 ‘자기초월의 욕구’로써 자신의 완성을 넘어서 타인과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뜻한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테나가 벨레로폰에게 황금 괴비와 페가소스를 인도하는 복조 (1859년, 이탈리아 로마, 작가 미상). 벨레로폰이 겸손한 자였을 때 신 (아테나)으로부터 능력(페가소스)을 덧입는 은혜를 입고 괴물 키마이라를 죽이는 영웅이 되었으나 우쭐하며 교만한 자가 되자 신(제우스)이 그의 능력을 거둬들여 높은 하늘에서 추락시키자 땅을 보지 못하고 한쪽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이 되어 인적이 드문 오솔길만 다니며 외롭게 살아야 했다.

5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질투하실 정도로 열렬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만큼이나, 6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고자 하시지만, 그 은혜를 받을 자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다. 7-8절은 겸손한 자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데,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이며, ‘마귀를 대적하는 자’이다. 이런 사람은 8-12절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성결한 자,’ ‘자기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5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했다. 새 번역들에 의하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뜻이다. 또 본문 5절에 쓰인 “성령”은 새 번역들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영,’ ‘영혼’ 혹은 ‘심령’이란 뜻이다. 따라서 이

자,’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인정하는 자’이다.

하나님이 열렬히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는다. 특히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덧입히신다.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가운데 ‘키마이라’라는 괴물을 퇴치한 벨레로폰이란 영웅이 있었다. 키마이라는 머리가 사자와 산양을 합친 듯했고, 꼬리는 용과 비슷했는데, 입으로는 불을 뿜어내기 때문에 이 괴물을 물리치고 살아 돌아온 용사가 없었다. 그런데 벨레로폰이 이 괴물을 퇴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신의 마음을 얻어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이었다. 벨레로폰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언자(폴뤼이도스)를 찾아가 자문을 구한 것이었고, 페가소스와 황금고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예언자는 신에게 간절하게 간구하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둘째는, 벨레로폰의 경건한 신앙심 때문이었다. 여신 아테나는 벨레로폰의 믿음을 보고 황금고삐와 페가소스라는 능력을 덧입혀주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벨레로폰이 그의 작은 믿음 때문에 날개 달린 천마 페가소스를 붙잡아 타게 되었고, 천마 페가소스의 날개 덕분에 괴물을 물리치고 영웅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다.

신행일치6: 행함이 없는 믿음(5)(약 4:13-17)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벨레로폰의 추락(1620년경, Tobias verhaecht)
신(아테나)의 은총을 입은 벨레로폰은 그 신으로부터 능력
(페가소스)을 덧입고 영웅이 될 수 있었으나 오만하여 신
(제우스)의 미움을 샀을 때에는 하늘 높은 곳에서 추락하여 앞을
보지 못하고 한쪽 발로 쓰러지는 장미인이 되고 말았다.

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에서 “허탄한 자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알라조네이아’(alazoneia)는 허풍을 떠나는 뜻인데 이 허풍이 교만과 오만에서 비롯됨을 뜻한다. 특히 신의 뜻에 저항하여 응보를 자초하는 인간의 교만함을 뜻한다. 따라서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는 신 앞에 겸손해야함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한 교만 혹은 오만은 신의 응보를 자초하는 죄가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다.

야고보서가 쓰인 당대 그리스 로마에는 인간의 교만과 오만을 경고하는 신화들이 있었고, 반면에 신 앞에 겸손한 믿음을 장려한 신화도 있었다. 1-12절에서 언급된 벨레로폰의 경우가 오만(Hybris)으로 신(제우스)의 응보(Nemesis)를 자초한 대표적인 영웅이었다. 그가 겸손과 믿음을 가졌을 때는 아테나 여신의

13-17절의 말씀은 인간의 오만에 대한 경고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는 그리스 텔포이신전을 찾는 사람들에게 아폴론이 내린 경고인 “너 자신을 알라”와 동일한 경고이다. 아폴론의 경고가 “너는 기껏해야 죽을 운명을 타고난 피조물에 불과함을 알라”는 것이었다면, 야고보서의 경고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경고이다. 내일 무슨 일이 발생할지를 알지 못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경고이다. 그러므로 “허탄한 자랑을” 늘어놓지 말고 겸손히 옳은 일을 하면서 조신하게 살라는 경고이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든 저것이든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고 말하는 태도를 말한다.

마음을 얻어 하늘을 나는 천마 페가소스를 부릴 수 있는 황금고삐라는 능력을 덧입는 은혜를 입고 ‘키마이라’라는 사자와 산양을 합친 머리에 용꼬리를 가지고 입으로 불을 뿜어내는 괴물을 퇴치한 영웅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우쭐하여 교만해졌을 때는 신(제우스)의 미움(응보)을 사게 되었고, 신이 그의 능력을 거둬들이자 그는 교만하여 높이 오른 하늘에서 추락하여 ‘방황의 들’(알레이온)에 떨어졌다. 그는 갈대숲덕분에 목숨은 건졌지만, 절름발이에 장님까지 되어 여생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길만 골라 ‘방황’하다가 쓸쓸히 죽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83년 로마에서 발견된 니오베 조각상(Florentine Niobids)
(소장: 우피치 미술관 Galleria degli Uffizi, 이탈리아 피렌체)
니오베는 신들로 모욕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한 여인이다. 아폴론이
쏜 화살들로 14명의 자녀들이 모두 비참하게 세상을 하직
했고, 남편은 자살했으며, 차츰이 어려운 슬픔은 니오베의 몸을
돌로 바꿔놓고 말았다.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화살을 쏘는
아폴론을 향한 채, 제발 마지막 남은 딸만은 살려달라며
간청을 하면서, 몸뚱이로는 마지막 남은 딸을 치마폭에 숨기고
있는 모습으로 돌이 되고 말았다. 인간의 오만을 경고한 신화이다.

오만으로 멸망한 또 다른 유명한 신화가 테바이의 왕비였던 니오베가 돌이 된 이야기이다. 신을 향한 오만과 자만은 멸절한 사람을 석상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테바이의 왕비였던 니오베는 오만했다. 그녀는 매우 오만했기 때문에 신들을 가볍게 여기면 무서운 벌을 받는다는 교훈을 무시하였고, 감사예물을 바치지도 않았다.

니오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던 왕비였다. 남편 암피온이 어찌나 수금을 잘 탔던지 수금 소리만으로 돌을 들어 성벽을 쌓았던 왕이었고, 다스리고 있던 왕국도 자랑거리였으며, 무엇보다도 아들 일곱, 딸 일곱, 도합 14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자랑거리였다.

그 즈음에 예언자 만토가 예언의 권능을 받아 테바이 여자들에게 레토 신과 아폴론 신과 아르테미스 신에게 향을 사르고 경배하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에 테바이 여자들은 모두 신전으로 나와서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렸지만, 니오베만큼은 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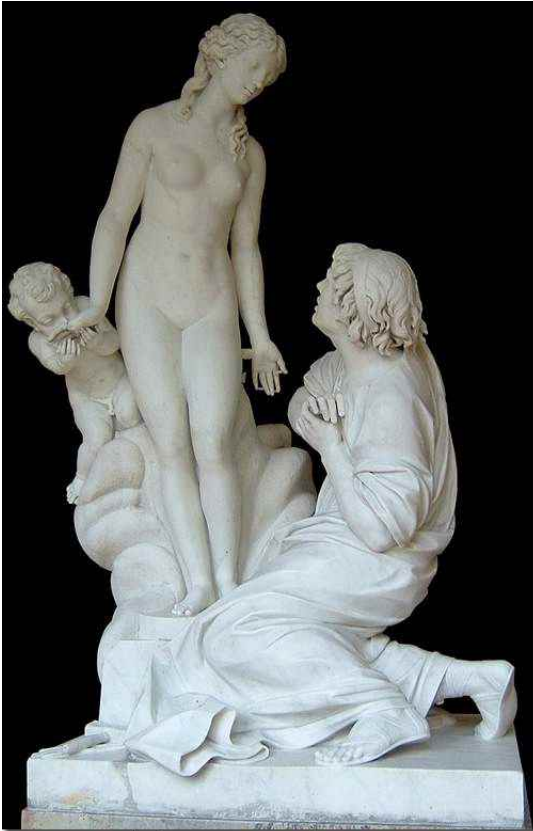
갖 거드름을 피우며 나타나 예배하는 여자들을 신전에서 내쫓으며 하는 말이, “어찌 내가 레토 신만 못하단 말인가?” 라고 하였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니오베는 오만이 지나쳐 자신을 여신으로 착각하였다. 그래서 니오베는 ‘신이 혐오하는 인간’이 되고 말았다. 니오베는 신들을 모욕함으로써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다. 레토의 아들이자, 활의 신인 아폴론이 쏜 화살들에 14명의 자녀들이 모두 비참하게 세상을 하직하였고, 남편은 자살하였으며, 참기 어려운 슬픔은 니오베의 몸을 돌로 바뀌놓고 말았다.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화살을 쏘는 아폴론을 향한 채, 제발 마지막 남은 딸만은 살려달라며 간청하면서, 몸뚱이로는 하나 남은 딸을 치마폭에 숨기고 있는 모습으로 돌이 되고 말았다. 니오베가 당한 신의 응보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자로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죄 때문이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반면에 피그말리온은 신들을 믿고 감사예배를 바침으로써 곧 선을 행할 줄 알고 행함으로써 ‘신이 사랑하는 인간’이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스 신화에 돌로 빚어졌던 갈라테아가 피그말리온의 신에 대한 경건한 믿음과 감사 덕분에 사람으로 변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고대세계에서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 곳이면 십중팔구 성적으로 문란하였다. 아세라 목신(木神)이나 아스다룻 여신을 섬겼던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랬고, 그리스의 아스다룻이었던 아프로디테 여신의 탄생지인 키프로스와 아프로디테를 주신으로 모셨던 고린도 또한 성적문란으로 악명이 높았다.

피그말리온은 키프로스(구브로) 사람으로서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던 조각가였다. 키프로스는 고린도에 못지않게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피그말리온은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살고 있었다. 그러나 혼자 산 것은 아니고, 정교한 솜씨로 조각한 눈같이 흰 여인의 석상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이 석상을 사랑하고 있었다. 아니 석상을 사랑했다기보다는 석상 같은 여성을 아내로 맞기를 염원했다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던 그가 아프로디테 축제 때, 제 뭇의 제물을 바치고 나서 제단 앞에서 더듬거리며 기도했다. “신들이시여, 기도하면 만사를 순조롭게 하신다는 신들이시여, 바라건대 제 아내가 되게 하소서. 저 처녀의 석상을.....” 하려다가 차마 그럴 용기가 없어서 “석상 같은 여자를.....”, 하고선 기도를 마쳤다. 때마침 제단으로 내려와 제물을 흠향하고 있던 아프로디테 여신은 그 기도의 참 뜻을 알아차리고, 그 기도를 알아들었다는 표적으로 제단의 불길에 세 번 하늘로 치솟게 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피그말리온은 예전과 같이 석상을 대상으로 혼자말도하고, 어루만지기도 하였는데, 예전과는 달리 석상 처녀의 몸에서 온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석상 처녀가 아프로디테의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어 인간의 몸으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피그말리온은 그녀와 결혼하여 아기(파포스)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오만은 인간을 석상이 되게 하고, 반대로 믿음은 석상을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이들 신화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면 유익할 듯싶다.

조각가 피그말리온과 석상 여인 갈라테아 및 아기 파포스 Falconet의 1763년 조각상(walters Art Museum, 미국 볼티모어). 조각가 피그말리온은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감사 제사를 바친 후에 여신의 축복을 받아 돌(피그말리온이 조각하고 사랑한 여인상)이 변해서 사람이 된 여성(갈라테아)과 결혼하여 아기(파포스)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신들에 대한 인간의 겸손하고 간절한 믿음을 강조한 그리스 신화이다.

신행일치7: 행함이 없는 믿음(6)(약 5:1-6)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약 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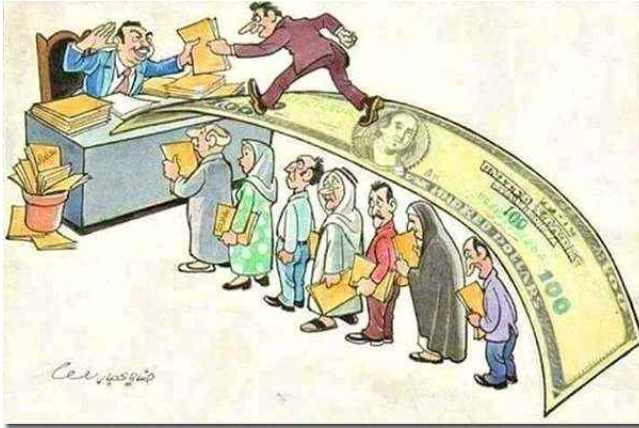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나처럼 살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제 몫을 나누어 받은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선 당신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첫째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가 유쾌하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는 그렇게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 20년을 사는 동안 나누어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애원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거절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환심을 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선물로 드리고, 제발 도와달라고 빌다시피 애원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의 애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아들은 자기에게 잘 몫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빌었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욕을 했다. “아버지는 지금 제게 아무것도 주시지 못할 거면서, 왜 그때 제 몫을 나눠 주셨으며 그것으로 한평생 넉넉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맛본 기쁨과 즐거움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심정입니다. 건강이 날로 나빠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불행의 원인은 누구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행복이 제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아버지께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경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만사가 잘 될 테니까’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살면서 여

부자로 사는 것은 복인데, 왜 야고보서 5장 1-6절은 부자들을 저주하고 책망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레프 톨스토이가 쓴 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톨스토이는 23개의 민화를 썼는데 그 가운데 <세 아들>이란 제목의 짧은 이야기 있다.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며 말했다. “나처럼 살아가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제 몫을 나누어 받은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다. “아버지께선 당신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첫째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가 유쾌하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는 그렇게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10년, 20년을 사는 동안 나누어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애원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청을 거절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환심을 사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선물로 드리고, 제발 도와달라고 빌다시피 애원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아들의 애원을 들어 주지 않았다. 아들은 자기에게 잘 몫이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빌었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욕을 했다. “아버지는 지금 제게 아무것도 주시지 못할 거면서, 왜 그때 제 몫을 나눠 주셨으며 그것으로 한평생 넉넉히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제가 맛본 기쁨과 즐거움도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심정입니다. 건강이 날로 나빠져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불행의 원인은 누구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행복이 제게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아버지께선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위험을 경고하지 않으시고, 그냥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만사가 잘 될 테니까’라고만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하시던 대로 살면서 여

러 가지 즐거움에 몸을 맡겼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본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도 될 만큼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저는 모자랐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거짓말쟁입니다. 아버지는 저의 적입니다. 될 대로 되라지요. 저를 속인 아버지를 저주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증오할 것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독은 장차 여러분을 괴멸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야 5:3).

해서라도 형처럼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형처럼 “나처럼 살아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쾌락만 좇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둘째아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나누어 받은 재산을 더 불릴 수 있을까를 밤낮으로 궁리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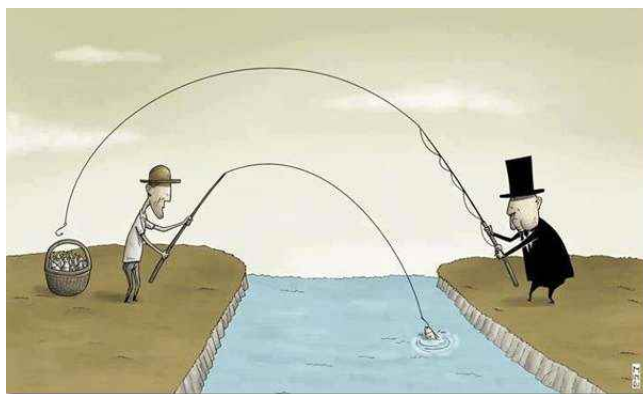
하루는 둘째아들이 아버지에게 의논하러 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 말도 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은 어쩌면 아버지는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두려워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재산을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내려고 했다. 아들은 돈을 모으려고 마음먹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모이질 않았다. 한편 그는 자신의 탐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아버지를 비난하기 시작하였다. 아버지는 한평생 쪽 웅색하게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라면 같은 세월에 더 많이 모았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 이렇게 지내는 동안 아버지에게서 나누어 받은 재산은 다 없어졌다. 재산이 완전히 동났을 때 둘째아들은 좌절하여 자살해 버렸다.

아버지는 셋째아들에게도 위의 두 아들에게 준 것만큼 재산을 나누어 주고

아버지는 첫째와 똑같은 몫을 둘째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 그때도 다만, “나처럼 살도록 해라. 그렇게 하면 너도 행복해질 테니까.”라고 했을 뿐이다. 둘째 아들은 그 몫을 나누어 받았지만,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았다. 그것은 큰 아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액수였지만, 둘째아들은 형에게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짓을

앞서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나처럼 살아라. 그러면 너도 행복해질 것이다.” 몫을 나누어 받은 셋째아들은 기쁜 나머지 집을 나갔다. 그러나 두 형에게 벌어진 일을 잘 아는 그는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큰형님은 아버지처럼 산다는 것이 자신의 쾌락을 좇는 일이라고 잘못 생각했고, 그 때문에 가지고 있던 돈을 모조리 탕진해 버렸다. 둘째형님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곡해하여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 버렸다. 그렇다면, “나처럼 살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이란 말인가?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탐욕과 착취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베는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약 5:4).

그래서 셋째아들은 아버지의 생활에 대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생각해 냈다.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내는 동안 셋째아들은 이런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태어나기까지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으며, 또 자기 자신도 없었다는 점이다. 아버지는 자기를 낳고 키우면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맛보여주려고 했다. 두 형을 위한 아버지의 일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아버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행위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일체의 것은 아버지가 자기와 두 형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뿐이었다. 비로소 셋째아들은 ‘나처럼 살라’고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남에게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겨우 안심했을 때 아버지가 곁으로 다가와 말했다. “이제야말로 우리는 다시 함께 살면서 행복을 누리게 되었다. 어서 내가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가서 나를 본받는 자는 정말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일러 주고 오너라.” 그래서 셋째아들은 자신과 같은 젊은이들을 찾아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 후로 자식들은 자기의 몫을 나누어 받았을 때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살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게 되었다.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고, 아들들은 인간이며, 행복은 우리들의 생활을 말한다. 인간은 하나님 따위는 없어도 자기 힘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자는 인생이란 끊임없는 쾌락의 연속이라고 생각하고 들뜬

생활을 즐기지만 마침내 죽음의 시간에 닿으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죽음이란 고통으로 끝나고 마는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 가고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받아들인 것이다.

둘째아들과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목적은 자아의식의 실현이고, 자기완성이라고 믿어 자신을 위해 보다 새롭고 보다 안락한 생활을 만들기에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지상생활을 완성시켜가는 동안 행복을 잃게 되고 행복에서 점점 멀어져 간다.

마지막으로 셋째아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일체의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을 베풀고, 남에게도 그같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인간이 이러한 생각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아 살아라. 그러면 너희도 나처럼 행복할 것이다.”

신행일치8: 인내의 믿음(I)(약 5:7-11)

“형제들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하드리아누스 황제(AD 117-138)의 로마 도착 주화
전면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HADRIANVS AVG
COS III P (하드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새겼다.
뒷면에 하드리아누스(우측)가 로마(좌측)와 손을 잡는 모습을 새겼고,
둘레에 ADVENTVS AVG(황제의 도착)이라고 새겼다.

에서 내려오시기 때문에 ‘강림(降臨)’이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再臨)’이라고 한 것이다. ‘파루시아’나 ‘아드벤투스’는 모두 도착, 귀환, 왕림 등을 뜻한다. 이 말은 주로 황제의 도착(ADVENTVS AVG)에 쓰였다. 고대의 황제들은 자칭 ‘신의 현현’ 또는 ‘신의 아들’이었고, 특히 로마황제들은 ‘평강의 왕,’ ‘관용의 왕,’ ‘민중의 수호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를 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들의 신성참칭이 거짓인 것을 알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평강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구세주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같은 칭호를 오직 그리스도님께 바쳤다. ‘그리스도의 강림’(ADVENIENS CHRISTUS)이란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로마제국시대에 황제가 로마에 도착 또는 귀환하는 일은 축하하고 기념할만한 중요한 행사였다. 전시(戰時)에 황제들은 전장(戰場)에 나가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돌아왔고, 종종 속주들의 도시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황제의 도착(ADVENTVS AVG)을 새긴 주화에서는 보통 말(백마)을 탄 황제가 오른손을 들어 환영인파에게 답례하는 모습이지만, 종종 그 곁에 말잡이 군인이나 오른 쪽 앞발을 올린 말 아래에 쪼그려 앉은 포로의 모습을 담기도 하였다.

황제의 도착(ADVENTVS AVG)을 새긴 주화는 트라야누스 황제(AD 98-117) 때 처음 발행되었으나 통용되지는 않았다. 통용이 된 황제의 도착(ADVENTVS AVG)을 새긴 주화는 하드리아누스 황제(AD 117-138), 카이사

7절 “그러므로 형제들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에서 ‘강림’이란 단어는 헬라어 단어 ‘파루시아’(PAROUSIA), 라틴어 ‘아드벤투스’(ADVENTVS)의 번역이다. 주후 30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 곧 보좌방에 계신다. 그 그리스도님이 하늘

르 코모두스(AD 180), 셉티미우스 세베루스(AD 193-211), 필립1세(AD 244-249), 트라야누스 데키우스(AD 249-251), 트레보니아누스 갈루스(AD 251-253), 클라우디우스2세(AD 268-270), 프로부스(AD 276-282), 맥시미아누스(AD 285-305), 디오클레티아누스(AD 284-305)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AD 307-337) 때에 마지막으로 발행되었다. 로마 시가 아닌 타 도시에서 화폐가 주조되었을 경우에는 황제가 그 화폐를 주조한 도시에 도착한 것을 나타낸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셉티미우스 세베루스(AD 193-211) 황제의 로마 도착 주화
전면에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율기관을 두른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SEVERVS PIVS AVG(경건한 세베루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말을 탄 셉티미우스 세베루스가 실제로 로마에 입성하는
모습과 흥분한 말을 굳게든 군인이 제지하는 모습을 새겼다.
둘레에는 ADVENTVS AVGV(황제의 도착)이라고 새겼다.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에서 저자는 주의 강림이 있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처지를 농부에 비유하여 마치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라고 하였다. 건기에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의 강림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권면이다.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비가 내리듯이, 환난을 참고 견디며 마음을 굳세게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권면이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수리시설이 없었던 데다가 겨울에만 비가 500-600mm 정도 내리는 준 메마른 지중해성 기후여서 물이 매우 귀했다. 건기에 해당되는 5월부터 10월까지의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단지 이슬만 내리고, 우기에 해당되는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비가 내리는데, 대부분의 비는 1-2월에 내린다. 강수량은 예루살렘이 560mm 정도, 갈릴리 호수구의 나사렛이 640mm 정도이다. 갈릴리호수와 요단강의 물은 대부분 백두산 높이의 혈문산에서 흘러든 물이지 빗물은 아니다.

‘이른 비’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3-4월에 내리는 비를 말한다. 구약성경에서 이슬이 축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이(창27:28, 신33:28, 수8:12), 긴 건기에도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거의 매일 내리는 이슬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이슬은 현격한 일교차에서 생기는 현상이다.

환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판소리 <춘향전>이다. 이도령을 사랑한 성춘향이 한양으로 떠나간 낭군을 학수고대하던 중에 변 사또의 수청요구를 받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했지만, 회유와 고문을 피할 수 없었으며, 결국 칼을 쓰고 옥에 갇혀 처형만 기다리던 최악의 상황에서 암행어사 이도령이 나타나 악행을 저지른 변 사또 일행을 처벌한 후에 끝까지 정절을 지킨 성춘향과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것에서 보듯이, 우리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길이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할 것이다. 만일에 춘향이가 돈과 권력과 명예를 좇고, 일신의 안일과 허영을 좇고, 거짓과 술수와 무법이 판치는 진흙탕 속에 제 몸을 던졌다면, 소식이 끊겼다는 핑계로 이몽룡을 배신했다면, 그의 부인이 될 수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지금은 지고 있고, 밀리고 있고, 얻어맞고 있고, 발버둥치고 있을지라도, 마음의 눈을 열어 장차 전개될 역전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콘스탄티누스 대제(AD 310-312)의 런던 도착 주화
전면에 갑옷 차림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CONSTANTINVS P(IVS) F(ELIX) AVG(콘스탄티누스 경건하고 충복 받은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말을 탄 콘스탄티누스가 왼손에 창을 들고 있고, 오른손을 들어 환영인파에게 답례하는 모습을 새겼으며, 오른쪽 앞방울 물린 말 아래에 쫓고러 앞은 포로의 모습을 새겼다. 또 말꼬리 부분엔 별을 새겼고, 하단에 런던에서 주조되었다는 표시인 PLN을, 둘레에는 ADVENTVS AVG(황제의 도착)이라고 새겼다.

9-11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욕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휼히 여기시는 이

시니라.”에서 저자는 농부이외에 추가로 고난과 박해를 잘 참아냈던 역대 선지자들과 욕의 인내를 본으로 삼을 것을 권하였다.

고난과 비와 관련된 선지자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이 엘리야이다. 아마 저자도 엘리야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엘리야시대에 북이스라엘왕국은 막강한 국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국제무대에 알렸고, 모압이나 암몬과 같은 이웃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다. 국력이 막강했던 터라 이웃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싶어 했고, 다윗 왕에 버금가는 왕이었던 오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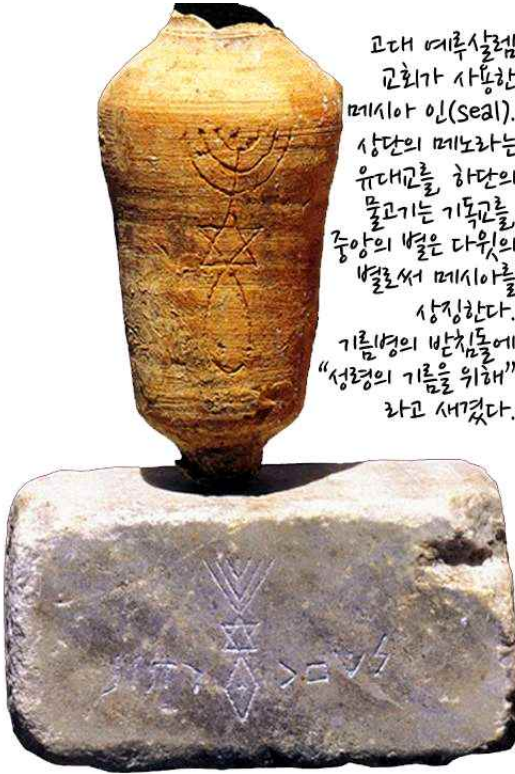
리는 아들 아합을 시돈 왕 옛바알(‘바알과 함께한 자’란 뜻)의 딸 이세벨과 결혼동맹을 맺게 하였다. 옛바알은 바알에게 헌신한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으로 시돈의 왕 펠레스(Pheles)를 죽인 후 왕위에 오른 인물이었다. 시돈은 바알과 아스다룻을 섬기던 곳이었다. 시돈의 아스다룻 숭배가 키프로스와 고린도에서 아프로디테 숭배로 발전되었을 정도로 아스다룻 숭배는 음란한 예배로 악명을 떨쳤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막강한 힘을 가진 왕이었던 아합을 꼬드켜 바알숭배자가 되게 하였고, 그의 힘을 빌려 북이스라엘왕국에서 야훼신앙을 폐지시키고 바알신앙을 국교로 삼았다. 갈멜산에 집합한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가 400명 총 850명이나 되었을 정도로 야훼신앙은 말살되기 일보직전이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홀연히 나타나 바알신앙을 무력하게 만든 영웅이 엘리야 선지자였고,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멸문시키고 야훼신앙을 복원시킨 영웅이 엘리사 선지자였다. 이 역사적 사건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 ‘삼년 반’이다. ‘삼년 반’이란 말은 박해로 인한 고난은 짧지만, 끝까지 견딘 인내와 믿음이 주는 영광이 매우 길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저자 야고보는 욥의 믿음과 인내를 예로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욥은 자기와 집안에 닥친 극한 고난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써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욥 42:12) 받았던 구약시대의 전설적 인물이다. 비록 성도들이 견뎌야하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신행일치9: 인내의 믿음(2)(약 5:12-20)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12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는 권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37절에서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

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하셨다.

예수님과 야고보의 “맹세하지 말라”는 권면은 제3계명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계명의 내용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인데, 유대교인들은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혹은 경박한 맹세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한다. ‘망령되게’로 번역된 단어는 문자적으로 ‘거짓말’을 뜻한다고 한다.

당대에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거짓 맹세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고르반’이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지적하여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그 물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되어 즉시 성전에 속한 물건이 되지만, 그 물건은 서원한 사람의 소유로 그냥 남게 되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은 부모님께 공양하기 싫은 재물을 고르반으로 지정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그 재물을 부모

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이 소유할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는 권면은 이 같은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는 권면이다.

십계명 제3계명은 노아의 일곱 가지 율법들의 첫 번째 것이기도 하다. 노아의 율법은 유대교에 입교한 절반 개종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요구되는 법이기도 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노아의 아들들’로 간주하여 모세의 율법을 모두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노아의 일곱 가지 율법들만은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13-14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에서 교회들의 장로들은 누구인가?

성경에서 ‘장로’는 그 역사가 매우 깊다. 모세 때까지는 이 개념이 족장들 또는 종족의 원로들을 지칭했다. ‘장로’가 종교지도자의 개념으로 도입이 된 때는 첫 오순절에 체결된 시내산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토라(헌법)가 제정된 이후부터였다. 모세를 도운 70인이 바로 장로들이었다. 70인 장로들은 종교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정치지도자들이었다. 이후 70인 지도자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산헤드린’이란 의회의 구성원들이었다. 유대교인들은 출애굽부터 100년까지를 모세와 장로들의 시대로 규정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전통이 담긴 모세오경을 성경 중의 성경으로 간주하고 있다.

주전 586년 유다왕국이 멸망한 이후 더 이상 성전예배가 불가능해졌다. 참고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에 선 단 하나의 성전만 고집하기 때문에 타 지역에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루 세 번 들려지던 예루살렘성전 제사를 대신해서 하루 세 번 기도문을 바치게 되었는데, 그 기도문을 바치는 장소가 회당이다. 이 기도문은 서서 바친다고 해서 ‘아미다’라 불리고, 18개의 베라카로 구성되었다고 해서 ‘쉐모네 에스레이’로 불린다.

회당은 공회(율법재판소)와 학교로도 사용되는데, 이 회당의 책임자들이 장로들이다. 각 회당에는 세 명의 회당장 곧 세 명의 장로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장로들은 율법재판관들이기도 하였다.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중심의 공동

체였고, 장로들은 이들을 가르치고 감독하고 재판하는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었다.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들도 초기에는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운 후에 장로들을 세운 것도 유대교 회당에 기초한 것이었다. 교회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장로들이었다. 장로들이 성도를 돌보는 목자들이었고, 감독자들이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고, 주의 만찬의식이 제사(미사)로 발전되자 장로(presbyter)가 제사장(priest)이 되었다. 제사장의 단축형이 ‘사제’이다. 이 사제란 호칭이 16세기 종교개혁이후 일부 개신교 교단들에서 ‘목사’(pastor)란 호칭으로 바꿨다. 다른 개신교 교단들에서는 사제란 호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들 교단들에는 평신도 장로제도가 없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메시아 인(Messianic Seal)이 새겨진 다양한 유물들

평신도 장로제도를 도입한 사람은 존 칼빈과 존 녹스였다. 그래서 ‘장로교회’란 명칭은 이 평신도 장로제도를 도입한 교회란 뜻이다. 오늘날에는 평신도 장로제도를 도입한 개신교 교단들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아니한 개신교 교단들도 여럿 있다. 성공회, 미국의 감리

교회, 침례교회가 평신도 장로제도가 없는 개신교 교단들에 속한다.

이 장황한 설명의 핵심요지는 신약성경에 언급된 교회의 장로들이 오늘날의 목회자들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에서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목사들을 말한 것이다. 당대에는 교회에 다수, 적어도 세 명의 장로들이 선출되어 교회를 돌보았을 것이고, 그들 중에는 권면을 잘하는 장로도 있었을 것이고, 치리를 잘하는 장로도 있었을 것이다. 인근에 개척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면, 이들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매주 파송되어 예배와 주의 만찬을 집례하였다. 따라서 가난한 교인들이나 병약한 교인들을 돌보는 책임이 당연히 장로들에게 있었다.

13-18절에서 야고보는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믿음의 기도”는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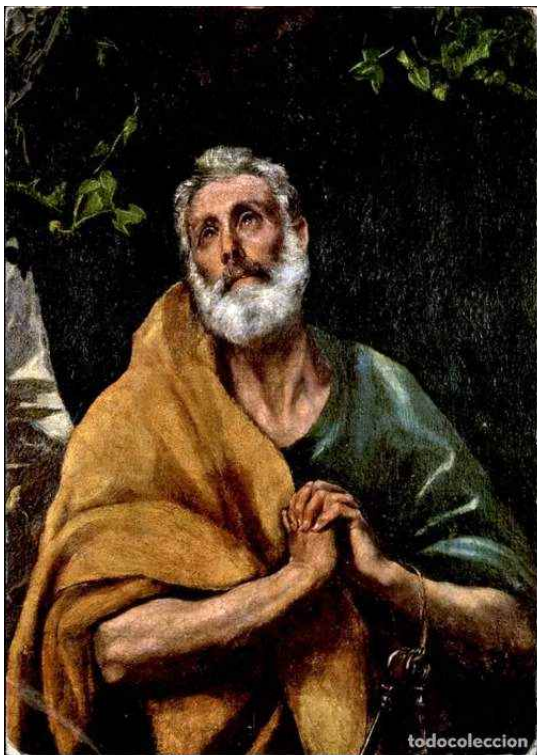
든 자를 낮게 하고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고 하였다. 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는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간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주신다.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들어 성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강조하였다.

또 야고보는 19-20절에서 전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죄와 사단의 사슬에 얽매인 영혼을 빼내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한 일이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막 8:36)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마 18:12)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알 수 있듯이,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전도의 수단으로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어줄 것이다.” 이렇듯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빛의 일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일이다.



산 소망, 산 돌아: 인사(벵전 1:1-2)

박해시대의 문서



회개와 눈물로 흐리고 있는 베드로(El Greco, 1541-1614, Toledo, Spain)

베드로전서는 박해시대의 문서라고 볼 수 있다. 로마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받은 초기 박해로는 네로 황제 때에 로마 시에 국한된 박해가 있었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와 트라야누스 황제 때에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지인 지금의 터키 지역에도 박해가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로 때에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베드로전서가 실루아노가 대필한 베드로의 서신으로 주장되고 있어서 네로 황제 박해 때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서신이 보내진 아나톨리아 지역 곧 지금의 터키 지역에는 베드로 당시에 공개적인 박해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

다. 추측하기는 로마에서 비참한 박해를 겪고 배도하는 사람이 속출되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아나톨리아 지역에 사는 신앙인들에게 예상되는 박해에 직면해서 신앙을 저버리지 않도록 미리 당부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거나 언제나 그랬듯이 크고 작은 박해들이 이미 그곳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베드로전서는 두 개의 설교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3절부터 4장 11절까지로써 침례식 때의 설교이다. 이것은 저자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침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당시의 신앙의 결단과 감격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에서 첨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설교이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12절부터 5장 11절까지로써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설교이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영광”에 대한 “산 소망”(a living hope)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한다.

“흩어진 나그네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는 본 서신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고 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거대한 아나톨리아의 중서부 지역의 도(道)의 명칭들이다. 이 점으로 볼 때 본 서신은 회람서신이었다. 특정한 교회나 인물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게 공동으로 보낸 공동서신 또는

여러 지역의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일반서신이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가장 먼저 주후 40년대 중반에 교회들을 세운 지역이고, 아시아는 그보다 10년 정도 늦은 50년 중반에 교회들을 세운 지역이다. 나머지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아마도 바울과 그 일행이 파송한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거나 그 밖의 순회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드로가 이 광활한 지역들에 흩어진 교회들을 직접 방문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설사 그가 이들 지역들의 일부만 방문을 했을지라도 그 지역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를 대면했거나 혹은 그의 설교를 직접 듣는 행운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그에 관한 소문 곧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과 예루살렘교회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주후 60년대 초는 아직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직전이었으므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알지 못했을지라도 설교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단편적인 문서들을 통해서 자주 듣거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게다가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온 에비온파 유대인들이 적지 아니 이 교회 저 교회들을 방문하여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었고,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도 꽤 많았으므로 이런 저런 채널들을 통해서 베드로에 대해서 듣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추정이 가능하지 않고서는 또 권위

있는 사도로 알려져 있지 않고서는 베드로가 아나톨리아 지역의 교회들에 회람 편지를 쓰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흠어진 나그네들”이란 표현은 본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지칭한데서 나온 말이고 또 이들 지역들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나라 본향을 향해서 세상에 흠어져 순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흠어진 나그네들”이란 표현을 유대인에 국한 된 말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한 표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바티칸 시티의 성 베드로 광장에 세워진 베드로의 동상
주세페 드 파브리스(Giuseppe De Fabris)가 1840년에 만든 작품이다.
오른손에 천국문 열쇠를, 왼손에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가락을 맡아 주고 있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가 담겨 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입은 자들이다. 바울도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미리 아심”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을 말할 뿐 아니라, 예정 곧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을 뜻하기도 한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예지예정이라 한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지예정의 목적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하였다. “피 뿌림”은 구약시대에 속죄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 ‘대 속죄일’에 자기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의 속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휘장 앞과 법궤 앞에서 행했던 의식이였다.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피 뿌림”이란 말을 거의 쓰지 않고, 대신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피로, ~피에, ~피가, ~피는, ~피를, ~피를 통하여” 등으로 표현되었다. 여기서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는 신약성경 다른 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롬 3:25),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롬 5:9), “속량 곧 죄 사함을”(엡 1:7), “우리 죄에

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계 1:5) 등으로 사용되었다.

둘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지예정의 목적을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 곧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사역 곧 성령님의 내주 동거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짐을 말한다.

셋째,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지예정의 목적을 “순종함”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구원의 목적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구원의 목적에 해당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10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고 하였다. 베드로는 이미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이... 더욱 많을 지어다.”라는 말로 인사하였다.

산 소망, 산 돌02: 산 소망(I)(벧전 1:3-5)

“산 소망”



구약성경은 문자적 이스라엘의 ‘그 소망’ 곧 ‘옛 소망’에 관한 말씀이다. 신약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의 ‘산 소망’ 곧 ‘새 소망’에 관한 말씀이다. 따라서 ‘그 소망’ 곧 ‘옛 소망’은 ‘산 소망’ 곧 ‘옛 소망’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산 소망(a living hope)은 새 소망(a new hope)을 말한다. 구약성경은 문자적 이스라엘의 ‘그 소망’(Ha-Tikvah) 곧 ‘옛 소망’에 관한 말씀이다. 신약성경은 영적 이스라엘의 ‘산 소망’ 곧 ‘새 소망’에 관한 말씀이다. 따라서 ‘그 소망’ 곧 ‘옛 소망’은 ‘산 소망’ 곧 ‘새 소망’의 그림자요 모형이다.

자요 모형이다.

베드로가 소망에 ‘산’ 곧 ‘살아있는’(living)이란 수식어를 붙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산 소망’이란 살아 계신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인류에게는 살아서 역사하는 구원의 소망이란 뜻이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에서 알 수 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곧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분이 그리스도님을 살리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사망권세를 이기신 성자 그리스도님이시며,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이처럼 살아계셔서 살리는 일을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 영원히 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실효성이 영원할 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후 수천 년에 걸쳐 대대로 절절히 희망했던 ‘그 희망’(Ha-Tikvah)처럼 썩거나 더럽히지거나 쇠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 바뀌 말하면, 적에게 빼앗기거나 짓밟히거나 망하지 않는 하늘 가나안땅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에 ‘살아있는’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다(참고: 히 12:18, 22-24, 28).

셋째,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살아있는’이란 수식어가 붙었다.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말씀이 그런 뜻이다.

예수님의 강림은 그 희망(Ha-Tikvah)의 새 출발점



이스라엘의 애국가, “희망”(Ha-Tikvah)
유대인의 정신이 마음 속 깊이 갈망하고 있는 한,
눈을 동쪽으로 향하여 시온을 바라보는 한,
우리의 희망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다.
이천년을 간직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 자신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 시온과 예루살렘의 땅에서!

내용이 그들의 애국가에 담겨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성취할 영웅이 다름 아닌 장차 오실 메시아 혹은 모쉬아크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2천 년 전에 선포된 예수님을 이미 오신 메시아로 믿고 있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희망을 가시적으로 성공시킨 인물이 모세였다. 그리고 그 희망이 절정에 달했던 나라가 다윗왕국이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죽고 왕국은 북과 남으로 쪼개졌고, 북이스라엘왕국은 200여년 만인 주전 722년에 멸망하였으며, 남유다왕국은 340여년 만인 주전 586년에 멸망하였다. 출애굽 후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운지 860여년 만에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원점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바빌로니아의 노예로 바뀐을 뿐이다.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나이 많고 늙은 무자식 상태

예수님의 강림의 의미들 가운데 한 가지는 그 희망의 새 출발점이다. 복음서들 특히 마태복음이 그것을 말하고 싶어 했다. ‘그 희망’이란 아브라함이 나이 일흔다섯에 가나안땅에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한 희망을 말한다. 그런데 그 때 아브라함은 무자식이었다. 늙고 자식도 없었던 때에 품었던 가능성이 희박한 희망이었다. 그런데 그 희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모세오경의 이야기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그 희망’은 아브라함 이후 3천8백년이나 된 오래 묵은 것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집단무의식 속에 살아남아 있고, 그 희망의

에서 처음 품었던 그 희망, 곧 성취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던 그 희망을 다시 품기 시작하였다.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 절망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 깊은 흑암의 상태, 무질서가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희망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희망은 아브라함의 희망이 430(혹은 645)년 만에 성취되었듯이, 유대인들의 희망은 580여년 만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신약성경이 선포한 메시지이다. 또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 희망의 새 출발점인 것을 선포하였다.

그런데 그 희망의 성취가 최악 가운데 최악의 상태인 이집트의 노예생활에서 이뤄졌듯이, 예수님 탄생이 가져온 제2희망의 성취도 로마제국의 압제라는 사실상의 노예생활에서 이뤄졌다. 모세가 이집트에 등장한 시기처럼 예수님의 등장시기도 흑암과 절망이 지배하던 시기였다.

제2, 제3의 떠돌이들을 위한 그 희망

‘그 희망’(Ha-Tikvah)

떠돌이 유목민 아브라함이 75세 때 처음 품은 희망

그 희망이 430(혹은 645)년 만에 모세가 이끈 출애굽사건으로 성취 (1446BC)

다윗 왕 때 이스라엘 왕국이 최 절정에 달함

솔로몬 왕이 사망한 직후 이스라엘 왕국은 남북으로 나뉘 (930BC)

북이스라엘왕국 200여년 만에 멸망 (722BC)

남유다왕국 340여년 만에 멸망 (586BC)

860여년 전 출애굽사건 이전의 노예와 떠돌이 상태로 회귀

제2모세 예수님의 탄생: ‘그 희망’의 새로운 출발점 (5BC)

아브라함의 ‘그 희망’이 430(혹은 645)년 만에 성취되었듯이, 유대인들의 ‘그 희망’이 580여년 만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 되었으나 대다수 유대인들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그 희망’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이방인들에게 성취되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그 희망’의 성취가 된다.

유배지에서 조상들의 땅에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의 이야기는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다. 고토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겪었던 이방인들의 핍박과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었다. 이 바벨론(페르시아)탈출 세대가 고토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900여 년 전 이집트

탈출 세대가 광야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가나안부족들과의 전투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떠돌이와 노예들인 조상들이 극한의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어가는 영웅적 광야시대의 이야기는 수천 년에 걸쳐 제2, 제3의 떠돌이 광야시대를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그 희망’(Ha-Tikvah) 자체였다.

마찬가지로 2천 년 전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30대에 이르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보좌에 앉은 영광을 누리시는 영웅적 이야기는 매일의 삶의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희망’ 자체이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는 말씀은 앞선 유대인들 이야기와 같은 뜻이다.

3-4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 하였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하늘 가나안땅에 있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했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신다.” 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의 근거인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있다. 사망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데 있다.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믿는데 있다. 우리들의 삶은 마치 주검처럼 실망과 좌절과 고난과 흑암과 무질서로 범벅이 되어 있다. 그 상태 곧 용광로 속과 같은 처지에서 건져내 주시고 살려내 주시며, 영광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실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한다. 우리의 믿음은 용광로란 시련을 통해 단련된다. 불같은 시련을 이기고 단련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이어서,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고 하였다.

산 소망, 산 돌03: 산 소망(2)(벧전 1:6-12)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는 말씀은 마치 히브리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구원을 받고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온갖 시련과 환난을 겪은 것과 같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복지를 차지한 것과 같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연결된다. 또 로마서 5장 3-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는 말씀에 연결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으셨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하늘로 끌어올리시어 당신의 보좌우편에 앉게 하셨다. 게다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빌 2:9-11).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 가운데 종려주일사건은 히브리인들의 출애굽사건에 비교될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회심사건 곧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중생(칭의)에 비교될 수 있다. 종려주일사건이후 십자가에 못 박힌 성금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승리의 예루살렘입성 이후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사건은 히브리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겪었던 사건과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후 교회생활 중에 겪는 크고 작은 환난에 비교될 수 있다.

또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는 로마서 5장 5-6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다.”와 고린도후서 4장 17-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에 연결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승천과 영광을 누리셨듯이, 또 히브리인들이 광야생활 후에 가나안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고, 환난을 당한 후에 소망을 이룬다. 히브리인들의 광야생활을 구름기둥이 인도하였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생활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희망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으로부터 제8일째 날 저녁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 곧 요한복음 20장 29절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에 연결된다. 참고로 요한복음 20장에는 ‘주 첫날 저녁’이 두 번 나오고, 제자들이 이 두 번의 저녁에 함께 모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번의 저녁집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주 첫날은 일요일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어찌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모인 날들이 ‘주의 날’ 곧 주일이었음을 암시하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해가지면서 새 날이 시작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이지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는, 우리에게는 주일저녁이 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월요일의 시작을 뜻한다. 아무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는 말씀은 당대의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이요,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믿음이 위대했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땅을 본 적도 가본적도 없었지만,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생이란 것이 본문 8-9절의 말씀이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9절의 “영혼의 구원”에서 “영혼의”를 “of [your] souls”로 번역하고 있다. 여기서 “souls”는 헬라어 $\psi \upsilon \chi \tilde{\omega} \nu$ (프쉬콘)의 번역으로써 우리말로 ‘혼,’ ‘영혼,’ ‘존재,’ ‘사람,’ ‘생명체’ 등을 뜻한다. 구약성경에서는 נִשְׁמָה(네페쉬)란 말로 쓰였다. 이 말은 ‘존재,’ ‘사람,’ ‘생명체,’ ‘짐승’ 등을 뜻하는 말이다. 구약성경 39권이 완성된 페르시아시대까지 근동세계에는 영혼 또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이 개념은 헬라시대에 근동세계에 알려졌고, 신약성경에서 강조되었으며, 신약성경 이해의 핵심이다. 다만 구약성경이 신약성경 이해의 또 다른 핵심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의 히브리개념과 그리스로마시대의 헬라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혼’ 또는 ‘혼’으로 번역되는 ‘프쉬케’(psyche)란 말과 ‘음부’로 번역되는 ‘하테

스'(Hades)란 말이다. 그리스로마신화에서 하데스는 낙원에 해당되는 '엘리시온'(Elysian Fields)과 지옥에 해당되는 '타르타로스'(Tartarus)가 함께 있는 깊은 지하세계, 음부의 세계 곧 죽음의 세계를 뜻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이것에 해당되는 '스올'(Sheol)은 '보이지 않는 세계' 혹은 '죽은 자들의 세계' 곧 '무덤'이란 뜻이다. 따라서 '스올'은 죄를 짓고 벌 받아 가는 곳이 아니라, 죽으면 누구나 다 가는 곳을 말한다. 이들 단어들 '하데스'와 '스올'은 죽음의 세계란 점에서 신약성경에서 혼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믿음의 결과는 생명(사람)의 구원을 받음이라"는 뜻이다. 참고로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세상'(Olam Ha-Ba)은 회복된 이스라엘왕국이고, 에덴동산의 개념이다. 지옥개념은 없고, 다만 '게힌놈'(Gehinnom)은 가톨릭의 연옥과 같은 곳으로써 '다가올 세상'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존재하며, '게힌놈'에 머무는 기간도 최장 12개월로 한정된다.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여기서 "믿음의 결국"은 인내의 열매 또는 믿음과 인내의 끈을 놓지 아니한 결과를 말하고, '생명'은 육체구원 곧 부활을 말한다. 왜냐하면, 성도는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영혼구원이란 현재구원을 선물로 받지만 현세에서 교회생활을 하는 동안 온갖 시련과 환난을 겪는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견디고 이긴 믿음의 용사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생명의 구원 곧 부활이란 축복이다. 그것은 마치 히브리인들이 구세주 하나님을 믿고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구원을 받고 광야생활을 하는 동안 온갖 시련과 환난을 겪은 것과 같다. 그리고 믿음과 인내의 끈을 놓지 아니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복지를 차지한 것과 같다. 이 점을 지적하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고, 11장 1-2절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하였다.

10-12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성경을 어떻게 이해했고 풀었는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들이다. 이 구절들은 구약의 예언자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 예언은 당대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그리스

도인들 곧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 사실을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계시로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란 것이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 사실을 만천하에 선포하였는데, 그 이전 세대의 사람들은 그 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천사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이 점을 바울도 자주 강조했는데,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예언된 자는 유대인만을 위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희망한 문자적 방식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영적 방식으로 이뤄졌다. 구약성경에 담긴 것들은 실체가 아니고 신약성경에 담긴 것들의 그림자요 모형이었다.

둘째, 그 같은 사실은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분이 다윗의 왕좌에 오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민족성별색깔빈부귀천에 상관없이 그분을 구주로 믿는 자들을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셋째, 하나님이 그 같은 사실을 그리스도교의 기초를 놓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로 알게 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신비였다.

산 소망, 산 돌04: 산 소망(3)(벧전 1:3-25)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좌우에 밀이삭과 포도송이를, 중앙에 배와 포도주 잔을, 배에 헬라어로 ‘예수’(IHS)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13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권면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장차 올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히 11:40),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히 6:9), 더 좋은 소망(히 7:19)이라고 하였다. 바울도 “(장차 올 것의) 보증”(고후 1:22, 5:5)이라고 했고, “부르심의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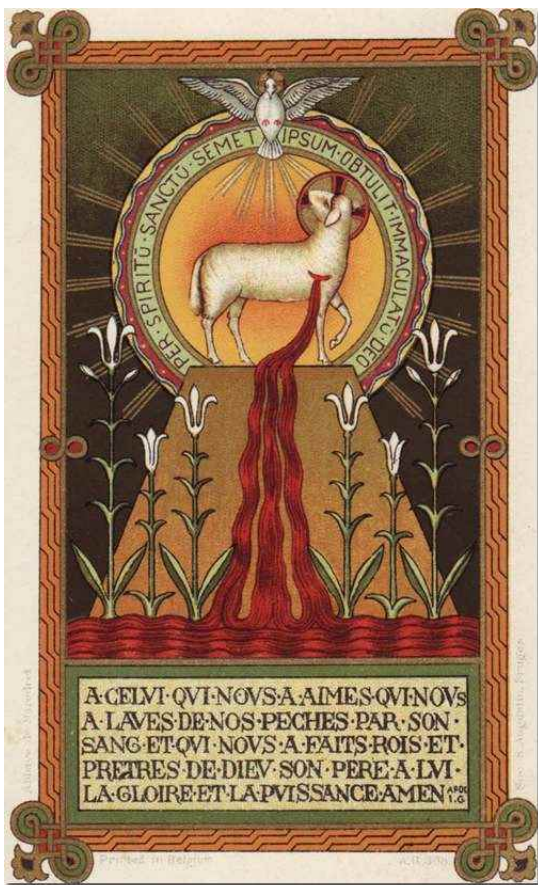
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엡 1:18)이고 했는데, 이것은 하늘 가

나안땅에 그리스도인들의 몫으로 땅이 준비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서 “장차 올 것” 혹은 “장차 올 더 좋은 것”은 하늘 가나안땅에서 누릴 영광의 풍성함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장차 올 세상’을 ‘올람 하바’(Olam Ha-Ba)라 부르며 희망해왔는데, 장차 오실 모쉬아크(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가져다 줄 문자적 이스라엘의 영광 곧 옛 다윗왕국의 100퍼센트 회복을 의미한다. 이 유대인들의 ‘그 희망’(Ha-Tikvah)이 신약성경에서는 하늘 가나안땅으로 설명된다. 처참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지상의 나라는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부서지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아서 희망을 둘 곳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거나 장차 받을 하늘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히 12:27-28)이다.

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주실 것들에 대해서 계시록은 “생명나무의 과실”(2:7), 영생(2:11)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2:17), “새벽별”(2:28), “흰옷”(3:5),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함”(3:12), “보좌에 함께 앉게 함”(3:21) 등을 말한다. 그밖에도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져다주실 것들에는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더위에 쓰러지지 않고, 햇빛에 화상을 입지 않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고, 모든 눈물을 씻기고, 구원의 흰옷을 입으며, 승리의 월계관을 쓰는 것이다(계 7:16-17).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안식과 행복한 여생이 보장된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상단 원 안의 글씨는 히브리어 9장 14절을 라틴어로 적은 것으로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이란 뜻이고 하단의 글씨는 계시록 1장 5-6절을 불어로 쓴 것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란 뜻이다. 어둠의 피로 복화를 상징하는 백합화가 피었다.

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권면하고 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에서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란 말은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로서”란 뜻이다.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은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정욕”을 뜻한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지금은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고, 순종하는 자녀가 된 만큼 더 이상 무지하던 때에 추구했던 세속적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권면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장차 올 더 좋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확실히 보장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5-17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가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

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하였다.

야고보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였다. 바울도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으로 ‘성화의 믿음’과 ‘순종의 믿음’을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주신 목적이 선행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엡 2:10).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에서 “너희가 알거니와”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깨달은 것, 곧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

기 이전의 자기 삶이 헛된 방식의 삶(empty way of life)이었고, “망령되고 허탄한”(godless and not worthy, 딤후 4:7) 삶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한다.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이란 피조물의 한계 곧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인간성, 본성, 본능 등을 말한다. 이것은 조상이 “헛된 행실”을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뜻이 아니라,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성을 타고났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그 같은 상태에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세속적인 가치로 된 것이 아니란 뜻이고, 많은 돈으로도 살 수가 없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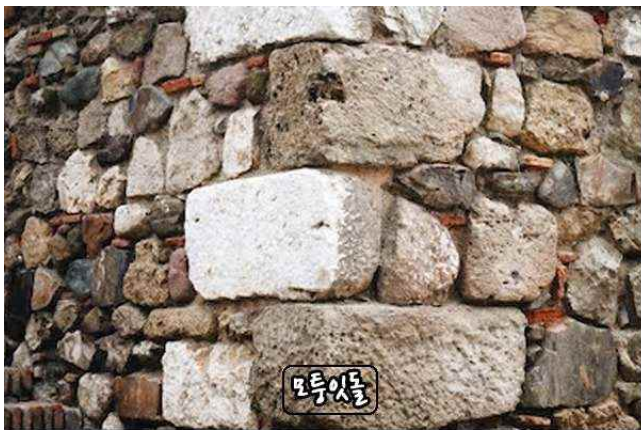
19절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값진 피로 된 것이란 뜻이다. 그 피가 값진 이유는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고전 1:23-24)이기 때문이다. 또 바울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롬 5:9),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엡 1:7),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다”(골 1:20)고 하였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는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언급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한가지로 존재하셨음을 말한다.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인류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살리셨고 부활승천하게 하셔서 영광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계획을 우리에게 명확히 밝혀주신 완전한 계시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진리요, 영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23절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였다.

산 소망, 산 돌05: 산 소망(4)(벧전 2:1-8)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로세의 가르침과 전통은 일시적인 잠정적인 옛 돌(기준)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통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산 돌(기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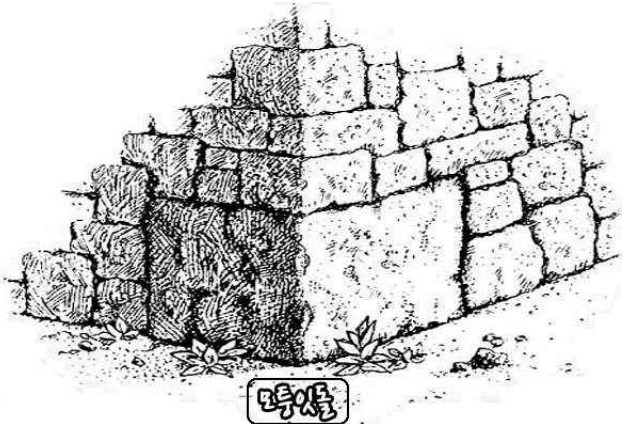
1-3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는 말씀에서 강조는 “사모하라”에 있다. 그리고 “갓

난아기들”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린” 곧 그 같은 말을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는 순수한 자들이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이다. 따라서 “갓난아기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것”은 1장 24-25절에 연결되는데, 풀과 풀의 꽃처럼 그 영광이 마르고 떨어지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주의 말씀”을 말한다. 베드로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들은 성도들의 믿음이 구원을 이루기까지 충분히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성도라면 배고프지 않도록,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무력무력 잘 성장하도록 순전하고 신령한 주의 말씀들을 밥을 챙겨먹듯이 반복적으로 챙겨 먹어야 한다.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에서 “신령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로기코스’(λογικός)로써 ‘로고스’(λόγος)의 형용사이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 말이 “영적”이라고 번역되었다. 여기서 “영적” 혹은 “신령한”은 영어성경에서 “reasonable”(KJV, NKJV), “true”(TNIV), “spiritual”(NASB) 등으로 번역되었다. 이렇게 번역되는 이유는 ‘로기코스’가 인

간에게만 있는 합리적이고 신적인 이성과 지성을 나타내는데 쓰였기 때문이다. ‘로고스’는 지성, 이성, 학문을 뜻하기도 하고, 변화의 주체지만 정작 스스로는 결코 변치 않는 변증법적 도리나 법칙에 쓰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로고스’를 “말씀”이라고 해석하면서 그 “말씀”은 변증법적 도리나 법칙조차 뛰어넘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으며, 만물의 근원자라고 하였다(요 1:1-4). 야고보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약 1:17)고 하였다. 요한은 그 “말씀”이 끝없이 변하고 회전하는 유한한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을 주시는 독생자 하나님이시다고 하였다(요 1:5-18).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모세의 가르침은 문자적 이스라엘(유대교)의 모퉁이 돌(기준 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영적 이스라엘(그리스도교)의 모퉁이 돌(기준 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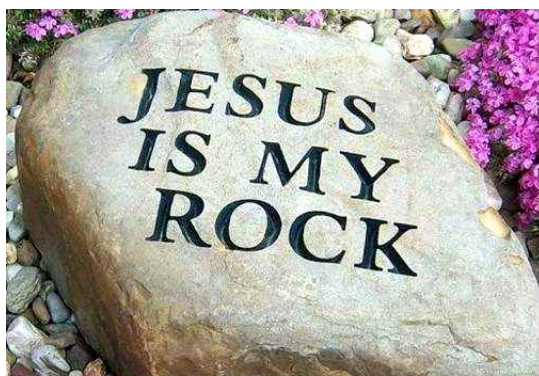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540?~?BC)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이 얼음이 되듯이 성질은 변하지 않고 형태만 변하는 물리적 변화가 있는가하면,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경우처럼 형태뿐이 아니라, 성질까지 변하는 화학적

변화도 있다. 이런 모든 변화는 질서에서 무질서의 극대화로 진행되는데, 이 법칙을 엔트로피법칙 또는 제2열역학법칙이라고 한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헤라클레이토스는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고 하면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변한다고 말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솔로몬처럼 만물의 끝없는 이 변화 속에서 인생의 무상함과 덧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를 벗어난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이 진리를 ‘로고스’라고 불렀다. 그가 말한 ‘로고스’는 우리말로 ‘법칙’ 또는 ‘도리’를 뜻하는데, 이 법칙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스스로는 결코 변치 않는 변증법적인 것을 말한다.

4-5절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에서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다”는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한 것은 그 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로고스’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그 ‘로고스’는 헤라클레이토스가 말한 ‘변증법적 도리나 법칙’을 뛰어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빛을 주시는 독생자 하나님을 말한다. 그리고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에서 “신령한 집”은 성전을 말하고, “거룩한 제사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임을 말한다. 그 근거는 예수님께서서 담(또는 휘장)을 상징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신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성소의 휘장을 제치고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했던 것처럼, 누구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사장의 직무에 충실해야한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Jesus is the unchanging standard!
 예수님은 인류의 ‘산 돌’(새 기준)이시고, 인류가 피할 ‘바위’
 이시다. ‘산 돌’(living stone)이란 새롭고 영원한 기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변함이 없는 기준을 말한다.

6-8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에서

“모퉁잇돌”이란 유대인들의 건축에서 모퉁이에 놓이는 커다란 ‘기준 돌’을 말한다. “건축자들”은 예루살렘의 정치종교지도자들을 말한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잇돌이 되셨음을 말한다. 이 사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오늘날까지도 실제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반면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한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배”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참 소망과 변함없는 반석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모세의 가르침과 전통은 문자적 이스라엘 곧 유대교의 모퉁잇돌이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통은 영적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교의 모퉁잇돌이다. 여기서 모퉁잇돌이란 기준을 말한다. 따라서 모세가 유대교의 모퉁잇돌이란 말은 옛 기준인 율법을 말한다. 반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교의 모퉁잇돌이란 말은 새 기준인 복음을 말한다.

예수님은 인류의 ‘산 소망’과 ‘산 돌’(새 기준)이시고, 인류가 피할 ‘바위’와 ‘산성’이시며 ‘구주’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시다”(시 18:2).

‘산 돌’(living stone)이란 새롭고 영원한 기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변함이 없는 기준을 말한다. 모세의 가르침과 전통은 일시적인 잠정적인 옛 돌 곧 옛 기준이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통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산 돌 곧 새 기준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새 기준의 본래성과 순수성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교회이다. 이 교회들이 펼치는 운동을 환원운동(Restoration Movement) 또는 신약성경교회(New Testament Christianity) 회복운동이라고 말한다.

산 소망, 산 돌06: 교회(I)(벧전 2:9-10)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9-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

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는 에베소서 2장에 연결된다.

9절 전반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에 연결되고, 9절 후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와 연결된다. 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다.”는 에베소서 2장 12-13절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에 연결된다.

베드로전서는 두 개의 설교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3절부터 4장 11절까지로써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침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당시의 신앙의 결단과 감격을 상기시키려는 목적에서 첨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설교이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12절부터 5장 11절까지로써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설교이다. 테리 블랙우드(Terry Blackwood)가

부른 “기억나게 하소서”에 이런 가사가 있다. “지금과 그때의 기억의 커튼을 되 감아 주시고, 당신께서 저를 어디에서 건지셨는지, 제가 어떤 처지에 놓였을 지를 보여주소서... 저는 하나님의 친아들로 인한 은총을 입을만한 아무런 착한 일을 하지 못했고, 그분의 손바닥에 난 상처들로 인한 자비를 입을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갈보리에 오르셨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나게 하듯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심할 당시의 믿음과 감격과 결심을 상기시켜준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10절은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에게 뽑힌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본문에 담긴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불러 내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단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단어들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신약성경에 ‘교회’란 말이 192번 나온다. 신약성경이 쓰인 헬라어로 교회는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이다. 이 말은 불러냄을 받은 회중 또는 뽑힌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한다.

우리나라에는 국회가 있고, 도에는 도의회가 있고, 시에는 시의회가 있다. 이들 의회들은 국민이 뽑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장소를 의사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의회와 의사당은 다르다. 의회는 뽑힌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고, 의사당은 의회가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예배당은 다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선민을 말한다. 그리고 예배당은 하나님의 선민이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구약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회중이 하나님의 교회였다. 그들이 바로 뽑힌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다수는 선민의식이 강하다. 그러나 신약성경에 의하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들이 진정한 선민

이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의 다수가 선민의식 없이 살아간다. 유대인들이 선민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뽑힌 진정한 선민이란 것을 모르거나 의식이 부족하다.

교회는 뽑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의회가 뽑힌 사람들의 모임인 것처럼 교회는 뽑힌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의회원은 사람들로부터 뽑힌 자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자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회원은 자기를 뽑아 준 사람들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에게 뽑혀서 죄를 이기고 평강을 누리며,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린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깊은 늪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성도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약속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고, 새로운 삶과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의회원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뽑힌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교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설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신성한 조직이다.

교회는 세상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교회는 신령한 나라이다. 이 나라의 시민은 아무나 될 수 없다. 원

한다고 될 수 없다. 뽑힌 사람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대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나라의 시민으로 뽑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사실 때문에 지난 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이다. 본문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한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인 것을 명백히 밝혀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민공동체로 택하신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 선민의 성격, 선민의 사명, 선민의 목적이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곧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 하나님의 봉사의 도구, 하나님의 교육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자훈련을 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나라의 일을 도모코자 함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지만 세상에서 격리될 수 없다.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나라의 일꾼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속으로 흩어져 전도하고, 봉사하며, 구제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산 소망, 산 돌07: 교회(2)(벧전 2:11-12)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떠돌이 유대인(판화, Gustave Doré, 1832-1883, 프랑스 파리, The Bridgeman Art Library). 먼방향을 향해 세배당의 첨탑이 보이고, 길가엔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이 세워져 있다. 유대인 방랑의 원인이 그리스도교의 전파 때문이란 암시가 담겼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험준한 산길을 걷고 있는 배방의 노인은 유대인들의 방랑의 세월이 길고 험난했음을 암시한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유배지)에 와서 잠시 나그네(떠돌이)로 살고 있는 자들이고, 머지않아 그들의 본국(본향)인 하늘 가나안땅으로 돌아갈 자들이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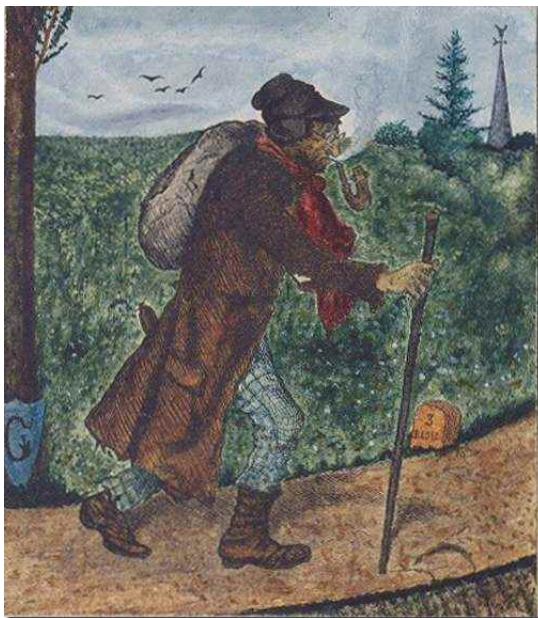
히브리인들에게 애굽 땅은 본국이거나 본향이 아니었다. 애굽 땅은 유배지에서의 노예생활에 다름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탈출했어야 했다. 또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본국이거나 본향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정착할 수가 없었고 안주해서도 안 되었다. 아무리 만나가 좋고 메추라기가 좋고 반식의 샘물이 좋아도 그곳은 머물러

살 곳이 아니었다. 아무리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걷고 또 걸어 스쳐지나가야 할 곳에 불과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항무한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땅이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지는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이 세상이 아니라 더 좋은 하늘 가나안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유배지나 다름없고,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광야에 불과하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하는 이유이다.

본래 “거류민과 나그네”는 외국인들로서 거주하는 나라에 세금은 내지만 영

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그래서 신체나 재산이나 생존을 보호받지 못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럽의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 또는 히브리인들은 이미 아브라함이 처음 민족과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진 이후 주후 70년까지 대략 1000년간을 유배지와 남의 나라들(이집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았고, 주후 70년 이후 1948년까지 1878년 동안 외국에서 더부살이를 해야 했다. 유대인 거류지역은 게토(ghetto)라 불렸는데, 그 역사가 3800여 년 전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600여 년 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도 게토생활이 이어졌고,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도 유럽 곳곳에서 때로는 자의로 때로는 타의로 게토생활이 이어졌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따돌림이 유대인(Basel, 1820-1840, Jewish Museum of Switzerland). 면발줄치에 예배당의 첨탑이 보인다. 그리스도교가 유대인 박해의 원인이라 암시가 담겼다.

게토(ghetto)란 말은 1516년 베네치아에서 처음으로 쓰였다. 유대인들은 법으로 강제한 특별구역에서만 살아야했는데, 그 같은 일이 이미 유럽에서는 자주 있었다. 가장 악명이 높았던 곳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한 수용소들이었고, 그것이 마지막 단계의 유대인 게토였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후 70년 이후 나라를 건국한 1948년까지 1878년 동안 그리스도교와 모슬렘교의 통치하에서 숭한 박해를 받아야 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대가를 치러야 할 죄인으로 여겼고,

무슬림들은 무하마드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지도 않고 코란도 인정하지 않는 이교도로 여겼다.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유대인들을 열등한 민족으로 취급하는 사회적 지위법이 공포되었고, 종교개혁시대 이후에는 추방과 격리를 당하기도 하면서 히틀러 때를 포함해서 무려 1200만 명이 살해되는 아픔을 겪었다. 지금은 자기 나라도 있고,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살고는 있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 산재한 반유대인 기류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이 당했던 것과 같은 박해와 추방과 재산몰수와 순교를 당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지상나라에서 생명과 재산과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거류민과 나그네에 불과했고, 영적으로는 더더욱 본국이나 본향일 수가 없었다.

베드로가 5장 13절에서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한 것, 누가가 사도행전 13장 17절에서 “애급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이라고 한 것, 또 계시록의 저자가 로마를 일컬어 “큰 성 바벨론”(계 14:8, 16:19, 18:2)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이 지상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을지라도, 이 지상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의 나라일 수가 없고, 이 지상나라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의 동족일 수가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생명과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오히려 빼앗고 탄압하거나 죽였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떠돌이 유대인(마르크 샤갈, 1923-1925, 스위스 제네바, 현대미술관). 민낯처리에 예배당이 보인다.
그리스도교가 유대인 박해의 원인이라는 암시가 담겼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의 나라와 백성이 영적으로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아니란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나라에서 잠시 사는 것을 애급 땅에서 노예로 사는 것 또는 바벨론의 유배지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 또는 유대인들을 애급 땅과 바벨론 유배지에서 건져내셨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지상 유배지에서 건져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 나라에 사는 동안 “악행 한다는 비방”을 받지 말아야한다. “악행 한다는 비방”은 탄압을 받는 구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은 12절에서 “이방인 중에

서”로 일컬어진 불신자들에게 전도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던 불신자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악행을 한다는 비방”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방은 잘못된 정보 또는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하였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Suetonius, AD c. 69–122)는 <황제열전>(De vita Caesarum)에서, 또 다른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 AD c. 55–117)는 <연대기>(Annals)에서 네로 때 그리스도인들이 처벌을 당한 이유를 “사악한 미신”(mischievous superstition) 때문이라고 기술하였다. 그들이 말한 “미신”(superstitio)은 당대의 종교적 관행들에 비교했을 때 광기적인 신앙심(excessive religiosity)을 말한다. 특히 타키투스는 “대중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르는 자들 곧 그들의 혐오감 때문에 미움을 받는 계급”(a class hated for their abominations, called ‘Chrestians’ by the populace)이라고 기술하였다. 타키투스가 언급한 “혐오감”에는 로마제국과 대중의 수호신인 황제숭배를 거부한 행위, 대중이 믿는 수많은 신들을 우상이라고 거부한 무신론적 행위,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주의 만찬에 대한 오해, 형제자매라 부르면서 나누는 평화의 키스에 대한 오해 등이 포함되었다.

산 소망, 산 돌08: 교회(3)(벧전 2:13-17)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세스테르티우스 주화(AD 71)
로마가 유대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듬해에 주조된 청동 세스테르티우스 (Sesterlius)로서 정면면에 월계관을 쓴 베스파시아누스의 두상을 새겼고, 뒷면에 IMP CAES VESPASIAN AVG P M TR P P COS III (인페라토르 캐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대제관 호모판 국부 집정관 3회)라고 새겼다. 뒷면에 대추야자나무를 중앙에 새겼고, 우측에 슬픔에 잠긴 유대인 여성 포로(노예)를 좌측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오른손에 창을 왼손에 호신봉 단검(parazonium)을 왼쪽 발을 투구 위에 올려놓은 모습을 새겼다. 그리고 뒷면에 IVDAEA CAPTA(유대 정복되다)라고 새겼다. 중앙 하단의 SC는 Senatus consulto의 약자이며 ‘원로원의 법령에 따라’란 뜻으로써 백성이 순종해야 할 제도의 권위를 보여준다(벧전 2:13). 제시하였다.

13-15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과 같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하였다.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는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표준새번역〉는 의미이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인가? 문맥적으로 볼 때, 그것들 또는 그들은 “인간의 모든 제도”와 왕과 총독 곧 권세 있는 것들과 권위자들을 총칭한다. 여기서 “어리석다”나 “무식하다”는 말은 세상의 지식에 어리석거나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곧 신령한 하늘의 세계에 대해서 어리석고 무지하다는 것이다. 영적인 신령한 하늘의 세계에 어리석고 무지하므로 여차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하는 것은 선한 행동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다. 그것이 선한 행동인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혐오감이나 박해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13절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을 “주를 위하여” 하라고 하였다. 15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다.”고 하였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왜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이미 언급되었듯이, 국가의 제도나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교에 대한 혐오감이나 박해를 예방하는 것은 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는 “위에 있는” 권세나 제도가 합당할 경우에 한한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알숭배, 황제숭배, 신사참배와 같은 우상숭배나 그리스도교 신앙에 상반되는 요구를 강요당할 때 순교를 각오하고 거부하였다.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로마제국의 상징

‘SPQR’은 SENATUS POPULUSQUE ROMANUS의 약자로서 ‘로마의 원로원과 대중’이란 뜻으로써 대중이 순종해야 할 국가 제도의 권위를 보여준다(베전 2:13).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하였다. 바울은 디도서 3장 1-2절에서 디도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상기시킬 것을 당부하였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였다.

베드로와 바울은 67년경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바울은 참수를 당하였다. 사도들은 권력의 사악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17절)고 권면하였다. 사도들은 혁명을 꾀하나 개혁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사악한 권력이 그리스도의 권세아래 꺼꾸러질 것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리 권력이 사악할지라도 참고 견뎌야 했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네 가지 것을 성도들에게 상기시킬 것을 목회자들에게 당부하였다. 첫째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라고 했고, 둘째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라고 했으며, 셋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라고 했고, 넷째는 “관용하며

셋째, 제도나 왕이나 총독과 같은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위임 권세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13장 1-2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당부하였다. 바울은 필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파급력을 기대했을 것이다.

16-17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말씀에서 “자유”는 19세기의 질적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이 <자유론>에서 말한 자유, 곧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씀에 연결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국력을 내린 네로 황제의 세스테르티우스 주화(AD 62). 전면에 NERO CLAVDIVS CAESAR AVG GERMANICVS(네로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라고 새겼고, 뒷면에 PONTIF MAX TR P IMP P P(대신관 호민관 임페라토르 국부)라고 새겼다. 중앙에 기타 연주자인 아폴론 신을 모방하여 팔각이는 옷차림을 하고 철계만을 쓴 네로가 기타를 연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새겼다. 베드로는 네로에게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쓴 서신에서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권면하였다(벧전 2:17).

베드로 사도가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한 말씀에 연결되고, 베드로가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고한 말씀은 바울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한 말씀에 연결된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3-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에도 연결된다. 그리고 이들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기결정권을 이상시하는 자유지상주의자나 율법과 규례를 절대시하여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율법주의자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자기 권리와 권한을 제한하여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권면이다.

베드로는 본문 16절에서 자유인처럼 살되, 하나님의 종처럼 살라고 했고, 자유를 죄를 덮는데 쓰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하다는 것은 3P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첫 번째 P는 무벌 곧 죄의 형벌(punishment)로부터의 자유이고, 두 번째 P는 해방 곧 죄의 권세(power)로부터의 자유이며, 세 번째

P는 무죄 곧 죄의 실재(presence)로부터의 자유이다. 바울은 두 종류의 종노릇을 언급하였는데, 죄의 종노릇과 사랑의 종노릇이 그것들이다. 죄의 종노릇은 피차 멸망하는 길이요, 사랑의 종노릇은 피차 상생하는 길이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자유 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함으로 “의의 종”(18절), “순종의 종”(16절), “하나님의 종”(22절)이 된다고 하였다. 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16절)고도 하였다. 죄는 율법의 종노릇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이나 율법의 종노릇은 같다. 또 의의 종노릇과 하나님의 종노릇은 감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랑의 종노릇과 같다.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은 피차 멸망에 이르는 길이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15절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권하였다. 베드로 사도가 본문 16-17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한 권면도 바울의 권면과 맥을 같이 한다.

산 소망, 산 돌09: 교회(4)(벧전 2:18-25)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율리우스 시저의 갈리아 정복 기념주화(데나리온, 46-45BC)
전면에 비너스의 상반신, 머리맡지에 율리우스 시저의 신성을 현시한
헤스(별)로, 목 주변에 전사도구들을 새겼다. 뒷면에 갈리아인 남녀
포로(노예)와 전리품들을 새겼고, 아래에 CAESAR(카이사르)라 새겼다.

베드로는 18-25절에서
이사야 53장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다.

사환들이 범사에 두려워
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
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
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
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
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
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
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
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
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
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Daily Study Bible> 베드로전서 2장
18-25절 부분에서 로마시대의 노예들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놓고 있
다. 필자도 로마시대의 노예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소개한바가 있는데, 그 내용
들과 같은 것도 있고 약간 다른 것도 있어서 그의 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옮겨
왔다. 다음은 그의 글을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로마제국에는 *육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고(*필자 주: 전체인구가 6천만 명이
있고, 노예는 15퍼센트인 9백만 명이었다), 노예제도는 로마의 정복전쟁들에서
시작되었다. 노예들은 원래 주로 전쟁에서 사로잡힌 포로들이었다. 로마 초기에
는 노예가 거의 없었으나, 신약시대에는 백만 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노예가 단순히 천한 직종에만 종사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의사들, 교사들, 음악가들, 배우들, 비서들, 청지기들이 노예들이었다. 실제로 로마에서의 일들은 모두 노예들에 의해서 이뤄졌다. 로마인들의 태도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 자기 일을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일은 노예들에게나 맡기고 시민들은 욕망이 지시하는 대로 느긋하게 살게 하라는 태도였다. 노예공급은 결코 멈추지 않았다.

노예들에게 결혼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동거는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었다. 그것은 마치 새끼 양이 자기를 낳은 어미양의 것이 되지 못하고 양떼의 주인의 것이 되는 것과 같았다.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베스파시아누스의 유대정복 기념주화(데나리온, AD 69-79)
전면면에 율거관(관)을 쓴 베스파시아누스의 두상을, 뒷면에 IMP CAESAR VESPASIANVS AVG(아우구스투스)를 새겼다.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베일을 쓰고 주저앉아 왼팔을 턱에 괸 채 슬픔에 빠진 유대인 여인(유대를 상징)을 전리품과 함께 새겼다.

노예들의 운명이 항상 비참했고 불행했다거나 항상 잔인하게 취급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수 있다. 상당수의 노예들이 가족의 일원으로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 그러나 하나의 중대하고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전체 상황을 지배하였다. 로마법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

라 물건이었다. 노예에게는 그 어떤 법적 권리도 결단코 없었다. 그 같은 이유 때문에 노예에 관한한 공정과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무 생명체를 향한 우정이나 정의가 있을 수 없다. 진실로 말이나 소를 향한 것도 그렇고, 심지어 노예로서 노예를 향한 것에서도 그렇다. 왜냐하면, 주인과 노예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기 때문이다. 무 생명체인 도구가 그렇듯이 노예도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기술하였다. 바로(Varro)는 농기구들을 세 종류 곧 말이 분명한 것들, 말이 불분명한 것들, 말을 못하는 것들로 분류하면서 “말이 분명한 것들에는 노예들이 포함되고, 말이 불분명한 것들에는 가축이 포함된다. 그리고 말을 못하는 것들에는 농기구가 포함된다.”고 하였다. 노예와 가축과 농기구사이에 유일하게 다른 점은 노예가 우연찮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다.

페테르 크뤼솔로구스(Peter Chrysologus)는 그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주인이 노예에 대하여 부당하게 행하든, 화가 나서 행하든, 의도적으로 행

하든, 의도치 않게 행하든, 잊어버리고 행하든, 심사숙고 후 행하든, 알고서 행하든, 모르고서 행하든, 그것은 심판이고, 정의이며, 법이다.” 노예에 관한 주인의 뜻은 심지어 주인의 변덕까지도 유일무이한 법이었다.

노예의 삶에서 불변의 진실은, 비록 노예가 좋은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노예는 여전히 하나의 물건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노예는 인간의 기본권들조차 갖지 못했고, 노예에게는 정의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교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 장벽이 무너지게 되었다. 가장 초기의 로마 주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칼리스투스(Callistus)는 노예였다. 또 귀족이었던 페르페투아(Perpetua, *필자 주: 젓먹이와 함께 수감됐던 20대 북아프리카의 귀족여성, AD 202)와 노예 소녀였던 펠리키타스(Felicitas *옥중에서 딸을 출산)가 손을 잡고 순교를 당하였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대다수는 천한 사람들이었고, 그들 중 다수가 노예였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회중의 회장이 되고, 주인이 그 회중의 교인이 되는 것이 꽤 가능했다. 이것은 새롭고 혁명적인 상황이었다. 그 같은 상황에는 영광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노예에게 착하고 충실한 노예가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두 가지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티투스의 유대정복 기념주화(데나리온, AD 79)
전면에 월계관을 쓴 티투스의 두상을 둘러싸고 IMP T CAESAR VESPASIANVS AVG(임페라토르 티투스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양손이 뒤로 뻗은 채로 무릎을 꿇린 유대인 전사를 전리품들과 함께 새겼고, 둘러싸고 TR POT VIII COS VII(로만관 8회 집정관 7회)라고 새겼다.

첫째, 주인과 노예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노예가 이 새로운 관계를 이용하거나 자기와 자기 주인이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일을 태만히 한 것을 변명할 위험이 생겼다. 그 상황이 결코 끝은 아니다. 그리스도인 주인의 선의를 기

회로 삼거나 그들과 그들의 고용주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징계와 처벌을 면해줄 권리를 부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사이의 관계는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철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다른 누구보다 더 훌륭한 일꾼이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교는 징계 면제 요구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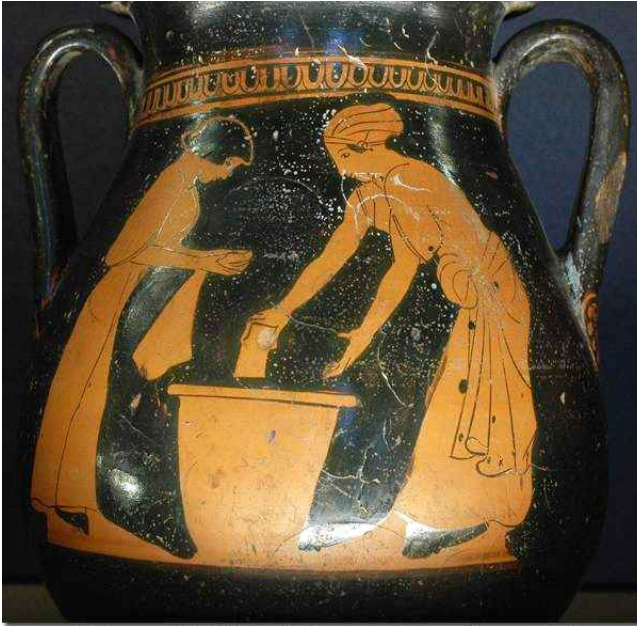
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자기-수양을 쌓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누구보다 더 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든다.

둘째, 그리스도교가 노예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존엄성 때문에 노예가 반역하거나 노예제도를 철폐시키려할 위험이 있었다. 학생들 중에는 신약성경저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노예제도 철폐를 주장하거나 심지어 그 많은 말들 가운데서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해한다. 이유는 단순했다. 노예들이 주인에 대항하여 분기하도록 장려했다면 재앙은 빠르게 닥쳤을 것이다. 이전에 그 같은 반란들이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신속하고 잔인하게 진압되었다. 어쨌든 그 같은 가르침은 단지 그리스도교가 전복(뒤엎어버리는) 종교라는 평판을 얻게 했을 것이다. 일들에는 신속히 이뤄질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상황들에는 마치 누룩이 퍼지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듯이 서두름이 오히려 원하는 성취를 가장 확실히 지연시키는 상황들도 있다. 그리스도교의 누룩은 노예제도 철폐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지기까지 수 세대에 걸쳐 세상 속에서 작용해야 했다. 베드로의 관심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자신들의 종교가 자신들을 불만을 품은 반역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직하게 매일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영감을 얻은 노동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 줘야한다는 것이었다. 여전히 가끔씩 일어나곤 하지만, 당장 바뀔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고, 누룩이 다 퍼질 때까지 바뀔 수 없는 상황을 받아드리는 것이다.

이상은 윌리엄 바클레이의 <Daily Study Bible> 베드로전서 2장 18-25절의 주석 가운데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산 소망, 산 돌10: 교회(5)(벧전 3:1-7)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암포라와 비슷한 펠리케(pelike, ca. 470-460 BC, 루브르)
판(pan) 화가(공방)가 그린 백라를 하고 있는 그리스 여성들

1-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에 대한 주석 <Daily Study Bible>에서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로마 시대의 여성들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해놓고 있다. 필자도 로마 시대의 여성들에 대해서 여

러 차례 소개한바가 있는데, 그 내용들과 대부분 같은 것이어서 그의 글을 가감 없이 그대로 옮겨왔다. 다음은 그의 글을 필자가 번역한 것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교가 불가피하게 야기할 가정문제들에 관심을 돌린다. 부부 가운데 한쪽이 상대방 배우자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복음전도에 싸늘한 반응을 보인 배우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상황에서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은 불가피했다.

아내들에 대한 베드로의 조언이 남편들에 대한 것보다 6배나 길다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이것은 아내의 입장이 남편보다 훨씬 더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일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는 반사적으로 아내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할 것이고, 남편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남편이 이교도로 남는다면, 그녀는 전례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할 첫 발을 딛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고대문명권에서 여성들은 결코 권리들을 갖지 못했다. 유대인 율법 아래에서 여성은 하나의 물건이었다. 여성은 남편의 소유였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남편이 양과 염소 떼를 소유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남편은 부인을 마음만 먹으면 버릴 수 있었지만, 부인은 어떤 경우에도 남편을 떠날 수가 없었다. 부인으로서 종교를 바꾸는 것은,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는 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스 문명에서 여성의 의무는 “실내에 머물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다. 여성이 가능한 한 적게 보고, 적게 듣고, 적게 물어봐야한다는 것은 좋은 여성이라는 표시였다. 여성은 독립적 존재란 것을 갖지 못했고, 자신의 마음이란 것을 갖지 못했다. 남편은 지참금만 돌려준다면 거의 언제라도 부인과 이혼 할 수 있었다.

“너희의 단장은...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리스 여성이 연회장(symposium)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접(kylix) 속 바닥에 그린 적도화(ca. 500 BC,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물 항아리와 포도주 접(skyphos) 및 포도주를 담은 가죽 포대가 여성의 정면과 뒷면 및 발치에 삼각 구도로 조화롭게 배치된 모습을 보여준다.

로마법 아래에서 여성은 어떠한 권리도 갖지 못했다. 법적으로 여성은 언제나 아이로 남아있었다. 여성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권력(patria potestas) 아래 있었다. 아버지의 권력이란 여성의 생사여탈권이 아버지에게 있었다는 뜻이다. 여성이 결혼을 하면, 여성의 생사여탈권이 남편에게 이양이 되었다. 부인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혹은 남편의 자비에 예속되었다. 전형적인 고대 로마인 검열관 카토(Cato the Censor)는 다음과 같

이 썼다. “만약 그대가 아내를 배신(부정한) 행위 중에 잡았다면, 재판 없이 아내를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다.” 로마의 부인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었다. 에그나티우스(Egnatius)는 아내가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그녀를 때려서 죽였다. 술피키우스 갈루스(Sulpicius Gallus)는 부인이 단 한 차례 베일을 쓰지 않고 거리를 활보했다는 이유로 아내를 버렸다. 안티스티우스 베투스(Antistius Vetus)는 부인이 공개석상에서 해방노예에게 은밀히 말하는 것을 보고 그녀와 이혼했다. 푸블리우스 셉프로니우스 소푸스(Publius

Sempronius Sophus)는 부인이 단 한 차례 대중 오락장에 갔다는 이유로 아내와 이혼했다. 고대 문명의 전반적인 태도는 여성은 누구라도 자력으로 그 어떤 결정도 감히 내릴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남편이 조상의 신들에게 충실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아내에게 무슨 문제들이 있었을까? 그리스도인이 될 만큼 용감했던 아내의 삶이 어땠을지 우리로서는 거의 알 수가 없다. 그 같은 경우에서 베드로의 조언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그가 조언하지 않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드로는 아내에게 남편한테서 떠나라고 조언하지 않는다. 이 점에 있어서 베드로는 바울이 취하는 것과 동일한 태도를 취한다(고전 7:13-16). 바울과 베드로는 이교도 남편이 그리스도인 아내를 쫓아내지 않는 한 그녀는 남편 곁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베드로는 아내에게 설교하거나 논쟁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노예와 자유인,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이가 없고, 그녀가 알게 된 그리스도 존전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것을 주장하라고 그녀에게 말하지 않는다. 베드로는 여성에게 뭔가 매우 단순하게 말한다. 좋은 아내가 되는 것 말고는 다른 아무 것도 없다. 아내가 편견과 적대감의 장벽들을 허물고, 남편을 그녀의 새 주인에게 인도할 수 있는 수단은 무언의 설교로써 그녀의 사랑스런 삶에서 묻어나오는 것이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귀히 여기라”



그리스인의 일생을 그린 키릭스(kylix, 470 BC,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컵 외부에 부모의 양육을 받던 아이가 짝을 만나 화족을 밝히는 모습과 부부가 딸을 시집보내고 들어가는 모습을 순차적으로 그렸고, 컵 내부 바닥에 모녀로 추정되는 두 여성이 몸을 씻기 위해서 옷을 벗어 접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그녀는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맹종이 아니라, 누군가가 잘 표현했듯이, “자발적 헌신”을 뜻한다. 그것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섬기려는 열망에 기초한 복종이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온 복종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에서 우리나라온 복종이다.

그녀는 청순해야 한다. 그녀의 삶에는 사랑에 기초한 사랑스러운 순결과 정절이 있어야 한다. 그녀는 경건해야 한다. 그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모든 생명이 그리스

도의 존전에서 살아간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야한다....

그렇다면 남편의 의무는 무엇인가?

첫째, 남편은 이해하고 있어야한다. 남편은 아내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 사려 깊고 예민해야한다. 서머셋 몸(William Somerset Maugham, 1874-1965)의 어머니는 세상에서 으뜸가는 미인이었지만, 아버지는 미남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어머니에게 물었다. “왜 당신은 결혼한 그 못생기고 작은 남자에게 충실하십니까?” 그녀의 대답은 “그는 나를 결코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배려는 깨지지 않는 유대감을 형성했다. 견디기 어려운 학대는 종종 고의성의 산물이 아니라 순전히 무심함의 산물이다.

둘째, 남편은 기사다워야 한다. 그는 여성이 더 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정중히 대해야한다. 고대 세계에서 여성을 향한 기사도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동방나라들에서 남자는 당나귀를 타고 가고, 여자는 그 옆에서 걸어가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드문 광경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기사도를 도입한 것은 그리스도교였다.

셋째, 남편은 여성이 동등한 영적 권리들을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한다. 그녀는 생명의 은총을 입은 동료 상속자이다. 여성들은 그리스로마인들의 제의에 참여하지 못했다. 심지어 유대인 회당에서도 여성들은 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했고, 정통주의 회당에서는 지금도 참여하지 못한다. 여성들에게 회당출입이 허용된 때에도 남성들과 격리되어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에 제한되었다. 여성이 동등한 영적 권리들을 갖는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남녀관계에 변화가 생겼다는 혁명적 원칙이 나타난 것은 이 그리스도교에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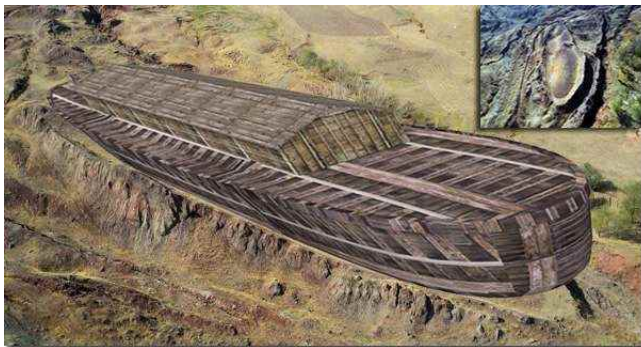
(역자 주: 유대인들은 인구조사에서 여성을 세지 않았다. 여성들은 성전 영내의 이스라엘의 뜰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계명의 아들들 곧 13세 이상의 남성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여성들은 613개의 계명들 가운데 “~를 하라”는 계명 248개를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 그것들은 남성 신체의 뼈와 기관의 숫자란 주장과도 맥을 같이 했다. 같은 이유로 여성들은 기도회 때 회당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다. 성소가 보이는 별관 입실만 허용되었다.)

넷째, 남성이 이 같은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기도들과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있는 것이다. 빅그(Bigg)가 말했듯이, “상처 입은 아내의 한숨이 남편의 기도들과 하나님의 청취사이를 가로막는다.”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다. 만약 동료 인간들과의 우리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결코 올바를 수 없다. 우리가 서로 하나일 때 하나님과도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상은 윌리엄 바클레이의 <Daily Study Bible>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주석 가운데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

산 소망, 산 돌II: 교회(6)(벧전 3:8-22)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나라”



터키와 아르메니아 접경지대에 위치한 아라랏산(초고봉 5137m)과 노아의 방주 모형(합성). 사진은 방주가 안착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으로 정상으로부터 20km 떨어진 터키지역 해발 2000m 산 중턱에 있다.

침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자들이다(개역개정, NRSV, NASB). 이 말씀의 뜻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죄에 대하여 죽고 영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

하는” (표준새번역, KJV,) 혹은 “하나님께 서약하는” (공동, NIV) 것을 뜻한다. 그리고 8-17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응답하거나 서약해야할 내용들에 대한 말씀이다.

첫째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다(8-9절).

둘째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다(10-11절).

셋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이다(14-16절).

그리고 9, 12, 14절은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응답하거나 서약해야할 이유들에 대한 말씀이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고” (엡 2:10), 그로 인해서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다(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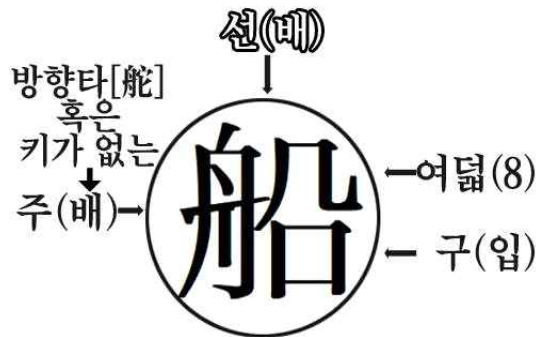
둘째는 하나님께서 눈으로는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귀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얼굴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12절).

셋째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14절, 마 5:10).

17-22절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와 그로 인해서 상속받으신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함이라고 했고(18절), 그 받으신 복은 “하늘로 가서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이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22절).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복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11절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고 하였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여덟 명이라”



방주에 여덟 식구가 탔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한자

20-21절은 노아의 방주와 침례의 연결점 및 침례의 목적에 관한 말씀이다.

20절에서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 (tebah, תֵּבָה)이고, 영어로는 ‘아크’ (Ark, 상자, 櫃)라고 한다. 노아의 방주, 갓난아기 모세를 태웠던 갈대상자, 지성소의 법궤가 ‘테바’이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데 있다.

방주와 갈대상자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가 확실하지만, 법궤는 어떻게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과 연결이 될까? 방주와 갈대상자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지만, 법궤 속에는 만나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 판이 들어있었다. 법궤에는 광야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표적들 곧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증거들이 담겼다. 특히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 판은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계명의 아들들과 관련이 있다. 이스라엘은 계명의 아들들이고 계명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계약한 율법을 지키는 의무자들이다. 그러므로 법궤에 담긴 두 개의 돌 판은 이스라엘 곧 계명의 아들들을 대표한다. 게다가 그들은 홍해라는 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고, 광야라 불린 모래바다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음서에는 제자들

이 갈릴리호수에서 구원을 받는 표적이 두 개가 실려 있다. 그 중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을 때에 광풍이 몰아쳐 죽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음부(죽음)의 권세를 상징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신 표적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지 않았을 때 역풍이 강하게 불었고, 제자들이 밤새도록 사투를 벌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물위로 걸어오셔서 음부(죽음)의 권세를 상징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신 표적이다. 여기서 제자들을 태운 배는 교회를 상징하고, 물은 세상과 음부(죽음)의 권세를, 물에서 받은 구원은 침례와 큰 환난과 죽음에서의 구원을 상징한다. 그 때문에 계시록 15장 2-3절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출 15장),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성경에서 샘물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강이나 바다와 같은 큰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 그리고 물 바깥 곧 해변은 구원을 상징한다. 따라서 성경에는 물에서 구원받은 사건들이 적지 않고 침례와도 무관하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이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례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 집트를 최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홍해를 죽음의 바다로,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 받음으로, 광야를 교회로, 광야에서 먹고 마신 만나와 반석의 물을 주의 만찬으로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요, 가나안복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되는 것이다.

침례를 행할 때 물에 들어가 물속에 잠기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이 죄 씻음을 의미한다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 밖으

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한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라고 말하며 침례의 예표로 설명하였고, 로마서 6장 3-4절에서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 하였는데, 침례에서의 물이 죽음 또는 죽음의 세계를 상징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테바’ (tebah, תִּבָּה)는 교회를 상징하고, 노아와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이다.

테바 곧 방주(홍수), 갈대상자(나일강), 광야(홍해)에는 방향타(키)가 없다. 히브리인들을 인도한 구름기둥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탄 구원의 방주에는 방향타(키)가 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테바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테바 곧 방주(홍수), 갈대상자(나일강), 광야(홍해)에는 돛이나 닻이 없다. 성삼위 하나님이 친히 테바를 움직이는 동력이기 때문이다.

테바 곧 방주(홍수), 갈대상자(나일강), 광야(홍해)에서 인간은 승선자일 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운전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노아의 식구를 살렸던 방주라는 테바, 히브리인들을 살렸던 광야(홍해)라는 테바, 그리스도인들을 살린 교회라는 테바에는 인위적인 방향타(키)나 동력이 필요 없다. 인위적인 방향타(키)나 동력은 테바를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삼천포로 빠지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탄 테바 곧 교회는 하나님이 방향타(키)가 되신다. 고로 인위적인 방향타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탄 테바 곧 교회는 하나님이 동력의 근원이다. 고로 인위적인 동력이 필요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탄 테바 곧 교회는 하나님이 운전하신다. 고로 운전자가 필요 없다.

산 소망, 산 돌12: 교회(7)(벧전 3:19)

구약시대의 음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힌놈의 골짜기(게헨놈, 게헨놈, 게헨힌놈) 한때 바알에게 봉헌했던 곳이고, 몰락에게 어진자녀들을 산 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쳤던 곳이다. 호시아(648-609BC) 때부터 이방인의 무덤과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였다. 이후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상징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 하셨다”는 난해(難解)한 말씀이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에서 과연 옥은 어디인가? 죽은 자들에게 과연 복음전파가 가능한가?

유대교에는 교리가 따로 없다. 그 이유는 613개의 계명과 수많은 규례

(구전)의 실천에 치중하기 때문이다. 유대교는 민족의 생사가 유일신 야훼와 맺은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는 실천 종교이다. 유대인들에게 ‘다가올 세상’ (Olam Ha-Ba)은 오실 자 ‘모쉬아크’가 장차 세울 문자적 이스라엘국가를 말한다.

구약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이란 개념이 없다. 구약성경에 자주 쓰인 ‘스울’ (sheol)은 죽음의 세계 곧 무덤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도가 불가능한 곳이다. ‘스울’에서는 기억하거나 찬송하거나 감사할 수 없고(사 38:18-19, 시 6:5, 30:9, 88:10-12, 115:17),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이다(전 9:10). ‘스울’이 영혼들의 옥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구약성경에는 육체와 영으로 나뉘는 이원론이 없기 때문이다. 또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의 나라 곧 이스라엘과 가나안땅에 관한 문자적인 말씀이다. 따라서 영의 세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예수님 시대에 사두개파들이 천국도 지옥도 영혼도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면에 바리새파들은 천국과 지옥, 영혼과 부활 천사를 믿었는데, 이것은 신구약중간기였던 헬라시대의 영향 때문이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지옥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힌놈의 골짜기를 말한 것인데, 히브어로는 ‘게헨놈,’ ‘게헨놈,’ ‘게헨힌놈’으로 불렸고, 헬라어로는 ‘게헨나’ (Gehenna)로 불렸다(마 5:22, 막 9:47). 이곳에 가룣

유다가 목맨 ‘피발’이 있었다. 힌놈의 골짜기는 한때 바알에게 분향하던 곳이었고, 몰렉에게 어린자녀들을 산 채로 불살라 제물로 바치던 곳이었다(대하 28:1-4, 렘 7:31-33). 그러다가 요시아의 개혁 때부터(왕하 23:10) 이곳은 쓰레기와 동물과 죄인의 시체를 태우는 소각장으로 쓰였다. 24시간 불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잿더미 골짜기였다. 그래서 힌놈의 골짜기는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상징이 되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에덴동산(Gan Eden)에 연결되고, 지옥은 ‘게힌놈’(Gehinnom)에 연결되는데, 연옥과 같아서 ‘다가올 세상’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존재하며, ‘게힌놈’에서 머무는 기간도 최장 12개월로 한정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다가올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헬라시대와 신약시대의 음부



아데미 신전의 원주 유물(325-300 BC, 대영박물관)
이 세 조각의 사진은 동일한 원주의 앞뒤 옆면으로써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좌측부터 날개를 가진 타나토스(죽음의 신), 아드메토스 왕의 복인 알케스티스, 오른손에 전령사의 상징인 케뤼케이온을 쥔 헤르메스 포시코포모스(저승사자), 서 있는 여성과 앉아 있는 남성이 복조되었다. 이 한쌍의 인물들은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로서 음부(저승)의 신들이다.

게 들려오는 비통의 강, 깊은 시름의 강, 분노의 불길 치솟는 불의 강, 인생의 기억들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망각의 강을 차례대로 건너면(이 네 강은 유족이 건너는 강이기도 하다. 비통함, 시름, 화상, 유골처리 후 망각) 너른 벌판에 이르게 되고, 벌판 오른쪽에 낙원(엘뤼시온, Elusion), 왼쪽에 지옥(타르타로스, Tartaros)이 있다고 믿었다. 당연히 이곳에서의 영혼들은 살아 있어서 기쁨도 행복도 고통도 아픔도 느낀다. 베드로가 말한 영혼들의 욕이 이곳일 가능성이 크다.

타르타로스에는 많은 죄인들이 벌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탄탈로스는 물속에 몸을 잠그고 있는데도 영원히 갈증에 시달린다. 탄탈로스가 마시려고 입을 대면 물이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익시온은 끝없이 도는 불 바퀴에 매달려 비명을 지른다. 티튀오스는 독수리 부리에 살을 파 먹히면서 소리를

“옥에 있는 영들에게”에서 옥은 헬라인들에게 벌을 받는 지옥이 아니라, 죽은 자가 누구나 가는 음부 곧 ‘하데스’(Hades)를 말한다. 헬라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땅 속 깊은 곳에 있는 음부의 세계로 옮겨가기 위해 뱃사공 카론에게 뱃삿을 주고 밀바닥이 없는 소가죽 배를 타고 통곡소리가 참혹하게

지르고, 다나오스의 딸들은 밭 빠진 독에다 끝없이 물을 길어다 붓는다. 시쉬포스는 산꼭대기로 바위를 굴러 올리는데, 바위가 산꼭대기에만 이르면 다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시쉬포스는 영원토록 그 바위와 씨름을 한다. 영혼의 안식이 없는 곳, 바로 그곳이 타르타로스이다.

신약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헬레니즘 사상이 유럽은 물론이고 근동과 북아프리카에 스며든 지 이미 400년이 다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만큼 베드로전서의 일차적인 독자들인 현 터키 곧 옛 아나톨리아지역의 사람들은 그들이 헬라인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음부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다. 다만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게헨나’가 쓰인 것은 마태복음의 일차적인 독자들이 팔레스타인지역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지역의 보통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헬레니즘보다는 구약성경에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어서였다. 신약성경에는 헤브레이즘과 헬레니즘이 모두 담겨 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신약성경에도 낙원과 음부(타르타로스)가 있지만, 낙원은 땅속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지옥의 개념으로 무저갱과 불 못이 있는데 활화산과 연관 지을 수 있다. 계시록 15장 2절에 실린 ‘붉은 유리 바다’는 홍해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40여 시간 죽음을 맛보셨기 때문에 음부의 세계로 내려가셨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낙원으로 가셨어야 맞다(벧전 3:22). 예수님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눅 23:43)

그러므로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것은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아니라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셨다 또는 단순히 죽으셨다는 의미일 수 있고,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는 뜻은 예수님 이전에 죽은 영혼들에게까지도 그리스도께서 구원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소식이 선포되고 전해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음부에 갇힌 불순종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뜻일 텐데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과도 배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능성 있는 해석을 아래와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셔서 죽은 영혼들에게 말하신 선포는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죄값과 흘리신 보혈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다가 죽은 의로운 영혼들에게 소급시켜 낙원으로 옮기기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Sarpedon)의 죽음(515 BC, 이탈리아 로마) 유키테오스(Euxitheos)가 만들고, 유프로니오스(Euphronios)가 그린 칼릭스 크라테르(calyx-krater)이며, 1971년에 로마 근교에 있는 에트루리아인의 동굴무덤에서 발굴되었다. 트로이 전투에서 사르페돈이 파트로클로스(patroklos)의 창에 찔려 피를 흘리며 죽자 저승사자 헤르메스(Hermes, 중앙)가 지켜보는 가운데 잠의 신 후프노스(Hypnos, 좌측)와 죽음의 신 타나토스(Thanatos, 우측)가 시신을 운반로 옮기고 있다. 좌우측 끝 통사들은 라오다마스(Laodamas)와 히포로코스(Hippolochos)로서 사르페돈보다 먼저 트로이 전투에서 사망한 트로이 전사들이다.

위한 것일 수 있다(롬 5:15-21 참조). 그러나 이 해석이 가능해지려면, ‘스울’과 ‘하데스’를 동일하게 봐야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데스’에서처럼 ‘스울’에 갇힌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선포를 들을만한 의식이 있었느냐에 상관없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할만한 능력이 죽음을 친히 맛보셨고, 또 부활하실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는 점에서 이 해석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노아시대에 불순종한 영혼들에게 천상의 성자 하나님께서 음부로 내려가 선포하셨다

는 주장도 있고(글리슨 아처), 타르타로스에 갇힌 “범죄한 천사들”(벧후 2:4)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주적이고, 이 우주에 하나님의 은총이 미치지 아니한 구석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있다(윌리엄 바클레이).

산 소망, 산 돌13: 그리스도인들의 삶(I)(벧전 4:1-6)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영국 콜체스터(West Road in Colchester)의 한 로마무덤에서 1848년에 발굴된 장식용 단지(AD 175, 콜체스터 캐슬 박물관, 17 x 22 센티미터) 네 명의 검투사들인 세쿰두스(Secundus), 마리오(Mario), 멤논(Memnon SAC VIII), 발렌티누스(Valentinu Legionis XXX)가 그들의 주먹기와 함께 복조되었다. 세쿰두스는 곧바로 마리는 채찍으로 고통(맹수)과 싸우고 있고 (두들치), 로마군과 방파로 무장한 멤논은 9번의 검투에서 살아남은 자이며, 그들과 삼십자상으로 무장한 발렌티누스는 로마군 30군단 출신이다. 그는 이 사람들의 패배자로서 무기를 버리고 손가락을 세워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고 있다.

1절 “그리스도께서 이
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
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
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에서
“같은 마음으로” 는
“같은 각오로” (공동, 가
톨릭), “같은 태도
로” (same attitude, NIV),
“같은 의도로” (same
intention, NRSV), “같은
목적으로” (same purpose,
NASB)란 뜻이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이
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
으니” 너희도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마음을 단

단히 다지라는 뜻이다, 마치 목숨을 걸고 싸워야하는 검투사가 싸우러 나갈
때마다 단단한 각오로 무장을 하듯이 박해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하라는 권면이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에서 “육체의 고난”
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말한다. 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
를 그쳤다” 에서 “죄를 그쳤다” 는 “죄와 인연을 끊었다.” (새번역)는 뜻
이다. 죄와 인연을 끊었다고 해서 죄지를 성질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육체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본능(죄
지를 성질)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
키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라면,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이고, 죄
와의 관계를 끊은 사람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롬 23:10)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고난은 용광로에 들어간 것과 같고 불로 단련되어 모든 불순물이 걸러지고 순금으로 나온 것과 같아서 죄와의 관계 또는 죄와의 인연을 끊었다고 할 수 있다. 고난과 박해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때문이다. 박해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로써 고의로 악행을 저지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악행을 거부할 것이고 악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죽고 장사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혼이 부활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3무(無)한 사람이고, 3P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3무는 무벌(無罰), 무구속(無拘束), 무죄(無罪)를 말하고, 3P에서 자유하다는 의미는 죄의 형벌(punishment), 죄의 권세(power), 죄의 실재(presence)로부터의 자유 곧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롬 6:16-22)이 된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새 기준의 원형과 실체이신 예수님(AD 10세기말 11세기초 비잔틴 주화) 전면면에 예수님 통안에 십자가 후광을 가슴에 복음서를 새겼고,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왕들의 왕'이라고 새겼다. 예수님은 인류의 '산 소망'과 '산 돌'(새 기준)이시고, 인류가 피할 '바위'와 '산성'이시며 '구주'이시다.

그런 극한 방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례식 때 받았던 권면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써 죄와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청산할 것을 당부한 말씀이다. 죄와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므로 육신의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것이다.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자기네와 함께 방탕한 삶에 휩쓸리지 않는다고 해서 괴이하게 생각하며 욕설을 퍼붓는다. 그러나 그들의

2-5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간 때로 죽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바울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처럼 구원 받은 사람들의 행실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다. 구원의 목적이 선한 행실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헬라의 신들은 능력을 행하고 죽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상당수가 인간들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었다. “그리스인들에게 신을 만들어준 사람은 호메로스(800?-750 BC)와 헤시오도스(740-670 BC)이다”는 말이 있다. 호메로스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의 저자이고, 헤시오도스는 신의 죽보를 정리한 <신통기>의 저자이다. 신화는 통치자들에게 필요했지만, 오락이 필요한 평민들에게도 필요했다. 신들의 이야기는 연극무대에서 희화되었고, 인간보다 못한 신들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종종 오버랩 되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신화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신앙에서 신화를 철저히 배제시켰다. 그 신들이 모두 가짜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참 되시고 의로우셨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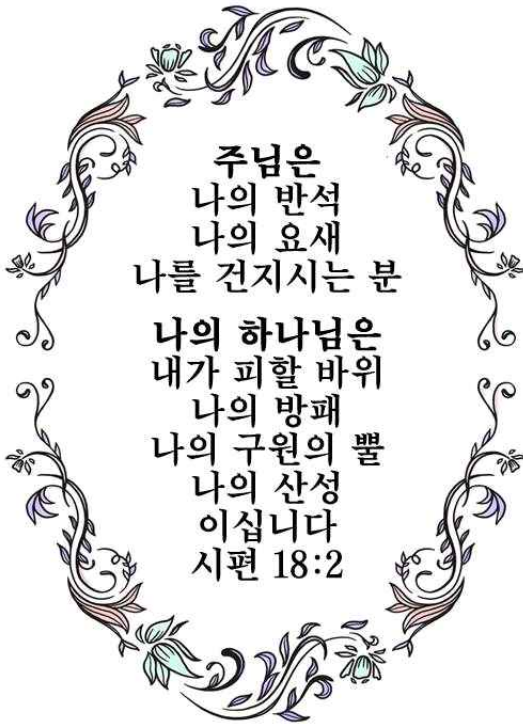
본래적 신앙을 목적으로 삼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위, 또 하나님과 이웃을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으며,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유와 권한까지도 제한하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에 의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26절에서 그 같은 것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꼽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성령으로 행해야 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한다.”고 권면하였다.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에서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첫째로, 3P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란 말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첫째 P는 무벌 곧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이고, 둘째 P는 해방 곧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이며, 셋째 P는 무죄 곧 죄의 실재로부터의 자유이다. 3P에서 자유하다는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롬 6:16-22)이 된다는 뜻이다.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둘째로, 2절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란 뜻이다.

“죽은 자들에게도”에서 “죽은 자들”은, 첫째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곧 죄와 인연을 끊지 못한 사



람들(1절),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2절),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한 사람들(3-4절)을 말한 것일 수 있다.

둘째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말한 것일 수 있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롬 6:23). 따라서 ‘죽은 자들’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자를 말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에서 “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

는 영생”을 보장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서 영혼구원은 현재구원 곧 거듭남(중생)을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함을 받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영혼구원은 미래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고 그 약속을 성령님이 보증하심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을 무상으로 주시는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다.

산 소망, 산 돌14: 그리스도인들의 삶(2)(벧전 4:7-11)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톨스토이는 <대자>에서 걸레가 깨끗해야 얼룩이 남지 않는 것처럼 먼저 자기 마음이 깨끗해야 타인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마음이 더러운 사람은 타인의 마음에 얼룩을 남길 수 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는 베드로전서의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이다. 4장 1-6절에서 죄와 불신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권면한 베드로는 7-11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권면하기를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불평하지 말고,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고 하였다. 또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자답게 하라고 하였다.

톨스토이가 쓴 23개의 민화 가운데 <대자>(Godson)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대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늘 새로운 통찰과 반성의 기회를 준다. 톨스토이는 이 글을 그리스도인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썼을 것으로 본다. 당대에는 러시아인 상당수가 정교회 교인들이었다. 아무튼 이 글에서 톨스토이는 그리스도인들을 구도자로 보고 세 가지 덕목을 말하였다.

첫째, 자신의 걸레가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다. 걸레가 깨끗하지 못하면 청소가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깨끗하게 빨지 않은 걸레는 악취가 나고, 그 상태로 걸레질을 하게 되면 얼룩과 악취가 남게 된다.

7-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이 걸레는 우리 구도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신앙 상태를 말하기도 하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말하기도 한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신앙이 바르지 못한 사람, 가치관과 세계관이 잘못된 사람은 이웃에게 얼룩을 남긴다. 악취를 남긴다.

깨끗하지 않은 걸레는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그러나 삶거나 비누로 깨끗하게 빨아 말린 걸레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로 간주된다. 따라서 구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걸레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 걸레를 깨끗하게 하는 것일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톨스토이는 <대자>에서 버팀목이 강해야 했을지 않는 것처럼, 먼저 자기 자신의 심지가 견고해야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은 타인에게 휘둘릴 수 있다. 위의 사진은 수레바퀴를 만들기 위해서 클램프들을 원형목에 판 구멍에 끼어넣어서 나무를 휘고 있는 모습.

톨스토이는 걸레를 의식주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했다. 의식주 문제에 얽매인 삶을 불결한 걸레로 본 것이다. 의식주 문제에 집착하거나 얽매어 살게 되면 반드시 이웃에게 얼룩과 악취를 남기게 된다고 본 것이다. 잘살고 못사는 것은 상대적이다. 먹고 사는 데 큰 불편이 없는 데도 자기보다 좀 더 잘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심통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자기 이웃에게 얼룩과 악취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라고 말한다. 그것이 걸레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산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 사랑으로 살라는 뜻이라고 했다.

둘째, 자신의 버팀목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이다. 버팀목이 튼튼하지 못하면 버팀목에 걸어서 휘거나 꺾으려 했던 것에 오히려 휘둘리게 된다.

이 버팀목은 우리 구도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신념과 생사관을 말하기도 한다. 이 버팀목이 강하지 못하면 이웃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이웃에게 휘둘리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에게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보이고, 그 영향력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에게 끌려가고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다. 믿음이나 신념이 강하지

않기 때문이다.

버팀목이 튼튼하지 못하면 이웃에게 휘둘린다. 이웃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웃을 꺾어 휘어지게 할 수 없다. 이웃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 그러나 믿음이 확고하고 신념이 강한 사람은 이웃에게 존경을 받는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구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버팀목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버팀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일까?

톨스토이는 버팀목을 생사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했다. 생사문제에 얽매인 삶을 튼튼하게 박히지 못한 버팀목으로 본 것이다. 생사문제에 집착하거나 얽매어 살게 되면 반드시 이웃에게 휘둘리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이웃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도자로서의 사명인 복음전도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것이다. 그것이 버팀목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톨스토이는 <대자>에서 밀불이 강해야 젖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자기 마음의 불이 뜨거워야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사랑이 뜨겁지 못한 사람은 냉정한 타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이 식어버릴 수 있다.

톨스토이는 <대자>에서 밀불이 강해야 젖은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먼저 자기 마음의 불이 뜨거워야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사랑이 뜨겁지 못한 사람은 냉정한 타인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이 식어버릴 수 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살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톨스토이가 <대자>(Godson)에서 말하고자 한 내용이다. 예수님도 살고자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하셨다.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다. 죽기를 각오하면 일당백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셋째, 자신의 밀불이 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밀불이 강하지 못하면 불 위에 얹히는 젖은 것들, 잘 타지 않는 것들을 태우지 못한다. 밀불이 강하지 못하면 자기불도 꺼뜨리게 되고 매캐한 연기만 가득 남기게 된다.

이 밀불은 우리 구도자들의 충만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님의 충만을 말하기도 한다. 사랑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에게 매캐한 연기만 가득 남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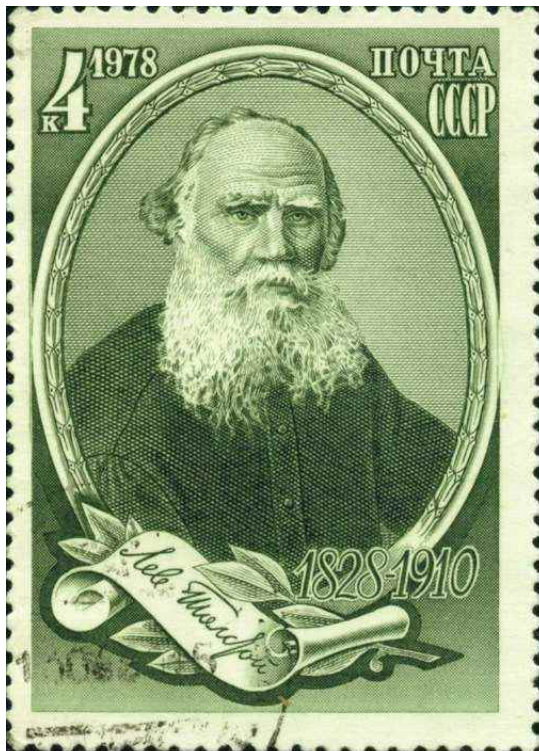
밀불이 약한 사람은 자기 불을 꺼뜨리는 사람이다. 이웃들의 욕설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반대에 부딪히면 불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이웃들로부터 외면을 당한다. 그러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웃들의 욕설도 태워버릴 수 있고,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반대도 다 태워버릴 수 있다. 그러니 시험 들어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쓰러질 리가 없다. 따라서 구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밀불, 성령님의 밀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밀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일까?

톨스토이는 밀불을 이웃에 대한 불같은 사랑과 연결해서 생각했다. 이 불이 약한 사람을 매캐한 연기만 남기는 사람으로 본 것이다. 잘되는 것은 자기 탓이고, 잘못 된 것은 이웃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먹고 입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 톨스토이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죽음을 걱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사람이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다. 이 사랑의 불이 뜨겁지 않으면 자기 인생에 매캐한 연기를 내게 되고, 매우니까 눈물을 뿌리며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걸레가 깨끗하지 못한 사람, 버팀목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 밀불이 강하지 못한 사람은 살림의 일을 하지 못한다.

산 소망, 산 돌15: 그리스도인들의 삶(3)(벧전 4:8)

의식주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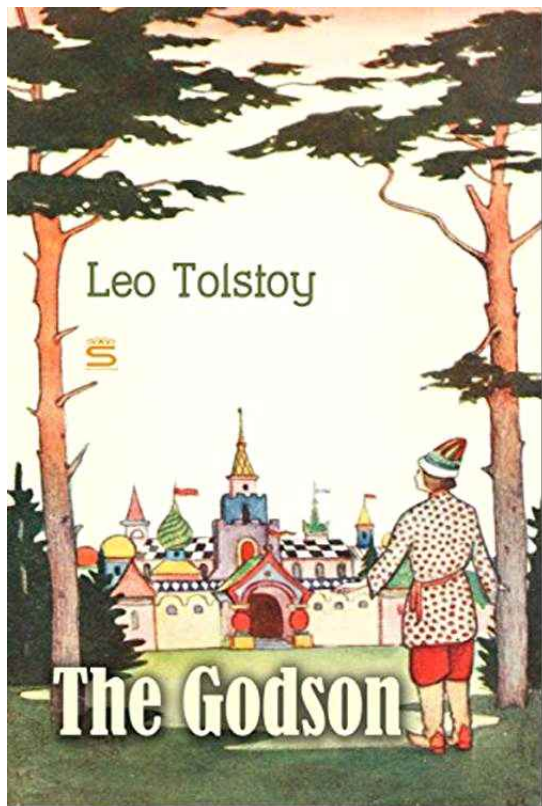
1978년에 발행된 레프 톨스토이 탄생 150주년 기념우표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는 후반부 내용으로써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다. 그 첫 부분인 4장 12-19절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용광로의 불처럼 단련하는 불길일 터인데, 그와 같은 시련의 불길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였다.

톨스토이는 <대자>(Godson)라는 민화에서 구도자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살림의 일에 있다고 하였다. 대자는 나이 들어서 숲 속에서 수도생활을 했는데, 그의 사명은 불에 타다 꺼져 죽은 숯검정이기 되다시피 한 세 개의 사과나무 막대기를 땅에 심고 물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날마다 냇가에 내려가 입에 물을 머금어다가, 이미 죽은데다가 불에 타기까지 해서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마른 막대기에 물주는 일을 거르지 않았다. 소문이 나자 신도들이 찾아들었고, 대자는 그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살았다. 사람들은 대자를 존경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재미로 사는 잔악무도한 살인 강도였다. 이 강도는 일종의 스토킨가로서 수시로 대자를 찾아와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죽은데다가 불에 타기까지 한 사과나무 막대기는 다름 아닌 바로 이 강도의 심령상태였다.

아무튼 대자는 이 강도를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30년이였다. 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왜 이토록 많은 시간이 걸렸느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대자가 먹고 입고 사는 의식주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데 걸린 시간이 10년이나 되었고, 죽느냐 사느냐의 생사문제를 하나님께 맡겨 버리는데 또 10년이 걸렸고, 자기를 무시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살인강도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또 10년이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대자가 의식주문제와 생사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과 자기를 무시하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살인강도를 뜨겁게 사랑하는데 걸린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면, 살인강도가 변화를 받는 시간도 그만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 시간이 무려 30년이나 되었기에 살인강도가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30년이나 되었던 것이다.

생사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라.



〈대자〉의 표지삽화(1916년, 그림: Michael Sevier)

대자(Godson)가 강도를 만나 마음고생을 시작한 것은 수도생활을 시작한 직후였다. 대자는 강도가 두려웠다. 강도가 무서워서 신자들이 암자로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할지 늘 근심걱정이 많았다. 그런 세월이 무려 10년이나 되었던 것이다. 수도생활 10년 끝에 대자는 깨달은바가 있어서 암자를 버리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없는 깊은 숲 속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제야 비로소 대자가 자신에 대한 걱정을 그치고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인생살이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찾을 수 없는 더 깊은 숲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살인강도만은 대자의 그런 참 뜻을 읽고 있었고,

대자가 숨어들어간 곳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강도는 대자의 먹을 것을 자루에 넣어 몰래 가져다주었다. 대자의 깨끗한 마음에 살인강도의 마음 한구석에 변화가 일고 있었던 것이다. 그제야 강도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는 대자의 설교를 마음에 새기기 시작했던 것이다. 강도의 타버리고 말라버린 마음에 변화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타버리고 말라버린 사과나무 막대기 세 개 중의 하나에 대자가 계곡의 물을 입에 머금어다가 뿜어 준지 10년 만에 기적처럼 싹이 돋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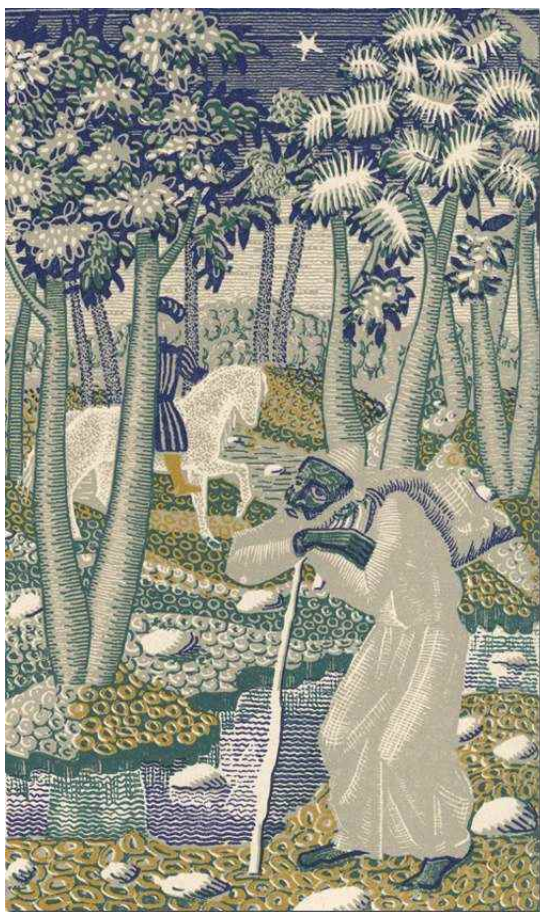
대자가 사람들을 피해 더 깊은 숲속에 들어가 수도한지 다시 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대자는 이 20년 수도 끝에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옳은 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무서운 강도라 할지라도 더 이상 무섭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강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 단단히 고정시켰을 때, 굶힐 줄 모르던 강도의 고집이 꺾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도의 타버리고 말라버린 마음에 변화의 기적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타버리고 말라버린 또 하나의 사과나무에 싹이 돋기 시작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라.

또다시 십년의 세월이 흘렀다. 대자는 이제야 비로소 30년 수도생활 끝에 잔악무도한 강도를 가엾게 여겨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온갖 욕설을 퍼붓는 강도의 영혼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뜨거운 사랑에 강도의 차디찬 마음이 얼음 녹듯이 녹아내렸다. 강도의 타버리고 말라버린 마음에 회개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자 마지막 남은 막대기마저도 싹이 돋기 시작했다.

타버리고 말라버린 세 개의 사과나무가지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기까지 30년이 걸렸다. 대자가 산등성에 심고 계곡의 물을 입에 머금어 담아와 뿜어주며 30년을 키웠던 타버리고 말라버린 세 개의 사과나무는 다름 아닌 그를 시험하고 괴롭히던 잔악무도한 살인강도였다. 결국 이 살인강도는 대자의 깨끗한 걸레에 닦이고, 탄탄한 버팀목에 걸려 휘어졌으며, 강한 밀볼에 녹아졌다. 결과적으로 이 살인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대자를 이어 구도자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였다. 대자가 일평생 수도를 통해서 도달했던 깨끗한 걸레와 탄탄한 버팀목 그리고 강한 밀볼은 소생될 가망이 없던 한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었지혜였다.

대자가 타버리고 말라버린 사과나무 막대기와 같았던 살인강도의 마음을 움직여 변화의 싹이 돋게 한 힘은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톨스토이는 <대자>(Godson)를 통해서 독자에게 세 가지 덕목을 요구하였다. 첫째는 의식주문제를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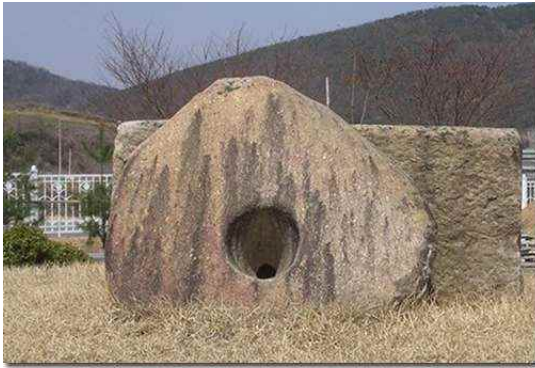


레프 톨스토이의 민화 <대자>의 삽화
대자가 숲속에서 흉악한 강도와 마주치는 장면. 대자는
이 강도를 회개시켜 자신의 후계자로 삼는데 30년이 걸린다.

께 맡겨버리라는 것이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물질문제, 금전문제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생사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고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 의식주문제나 생사문제를 염려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뜨겁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전도하며 살림의 일을 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타버리고 말라버린 막대기와 같았던 살인강도의 마음을 움직인 힘이었던 것이다. 마른 막대기와 같던 우리의 마음을 녹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은 것이었다.

산 소망, 산 돌16: 그리스도인들의 삶(4)(벧전 4:12-19)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연동성지(리산)에서 발굴된 형구돌
병인박해(1866)때 신자의 목에 밧줄을 걸어 큰 돌구멍 반대
편에서 잡아당겨 머리가 돌구멍에 끼이게 하여 죽이던
잔혹한 형구. 연동성지에서만 4개의 형구돌이 발견되었다.

베드로전서는 크게 두 개의 설교로 나뉜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로써 침례식 때의 설교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신자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침례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당시의 신앙적 결단과 감격을 되살려 주려는 목적에서 첨가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써 고난으로 인해서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성도가 당할 고난에 대한 당부와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라는 권면과 성도들에게는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을 부탁한 말씀이다. 본문 12-19절은 두 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이자 고난에 대한 당부의 말씀이다. 성도의 고난은 용광로의 불처럼 단련하는 불길이 될 터인데, 그와 같은 시련의 불길이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며,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권면하였다.

성도는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아는 자들이고, 불같은 시련을 당하여도 배도하지 않고 그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이다. 히브리서 11장 36-38절은 성경시대에 신앙인들이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악형들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곤장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으로 켜이고, 칼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양과 염소 가죽을 쓰고 맹수에 찢기고,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며,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숨어살았다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가톨릭신자들도 이에 못지않은 잔학한 박해를 당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배고픔이었다. 배교하면 준다고 밥을 주지 않았던 것이다. 박해 가운데 신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것이 배고픔이요, 목마름이었다. 다른 형벌은 잘 이기고도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진 사람들이 많았다. 전북 완주군 동상면 광암리에 있는 대아리 저수지에 있었던 속칭 고산 널바위에 살았던 김성철은 아들을 포함한 가족 6명과 마을사람 17명과 함께 체포되어 여산으로 끌려와 신문을 받고 나이 62세 때에 교수형을 받았다. 구전에 의하면, 이들은 얼마나 혹형과 굶주림에 시달렸던지, 옷 속에 있는 숨을 뽑아 먹다가 풀밭인 처형지로 끌려 나오자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었다고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둘째, 귀양살이였다.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수형에 처하고, 15세 이하의 자녀와 처는 노비로 삼으며, 시집가기로 약속된 여자는 친정으로 보냈고, 그 밖의 식솔들은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냈다. 그리고 가산을 몰수했다. 예를 들면, 전주에서 육시형을 받았던 유항검의 큰아들 유중철은 동생 문석과 함께 교수형에 처해졌고, 유항검의 처 신희는 함경도 경원부로, 여섯 살 난 아들 일석은 흑석도로, 세 살 난 일문은 강진 신지도로, 그리고 아홉 살 난 딸 섬이는 거제도, 며느리 이순이는 평안도 벽동으로, 조카 중성은 함경도 회령으로, 유관검(유항검의 동생)의 처 이육희는 평안도 위안으로 각각 보내져 노비로 삼으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셋째, 고문이였다. 교인들이 체포되면 제일 먼저 당하는 것이 매질이었다. 해미에서는 교인들의 머리채를 묶어 나무(회화나무)에 매달아 매질하고, 활을 쏘았고, 커다란 돌다리 위에서 머리채를 잡고 팔다리를 들어, 마치 곡식을 타작하듯이, 돌에 매치어 가슴이 터지도록 머리가 부서지도록 자리개질을 했다.

원주감영에서 순교한 최해성은 어찌나 맞았던지, 다리뼈가 부서져 뺨조각 두 개가 땅에 떨어졌고, 등과 배에 구멍이 나서 창자가 빠져 나왔다.

13년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수기를 낸 신태보는 주리를 트는 고문을 당하였는데, 다리뼈가 으스러지고 손발을 쓸 수 없게 되어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었다. 고문에 있어서 주리를 트는 것은 가장 기본이였다.

다산 정약용의 조카 정하상은 1839년 기해년 박해 때에 체포되어 그가 쓴 한국 최초의 기독교 변증서인 <상재상서>를 트집 잡는 관헌들에게 몽둥이 끝으로 찢리고 톱질을 당한 끝에 뼈가 드러나는 고문을 당하였다.

합덕 사람 손자선은 공주감영에서 거꾸로 매달려 매를 맞고 얼굴에 인분까지 덮어쓰는 고문을 당했다. 그때마다 그는 늘 웃는 얼굴로 “고맙습니

다.” 고 말했다. 포졸들이 때리다가 지쳐 “무엇이 고마우냐?” 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나와 같은 큰 죄인을 위하여 피를 많이 흘리시고 목이 말라 가래침을 잡수시며 돌아가셨거늘, 나를 이 모양으로 대접하여 주니, 이제야말로 내 죄를 보속하게 되었다.” 고 대답했다. 그는 “네 이빨로 네 살을 물어뜯지 않으면 배교한 것으로 여기고 놓아 주겠다” 는 꼬임에도 “만 번을 죽어도 배교는 못하겠다.” 면서 양팔을 한 입씩 물어뜯어 기절하기도 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가 27세였다.

넷째, 죽음이었다. 순교자들 가운데는 양쪽 귓바퀴에 화살이 꽂히고, 얼굴에 물을 뿌린 후에 찢가루를 발린 채로 참수형을 당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고, 교수형으로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옥사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자들은 우물에 빠뜨려 죽이는 경우가 많았고, 손을 뒤로 묶고, 얼굴에 물을 묻힌 한지를 얼굴에 몇 겹으로 발라 질식시키는 가혹한 도모지 방법으로 처형된 사람들이 있었다. 전주천변에 있는 초록바위터에서는 서울 서소문 밖에서 순교한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와 홍낙민의 손자 홍봉주의 아들이 15세 때에 수장되었다. 남종삼의 아들 남명희는 전라감사로부터 “너마저 죽으면 집안의 대가 끊기니 배교하라”는 권고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천지의 대군주이시고 대부모이신데 어찌 배교할 수 있겠습니까?”고 대답했다고 한다.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이다”



조선시대에 가톨릭신자가 얼굴에 화살을 당하고, 양귀에 화살이 꽂힌 상태에서 사형장으로 옮겨지는 모습(미리내성지)
출처: <https://blog.naver.com/daitouryou/221595002900>

1801년 10월 24일 46세의 유향검은 전주 풍남문 밖에서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옥시형을 당했다. 옥시형이란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는 최대 극형으로서, 죄인을 일단 처형한 후에 그 시신을 머리,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몸통의 순서로 여섯 토막을 내어 전국 각지로 보내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형벌이다.

황사영은 백서사건으로 체포되어 나이 27세 때에 사지를 찢기는 능지처참형을 받아 죽었다. 해미

여섯골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한꺼번에 생매장 당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유해가 하나같이 선 채로 발견되었다. 홍주관아에서 원시장은 혹독한 형벌과 고문을 당한 후에 결박된 채로 물세례를 흠뻑 받고 성 밖에 내버려져 얼어 죽었다. 충청북도 연풍에서는 원추형 돌구멍에 밧줄 올가미를 만들어 넣

어 기독교인의 머리를 반대쪽에서 잡아당겨 머리가 돌구멍에 끼여 죽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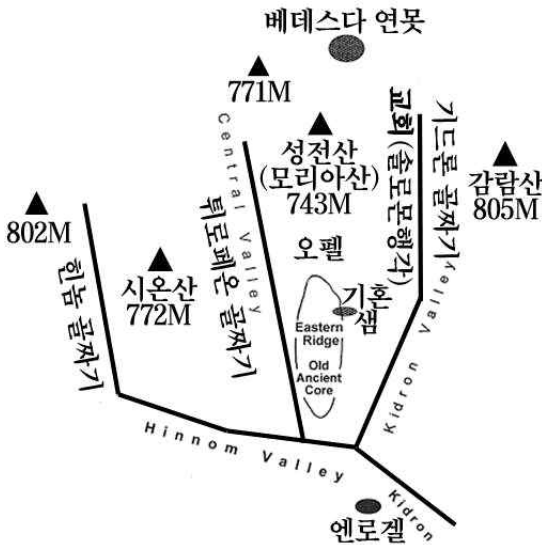
1866년 보령 갈매곶에서 참수를 당한 프랑스 신부 다블뤼 주교의 증언에 의하면, 찢먹이가 딸린 여인들이며 노인과 처녀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조그만 선물을 손에 들고 다블뤼 주교가 거주했던 충남 함덕에서 가까운 신리교회로 3일, 6일 또는 8일씩 걸어서 찾아갔다. 그들은 잡히면 죽게 될 죽음을 무릅쓰고, 머나 먼 산길을 발이 붓고 피부가 벗겨져 피가 나는 것과 혹심한 추위와 눈보라를 무릅쓰고 찾아갔다. 가서는 밤이 맞도록 설교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한다.

성경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수치를 의미했다. 그리스도교는 사교로 단정되었고, 국가정책은 사교를 말살하고 뿌리째 뽑는 것이었다. 때문에 교리를 배우고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죽음을 뜻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수 백리 산길을 남몰래 걸었던 것이다.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견디기 어려운 불같은 시험들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했던 것일까? 그들이 당한 고통과 죽음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나 시련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무엇이 목숨보다 그토록 더 소중했던 것일까?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던 것이다. 값진 진주를 발견하거나 값진 보화를 발견한 후에는 전 재산을 팔아 그것을 산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을 수 있었고, 믿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선배들의 신앙과 정신이 우리 후배들의 신앙과 정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산 소망, 산 돌17: 그리스도인들의 삶(5)(벧전 5:1-14)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히브리어 문자 ‘췌’(𐤔)형태의 예루살렘 지형 및 집회소(교회) 위치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에서 교회들의 장로들은 누구인가? 베드로는 예루살렘교회의 세 명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다른 두 사람은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수제자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는 주후 44년경에 헤롯 아그립바1세에게 참수를 당하였으므로 이름이 같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그 자리를 대신하였을 것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장로로 섬겼다(행 15:13, 행 21:18).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난 친 동생이었다.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들의 승인을 가진 순회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비우는 기간이 매우 많아 수장 역할을 맡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1세기 교회들의 장로들을 세 명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당시 유대교 회당의 전통에 따라 장로들을 장립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유대교 회당에는 세 명의 장로들이 있었고(막 5:22, 행 13:15 참고), 그들은 회당장과 지방공회원(지방재판장)을 담당했는데, 1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이런 유대교 전통을 따랐을 것으로 추정된다.

1세기 교회들의 구조와 조직은 일차적으로 유대교 회당들의 구조와 조직에 연결된다. 예배당의 입구는 동쪽에, 성경궤(법궤)와 주의 만찬상은 서쪽에 있었다. 이것은 성전과 유대교회당의 구조를 따른 것이다. 교회마다 장로가 세 명씩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도 유대교 회당의 장로들(회당장들)이 세 명이였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수제자로 세우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들로 볼 때, 1세기 말부터는 설교와 예배의식과 침례식과 같은 교회의식을 맡아하는 오늘날의 목사와 동일한 기둥 장로의 역할이 부각되었고, 그를 일컫는 호칭도 감독(주교)으

로 점차 바뀐 것으로 보인다. 150년경에 순교자 저스틴은 〈변증서〉에서 예배의 식의 집례자를 일컬어 “형제들의 장”(the president of the brethren)이라고 하였다.

1세기 교회들의 교인들은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전도자들도 초기에는 모두 유대인들이었다. 바울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운 후에 유대교 회당에서처럼 장로들을 세웠는데, 이들이 바로 양 무리를 돌보는 목자들이었고, 감독자들이었다(행 20:17-38).

“양 무리의 본이 되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라는 부탁은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주신 권면으로써 2-3절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고 당부하였다.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행한 고별설교의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 고별설교에서 바울은 먼저 자신이 어떻게 양 무리의 본이 되었는가를 열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 둘째,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 셋째,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 전하

여 가르쳤다.” 넷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다섯째,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겠다. 여섯째,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 일곱째,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다.” 여덟째, “모든 일에서... 본을 보였다.” 아홉째, “힘써 일해서 약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열째,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한다”(행 20:19-35).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네 가지를 권면하였다.

첫째,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 떼를 잘 보살피라.” 둘째, “성령이 여러분을 양 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셋째, 장차 박해자와 이단자들이 교회를 해치려할 텐데, 심지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삼 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넷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다”(행 20:28-32).

5-11절은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으로써 성도들이 목회자인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과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하였다. 원수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였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굳게 세워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젊은 자들아 ...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베드로전서 5장 12-마지막 절까지와 베드로후서 1장 1-5절 부분
(3-4세기, papyrus 72, Bodmer VIII)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 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긍휼

히 여기시고, 지혜와 능력을 덧입히신다는 뜻이다. 반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당시 헬라인들도 교만한 자를 신이 혐오하여 보응하고, 겸손한 자를 신이 사랑하여 긍휼을 입힌다고 믿었다. 예를 들어, 테바이의 왕비였던 니오베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신이 혐오하는 사람’이 되었고, 신의 미움을 받아 석상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고린도의 난쟁이 조각가였던 피그말리온은 겸손으로 인해서 자신이 조각한 아름다운 여성 석상을 사람이 되게 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 피그말리온은 신들을 믿고 감사예배를 바침으로써 ‘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신으로부터 긍휼을 입게 되었다.

7-11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

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에서 마귀는 단지 영적 존재일 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궁극적으로 이길 수 없다. 그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되는 한 가지 이유가 거기에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믿음과 선한양심을 가지라고 하였다. 바울은 이것들을 해전에서의 “군함”에 비유하였다. 반면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저버리는 것을 “파선”에 비유하였다(딤후 1:18-20).

12-14절은 끝 인사와 축복이자 베드로가 친필로 쓴 부분이다.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던 ‘실루아노’가 대필하였다. 실루아노는 히브리명이고, 그의 또 다른 이름 ‘실라’는 로마명이다. 13절에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란 로마교회를 말한다.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 머물렀고, 마가는 그의 통역관이었다.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이라고 칭한 것은 ‘내 제자’란 뜻이다. 유대인들은 스승을 아버지로 부르곤 하였다. 14절에서 “사랑의 입맞춤”은 2세기경까지 지속된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인사법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끝으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을 기원하였다.



보배 믿음, 보배 약속이: 보배로운 믿음(I)(벧후 1:I)

“사도인 시몬 베드로”



베드로후서는 서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밝히고 있고, 1장 16절부터 18절에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자로, 3장 1절에서는 두 번째 편지를 써 보낸다고 말함으로써 본 서신의 저자가 베드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 박해 때인 주후 64년에서 67년

사이에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며, 지금의 터키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어졌다. 본서가 수신자들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만 쓰고 그들이 어느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인지를 밝히지 않았으나 3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쓴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전서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터키 중서부 전역 곧 아나톨리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발송된 회람서신인 것을 알 수 있다.

베드로가 전서에서 외부의 힘 곧 물리적인 박해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격려했다면, 후서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神)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곧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들에서 성장하는 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있고, 또 교회 내부에 침투한 이단자들과 그로 인해서 타락한 자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다.

베드로후서는 유다서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쌍둥이 서신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보다 먼저 쓰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유다서의 일부 내용이 베드로후서에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서신서들에서 겹치는 것들에는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고(벧후 2:1-3, 유 1:4), 범죄한 천사들(벧후

2:4, 유 1:6), 소돔과 고모라 멸망(벧후 2:6, 유 1:7), 발람 선지자를 통한 교훈(벧후 2:15-16, 유 1:11), 악인의 물 없는 샘(벧후 2:17, 유 1:12), 사도들의 권면을 기억할 것(벧후 3:2, 유 1:17), 정욕을 좇아 조롱하는 자들(벧후 3:3, 유 1:18)이 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신앙인들은 언제나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첫째는 외부의 물리적인 박해요, 둘째는 내부의 이단자들의 도전이었다.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이 이 두 가지 위협에 직면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적인 이단자들은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헬라의 영지주의가 혼합된 유대인 에비온파

들이었다. 이들은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주장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유일신 또는 단일신론 자들이었으므로 삼위일체신앙을 거부하였고, 따라서 예수님의 신성이나 동정녀 탄생과 같은 교리를 믿지 않았다. 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문자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으므로 구약성경의 내용들을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의 예표들 곧 모형들과 그림자들로 해석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참고로 유대교는 민족이 가나안땅과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 야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는 실천종교이기 때문에 교리가 거의 없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교리들을 대부분 부정해왔다.

유대인 에비온파들은 두 주의의 혼합인데, 그 하나가 금욕주의이고, 다른 하나가 향락주의이다. ‘에비온파’란 말이 ‘가난한 자들’이란 뜻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금욕주의자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수가 악한 육체가 선한 영혼을 가두는 감옥으로 여긴 헬라의 영지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들이어서 육체를 함부로 다뤘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정하였다. 베드로후서 2장 4-22절뿐 아니라, 신약성경 전체에서 경계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단이 바로 이들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예전에는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자들을 별도의 그룹 곧 유대인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영지주의 그리스도인들로 보았으나 실상은 이들이 야훼를 유일하신 하나님

으로 믿는 유대인 에비온파들이었던 것이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수많은 신들과 황제들까지도 신으로 믿었고,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 및 베르길리우스가 쓴 〈아이네이스〉와 같은 서사시들에 담긴 신화들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방해가 되거나 적대감을 갖게 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로마 신화들은 그리스도교 복음을 수용하는데 있어서 예표나 모형과 그림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세기 교회들의 적대자들은 율법주의와 영지주의가 혼합된 유대인 에비온파들이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베드로후서는 1장에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곧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들 안에서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2장에서는 불의한 자들, 저주의 자식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와 타락의 위험들과 타락한 자들의 불행을 경고하고 있다. 또 3장에서는 불의 심판에 대한 경고와 주의 재림 및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교훈하고 있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1장의 주제는 4절로써 ‘신(神)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고, 2장의 주제는 21절로써 ‘의(義)의 도(道)를 알고 난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지 말라’(비교: 3:17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군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3장의 주제는 18절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이다.

베드로후서에는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대조시켜 말씀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 몇 가지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앎(지식)과 모름(무지)의 대조이다. ‘앎’이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1:2, 8),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1:3), 및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님”(1:20)을 아는 것을 뜻한다. ‘모름’은 신성한 것들 곧 보배로운 믿음(1:1), 보배로운 약속들(1:4), 주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 불의 심판에 관한 것들(3:8-13)을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둘째,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1:10)와 “불의한 자”(2:9) 곧 “저주의 자식”(2:14)의 대조이다. 이 대조는 또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2:9)의 대조이기도하다.

셋째, 받은 것(1:20-21)과 만든 것(1:16, 20, 2:3)의 대조이다. ‘받은 것’이란 성경의 예언들을 말하고, 예언자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이 말한 예언들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뜻한다. 반면에 ‘만든 것’이란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1:16), 성경의 예언들을 “사사로이”(자의적으로) 풀 해석들(1:20),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2:3)을 말한다.

넷째, 신의 성품(1:4, divine nature)과 죄의 성품(2:10, 18, sinful or human nature)의 대조이다. 신의 성품이란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한 것으로써 성령의 열매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성령의 열매들로 말하였고, 베드로는 후서 1장 5-7절에서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와 사랑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죄의 성품으로는 범 죄, 음란, 비방, 정욕, 불의, 점과 흠 등을 언급하였다.

보배 믿음, 보배 약속02: 보배로운 믿음(2)(벧후 1:1-1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소개하였다. 여기서 “종”이란 말은 노예란 뜻이다. 노예란 자기 결정권과 인권이 없는 주인이 소유한 물건이었다. 노예에게는 법적 권리란 것이 없었다. 따라서 노예들은 공정과 공평을 기대할 수 없었다. 노예와 가축과 농기구사이에 유일하게 다른 점은 노예가 우연찮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뿐이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본다면, 베드로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기를 지극히 낮춘 것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100퍼센트 순종하대 모든 권한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것을 뜻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표현은 로마시대에서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황제가 백성의 신이었고 주인이었으며 구주였기 때문이다. 특히 로마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고 처형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황제의 권위를 찬탈하는 것이고 도전하는 것이었다. 로마의 황제들은 신성 또는 신의 아들 또는 신과 주였다. 일부 황제들은 ‘신(神)과 주(主)’(Deo et Domino) 혹은 ‘주와 하나님’(Dominus et Deus)이란 표현을 자신들의 두상이 새겨진 주화에 새겨 넣기도 하였다. 이것은 그리스-로마제국에서뿐 아니라, 고대 근동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황제의 신성이나 숭배가 가능했던 것은 당대에는 다신을 믿었기 때문이다. 신들의 숫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황제신이 하나 더 추가됐다고 해서 문제가 될게 없었다. 같은 맥락에서 야훼 하나님이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로마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었다. 문제는 다른 신들을 우상으로 여겨 인정하지 않는다는데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믿고 섬겨야하는 준엄한 시기에 “신은 한분뿐이요, 주도 한분뿐이다.”를 주장했고, 각종 신상들과 신전들 및 제단들을 부정할 뿐 아니라, 황제숭배를 거부하였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무신론자’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런 저런 오해로 인해서 네로 황제 때 발생한 로마시의 대화재를 일으킨 방화범이란 누명을 뒤집어쓰고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4절 전반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의 신분을 설명한 글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義)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곧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고(1:1),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들

이며(1:2),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곧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고(1:3),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1:4)고 하였다.

또 2절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이 앎(지식)과 모름(무지)을 대조시키고 있다. ‘앎’이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1:2, 8),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1:3), 및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님”(1:20)을 아는 것을 뜻한다. ‘모름’은 신성한 것들 곧 보배로운 믿음(1:1), 보배로운 약속들(1:4), 주의 재림, 새 하늘과 새 땅, 불의 심판에 관한 것들(3:8-13)을 알지 못하는 것을 뜻한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신의 성품의 성숙 단계(베폴 1:4)
 결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베폴 1:11).

1장 4절 후반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위와 같은 구원의 축복을 주신 목적을 설명한 글이다. 그 목적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며(1:4b),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기”(1:5-7) 위함이라 하였다.

1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성도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

는” 일에 힘써야 할 이유를 설명한 글이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부지런하여 열매를 맺고(1:8), 믿음의 걸음에서 실패치 않고(1:10),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은혜를 입도록 하려는 것(1:11)이라고 하였다.

베드로후서는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소유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쓴 글이라고 볼 수 있다. 베드로는 이 글에서 신앙성장의 8단계를 언급하였다. 비록 믿음이 보배롭기는 하지만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언급되었다. 믿음에서 한 계단 발전한 단계가 덕이다. 덕 위에 지식, 지식 위에 절제, 절제 위에 인내, 인내 위에 경건, 경건 위에 형제 우애,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이라고 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바울이 말한 믿음과 사랑 사이에 있는 소망을 성취하는 덕목으로 곧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11절) 받기 위한 덕목으로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8이란 숫자는 주님의 이름 ‘예수’의 헬라어음이 ‘888’에서 나왔다. 그런 연고로 마태복음에서 8은 그리스도교 복음과 넉넉한 구원을 상징하고 있다. 숫자 8은 7+1의 의미로써 ‘넉넉하다.’ ‘채우고 남는다.’ ‘차고 넘친다.’ ‘더하기가 된다.’는 뜻이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받기 위한 신앙성숙의 8단계를 언급하면서 이 8가지를 “신의 성품”이라고 칭하였다.

첫째, 믿음($\pi \iota \sigma \tau \epsilon \iota$, pistei)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뢰의 믿음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과 신앙고백에 담긴 지식에 동의하는 믿음 및 말씀의 순종과 확신 속에서 모든 시련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견인의 믿음을 모두 의미한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에베소의 켈수스 도서관에 세워졌던 여신들(오스트리아 빈의 에베소 박물관 소장, 주후 115년경). 좌측부터 Aretē(도덕적 미덕), Epistēmē(학문, 과학적 지식), Sophia(지혜)

둘째, 덕($\alpha \rho \epsilon \tau \acute{\eta} \nu$, aretē)은 도덕적 미덕, 도덕적 힘 또는 도덕적 우수성을 의미한다. 고대 에베소의 켈수스 도서관에는 세 명의 여신상이 있었는데, 이들은 ‘아레테’(Aretē, 도덕적 미적), ‘에피테메’(Epistēmē, 학문, 과학적 지식), 소피아(Sophia, 지혜)였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3대 덕목을 강조한 것이었다.

셋째, 지식($\gamma \nu \omega \sigma \iota \varsigma$, gnōsin)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벧후 3:18), 세상의 지식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길 만큼 고상한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빌 3:8),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골 2:3),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딤후 1:1) 혹은 “진리를 아는 지식”(히 10:26)을 의미한다.

넷째, 절제($\epsilon \gamma \kappa \rho \acute{\alpha} \tau \epsilon \iota \alpha \nu$, enkrateian)는 자기 통제 곧 절제를 의미하

며, 베드로후서 2장에서 언급된 본능, 불의, 불법, 속임수, 탐욕, 음행 등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힘을 의미한다.

다섯째, 인내(ὕπομονη, hypomonē)는 견인 곧 불굴의 인내 혹은 지속적 인내를 의미한다. 박해, 시련, 환난, 고난,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께 한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위한 인내를 의미한다.

여섯째, 경건(εὐσέβεια, eusebeia)은 불의 혹은 “망령되고 헛된 말”(딤후 2:16)에 반대 개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는”(딤후 6:3) 것을 의미한다. 바울은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딤후 4:8)고 하였다.

일곱째, 형제 우애(φιλαδέλφεια, philadelphian)는 형제 사랑, 형제 친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민족색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자매가 된 사실을 알고, 형제와 자매로 여겨서 친절을 베풀고 우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덟째, 사랑(ἀγάπη, agapē)은 인간들의 에로스(광기)적인 사랑이나 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정의로운 사랑, 헌신적인 사랑, 하나님과 타인을 이익의 수단과 도구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는 사랑. 겸손과 희생과 용서와 헌신이 깃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보여주신 자기 포기과 동일시의 사랑을 말한다.

보배 믿음, 보배 약속03: 더 확실한 예언(벧후 1:12-21)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11절까지에서 언급한 것들을 12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는 말은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목적을 밝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1장 12절에서 뿐 아니라, 13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와 15절에서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했고, 3장 1-2절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고 했다. 또 쌍둥이 서신인 유다서 1장 5절에도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고 했고,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베드로의 이 같은 노력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뤄졌다. 1장 13절에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긴다.”고 하였고, 14절에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고 하였으며, 15절에서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하였다. 이처럼 베드로는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 성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라도 다시 상기시킬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신약성경)을 주신 목적도 이와 같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1:16)을 확실히 믿고, 진리가 마치 섯별이 떠오르듯이 마음에 밝히 깨달아질 때까지 예언(신약성경)을 읽고 묵상하되 사사로이 풀지는 말라고 하였다(1:19-20).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시한 내용은 무엇인가? 여기서 “지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앞날을 예언하신 것과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것으로써 요한복음 21장 18-19절에 담겨있다.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예언이고,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는 명령이다.

그리고 14절은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의 저자임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베드로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언서를 작성하는 심정으로 베드로후서를 썼음을 피력한 것이고, 그 심정이 15절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에 잘 녹아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다볼(Tabor)산과 그 앞에 펼쳐진 이스라엘 골짜기(Jezreel valley)

그리고 16-18절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의 저자임을 뒷받침해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16-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

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라.”

이들 구절에서 “거룩한 산”은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다볼(Tabor, 588M) 산을 말한 것으로써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셨고, 변화하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나누셨다. 그리고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마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변형과 야훼 하나님의 음성과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식을 통해서 계명의 아들이 된 역사적 사건을 다볼산에서 있었던 변형사건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막 6:14-29)과 오천 명(막 6:30-44)과 사천 명을 먹이신 표적(막 8:1-10)과 이 변형산에서의 표적(막 9:2-8)을 예수님의 공생애의 분수령 곧 갈릴리지방에서의 사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의 분기점으로 삼고 있다. 이들 사건이 있고난 다음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오실 자로 예언된 메시아임을 밝히셨고, 곧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명성과 인기를 얻으셨던 갈릴리지역을 떠나 배척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부활승천하신 후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을 누리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의 때를 “영광 받으실 때”라고 말한다.

신약성경에서는 “위로부터”의 표적을 ‘제2의 모세’ 곧 장차 오실 자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표적으로 보고 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제1대 메시아로 믿었는데, 모세는 명실상부한 히브리인들의 구세주였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여 가나안땅으로 인도하는 동안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들을 행하였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자 메시아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들을 행할 것으로 믿었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막 8:11). 예수님은 자기의 때 곧 영광 받으실 때가 다가오자 오천 명과 사천 명을 먹이신 표적들을 펼쳐 보임으로써 당신이 장차 오실 자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속(代贖)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그리고 변형산 사건은 갈릴리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다보(Тabor, 588m)산
예수님의 변형체험이 있었던 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히브리인들의 구세주 모세가 펼친 하늘로부터 온 표적들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신 제2의 모세 곧 예수님이 펼친 하늘로부터 온 표적들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들이었다. 베드로가 19-21절에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셋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언은 결과적으로 신약성경의 말씀을 말한 것으로써 19절의 말씀대로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하였다. “더 확실한 예언”이란 것은 “확실한 예언”보다 ‘더’(much more) 뛰어나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밤하늘에 아무리 많은 별들이 빛을 낸다고 해도 밝은 달 하나에 미치지 못

하고, 아무리 크고 밝은 달이 빛을 낸다고 해도 태양이 내는 빛에 미치지 못한다. 별빛도 달빛도 모두 다 좋지만, 햇빛을 능가하지는 못한다. 베드로는 예언의 말씀을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에 비교하였다. 따라서 “더 확실한 예언”이란 것은 마치 그 밝기가 햇빛과 같은 계시를 말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시대에 주어진 신약성경이란 예언의 말씀이다.

율법시대에 주어진 구약성경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허락하신 것으로써 그 시대에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다. 그리스도교 복음이 전파되기 이전의 고대세계에는 이스라엘의 율법과 유대교보다 더 뛰어난 성문법이나 윤리도덕적인 유일신만을 섬기는 종교가 없었다. 고대세계는 다신 세계였고, 제왕을 포함한 각종 동물과 같은 피조물을 신들로 섬기던 시대였다. 히브리서 7장 18절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므로 폐하였다”고 했고, 10장 9절은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하였는데, 히브리서에서 “더 좋은 것”이란 표현은 ‘좋은 것’과 비교해서 ‘더욱 좋은 것’이란 뜻이다. 그리고 이 비교는 총체적으로 ‘더 좋다’가 아니라 최소한 ‘구원에 속한 것에서 더 좋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약의 것들이 구원에 속한 것에서 한층 더

큰 보물로 부각된 것이라면, 구약의 것들은 구원에 속한 것에서 이전시대에 일시적으로 탁월했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20-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갈릴리 지역과 변화산(다불산) 주변



자료 : <https://blog.daum.net/sunghwa/2126842>

보배 믿음, 보배 약속04: 이단자들의 최후(I)(벧후 2:1-4)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담겨 있다. 첫 소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새번역)란 뜻이다. 여기서 말한 “거짓 예언자들”은 당대 신약시대 그리스도교의 이단자들이 아니고, 과거 구약시대 유대교의 이단자들을 말한다. 베드로는 이어지는 글에서 이들 유대교의 이단자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이미 베드로가 자신의 글의 목적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했듯이, 베드로는 여기서 독자들에게 구약시대의 이단자들이 받았던 보응들을 생각나게 하려하였다. 그것은 이단자들을 주의하라는 경고의 표시였다. 구약시대에 유대교는 민족종교이고 실천종교였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 이단자들은 거의 없었다. 2장 15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에서 브올의 아들 발람은 모압평지에서 히브리인들을 꾀어 브올(Peor)의 바알을 숭배케 한 이방인이자 바알의 선지자였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야훼신앙의 말살을 꾀한 이세벨도 이방인이자 바알의 선지자였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거짓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계 2:14, 20) 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신약성경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상징으로 표현되었다.

1절의 둘째 소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그리스도교 이단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1장 20-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는 말씀에서 볼 때, 성경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고, 2장 3절에서 볼 때,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득을 삼는” 자들이다.

참 교사와 거짓 교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받은 것(1:20-21)과 만든 것(1:16, 20, 2:3)의 차이이다. ‘받은 것’이란 성경의 예언들을 말하고, 예언자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이 말한 예언들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뜻한다. 반면에 ‘만든 것’이란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1:16), 성경의 예언들을 “사사로이”(자의적으로) 푼 해석들(1:20),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2:3)을 말한다. 베드로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 그들이 가만히(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고 했고(참고 유 1:4),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갈라디아서 1장 6-9절에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에비온파들이 율법교사로 추종하는 예수아(예수업)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스도교를 이단으로 정죄한다.
이는 신약교회와 구약교회가 같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2절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에서 “호색하는” 그들은 방탕한 초기 영지주의자들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영지주의자 중에는 금욕을 추구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육체를 악하다고 보고 함부로 한 방탕주의자들도 있었다. 또 그들은 독생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였다.

3절 전반절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에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괴롭히고, 이방인 교회들에 침투하여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한 유대인 에비온파(Ebionites)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였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율법의 근본정신을 일깨워준 참교사로만 인정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을 섬김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따름과 실천의 대상으로만 삼았다. 또 그들은 노아홍수이 전처럼 채식을 고집하였다.

사무엘 진너(Samuel Zinner)는 그의 <도마 복음>(The Gospel of Thomas)이란 책에서, 이 둘을 별개의 그룹들로 보지 않고, 이 둘이 통합된 유대교적 초기 영지주의 그리스도인 에비온파로 보았다. 진너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고전 6:12)며 자유를 외친 자들이나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딤후

4:3)며 금욕(채식)을 외친 자들을 모두 에비온파로 보았다(128쪽). 에비온파 이외에도 ‘엘카사이파’(Elcesaites, AD 100-400)라 불린 영지주의 성향의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에비온파와 비슷한 무리였다.

그리스도교에 로마당국의 박해의 폭풍이 일기까지는 그리스로마인들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수용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없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었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및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와 같은 서사시들에 담긴 신화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교 복음을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예표나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로마황제들이 그리스도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한 것은 로마제국의 변방에 거주하던 야만민족들의 남침이 잦아지면서부터였다. 일부 황제들은 그 까닭을 로마의 수호신들이 자기들에게 불충실한 제국에 분노했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로 판단하였고, 로마의 신들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교를 탄압하였다. 따라서 사도시대에 교회들의 적대자들은 로마가 아니라 유대교인들과 영지주의에 경도된 유대인 에비온파들이었다.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계시록 20-21장(Luther의 신약성서, 1524)
그림은 목각인쇄 후 칠을 한 것으로서 Georg Lemberger
의 공방이 1523년에 만든 것이다. 무저갱의 열쇠와 큰
외사슬을 가진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는 것을 묘사하였다.

3절 후반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는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타인을 이익의 수단과 도구로 삼거나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꾸미는 자들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닥칠 것을 경고한 4-22절의 도입 구절이다.

4-22절은 그리스도교 이전 시대에 있었고, 구약성경 혹은 극히 드물게 구약 위경에 실린 내용들을 근거로 이단자들을 경고하고 있다. 계시록과 히브리서의 저자들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당대에 너무나 잘 알

려진 그리스로마 신화를 전혀 인용하거나 언급하지 않았다. 한 분 야훼만을 믿었던 그들은 신화를 “망령되고 허탄한”(딤후 4:7)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베드로가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이 갇힌 곳을 신화에 등장하는 “타르탈로스”(Tartaros)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신화를 믿어서가 아니라 당대의 사람

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채용한 것에 불과하다. 참고로 신약성경에서는 ‘타르탈로스’라는 말이 이곳에서만 쓰였고, 다른 곳들에서는 ‘무저갱’(abyssos)이란 말이 주로 쓰였다(눅 8:31, 롬 10:7, 계 9:1,2,11, 11:7, 17:8, 20:1,3).

4절에서 “범죄한 천사”는 쌍둥이 서신 유다서 1장 6절로 볼 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로서 심판 때까지 ‘타르탈로스’에 갇혀있는 자들이다. 그리스신화에서도 ‘기간테스’(Gigantes, Giants)나 ‘티탄’(Titan)과 같은 신들이 타르탈로스에 갇힌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특히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는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이 티탄(Titan) 신들과 10년간 하늘에서 펼친 전쟁에서 이긴 후 티탄(Titan) 신들을 타르탈로스에 가두고 봉인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전쟁을 ‘티타노마키아’(titanomachia)라 일컫는데, 계시록 12장 7-9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마귀 곧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말씀이 있고, 20장 1-3절에는 천사가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인봉했다가 일천 년 후에 잠깐 놓일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스신화에서도 ‘기간테스’로 불리는 신들이 타르탈로스에 갇혔다가 풀려나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과 결전을 펼치는 이야기가 있다. 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는 신들을 모독하고 반역한 인간들이 쉼과 안식이 없고, 고통만 있는 타르탈로스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갈증에 시달리는 탄탈로스, 노동에 시달리는 시쉬포스, 불 바퀴에 매달린 익시온, 살을 파 먹히는 티튀오스, 밭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다나오스의 딸들 등이다. 베드로가 4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언급한 것은 하늘의 천사들조차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갇혀야 했다면, 죄를 범한 인간들의 형편은 어떻겠는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배 믿음, 보배 약속05: 이단자들의 최후(2)(벧후 2:5-12)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5-22절은 4절에 이어 그리스도교 이전 시대에 있었고, 구약성경 혹은 극히 드물게 구약 위경에 실린 내용들을 근거로 이단자들을 경고한 말씀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말함으로써 장차 심판받아야 할 악한 천사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암시하였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은 “범죄한 천사들을,” 유다서 6절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이들이 지금 ‘타르탈로스’(벧후 2:4)에 혹은 ‘흑암’(유 1:6)에 갇혀서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 “범죄한 천사들”은 누구인가? 이 구절들에 대한 해석의 어려움과 다양한 견해들은 일단 접어두고, 1-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위경 <에녹서>에 따르면, 이들은 창세기 6장 1-4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네피림”(Nephilim, 쓰러뜨리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 불리는 용사들(히브리어로 학깅보림)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가 노아시대에 있었던 홍수심판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헬라어역본인 <LXX, 칠십인 역>은 “네피림”과 “용사들”을 모두 기간테스(gigantes, 거인들)로 번역하였다.

<에녹1서>(에디오피아 에녹서)에는 사람들에게 욕정을 품은 스무 명의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2백 명의 천사들을 이끌던 지도자들로써 각각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했을 뿐더러 그녀들에게 금단의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고 말한다. 이들 천사집단을 <에녹1서>는 ‘파수꾼들’(Watchers)이라고 부르고, <에녹2서>(슬라브 에녹서)는 ‘그리고리’(Grigori)라고 부른다. 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지상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인간의 여자들을 보고 마음이 홀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이다. <에녹1서>에서는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에게 명해서 그들을 지하세계에 감금해 두었다.”고 한다.

필자가 가진 <에녹2서>에 따르면, 에녹은 두 명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7층 천까지를 차례로 둘러보았고, 가브리엘의 인도로 8,9층천을 보았으며, 미카엘의 인도로 하나님이 계신 10층까지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받아냈는데 그 책이 모두 366권이었다고 한다.

에녹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한 천사들이 깊고 진한 어둠

속에서 목이 매달린 채 감시를 당하면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 곳은 2층천이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위에서 언급된 ‘그리고리’ 천사들의 추종자들이었다. ‘그리고리’ 천사들이 갇힌 곳은 5층천이었다. 또 에녹은 3층천에서 낙원을 보았고, 3층천 북쪽으로 가서 끔찍한 지옥을 보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음부의 세계(하데스) 곧 낙원인 ‘엘리시온’(Elysian Fields)과 지옥에 해당되는 ‘타르타로스’(Tartarus)가 깊고 깊은 지하에 있다고 말하는 그리스신화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대천사 미카엘이 범죄(반역)한 그리고리(파수꾼) 천사들을 타르타로스에 감금하는 모습(Luca Giordano, c.1660-65)

에녹은 또 5층천에서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언급된 “범죄한 천사들”인 ‘그리고리’를 보았다. ‘그리고리’는 자신들의 왕자인 ‘사타나일’(사탄)과 함께 빛의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들을 추종한 천사들은 2층천의 “깊고 거대한 어둠에” 갇혀 있다고 했다. ‘그리고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저들은 모두 하나님의 왕좌에서 땅으로 내려가 에르몬이라는 곳으로 갔느니라. 저들은 에르몬 언덕에서 하나님의 맹세를 저버렸다. 인간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고 그녀들을 아내로 취하여 땅을 더럽게 했느니라. 저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인간과 섞였느니라. 그 사이에서 거대한 거인들이 태어났

으며, 또한 그에 못잖은 커다란 증오와 적대감이 생겨났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크게 심판하셨느니라. 저들은 자신들의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날에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니라(에녹2서 18장).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들 ‘그리고리’의 범죄가 노아시대에 있었던 홍수심판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는 말씀이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타르탈로스)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에 바로 이어진 이유가 될 수 있다.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는 말씀과 평행을 이룬다. 그리고 유다서 7절에 있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에서 “그들은” ‘그리고리’를 말한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 곧 아드마, 스보임 같은 도시 사람들(창 14:8, 신 29:23)이 “범죄한 (그리고리) 천사들”처럼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는 것이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서와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모두 인간에게 멸망을 초래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의 뿌리를 “범죄한 천사들” 곧 ‘그리고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고리’의 “음란한 행실”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는 것이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에서 “경건한 자”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자를 말한다. “불의한 자”는 ‘그리고리’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 곧 아드마, 스보임 같은 도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무법하며 음란한 자들을 말한다. 또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 당하는 시련을 말한다. 8절에서 의로운 롯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가 바로 이 시험에 해당된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는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타르탈로스)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말씀에 연결된다. 또 이 말씀은 불의한 자가 이미 죄값을 받고는 있으나 아직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는 유다서 8절의 평행절로써 “육체를 따라”는 신의 성품(1:4, divine nature)에 반대되는 죄의 성품(2:10, 18, sinful or human nature) 곧 본능을 말한다.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본능의 지시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 곧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형벌을 자초하는 자를 말한다. 이런 자들에게는 “신의 성품”이 없

으므로 철면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 할 줄 모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비방한다.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는 인간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유다서 9절의 평행절로써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만 했고, 마귀보다 더 강한 힘의 소유자

인 미카엘조차도 그 심판의 권한을 겸손히 하나님께 돌렸다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유 1:8) 교만한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였다.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는 유다서 10절의 평행절로써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유 1:8) 교만한 자들은, 마치 잡혀 먹이기 위해서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노아 때의 홍수심판처럼, 롯 때의 유황불심판처럼, 그 멸망이 필연적이고 처참하다는 것이다.



육체의 정욕(베냐민 2:10-18)
결과: 심판

보배 믿음, 보배 약속06: 이단자들의 최후(3)(벧후 2:13-22)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에 정착할 무렵의 바알 신상들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 알렙(항소)과 라메드(지팡이)로 이뤄졌고, ‘엘’은 바알의 아버지 신 곧 ‘father-bull’이다. 시내산에서 ‘야훼’와 언약관계를 맺은 히브리인 유목민들이 가나안 농경 문화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신, ‘엘’을 ‘야훼’와 일치 또는 동등하게 ‘엘-야훼’로 숭배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페르시아의 쿠루스(cyrus, 고레스) 황제 때 수메르의 신 ‘벨’과 바빌론의 신 ‘마르둑’이 합쳐져 ‘벨-마르둑’으로 숭배된 것과 같고, 헬라제국의 알렉산더 대왕 때 이집트의 신 ‘아몬(아몬)’과 헬라의 신 ‘제우스’가 합쳐져 ‘아몬(아몬)-제우스’로 숭배된 것과 동일하다.

13-14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는 ‘심은 대로 거둔다’(호 6:11)는 인과응보를 말한 것이다. 불의한 자들은 낮이고 밤이고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죄를 범한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과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징계가 예정된 “저주의 자식이다.”

15-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울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값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에서 “브울의 아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한 자이다(계 2:14). 15절은 그 같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다. 평행절인 유다서 11절은 그 같은 자들을 “가인의 길에 행한” 자들, “값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을” 자들이라고 경고하였다. 또 17-18, 22절은 그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일컬어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했고,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

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자들,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개,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돼지와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가야할 곳은 “깜깜한 어둠” 곧 ‘타르탈로스’라고 했다.

19-22절은, 그러므로, 그 같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꺾이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불굴의 인내로 구원에 이르자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였다. 이뿐 아니라, “우리 주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했고, “의의 도를 안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고도 했다.

바알브울의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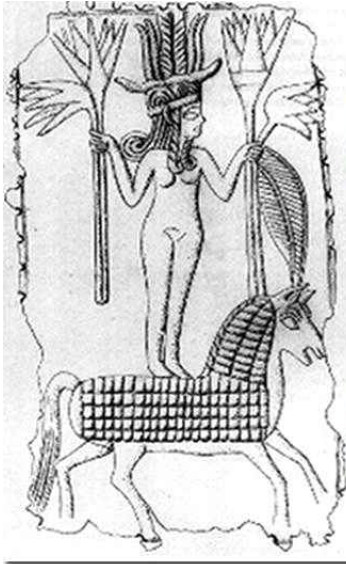
시돈의 에스문 신전에서 발견된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의 스프링크스 팔걸이의자와 아스다롯에게 신전을 봉헌했다고 기록한 시돈(헤비논)의 왕 에슈무나자르의 석판(루브르 박물관 소장). 가나안의 최고신은 엘(El)이었다. 엘은 ‘산당’을 뜻하는 아세라(Asherah)한테서 바알(Baal)과 아스다롯(Ashtoreth)과 아낏(Anath)을 낳았다. 풍요와 사랑의 여신 아스다롯과 전쟁의 여신 아낏은 자매로서 오빠인 바알의 부인들이었다.

가나안의 최고신은 엘(El)이었다. 엘은 ‘산당’을 뜻하는 아세라(Asherah)한테서 바알(Baal)과 아스다롯과 아낏(Anath)을 낳았다. 풍요와 사랑의 여신 아스다롯과 전쟁의 여신 아낏은 자매로서 오빠인 바알의 부인들이었다. 바알은 ‘주인’ 또는 ‘소유주’를 의미하며, 하늘의 폭풍, 비, 기후를 다스리는 신이자, 척박한 근동에 비를 뿌리는 신이었다. 반면에 아스다롯은 바알로부터 비를 받아 땅을 풍요롭게 만드

는 신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생활을 많이 할수록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아스다롯 신전(산당)에서 사제(성창)들과 살을 섞곤 하였는데,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여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신 아스다롯의 신전에는 거의 대부분 사람의 머리, 사자의 몸통, 새의 날개를 단 스프링크스가 부조된 팔걸이의자가 배치되어 있었다. 스프링크스(Sphinx)는 라마수(Lamassu)와 마찬가지로 수호신을 의미하였다. 이 여신의 축제는 봄, 초여름, 가을에 있었는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유월절, 오순절(초실절), 초막절

(수장절)과 맞물려 있었다.



라기스에서 발견된 금박에 새겨진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과 시돈(레비산)의 주화에 실린 마차를 탄 아스다롯(이스라엘 박물관 소장). 바알은 '주인' 또는 '소유주'를 의미하며, 하늘의 폭풍, 비, 기복을 다스리는 신이자, 척박한 군중에 비를 뿌리는 신이었다. 반면에 아스다롯은 바알로부터 비를 받아 땅을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었다.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행위를 많이 할수록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예배자들은 아스다롯 신전(산당)에서 사제(성직)들과 살을 섞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자극하여 더 많은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아스다롯의 축제인 이스라엘의 유월절과 추수 절기인 오순절과 초막절에 맞춰진 봄 초여름 가을에 있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지 40여년이 지났을 무렵에 농경문화의 관문인 모양평지 싯딤에 이르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꾀에 속아 브올(Peol) 산의 바알 신전 축제에 참가한 직후에 2만 4천명이 염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민 25:1-9, 31:16). 이는 히브리인들이 바알신전에서 모압 여자와 함께 바알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염병은 모압 여성들한테서 옮긴 성병으로써 성적으로 깨끗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혹은 히브리인

들이 사막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 바울이 언급한 2만 3천명은 염병으로 죽은 자들이고, 나머지 1천명은 교수형이나 칼에 도륙당한 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바알과 아스다롯 의식에 유혹을 받았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믿었던 농경문화가 만든 음란한 우상숭배행위가 유목문화와 유일신 야훼를 믿었던 히브리인들의 삶을 자주 흔들어놓곤 하였다. 우상도 없고, 여신도 없고, 신화도 없고, 여사제도 없고, 야훼 하나만을 볼 수도 없고, 단지 율법(계명)을 듣고 행하는 것만으로 야훼를 믿어야 했던 히브리인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는 오늘의 흥등가처럼 매우 자극적이었을 것이다.

우상숭배와 음행의 맥락

신구약성경에서 우상숭배와 음행이 맥락을 같이하는 이유는 근동세계의 종교 의식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십계명에서 제1-2 계명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와 “우상을 만들지 말라”인데, 성경 66권에서는 우상숭배를 음행과 동일하

게 취급하였다. 그 이유가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예배자가 사제(성창)와 성관계를 맺는 근동의 종교의식 때문이었다. 염병이 번진 싯딤은 사막문화권이 끝나고 농경문화권이 시작되는 관문과 같은 곳이다. 예로부터 항구도시에는 홍등가가 발달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던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농경문화권의 첫 관문인 이곳 싯딤에서 바알종교를 접하게 되었다. 바알은 농사의 신이기 때문에 농사가 잘되기 위해서는 비로 상징되는 하늘의 남신과 밭으로 상징되는 땅의 여신 사이의 만남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고, 실제로 바알종교의 식은 바알신전의 남녀 사제들과 예배자들 사이에서 만나 이루어지는 성행위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고린도가 그리스의 타락한 소돔성이 됐던 데에는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롯과 무관하지 않다. 고린도에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가 있었다면, 그녀의 배경에 아스다롯(Ashtoreth)이 있었기 때문이다. 풍요와 사랑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유사한 여러 이름으로 알려졌고, 그리스와 로마에서는 각각 아프로디테와 비너스로 불렸다. 솔로몬이 주변국들과 결혼동맹을 맺고, 그들의 신들을 예루살렘에 불러들여 신당들을 제공하였고, 왕비들이 주관하는 신당축제들에 배석하였는데, 아스다롯 축제가 대표적이었다. 이로써 솔로몬의 결혼동맹정책은 남북분열의 여러 원인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또 북왕국 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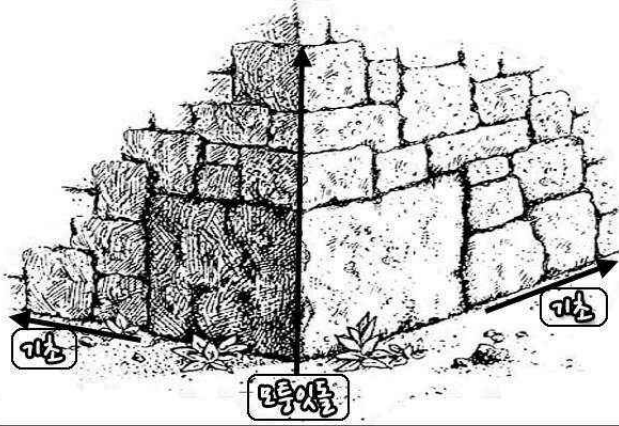


라엘의 존재를 국제사회에 알린 오므리는 왕자 아합을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에 심취된 시돈 출신 이세벨과 결혼동맹을 맺게 함으로써 미모가 뛰어나고 두뇌회전이 빠른 이세벨로 하여금 야훼신앙을 철저히 유린하게 만든 원인제공자가 되었다. 이 난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였다.

베드로가 “범죄한 천사들”과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바알브올의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엄히 경고한 이유가 당대나 지금이나 우상숭배와 음행이 가장 빠른 배도의 길이고 무서운 형벌을 자초(自招)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보배 믿음, 보배 약속07: 이단자들의 최후(4)(벧후 3:1-9)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이스라엘의 건축양식에서 볼 수 있는 모퉁잇돌(기초 돌)과 기초석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베드로후서 3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는 이 서신이 동일한 공동체들에 보내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이

라는 것과 두 서신들의 기록목적은 수신자들에게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려한 것임을 말한다. 베드로후서는 서두에서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임을 밝혔고, 1장 16-18절에서는 변형산에서 예수님을 목격한 자로 밝혔다. 또 서신의 기록목적에 대해서는 수신자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점에서는 쌍둥이 서신인 유다서도 마찬가지이다. 유다서 5절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한다.”고 했고, 17절은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권면하였다. 바울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고 했다. 그리스도의 나라(교회)를 거룩한 성전에 비교했을 때, 그 건물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이고, 그 건물의 모퉁잇돌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한다. 모퉁잇돌은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에서 집이 들어설 네 모서리에 놓이는 거대한 돌을 말한다. 이 모퉁잇돌들을 근거로 기초가 놓이고 집의 방향과 각도가 결정되었다.

이 말씀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신약성경은 사도들과 선

지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담아 전하고 있는 책이다. 신약성경은 교회의 기초이자 헌법이며 표준이고 새 언약의 내용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그것들을 예수님께 배워서 전하였다.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될 당시 정경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는 대상 문서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에 일치하는가 여부였다. 그러므로 2절,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는 베드로의 희망이 우리에게서 이뤄지려면 신약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3-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는 윌리엄 바클리의 주석에 따르면,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

자들의 이중 반박을 언급한 것이다. 첫 번째 반박은 재림이 지연되고 있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이뤄질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 반박은 세상을 뜬 조상들이 많지만, 산천은 유구(悠久)하다는 주장이다.

재림의 지연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을 안긴 것은 사실이다. 복음서들과 일부 서신들의 기록 시기는 재림의 지연과 교회들은 성장과 박해와 이단의 침투와 배교자들이 속출하던 시기에 맞물려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성도들은 지연되고 있는 주의 재림에 대해 묻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그들의 물음에 해답을 주고자 했다.

바울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롬 11:25), 누가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눅 21:24), 베드로는 주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벧후 3:9)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재림이 지연된다는 생각이나 아예 없다는 악한 생각을 경계하셨다. 특히 누가는 교회의 설립과 발전과정에서 드러난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박해까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충만하자. 그래서 새 언약 백성의 새 나라를 세워나가자.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과 정신에 잇대어

살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삶과 정신에 잇대어 살아가자'라고 권면하였다.

이뿐 아니라, 신약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종려주일(예루살렘 입성, 주일)과 부활주일(하늘 예루살렘 입성, 주일) 사이에 고난주간을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후 곧바로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40년간 광야교회시대를 거친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땅에 들어간 것과 같다. 이것은 주의 재림과 세상 끝이 있기까지 장기간의 교회시대 곧 성령시대, 은혜시대, 선교시대, 환난시대가 지속될 것에 대한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회시대 혹은 고난시대에 박해가 아무리 극심하고 환난이 커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인내로써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야할 이유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마 24:30-31)이 성도들을 불러 모을 그날이 멀지 않기 때문이며, 또 그때까지는 아직 종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5-7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는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의 이중 반박에 대한 베드로의 이중 답변 가운데 첫 번째 답변이다. 이 답변에서 베드로는 ‘이 우주는 안정된 곳이 아니다. 노아 홍수 때 이미 한 번 물로 전멸당했었고, 이번에는 불로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 때까지 이 우주를 보존해 두고 계신 것이다.’고 하였다.

8-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는 주의 재림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의 이중 반박에 대한 베드로의 이중 답변 가운데 두 번째 답변이다. 이 답변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개념은 인간의 시간개념과 다르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더뎠(느림)은 더뎠(지연)이 아니다. 느림과 지연의 실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하나님은 죄

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제2, 제3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신 것이다.’고 하였다.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한 시편 90편 4절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순간과도 같습니다.”에 연결된다.

베드로후서 3장은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교훈하고 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구원의 핵심은 부활과 재림에 있다. 모든 종교의 출발이 다 그렇듯이, 기독교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를 죽음으로 본다.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해답이 육체의 부활이다. 그리고 이 육체의 부활이 이뤄지는 시점을 주의 재림의 때로 설정해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육체가 부활할 때까지 이뤄지는 구원은 이때에 이뤄질 약속의 성격을 띠는 것이고, 이 약속을 보증하고 인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성령님인 것이다. 그리고 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서 이뤄지는 모든 축복은 사실상 영적인 것이다. 굳이 육체적인 것이 있다면, 병 고침이나 기도응답과 같은 것들이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축복일 뿐이고,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축복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과 주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보배 믿음, 보배 약속08: 이단자들의 최후(5)(벧후 3:10-13)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하드리아누스 황제(AD 117-138)의 로마 도착 주화
전면에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뒷면에 HADRIANVS AVG
COS III P P(하드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새겼다.
뒷면에 하드리아누스(우측)가 로마(좌측)와 손을 잡는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 ADVENTVS AVG(황제의 도착)이라고 새겼다.

적같이 오리니”는 아무도 그날과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11-12절 “...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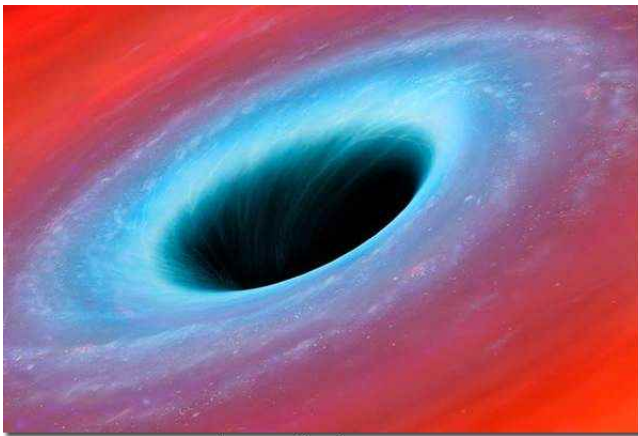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것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주의 날”은 주의 강림의 날인 동시에 악인에게는 최후 심판의 날이고, 성도에게는 궁극적 구원의 날이다. 로마제국의 황제들은 로마군의 통수권자들이었기 때문에 전시(戰時)에 전장(戰場)에 나가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돌아왔고, 종종 속주들의 도시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황제가 귀환하거나 도착하는 일은 축하하고 기념할만한 거국적 행사였다. 그리고 황제들은 자신이 도착한 곳이 로마시든 속주의 도시든 자신이 자리를 비운 기간에 발생한 일들을 심판하여 상벌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강림(降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再臨)’이라 했고, 주의 강림(ADVENIENS CHRISTVS)직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거듭 경고하였다.

황제의 ‘귀환’ 혹은 ‘도착’을 뜻하는 헬라어는 ‘파루시아’(PAROUSIA)이고, 라틴어는 ‘아드벤투스’(ADVENTVS)인데, 그 같은 장면을 새긴 주화들이 다수 남아 있다. 황제의 도착(ADVENTVS AVG)을 새긴 주화에서는 보통 말(백마)을 탄 황제가 오른손을 들어 환영인파에게 답례하는 모습이지만, 종종 그 곁에 말잡이 군인이나 오른쪽 앞발을 올린 말 아래에 쪼그려 앉은 포로의 모습을 담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에서 “주의 날”은 일반적으로 심판의 날을 말한 다. 그러나 여기서는 주의 강림직후에 있을 최후 심판을 의미했다. 그날이 “도

기도 하였다. 황제의 도착을 새긴 주화는 트라야누스 황제(AD 98-117) 때 처음 발행되었으나 통용되지는 않았다. 통용이 된 황제의 도착(ADVENTVS AVG)을 새긴 주화들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에는 하드리아누스(AD 117-138), 카이사르 코모두스(AD 180), 셉티미우스 세베루스(AD 193-211), 필립1세(AD 244-249), 트라야누스 데키우스(AD 249-251), 트레보니아누스 갈루스(AD 251-253), 클라우디우스2세(AD 268-270), 프로부스(AD 276-282), 맥시미아누스(AD 285-305), 디오클레티아누스(AD 284-305)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대제(AD 307-337) 때에 마지막으로 발행되었다. 로마 시가 아닌 타 도시에서 화폐가 주조되었을 경우에는 황제가 그 화폐를 주조한 도시에 도착한 것을 나타낸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초대형 블랙홀의 상상도

2018년에 발견된 블랙홀(J2157)은 태양질량의 340억 배, 태양계보다 5배나 더 크다고 한다. 125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매일 태양 질량 1개에 맞먹는 주변 물질을 집어삼키면서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고 한다. 발견자들은 “우리 은하의 블랙홀이 이 정도로 덩치를 키우려면 은하 안에 있는 별의 3분의 2를 삼켜야 한다.”고 말한다.

10절 “...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이다”와 12-13절 “...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현 우주의 멸망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말한 것이다.

학자들은 우주팽창과 허블법칙을 근거로 우주의 나이를 대략 137억년으로 계산한다. 또 운석에 담긴 납의 동위원소를 연구하여 태양계의 나이를 대략 45억년으로 계산한다. 또 학자들은 대략 45억 년쯤 지나면 태양계가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론은 크게 세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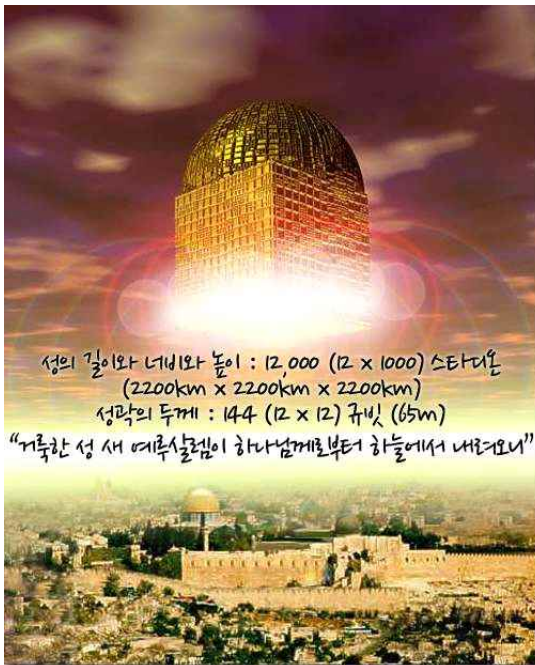
첫째, 열역학 제2법칙 또는 엔트로피 법칙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반드시 다 죽는다는 이론이다. 생명이 있건 없건 간에 존재하는 것은 다 죽는다. 늙고 녹슬고 삭고 부서지고 썩고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간다. 피조물은 만들어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조물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죽음이다. 온 우주, 태양과 지구와 달과 수많은 밤하늘의

별들의 운명도 죽음이다.

둘째, 열사망(heat death) 또는 열역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법칙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주상의 에너지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 오직 고갈만 있을 뿐이다. 연탄이 타고나면 재가 되듯이, 에너지는 소모되고 있다. 세계가 대체에너지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석유나 석탄과 같은 지하자원들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가용에너지가 완전히 소모될 날이 오고 말 것이란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에너지가 소모되었다고 해서 에너지가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소모된 에너지는 공기 중에 흩어지기 때문에 끌어 모아 쓸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에너지 소모는 결국 태양도 지구도 달도 수많은 별들도 다 없어 죽게 만든다. 이를 과학자들은 '열평형' 혹은 '열사망'이라고 말한다.

셋째, 우주팽창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물질은 초기의 대폭발에 의해서 한꺼번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계속되는 소폭발에 의해서 초당 약 5만개의 별이 새로 생겨나며, 이들 별들이 은하계를 이루어 팽창으로 생겨난 공백을 메움으로서 은하계의 밀도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주가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고 수축이 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질량의 블랙홀이 생기고, 그 블랙홀에 지구도 달도 별들도 모두 삼키게 되어, 종국에는 뜨거운 열에 모든 것이 타죽게 된다고 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새 예루살렘의 상상도

전 5:4-5)고 했다.

본문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는 우주팽창과 수축에 관한 이론에 맞물려 있는 듯이 보이나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서 베드로의 경고와 관련짓기가 어려워 보인다.

우주종말의 시기가 언제쯤일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바울도 베드로도 그 때와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올 것이다”고만 했다. 다만 바울은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덮치지는 않을 것이다”(살

그러면 주의 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둑 같이 덮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11-12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와 14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한 베드로의 권면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천상의 그리스도께서도 계시록 3장 3절에서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 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셨는데, 여기서 “일깨지 아니하면”은 ‘깨어 있지 않으면,’이란 뜻이다. 이 말씀은 ‘만일 너희가 깨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도둑 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는 ‘깨어 있다면, 도둑이 예고 없이 쳐들어와도, 그 도둑을 물리칠 수 있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깨어 있으면, 주의 날이 도둑 같이 덮친다고 해도 깨어 있는 상태에서 주의 강림을 맞이할 수 있다. 바울은 그 같은 맥락에서 “그 날이 도둑 같이 너희에게 덮치지는 않을 것이다”고 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하셨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주의 강림의 날인 동시에 악인들에게는 최후 심판을 받는 저주의 날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축복의 날이다. 그러므로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보배 믿음, 보배 약속09: 새 하늘과 새 땅(벧후 3:13-18)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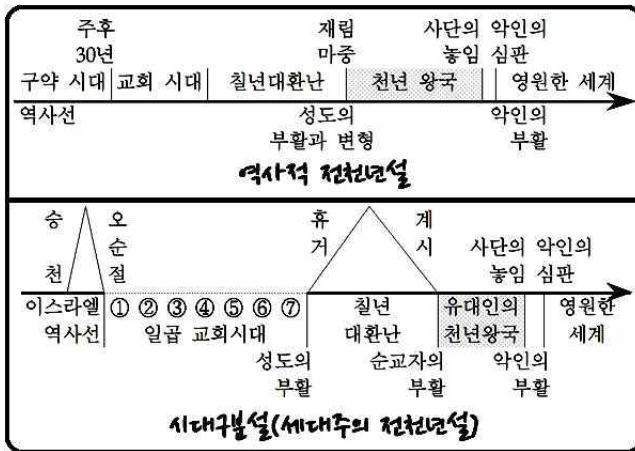
유대교인들의 구세주 모세
유대교인들은 바벨론 유배 이후 오늘날까지 2600년이 넘도록 제2
모세(메시아)의 도래를 희망(Ha-Tikvah)하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들이 희망하는 제2 모세가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다.

15-16절 “...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는 베드로서신들이 쓰일 당시에 이미 바울서신들이 널리 읽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실제로 바울의 선교서신들 곧 데살로니가전후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신약성경 27권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 베드로전서보다도 10여년 먼저 기록되었다. 이들 서신들은 모두 회람서신들이었고, 공동예배 때 정해진 분량의 신약성경 곧 당시에는

아직 정경들이 아니었지만 구약정경에 필적할만한 그리스도교의 문서들을 읽어 주는 독서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복사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는 바울서신들의 일부 내용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기보다는 유대인들에게 알기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상당수 유대인들은 바울의 율법 이해 또는 율법에 관한 복음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은 유대인들이었고, “다른 성경”은 구약성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성경이란 개념의 정경들이 없었던 때였고, 바울서

신과 같은 그리스도교 문서들이 집필되던 시기였다. 또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자들은 유대인 에비온파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가 전한 예수님과 복음을 부정하고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 이단자들 때문에 베드로는 17-18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군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고 하였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재림신앙은, 비단 우리 그리스도교뿐 아니라, 유대교, 조로아스터교, 카비루스(Cabirus)신앙, 불교의 미륵신앙과 같은 타 종교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인간의 ‘그 희망’(Ha-Tikvah) 신앙이다. 그리고 재림신앙의

양상은 ‘그 희망’이 낙관적일 때 후천년설로 나타나고, ‘그 희망’이 비관적일 때 전천년설로 나타난다.

유대인들은 주전 586년경부터 모세의 재림을 희망하여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그 희망’이 비관적일수록 전천년설적이었고, 혁명을 꾀하는 자들 중에서는 자칭 ‘재림 모세’ 곧 메시아가 출현하곤 했었다. 페르시아시대의 인물들 가운데에는 스룹바벨과 에스라가 일정부분 이 재림 모세의 범주에 속할 수 있었고, 신구약중간기인 헬라시대에는 유다 마카비(Judas Maccabeus)가 강력한 재림 모세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유다 마카비는 헬라로부터 유대인을 해방시켜 하스몬왕가가 세워지는데 공헌하였고, 주전 64년 로마에 멸망하기까지 100년간 주권을 지속시킨 영웅이자 혁명가로서 재림 모세에 준하는 인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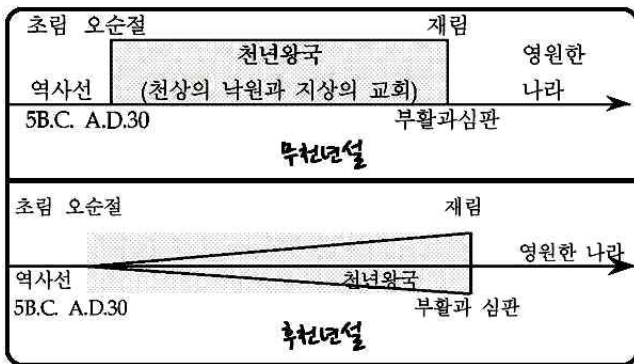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30여명의 거짓 메시아들이 출현했었다고 말한다. 그들 가운데 세례 요한, 예수님, 발 코크바, 사베타이 제비가 포함된다. 민중이 세례 요한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것은 그가 재림 모세인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헤롯 안티파스도 요한에게 관심을 보였고, 두려운 나머지 살해하였다. 이라크 남부와 이란 남서부에는 수천 명의 만다야교(Mandaeism)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도 세례 요한을 재림 모세로 믿고 있다. 복음서들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가 오실 자로 예언된 재림 모세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시점을 세레 요한이 사망한 직후로 적고 있는데, 그 이유가 민중의 일부가 세레 요한을 재림 모세로 믿었기 때문이다.

발 코크바(Bar Kochba, 별의 아들)로 불린 코시바의 아들 시몬(Simon ben Kosiba)은 뛰어난 혁명가였다. 그는 주후 132-135년 사이에 로마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을 선포했고, 그 증거로 그가 찍어낸 주화들도 여러 종류 남아 있다. 그러나 그는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로마제국에 무너짐으로써 유대인들에게 1,800년이 넘게 시련과 실망(Kozebe)을 안긴 인물이었다.

터키 서머나 출생의 유대인 샤베타이 제비(Shabbetai Zevi)는 1665년 5월 31일에 자신이 진정한 메시아 곧 재림 모세라고 선포한 인물이었다. 그의 주장은 수세기에 걸친 박해와 추방으로 고립무원에서 고군분투하던 온 세계의 유대인들을 일시에 흥분시켰고, 일찍이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샤베타이는 1666년 1월 이스탄불에서 반역죄로 체포되어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이슬람교로 전향하여 황실연금을 받았으며 충성스런 무슬림으로서 살다가 1676년 9월 17일 사망하였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유대인들이 재림 모세의 강림에 대한 기대를 제2 모세를 예언한 신명기 18장 15-18절, 새 율법과 새 언약시대를 예언한 예레미야 31장 31-33절, 새 성전시대를 예언한 에스겔 37장 25-28절,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예언한 이사야

65장 17-18절에서 찾는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유대인들의 기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교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지난 2천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는 베드로후서에 언급된 노아의 홍수심판과 주의 강림에 의한 최후심판 등에서 보듯이, 주의 강림 직후 “새 하늘과 새 땅”의 천년시대가 열린다는 전천년설이 처음 300여 년간을 지배하였다. 그러나 주후 313년 제국이 기독교의 후원자가 되면서부터는 황제를 적그리스도, 제국을 음녀로 보기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392년 그리스도교가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비잔틴시대를 “새 하늘과 새 땅”의 천년시대로 보는 후천년설이 지배하였다. 이 후천년설은 어거스틴이 주장한 이후 500년 이상 유지되었다. 12세기 암흑시기로부터 16세기 종교개혁시대에 이르기까지

전천년설이 다시 부각되었고, 폭력을 동반한 천년왕국 운동(혁명)이 잇따라 일어났다. 종교개혁가들 중에는 가톨릭교회를 음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같은 주장이 오늘날에도 일각에서 주장되고 있다. 반면에 18-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낙관적 후천년설이 크게 유행하였는데, 유럽의 계몽주의와 1달러 지폐에 실린 국장(國章)들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자유와 개혁정신이 맞물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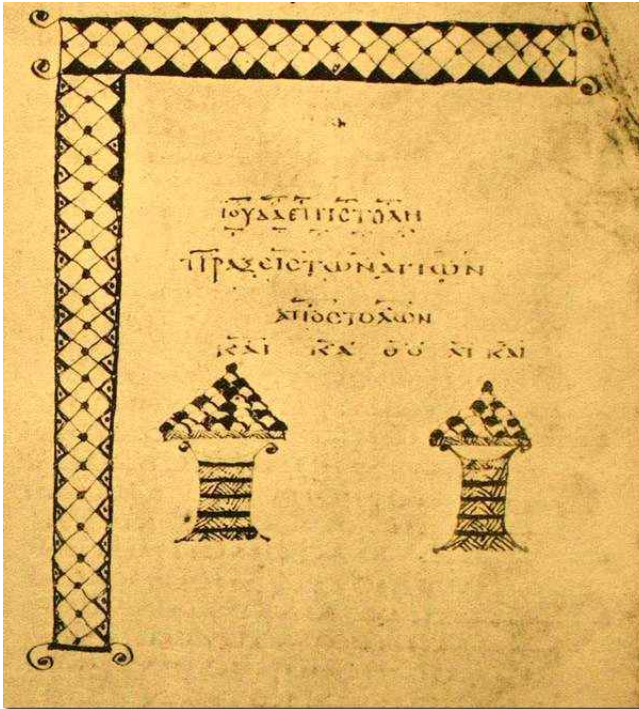
20세기에는 제1-2차 세계대전, 경제대공황, 이스라엘의 재건 등의 여파로 시대구분설(세대주의 전천년설)이나 역사적 전천년설이 다시 유행하였다. 전후 베이비붐시대에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시대구분설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각축을 벌렸다.

21세기는 모바일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시대이다. 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술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시대이다. 그런데 이런 과학기술의 발달이 낙관적 후천년설적 기대감을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무너뜨리고 있다. 지금 세계는 이성과 양심이 사라져가고 양육강식의 동물적 광기가 지배력을 키워가고 있다. 첨단 기계문명과 AI시대가 세계를 유토피아(utopia)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디스토피아(dystopia)로 만들고 있다. 게다가 2019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정국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보편화되고 이동이 제한된 비대면 상태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나 온라인 활동에서 이성과 자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시한부종말론과 같은 비관적 전천년설이 다시금 세력을 얻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믿음을 위해 싸우라야: 부르심의 본질(유 1:1-2)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유다서 장식(400-440, co.dex Alexandrinus)

순회하며 설교했던 한 유대인교회 공동체에 보내진 편지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유다서는 “가만히 들어온” 방탕한 영지주의 경향의 유대인 에비온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킬 목적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다.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은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것을 죄악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1절 전반부 “예수 그리스도의 종ियो,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에서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낮췄다. 야고보도 그랬다(약 1:1). 여기서 종은 노예라는 뜻이다. 자기 자신의 운명의 결정권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신분을 포기하고 맏아들이 되심으로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또 예수님 자신의 형제자매들이 되게 한 것과 같다.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됨으로

유다서는 예수님과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60-80년 사이에 거짓교사들과 그들의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권하기 위해 쓴 글이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었다. 유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또 유다서는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구약의 인물과 위경인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서>를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유다서는 유다가

써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되게 하였다.

예수님에게는 네 명의 이복형제들이 있었다. 그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였다(마 13:55). 이들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요 7:5). 그랬던 그들이 자기들의 친 형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었는가? 같은 어머니를 모신 혈육으로써 어떻게 예수님을 일컬어 주님이라 말할 수 있고, 자신들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낮춰 말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사건과 오순절 성령강림사건이후의 일인 듯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사도 야고보의 형제 유다 다대오(1440, Bicci di Lorenzo, 오페라 델 두오모 박물관 소장)
17세기에 플로렌스의 두오모 성당에서 페이엔 프레스코화로써 Attilio Baccani(c.1823-1906)에 의해서 복원되었다.
다대오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분이지만, 개신교를 배반 나간지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복동생 유다와 동일 인물로 본다.

유다는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다. 이것은 당대에 야고보가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과 순종을 보여주는 호칭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더 이상 혈육이 아니라, 신앙과 순종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허구가 아닌 진실한 것임을 입증하는 상황증거가 된다. 남이 아닌 친 형제들이 그것도 한 때는 전혀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였음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만든 명백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후에 야고보는 예루살렘교회의 최고지도자로(행 15:13) 부상하였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란 표현을 썼고, 2장 11-12절에서는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오자 자리를 피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당회장 장로)였던 것이다. 야고보서가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 기록되었다.

야고보와 유다는 형제간이지만 또 다른 형제간인 안드레가 유력한 베드로의

그들에 가려 있었던 것처럼 유다도 유력한 야고보의 그들에 가려 있었다. 유다가 이 짧은 〈유다서〉조차 남기지 않았더라면,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졌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겸손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혈통과 색깔과 언어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라는 강한 인식이 있었다.

1절 후반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에서 유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고,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했으며,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택정을 입은 사람들’이란 뜻이다. 옛날 조정에서는 세자비를 고르는 일을 간택(揀擇)이라고 했다. ‘간택’이란 골라 뽑는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특별히 골라서 뽑은 사람들이란 뜻이다. 따라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매우 존귀한 자들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주실 사람들을 이미 만세전에 간택하셨고, 간택된 자들을 부르신다.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유다 다대오의 순교(1493, Nuremberg chronicle, 목판 인쇄, 독일 뉘른베르크 미술관 소장)
다대오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분이지만, 개신교를 배반 나간지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복동생 유다와 동일 인물로 본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란 뜻은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세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으로) 세자비들이란 뜻이다. 옛날 조정에서는 세자비로 뽑힌 자가 시아버지인 임금과 남편인 세자 모두로부터 사랑을 입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 정권의 쟁탈과 갈등의 틈새에 끼어있었던 세자비로서 임금과 세자 모두로부터 사랑을 입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이고 아들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듬뿍 받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는 사람들’이란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란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보호를 받는 존귀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요 은혜인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럴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같은 존귀한 은총을 입은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자신의 주석 <매일의 성경 연구>(Daily Study Bible)에서 좀 다르게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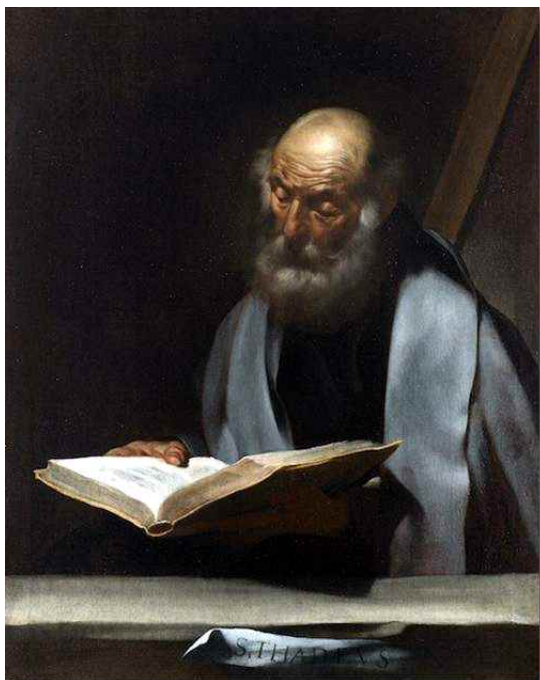
첫째, “부르심”으로 번역된 헬라어에 해당되는 ‘칼레인’(kalein, 부르다)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그 첫 번째가 사람을 직무나 의무 또는 책임으로 부르는 데 쓰였다고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한 책무나 의무 또는 책임에 부름을 받는다. 두 번째는 사람을 잔치나 축제 또는 즐거운 행사에 초대하는데 쓰였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 자녀로서 초대를 받는다. 세 번째는 사람을 법정에 나오게 하여 증언하도록 하는데 쓰였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최후심판 때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된다.

둘째, “부르심”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받고 사랑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하라고 부르시지만, 그 일은 짐이 아니라 영예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부르시지만, 그것은 강압이 아니라 사권의 섬김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부르시지만, 그것은 정의의 심판이자 사랑의 심판이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홀로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을 항상 지키는 파수꾼이시요 그리스도인과 함께 걷는 동반자이시다.

믿음을 위해 싸우라02: 단번에 주신 믿음(유 1:3-4)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1)



유다 다대오(1609, Josepe de Ribera, 프란시스코 렌의 레비소관)
다대오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분이지만, 개신교를 배반 나간지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복동생 유다와 동일 인물로 본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
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
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방어하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야 할 필요를 느꼈다.”에서 “일반으
로 받은 구원”은 우리가 받은 구원
을 ‘차별 없이 함께 나눈 구원’으로
설명한 것이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은 믿음을 ‘단번에 결정
적으로 전해진 것’으로 설명한 것
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은혜
요, 값이 없기 때문에 은혜이며, 조
건이 없기 때문에 은혜이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단
한 번에 결정적으로 주어진 하나님

의 선물이다. 이 소중한 믿음과 구원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다. 밝혀진
유다서의 기록목적은 이 구원과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하기
위한 것이었다.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한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방어하라)”는 권
면은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권면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와 맥을 같이
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도구로써 “믿음과 착한 양심,” “간구와 기
도와 도고(중보)와 감사,”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하
는) 기도,” 여자들은 “단정”함, “소박함,” “정절로써 자기를 단장,” “선행,” “순
종,” “조용”(공적 예배질서) 및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
그리고 리더십으로서 장로(감독자, 목양자)와 집사(봉사자)를 거론하였다. 특히
장로 리더십에 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35절에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으로 교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나운 이리들로부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

신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William Barclay)는 이 구절 곧 그리스도교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주석 <매일의 성경 연구>(Daily Study Bible)에서 몇 가지 매우 유익한 사실을 설명하였다.

첫째, 믿음은 우리에게 전달된 어떤 것이다. 그리스도교 믿음의 사실들은 우리가 자력으로 발견한 어떤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단어의 참된 의미로 볼 때 그 사실들은 전승(전통)이요, 그 전승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대대로 전수되어져온 어떤 것이다. 그 사실들의 끊기지 아니한 사슬(전승)의 첫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2)



유다 다대오(1615-20, Georges de La Tour.

프랑스 알비의 툴루즈로트렉 미술관)

다대오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분이지만, 개신교를 배반 나간 자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복동생 유다와 동일 인물로 본다.

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속에 변하지 않는 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영구적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기 위해 사시다가 돌아가셨다는 것이다.

셋째, 그리스도교 믿음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에게 맡겨진 어떤 것이다. 그것은 그리스도교 믿음이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교회의 소유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전수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보존되며, 교회 안에서

여기에 추가로 언급될 어떤 것이 있다. 믿음의 사실들은 진실로 우리가 자력으로 발견한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 전승의 사실은 체온을 느낄 수 없는 인쇄된 책들로 전해져온 어떤 것이 아니란 것이다. 그것은 세대들을 거쳐서 사람이 사람에게로 지속적으로 전해진 어떤 것이다. 그리스도교 전승의 사슬은 일종의 산(living) 사슬이다. 그 사슬의 고리들은 그 사실들의 경이로움을 경험한 남녀 사람들이다.

둘째, 그리스도교 믿음은 우리에게 단번에(한 번에 모든 것이) 전달된 어떤 것이다. 그것 속에는 일종의 불변의 특성이 있다. 그것은 각 시대가 그리스도교 믿음을 재발

이해되어진다.

넷째, 그리스도교 믿음은 옹호되어야 할 어떤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것의 옹호자임이 틀림없다. 만약 그리스도교 전승이 세대를 거쳐 전해져온다면, 각 세대는 그것을 부패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어려웠던 시기들이 있다. 유다가 “싸우라”에 사용한 헬라어 단어는 ‘epagonizesthai’로써 그 어근은 ‘고통’(agony)이란 뜻이다. 믿음을 방어(옹호)하는 일은 희생이 따르는 일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방어는 교회의 모든 세대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방탕한 영지주의 경향의 유대인 에비온파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단자들로서 한편으로는 육체적인 것을 죄악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유다 다대오(1619/21, Anton van Dyck, 비엔나 미술관)
다대오는 열두 사도 가운데 한 분이지만, 개신교를 6번 나가서
기독교계에서는 예수님의 이복동생 유다와 동일 인물로 본다.

4절에 언급된 이단자들의 특징은 네 가지이다. 첫째로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었다. 둘째로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었다. 셋째로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었다. 넷째로 그들은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첫째,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 지역교회의 등록교인들이 아니라 교회들을 순회하는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유대인들로서 안디옥, 갈라디아, 에베소, 고린도 등 지중해 연안의 1세기 이방인 교회들에 침투하여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베

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서 “... 그들이 가만히(몰래)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갈라디아서 1장 6-9절에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했다.

참 교사와 거짓 교사,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받은 것(1:20-21)과 만든 것(1:16, 20, 2:3)의 차이이다. ‘받은 것’이란 성경의 예언들을 말하고, 예언자들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들이 말한 예언들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을 뜻한다. 또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대로, 대대로 전승되어진 믿음,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전한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말한다. 반면에 ‘만든 것’이란 “교묘히 만든 이야기들”(1:16), 성경의 예언들을 “사사로이”(자의적으로) 푼 해석들(1:20),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2:3),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는 한참 동떨어진 거짓 가르침들을 말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20절에서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했고, 그 터의 모퉁잇돌이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했다.

믿음을 위해 싸우라03: 예배와 회개의 반복(유 1:5-7)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사탄을 패퇴시키는 미카엘 대천사
(1518, 라파엘로 산치오, 파리 루브르박물관)

유다서와 베드로후서는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쌍둥이 서신으로 볼 수 있다. 학자들은 유다서가 베드로후서보다 먼저 쓰인 것으로 보고 있어서 유다서의 일부 내용이 베드로후서에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다서 1장 5-7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는 베드로후서 1장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와 2장 4절과 6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와 겹치는 부분이다.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는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에서 반복된다. 여기서 유다는 자신이 전에 말한 권

면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교훈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사도전승을 뜻한다. 이 사도전승을 담고 있는 책이 신약성경이다. 따라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말을 상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신약과 구약 성경의 교훈을 상기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유대교인들이 매년 모세오경을 완독하고, 19개의 기도문(베라코트)을 매일 세 번씩 서서 낭송하는 것에서 보듯이, 찬송과 기도와 설교는 반복적인 것이고 기존의 알고 있던 것들을 상기하는데 있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반복해서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바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대천사 미카엘이 반역(반역)한 그리고리(파수꾼) 천사들을 타르탈로스에 감금하는 모습(Luca Giordano, c.1660-65)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심판 때까지 ‘타르탈로스’에 갇혀있는 자들이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도 ‘기간테스’(Gigantes)나 ‘티탄’(Titan)과 같은 신들이 타르탈로스에 갇힌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특히 헤시오도스의 <신통기>에는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의 신들이 티탄(Titan) 신들과 10년간 하늘에서 펼친 전쟁에서 이긴 후 티탄(Titan) 신들을 타르탈로스에 가두고 봉인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전쟁을 ‘티타노마키아’(titanomachia)라 일컫는데, 계시록 12장 7-9절에도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마귀 곧 사탄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는 말씀이 있으며, 20장 1-3절에는 천사가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고 인봉했다가 일천년 후에 잠깐 놓일 것이라는 말씀이 있다. 그리스신화에서도 ‘기간테스’로 불리는 신들이 타르탈로스에 갇혔다가 풀려나 제우스를 비롯한 올림포스 신들과 결전을 펼치는 이야기가 있다. 또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는 신들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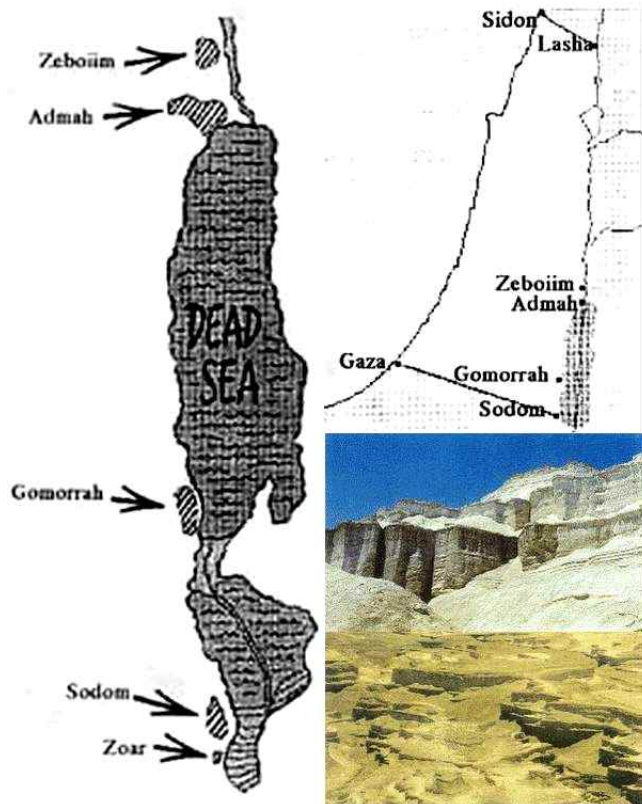
독하고 반역한 인간들이 쉼과 안식이 없고, 고통만 있는 타르탈로스에 갇혀 있는데, 그들이 바로 갈증에 시달리는 탄탈로스, 노동에 시달리는 시쉬포스, 불바퀴에 매달린 익시온, 살을 파 먹히는 티튀오스, 밀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다나오스의 딸들이다. 유다가 6절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언급한 것은 하늘의 천사들조차 짓값으로 인하여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혀야 했다면, 죄를 범한 인간들의 형편이 어떻겠는가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누구인가? 1-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위경 <에녹서>에 따르면, 이들은 창세기 6장 1-4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고,” “네피림”(Nephilim, 쓰러뜨리는 자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라 불리는 용사들(히브리어로 학갑보림)을 낳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범위가 노아시대에 있었던 홍수심판을 초래하였다는 것이다. 구약성경의 헬라어역본인 <칠십인 역(LXX)>은 “네피림”과 “용사들”을 모두 기간테스(gigantes, 거인들)로 번역하였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에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행동을 말한다. <에녹1서>(에디오피아 에녹서)에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욕정을 품은 스무 명의 천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2백 명의 천사들을 이끌던 지도자들로서 각각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결혼했을 뿐더러 그녀들에게 금단의 지식을 가르쳐주었다고 말한다. 이들 천사집단을 <에녹1서>는 ‘파수꾼들’(Watchers)이라고 부르고, <에녹2서>(슬라브 에녹서)는 ‘그리고리’(Grigori)라고 부른다. 이들은 잠을 자지 않고 지상을 감시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홀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것이다. <에녹1서>에서는 “하나님이 미카엘 천사에게 명해서 그들을 지하세계에 감금해 두었다.”고 한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그리고 그 이웃 도시들 곧 아드마, 스보임 같은 도시 사람들(창 14:8, 신 29:23)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그리고리)처럼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에녹서와 유다서와 베드로후서가 모두 인간에게 멸망을 초래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벧후 2:7)의 뿌리를 “죄를 범한 천사들” 곧 ‘그리고리’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돔과 그 인근의 도시들(소알,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과 고모라 유적지의 모습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는 지진으로 인한 유황 분출설이 가장 유력하다. 주변 토양이 유황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당한 끔찍한 재앙들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인간은 아무리 타고난 재능이 많고 누리는 특권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므로 늦지 않게 회개해야 한다.

리고리’의 “음란한 행실”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벧후 2:5-7)는 것이다.

유다는 욕적이든 영적이든 남보다 잘났다고 교만(pride)했거나 색욕(lust)에 빠졌던 자들, 곧 가나안땅을 정탐한 히브리인 족장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믿음을 위해 싸우라04: 거짓 선지자들의 운명(유 1:8-10)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사탄을 짓밟는 미카엘 대천사
(1663, Luca Giordano, 베를린국립미술관)

유다서 8절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의 평행절로써 “육체를 더럽히며”는 “육체를 따라” 산다는 뜻으로써 신의 성품(벧후 1:4, divine nature)에 반대되는 죄의 성품(벧후 2:10, sinful nature) 곧 본능을 따라 산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천사들)을 비방한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에서 꿈꾸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들

을 말한다. 이를 경계한 말씀이 신명기 13장 1-5절인데 다음과 같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끌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구약성경에서는 예언자를 히브리어로 ‘로에,’ ‘호제’ 또는 ‘나비’라고 하는데,

‘로에’와 ‘호제’는 ‘보는 자’(seer)란 뜻으로써 선지자나 선견자를 의미했다(삼상 9:6; 삼하 24). 그러나 선지자나 선견자는 자기 자신의 선견 또는 자기가 본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보여주신 것(렘 24:1; 겔 37:1; 암 7:1; 스 3:1)을 전하였다. 그리고 예언자시대가 진행되어갈수록 예언자는 ‘로에’(ro'eh)나 ‘호제’(chozeh)보다는 ‘나비’(Nabi)라고 불렸다. ‘나비’는 전하는 자 또는 대언자란 뜻으로써 자신의 생각을 전하거나 말한 것이 아니라, 야훼께서 들려주신 것을 전하였다. 예언을 받는 형식이 환상에서 말씀으로,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귀로 듣는 것으로 바뀌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미카엘 대천사의 동상(독일 함부르크 성 미카엘 루터교회)

8절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는 본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악행이었지만, 유다가 지적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 곧 영지주의 경향을 띤 이단자들의 악행이었다. “육체를 더럽히며”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들의 잘못이 두 가지였다고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육체를 더럽힌 것이었는데, 육체는 전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중요치 않고, 함부로 해도 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죄를 용서하기에 전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죄는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도 마찬가지로 본

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을 겁탈하려한 악행(창 19장)을 사례로 들어 당대의 이단자들의 악행을 지적한 것이다.

유다가 인용한 〈모세의 몽소승천〉(Assumption of Moses)은 신명기 34장 1-6절, 특히 6절 “벧브올(Beth Peor)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의 후속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는 모세의 시체를 장사하는 임무가 천사장 미가엘에게 주어졌다는 것과 그 시

체의 소유권을 놓고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했다”는 것이다, 마귀의 주장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모세의 시체는 물질이고, 물질은 악하며, 물질은 자기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악한 것은 자기의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애굽인을 죽인 살인자이고(출 2:11-12) 살인은 자기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살인자는 자기의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유다서 9절은 베드로후서 2장 11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의 평행절로써 인간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유다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고만 했고, 마귀보다 더 강한 힘의 소유자인 대천사 미가엘조차도 그 심판의 권한을 겸손히 하나님께 돌렸다면, “육체를 더럽히며” 천사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유 1:8)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비방한 자들이 받을 멸망이 얼마나 더 크겠냐며 엄중히 경고하였다.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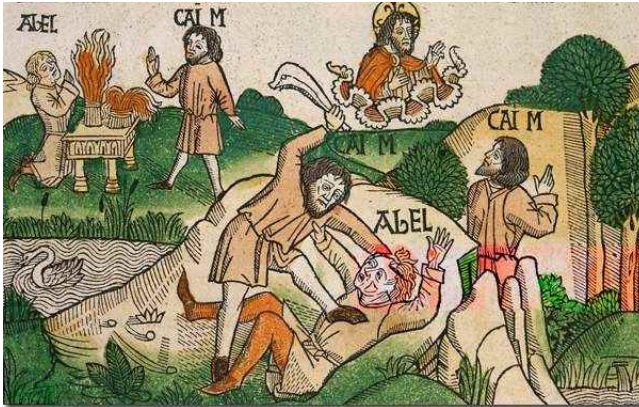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John Martin, 1852, 레밍턴 소장) 레밍턴 미술관(Laing Art Gallery)은 영국 뉴캐슬어폰타인(Newcastle upon Tyne) 시에 있다. 유황불 비가 내리는 소돔-고모라성과 롯과 그의 두 딸이 떠난 안전한 소알성 사이를 번개로 분리시켰다. 번개가 땅에 닿는 지점 아래에 분리를 상징하는 천사가 서있다. 유다서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베드로후서 2장 12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의 평행절이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육체를 더럽히며” 천사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다가 멸망한 것처럼, 처참히 멸망할 자들이다. 또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을 찾아온 두 사람이 천사들인 것을 알지 못하고 능욕하려고 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교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비방한다는 것이다. 또 “그들은 이성 없

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마치 “이성 없는 짐승”이 본능이 시키는 대로 행하다가 잡혀 먹히는 것처럼, 노아 때의 홍수심판과 롯 때의 유황불심판처럼, 그 멸망이 필연적이고 처참하다는 것이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였다. 첫째는 비방자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것이다. 비방자들은 영역밖에 있는 것이나 경험하지 못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무가치하거나 무관하다는 식으로 무시해버린다는 것이다. 바울도 이점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비방자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 영역의 것들을 볼 수 없고 경험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한다. 둘째는 비방자들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아는 것은 고작해야 자연법칙 곧 양육강식과 적자생존법칙 정도이고, 동물적 본능은 그들의 삶의 표준이다. 그들은 영적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이다. 영적 감각을 지속적으로 깨우고 훈련하지 않기 때문에 빗어지는 일인데, 그 끝이 멸망이란 것이다.

믿음을 위해 싸우라05: 멸망의 길(I)(유 1:11)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가인과 아벨에 관한 목판화<뉴른베르크 연대기(Nuremberg chronicle, 1493)>. 구약성경 창세기에 따르면, 가인은 아벨을 살해한 후 인간들의 비극의 역사(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땅에 속한 자손’의 뿌리가 되었다.

11절에서 유다는 세 명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경고하였다.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여 아벨을 살해한 인물이다. 마찬가지로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여 해하려 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편애하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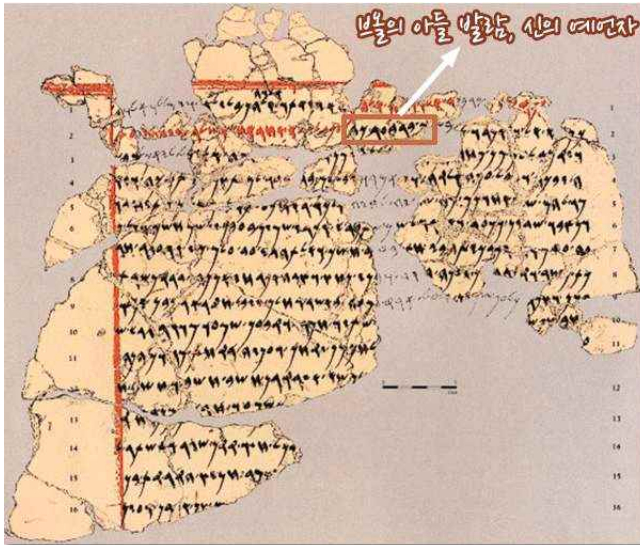
때문이 아니다. 아벨에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겸허한 삶의 태도, 인간이 이성을 지녔다고는 하지만 그 한계성을 뚫속 깊이 인식한 성숙함, 그래서 모든 판단을 자신의 감정보다는 이성, 이성보다는 영성에 의존하려는 믿음의 태도가 충만했기 때문이며, 가인에게는 그와 같은 태도가 없었거나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가인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태도와 선택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끝까지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였다. 성경은 가인이 하나님께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창 4:5)고 하였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앞드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4:7)고 하셨다. 가인의 살인행위는 가인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후손에게로 이어져 내려갔다.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은 끝없이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작품이 될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가진 존재란 사실을 기억해야한다.

창세기 4장에는 땅에 속한 자손과 하늘에 속한 자손이 나온다. 먼저 가인의 가계 곧 가인과 그의 7대손까지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들은 ‘땅에 속한 자손’들로써 인간들의 비극 곧 칼의 역사를 만들어갔다. 가인이 성을 쌓는 기술을

발전시켰고, 아발이 목축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유발이 음악을, 두발가인은 금속 가공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그들의 문명과 기술발전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악용되었다. 이것이 바로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는 뜻이고, 이성 없는 자들의 행동, 짐승 같은 행동, 본능에 의한 행동이며(10절), 큰 재앙을 부르는 일이었다.

창세기 4장에는 셋의 가계 곧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에 관한 기록도 나오는데,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손’들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갔다. 이들은 처음으로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가인의 길은 ‘땅에 속한 자손들’이 이룬 세속 발전사이고, 셋의 길은 ‘하늘에 속한 자손들’이 이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발전사이다.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의 이름이 새겨진 3천년 전 돌판의 내용을 옮겨 적은 것
발람의 이름이 새겨진 돌판들이 요르단 골짜기에 있는 데이르 알라(Deir 'Alla)의 고대 신전 가까운 곳에서 발굴되었다. 돌판에는 “신의 예언자”(divine seer)로 기술된 “브올의 아들 발람”(Balaam son of Beor)을 언급하고 있다. 1967년에 발굴되었고, 요르단 고고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발람이 모압의 왕 발락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였고, 올무를 놓아 우상을 숭배하게 할 뿐 아니라 음란에 빠지게 하여 멸망당하게 하였던 인물이다. 이처럼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에 빠뜨리는 자들이다. 또 이 구절은 베드로후서 2장 15-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불의의 삿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의 평행구절이다. 또 계시록 2장 14절은 “브올의 아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한 자라고 말한다. 유다는 10-1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로 “삿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한 자들이며 큰 재앙을 부르는 자들이므로 물리칠 것을 당부하였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지 40여년이 지났을 무렵에 농경문화의 관문인 모양평지 싯딤에 이르러 브올의 아들 발람의 꾀에 속아 브올(Peol) 산의 바알신전 축제에 참가한 직후에 2만 4천명이 염병에 걸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민 25:1-9, 31:16). 이는 히브리인들이 바알신전에서 모압 여자와 함께 바알에게 절하고 먹고 마시고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염병은 모압 여성들한테서 옮긴 성병으로써 성적으로 깨끗했던 히브리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혹은 히브리인들이 사막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걸려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 바울이 언급한 2만 3천명은 염병으로 죽은 자들이고, 나머지 1천명은 교수형이나 칼에 도륙당한 자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바알과 아스다롯 의식에 유혹을 받았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믿었던 농경문화가 만든 음란한 우상숭배행위가 유목문화와 유일신 야훼를 믿었던 히브리인들의 삶을 자주 흔들어놓곤 하였다. 우상도 없고, 여신도 없고, 신화도 없고, 여사제도 없고, 야훼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단지 율법(계명)을 듣고 행하는 것만으로 야훼를 믿어야 했던 히브리인들에게 바알과 아스다롯 숭배는 오늘의 흥등가처럼 매우 자극적이었을 것이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자,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고, 항로에 불로 담아 하나님 앞에 항로를 피웠던 250명은 불에 타났다. 추가로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한 14,700명이 염병으로 사망하였다(민 16장).

고라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모세를 대적하였다가 지진에 삼킴을 당했던 인물이다. 유다는 10-11절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로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을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한 자들이므로 물리칠 것을 당부하였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땅의 남쪽 접경지인 오아시스 가데스에 머물고 있을 때, 열두 족장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가 정탐하였고, 그 땅이 매우 비옥하다는 증거물로 거대한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도 가져왔다(민 13:23), 그러나 그들 중 열 사람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그곳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이었고, 자신들은 그들에 비하면 매뚜기 같다고 하였다(민 13:33). 이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 응보로

가나안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 된 자들이 모두 죽을 때까지 총 40년간 광야를 배회하였다(민 14:29-35). 민수기 14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표적들을 보고서도 열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하였다. 또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자, 땅이 갈라져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켰고, 향로에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웠던 250명의 지휘관은 불에 탔으며, 추가로 모세를 원망한 14,700명이 염병으로 사망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사건의 발단은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이백오십 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1-2절) 반역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모세는 그들 가운데서 250개의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게 한 다음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하였고,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하였다. 결과는 땅이 갈라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들의 집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킨 것이고(27-33절), 모세와 아론의 향로들 위에 피운 향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머지 250명은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된 것이다(35절). 이 일을 원망하다가 염병에 걸려 추가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49절). 지휘관들의 죽음은 향로의 불에 의한 것이고, 염병에 의한 죽음은 불티와 재 곧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향로는 기도의 모형으로써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재앙을 멈추게 하는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을 막아선 모세와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그린 목판화(누른베르크 연대기(Nuremberg chronicle, 1493)).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말을 하게했다.(민 22장).

일에 쓰였다. 기도가 생사를 결정짓는 그릇인 것을 교훈한다. 또 “고라의 패역”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종들에게 반역한 행위였다. 그 결과는 무서운 재앙이었고 멸망이었다. 따라서 원망과 반역은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짓이며 멸망을 자초하는 것임을 교훈한다.

믿음을 위해 싸우라06: 멸망의 길(2)(유 1:12-13)

“너희의 애찬에 압초요”



성 칼리스토 카타콤 프레스코(2-3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애찬(Agape Feast)에 참여한 모습

12절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에 압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는 베드로후서 2장 13절 “... 점과 흙이라. 너희

와 함께 연회할 때에...”의 평행절이다. 이 구절에서 “기탄없이”는 “거리낌 없이,” “겁 없이,” “염치도 없이”이란 뜻이다. 또 “너희의 애찬에 압초요”에서 “압초”는 ‘흠’(blemishes)이란 뜻으로써 교회의 애찬을 망치는 ‘흠’ 곧 ‘압초’란 뜻이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는 자기 자신들만 돌보는 목자들이란 뜻이다. 목자는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안전하게 보살펴야하는데 이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란 뜻이다.

13절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는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의 평행절이다. 이 구절들은 한편의 멋진 시어(詩語)들으로써 이단자들의 해악성을 열거한 것이다. 애찬의 압초,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나무, 열매 없는 가을나무,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깊은 흑암의 구렁이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운명이요 숙명이요 결국이라는 것이다.

유다가 “애찬에 압초”라고 한 상황은 이보다 일이십년 정도 앞서 고린도교회에서도 있었다(고전 11:17-22). 본래 애찬(Agape Feast)은 주후 168년에 순교한 저스틴이 150년경에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에게 쓴 <변증서>에 언급한 것처럼, “보통의 흠 없는 식사”였다. 애찬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시행된 초기 형태의 주의 만찬으로써 성도들이 저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주일 저녁에 집회소로 가져와 함께 나눠 먹고 마신 친교식사였다. 이때는 일요일이 공휴일도 아니고, 성도들 중에는 낮에 시간을 낼 수 없

는 노예들도 있었으므로 1부 말씀예배는 주일 새벽에 이뤄졌다. 새벽예배 후 흠어들었다가 2부 주의 만찬예배를 위해서 저녁에 다시 모였다.

문제의 본질은 주일 저녁 애찬식 때 성도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고,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나 가난하여 음식을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던 데에 있다. 넉넉했던 성도들이 가난했던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취하기까지 했는데, 이것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고전 11:22) 행동이었다. 음식준비는 고사하고, 온 종일 노동에 시달리며 먹지도 못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교회로 달려온 가난한 성도들이 자신들을 위해 남겨진 음식이 없는 것과 풍족한 음식을 싸들고 이른 시간에 교회로 달려와 먹고 취해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비애감과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카타공 비석(2-3세기, 로마)

공작은 영성과 부활, 목자는 예수님, 양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한다.

고 맹세하노라. 내 양 떼가 노략 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18세기의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사람을 이용과 이익의 수단으로 삼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비도덕적이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서 정죄하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눅 18:9),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자들, 높은 자리와 섬김 받기를 좋아하는 자들,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선 자들, 교인을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린 자들, 맹

12절에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는 자기 자신들만 돌보는 목자들이란 뜻이다. 목자는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안전하게 보살펴야 하는데 이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자들이란 뜻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이보다 650여년 앞서 에스겔이 지적해 놓은바가 있다. 에스겔 34장 8절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

인 된 인도자들, 하루살이는 걸러 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자들, 입만 열면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자들이 바로 유다가 말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 “물 없는 구름”은 비에 대한 희망을 실망이 되게 한 구름이요,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는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해 말라죽어버림으로써 열매에 대한 기대를 실망으로 바꾼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은 바다 속의 오물을 바닷가로 밀어내어 자기 수치를 들어냄으로써 푸른 바다의 꿈을 실망으로 바꾼 바다요,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은 자들의 종착지가 “캄캄한 흑암”의 세계라는 것을 말한 것이다. 반면에 하나님을 위하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경배와 섬김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난 지혜를 소유한 자들로서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자들이다. 이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다(약 3:17-18).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에서 “유리하는 별들”은 타락한 천사들을 말한다. <에녹2서> 18장에 보면, 에녹이 5층천에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그리고리 혹은 파수꾼들)이 하늘과 땅이 끝날 때까지 영원히 땅 밑에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추종자들도 2층천의 깊고 거대한 어둠에 있다고 하였다. 또 29장에 보면, 자신의 자리를 땅위의 구름보다 높이 올려놓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력을 가지려했던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무저갱 곧 바닥이 없는 심연위의 공중에서 끊임없이 날아다니게 하였다는 말이 나온다(참고 에녹1서 21:1-6).

이사야 14장 1-23절까지는 문자적으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지만, 12-15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는 루시퍼(루치페르, Lucifer, 셋별, 금성)란 이름의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된 과정을 이사야가 영감을 받아 노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구절들이다.



사탄을 짓밟는 미카엘 대천사(1630, Guido Reni, Santa Maria della concezione, 로마의 해골성당)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유리하는 별들”이 타락한 천사들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스겔 28장 1-19절 또한 문자적으로는 두로 왕의 멸망을 예언한 것이지만, 14-16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는 유다서 6절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곧 <에녹서>에 언급된 ‘그리고리’ 혹은 ‘파수꾼들’과 맥을 같이 한다.

계시록 12장 7-9절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믿음을 위해 싸우라07: 신약성경의 말씀들을 기억하라(유 1:14-25)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최후의 심판(Stefan Lochner, c. 1435, Wallraf-Richartz Museum, Cologne 콜른, 독일)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14-16절,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는 <에녹1서>

1장 9절, “보라, 그분은 일만 명의 거룩한 자들과 함께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임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행위를 한 모든 육체와 죄인들이 그분을 거슬러 말한 모든 거만하고 완악한 말을 한 모든 육체에게 정죄할 것이다.”의 인용 구절이다. 이 구절은 앞서 열거한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받을 심판을 경고한 것이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는 그들이 심판을 받을 이유 곧 그들의 죄악성을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것은 잘못된 교리에 빠져 그것을 누룩처럼 퍼뜨리는 자들만이 이단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물을 흐려놓고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모든 행악자들도 또한 이단자들의 범주에 든다는 사실이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에 대해서 앞에서 열거한 사실들 때문에 유다는 1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고 하였고, 18절에서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다.”고 사도들의 경고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17-18절은 베드로후서 3장 2-3절 “곧 거

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의 평행절이다.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는 5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를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다. 여기서 유다는 자신이 전에 말한 권면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교훈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사도전승을 뜻한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



최후의 심판(Viktor Mikhailovich Vasnetsov, 1904, 러시아)
독자와독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나팔소리에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에 오는 모습이고, 독자와독은 저주 받은 자들이 불못에 떨어지는 모습이다. 높여드리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바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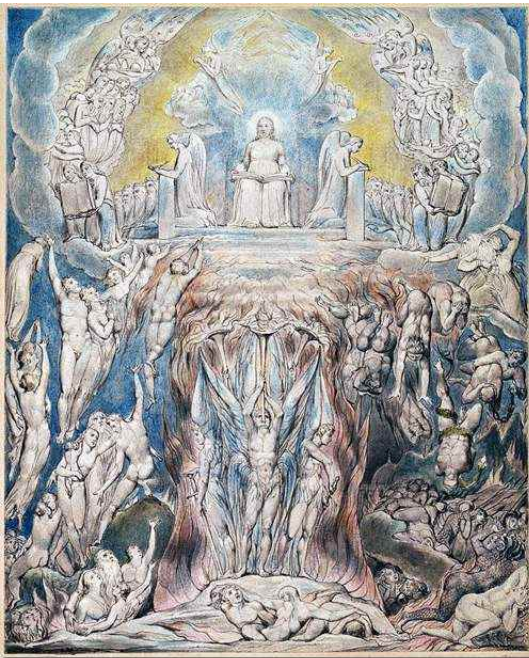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이다.”는 바울의 말씀들과 맥을 같이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고,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다. 유다가 19절에서 말한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는 바울이 말한 “육에 속한 사람”과 동일하다.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

사도전승을 담고 있는 책은 신약성경이다. 따라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말을 상기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신약과 구약성경의 교훈을 상기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유대 교인들이 매년 모세오경을 완독하고, 19개의 기도문(베라코트)을 매일 세 번씩 일어서서 낭송하는 것에서 보듯이, 찬송과 기도와 설교는 반복적인 것이고 기존의 알고 있던 것들을 상기하는데 있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반복해서

들과 거짓 교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대항하여 싸운 영지주의 경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였다.

바울은 자신을 적대시하면서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로 불렀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영지주의 경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는 예수님의 신성이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 그들은 사도행전 15장 5절에 소개된 대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히브리인”(고후 11:22)들이었고, “지극히 큰 사도들”(고후 11:5, 12:11)을 빙자한 “거짓 사도”(고후 11:13) 혹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었으며,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달한 가르침이 아닌 다른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고후 11:4)을 전한 자들이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무덤' (The Grave)에 삽입된 삽화로써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부활하여 천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유다는 20-2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고 권면하였다. 또 22-23절에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공활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 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공활히 여기라.”고 하였다.

유다의 권면은 여섯 가지이다.

첫째,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단 사설은 안 된다. 사도들이 주께 받아서 전해준 신약성경의 가르침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성경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한다. 우리의 신념과 행동 곧 믿음과

실천은 신약성경이 가르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속한 이 시대는 성령시대이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모든 약속의 보증이시며 인침이시다. 따라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무시로 기도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교리적인 이단사상과 윤리적인 부패와 부도덕과 모든 적대자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넷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뤄질 날이 멀지 않음을 굳게 믿고서 영생의 복이 이뤄질 그리스도의 공훈의 날을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는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불에서 사람을 끌어내듯이 영적인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의무감을 가지고 구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더러운 옷을 싫어하듯이 영육이 더러워진 이들의 더러움을 멀리하되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님 앞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건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며, 우리를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24절)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확신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축도로 마쳤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25절).

요한서신 이야기

하나님과 의 사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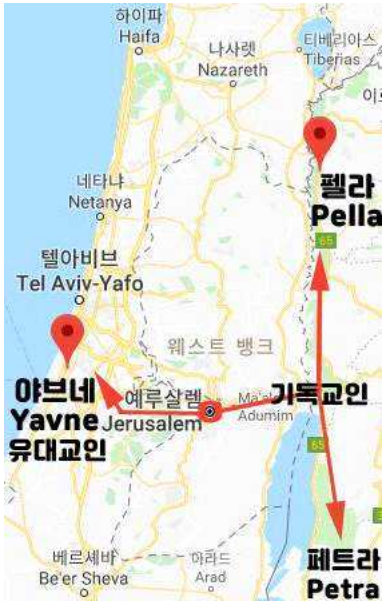
Fellowship with God

조동호 지음



하나님과의 사귄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요일 1:1-2)

기록 시기와 역사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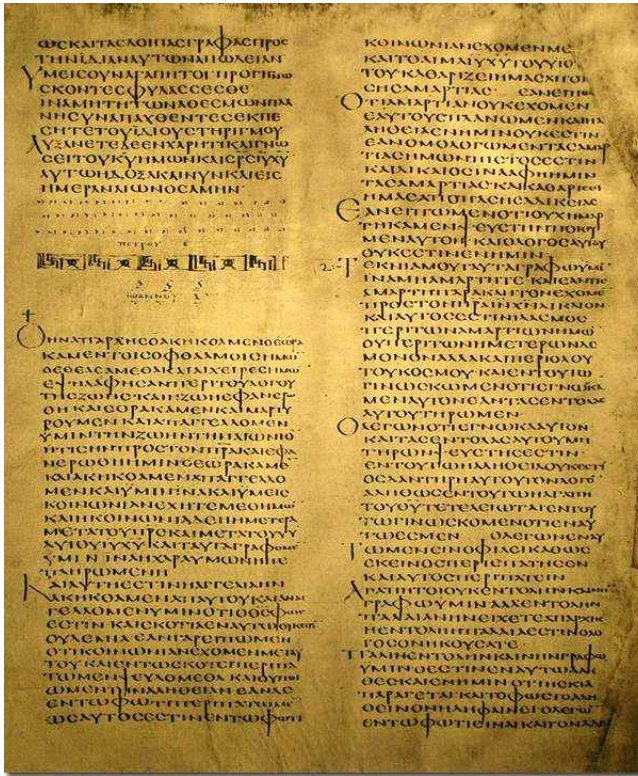
요한일서는 저자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목격자로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어서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 요한은 유대-로마 전쟁(AD 66-70)이 시작될 무렵에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을 탈출하여 에베소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이사랴의 주교 유세비우스가 남긴 <교회사> 3권 5장에 따르면,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Notzrim)은 주후 66년경 유대-로마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계시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펠라(와 페트라)로 피난하였다(막 13:14). 펠라(Pella)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사마리아 땅과 마주한 베레아 땅으로써 현재의 요르단 북부 요단강 주변에 있었던 도시였다.

베레아는 이방지역이어서 유대-로마전쟁 때 피해를 면한 곳이다. 펠라는 주후 635년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기까지 그리스도교가 성행했던 곳이다.

예루살렘이 베스파시아누스(Titus Flavius Vespasianus) 장군이 지휘하는 로마군대에 포위된 상태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한 랍비 요한안 벤 자카이(Yohanan ben Zakkai)와 그의 제자들은 전쟁직후 로마의 허가를 받아 욥바 남동쪽 20킬로미터 지점, 지중해 동쪽 6-7킬로미터 지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65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해안 평야지대에 위치한 ‘야브네’ (Japheth/Yavne) 혹은 ‘얌니아’ (Jamnia)란 소도시에 율법(Halakha)학교를 세워 성전을 대신할 율법중심의 유대교를 재건하였다. 그리스도교를 탄압했던 유대인들은 이제 생존에 힘을 쏟아부어야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를 더 이상 탄압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들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잠재적 위험요소인 이단으로 보고 회당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출교시키기 시작하였다. 얌니아공동체는 18개의 베라코트(berakoth)로 이뤄진 쉘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 혹은 아미다(Amidah, ‘일어섬 ‘이란 뜻)로 알려진 기도문 열두 번째에 “이단을 공격함” (Against Heretics)이란 베라카(berakah)를 하나 더 추가하였다. 더불어 유대교회당들에서는 숨은 그리스도

인들을 찾아내어 출교시켰는데, 그 시기를 주후 85-90년경으로 보고 있다. 요한복음에는 ‘출교’ (파문)에 관해서 3회 언급되었는데(9:22, 12:42, 16:2), 특히 9장 22절에 언급된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가 암니아의 결의를 반영한 구절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들의 기록연대를 암니아 결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85년경부터 요한이 사망한 96년 사이로 보고 있다. 기록 장소는 에베소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요한일서의 주제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3:16-18)과 요한일서 첫 부분(1:1-2:9)
(co.dex Alexandrinus, AD 400-440)

요한일서는 편지라고는 하지만 전혀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있지 않고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주변의 여러 교회들이 돌려 읽었던 회람편지로 믿어진다.

요한일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쓴 서신이다(5:13, 20, 요 17:3).

요한일서 5장 20절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고 했고,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고 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1:1)고 하였다. 이 말씀은 법정증언의 개념으로써 증언의 신빙성과 증인의 신뢰성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1:1),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2절)이시다고 말한다. 여기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1:1)은 “생명의 로고스” 혹은 영원한 로고스(Logos)를 말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Herakleitos c. 535 – c. 475 BC)는 이 로고스를 “변화의 주체자이면서 스스로 변치 않는 진리”라고 하였다. 이 태초의 로고스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은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2:25, 5:11-12).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1:2)으로서 “그리스도”로 표현된 구절이 <개정역> 기준으로 10회(1:3, 2:1, 22, 3:23, 4:2, 5:1, 6, 20),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들로 표현한 구절이 총 17회 나온다. “아버지와 아들”(2:22) 1회, “아버지와 그의 아들”(1:3) 1회, “그 아들”(1:7, 3:23, 4:10, 5:10) 4회, “그의 아들”(1:3, 5:9, 11, 20) 4회, “하나님의 아들”(3:8, 4:15, 5:5, 10, 12, 13, 20) 7회 나온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저자는 또 예수님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시고, “죄가 없으신”(3:5)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2:1),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3:5),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시고(2:2, 4:10), “물과 피로 임하신 분”(5:6)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3:8)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분(1:9)이시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2:25, 5:11-12, 5:20)고 말한다.

요한일서에는 “나타난 바” 혹은 “나타내신 바”(faner, φανερό)란 말이 자주 사용되었다(1:2, 2:19, 28, 3:2, 5, 8, 4:9). 영어로는 ‘manifested,’ ‘appeared,’ ‘revealed,’ ‘made visible,’ ‘became visible,’ ‘made known what has been hidden or unknown’이 된다. 이 말은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타내신 것과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에서와 같이 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고 “나타내신 바”가 된 것을 모두 포함한다. 또 이 말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았거나 감춰졌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실체가 1절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에 들리는 계시의(육적) 형태로 세상 안으로 보내졌다는 곧 계시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것은 4장 9-14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9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10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14절)는 말씀에서 잘 표현되었다.

요한일서에서 “나타난 바” 혹은 “나타내신 바”는 구조주의 형태를 띤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과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형제들의 믿음과 서로 사랑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들을 나타(들춰)내려 함이다(2:19).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요”(3:8),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다”(4:9). 참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은 거짓을 들춰내고 몰아내기 위함이요, 빛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것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함이며, 질서가 나타내신 바 된 것은 혼돈을 몰아내기 위함이요,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것은 죽음을 몰아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김은 의로 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1절)라고 했고,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고 하였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02: 참 빛 하나님(요일 1:3-4)

참 빛이신 하나님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빛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구절이 〈개정역〉 기준으로 11회 사용되었다. 그 가운데 5회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1:2),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1:3), “아버지와 아들을”(2:22), “아들과 아버지 안에”(2:24), “아버지가 아들을”(4:14)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표현할 때 쓰였다.

또 하나님은 “참 빛”(2:8) 곧 “빛이시다”(1:5)고 했고, “빛 가운데 계신” 분(1:7)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빛 가운데 있다”(2:9)고 하였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서로 사랑이 있는” 자이다(1:7, 2:9-10). 하나님은 태초의 어둠을 빛으로, 태초의 혼돈을 질서로, 태초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 빛이시오, 생명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4:8, 16).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란 말은 〈개정역〉 기준으로 30회 사용되었다. 그중 일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머지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 사용되었다. 특히 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였다(3:23). 특히 4장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4장 20-21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하였다. 또 참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참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2장 9-11절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

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하였다.

인간창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서 시작되었고,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었다. 그래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였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천사와 같이 이성을 가진 고등한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그분의 크신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실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초월적이고 충만하신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이나 천사와 같이 이성을 가진 고등한 피조물을 만들었겠는가?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무시해버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성을 가진 고등한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고등한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아도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다.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뜻이고,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을 가진 고등한 피조물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부족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기에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을 알고서도 인간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티끌만큼도 실수나 오류를 범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외에 고등한 피조물이 존재한다는 것,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고 하나님의 권한에 대항하는 도전이 된다. 이 고등한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할 것이고 그분의 권한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특권, 이 특권은 하나님만이 가져야할 권한이다. 그런데 그 권한을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천사에게 나눠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천사를 만든 분이시고, 그러한 권한의 소유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누구라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권한을

인간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들로부터 모독을 당하시고 도전받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은 운전하는 대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좋은가, 이따금씩 말 안 듣고 말썽부리는 아들딸이 더 좋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소중한가, 제멋대로 하는 아들딸이 더 소중한가? 초보운전자인 아들딸이 자동차를 몰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는가? 열쇠를 건네주시겠는가, 아니면 거절하시겠는가? 만일 사고 날까봐서 또는 글길까봐서 열쇠를 건네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영영 운전을 못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위험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용기를 내어 운전을 시켜볼 것이다. 그러면 서툰 실수는 잠시 뿐이고, 오래지 않아 훌륭한 운전자가 될 것이다.

희생이신 하나님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초보운전자인 자녀에게 열쇠를 건네준 부모의 행위가 자녀의 발전을 염원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크나큰 위험부담에도 불구하고, 고등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을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고등한 동물로 만드셨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소유한 권한, 즉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능케 하는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인간에게 나눠 주셨다. 하나님만의 권한을 인간에게 나눠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특권을 제한하셨다. 자신의 권리와 권한을 제한하셨다. 인간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도전과 모독이 불을 보듯이 뻔한 데도 하나님은 그리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은 스스로의 권한을 제한하시며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도 깨지고, 이로 인해서 이 세상에 악이 유입되었고, 죄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겪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든 고통이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자기 권한의 제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우 역설적인 이야기이지만, 비록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산다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끊임없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면서, 인간들이 그분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하실 뿐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3장 23-25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고 하였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배신하고 도전할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셨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고등한 피조물로 만드셨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리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실 어떤 방책을 세워두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 방책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벌(저주)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택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짐과 저주를 그분이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으며, 그 대신에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며 영생의 지복을 누리게 하셨다.

하나님과 사귄다 03: 사귄다(요일 1:5-10)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요한일서의 기록목적은 ‘하나님과 사귄다’가 마땅히 갖춰야할 몇 가지 중요한 덕목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모두가 “형제 사랑”과 관련된 것들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귄다’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자이다.

요한일서 1장은 ‘사귄다’에 관한 내용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귄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귄다,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사귄다에 관한 내용이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귄다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귄다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사귄다를 하나님과의 사귄다와 동일하게 보았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것들을 선포하는 이유를 “너희로 우리와 사귄다 있게 하려 함이다”고 했고, 또 “우리의 사귄다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귄다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의 사귄다”는 교회 공동체의 사귄다를 말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사귄다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귄다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교제 공동체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한 공동체란 뜻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되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함께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여 그분의 교제 속에 참여시킨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베푸는 천국잔치에 하나님이 초대를 받아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는 천국잔치에 그리스도인들이 초대를 받아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들은 바를 전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는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빛 가운데 거하라는 초대였던 것이

다.

1장 5절에서 요한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듣고 전한 소식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빛이시고 참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된다. 그 빛 가운데 들어가는 비결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데에 있지,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인간보다 높은 계급인 빛의 사자들로부터 영지(gnosis)를 받아 깨달아서 어둠의 세계인 육체의 몸과 세계를 벗어나 탈출하는데 있지 않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또 하나님과의 사귀어 있는 것은 빛 가운데서의 교제 곧 진리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육체의 몸과 세계에서 벗어나 탈출하는데 있지 않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서 행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1장 6절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다”고 하였다. 반면에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면, 어둠에 행하지 않고, 진리를 행할 것이다. 이뿐 아니라,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에서 보듯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빛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귀어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피조물이긴 해도 자기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참 빛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언제나 희게 씻어주실 것이다.

1절부터 4절까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한다. 야훼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 유대교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영지주의 성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수용을 거부하는 것들이다.

첫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한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인데, 우리가 귀로 들어왔던 분이고, 눈으로 보아왔던 분이요, 주목해왔던 분이고, 손으로 만져왔던 분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이 일찍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고, 주목했으며, 함께 먹고 마셨고 사귀었던 분이시다는 것이다. 바꿔서 말하면, 생각이나 머릿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었던 그런 추상적인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이

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 또는 “영원한 생명”으로 소개한다.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귀기 속에 계시다가 인간세계에 나타나셨고, 죄인과 세리와 창녀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속에 계셨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눈으로 확인했던 그런 분이시다.

세 번째로 요한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사귀기 속에 계셨고, 이천년 전 수많은 사람들과 사귀기 속에 계셨던 예수님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나서 “사귀기”를 가져야 할 대상으로 소개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인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귀기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그와 같은 사귀기의 축복 속에 있는 먼저 믿는 성도들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사귀기를 갖고, 또 먼저 믿고 구원받은 자들과도 사귀기를 갖도록 하려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사귀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귀기의 시간이고, 성도들과의 사귀기의 시간이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5절부터 10절까지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어두움이 무엇인가?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어두움이 상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어두움은 ‘고난’을 상징한다(시 112:4, 사 5:30, 애 4:8).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한다(욥 18:6, 엡 5:11). 어두움은 ‘타락’을 상징한다(롬 13:12). 어두움은 ‘미움’을 상징한다(요일 2:9-10). 어두움은 ‘영적 소경’을 상징한다(행 13:11).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한다(욥 10:21-22). 어두움은 ‘지옥’을 상징한다(마 22:13). 어두움은 사단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귀기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본받아 빛의 일을 행한다는 뜻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가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기가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고,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빛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일을 본받아 빛의 일을 행하셨고, 이 예수

님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 그분과 사귄 속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빛의 일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빛의 일이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처럼 태초부터 지금까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의 권세에 직면하고 계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혼돈과 공허를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바꿔놓으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빛의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들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자주 어두움과 혼돈과 공허의 세력 앞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어두움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생명으로 바꿔놓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다. 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뀌가는 경험들을 축적해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귄은 지속될 것이요, 사람들과의 사귄도 지속되어 선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힐 것이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라고 하였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사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귄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의미의 사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과의 사림04: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요일 2:1-6)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요한은 2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을 “대언자”(advocate)와 “화목제물”(propitiation)로 소개하였다. 하나님과 사림이 있는 자는 죄를 범치 않는 자이다. 만일 죄를 범했다라도 세상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언해주신다. 그러므로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1-2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적었다.

대언자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자란 뜻이다. 히브리서 1장 1-2절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다. 1절에서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먼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는 선지자들이 대언자들이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는 이들 대언자들이 기록과 구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는 뜻이다. 유대교의 ‘기록 토라’(Tenach)와 ‘구전 토라’(Mishnah)가 여기에 해당된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그리스도교가 구약성경(Tenach)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그리스도교는 토라(Torah)와 선지서(Neviim)와 성문서(Ketuvim)를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유대교가 발전시켜온 구전 전승을 인정하지 않았고, 유대교에서처럼 토라를 선지서보다 더 우위에 두지도 않았다. 유대교인들이 구약성경(Tenach)을 실체에 관한 또는 실체 그 자체인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와 그림자 또는 모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를 바르게 아는 핵심이다. 또 유대교가 613개의 계명들(Mitzvot)과 규례(계명의 율타리법들, Gezairoth)를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종교라면, 그리스도교는 신약성경에 진술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을 믿고 고백하는 종교이다. 유대교인들이 계명들과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는 ‘계명의 아들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신앙(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다.

대언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장을 하나님께 대변하는 자란 뜻이다. 이 두 번째의 뜻이 요한일서 2장 1절의 본래적 의미이다. 이 구절을 의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가 된다. 여기에 쓰인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parakletos)이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총 다섯 번(요 14:16, 26, 15:26, 16:7, 요일 2:1) 썼는데, 한글성경에서는 ‘보혜사’(개역개정, 표준새번역), ‘협조자’(공동번역), ‘보호자’(가톨릭성경), ‘대언자’(개역개정), ‘변호자’(바른)로, 영어성경에서는 ‘위로자’(KJV), ‘상답자’(NIV), ‘돕는 자’(NKJV, NASB), ‘옹호자’(TNIV, NRSV) 등으로 번역되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쓰인 “화목제물”은 ‘힐라스모스’(hilasmos)로써 속죄, 보상, 화해를 뜻하는 명사이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 쓰인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리오스’(hilasterios)로써 형용사이다.

“화목”은 중재(仲裁)용어이다. 분단의 벽을 헐고 적대감을 풀어 평화를 되찾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 인간끼리의 적대감, 자연을 착취하고 고갈시킨 데서 오는 적대감이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을 위한 제물로 세우셨다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물은 선물(膳物)이다. 하나님이 자신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회복을 위해서 주신 선물을 뜻한다.

“제물”(祭物)이란 본래 죄와 허물이 큰 인간이 신(神)에게 바치는 뇌물(賂物)을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로마시대에 “화목제물”의 개념은 죄가 큰 인간들이 진노하는 신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쳐 신들의 노여움을 달램으로써 다가올 재앙과 형벌을 피하고자 한 노력을 뜻하였다. 제물에 대한 보편적 개념이 뇌물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들이 애써 마련한 화목제물로 과연 신들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을까? 다신을 믿었던 그리스로마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까지도 그런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신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란 생각과 신들이 인간이 준비한 제물을 먹거나 그 향기를 즐길 것이란 생각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들에게서조차 찾아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다.

그리스로마시대에는 “화목제물”(hilasmos)이란 뜻이 ‘신들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인간들이 마련한 뇌물’이란 뜻을 담고 있었으나 신약성경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다. 신약성경에서 “화목제물”이란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마련한 선물’(2:2) 곧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

와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신 곧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뜻한다(롬 3:25).

신(神)이 인간에게 무엇이 아쉬워서, 무슨 잘못이 있어서 제물을 바치겠는가? 제물을 바쳐야 할 쪽은 죄와 허물이 큰 인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일서 2장 2절과 로마서 3장 25절은 그 어떤 형태의 죄도 허물도 없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간에게 화목제물로 주셨다고 말한다. 이 제물이 인간에게는 더 없이 큰 구원의 선물이 되는 이유이다.

구약시절에는 다섯 가지의 제사종류가 있었다.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和睦祭)와 소제(素祭)가 있었고, 이 두 제사는 뇌물(賂物)보다는 선물(膳物)의 성격이 강했다. 또 의무로 드리는 속죄제(贖罪祭)와 속건제(贖愆祭, 愆=허물)가 있었다. 여기서 속죄제는 죄의 사함을 위한 것이고, 속건제는 허물의 사함을 위한 것이다. 유대교인들의 관점에 볼 때, 죄는 하나님께 대한 십계명 1-4계명과 “~을 하라”는 248개의 계명들을 범한 것이고, 허물은 이웃에게 대한 십계명 5-10계명과 “~을 하지 말라”는 365개의 계명들을 범한 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번제(燔祭)가 있었는데, 번제는 단독으로 바치는 제사가 아니라, 다른 네 가지와 함께 세트(set)로 자원해서 바치는 제사였다. 번제는 가축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 향기로운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화제였다. 제물은 예배자의 생활형편에 따르되, 반드시 흠이 없고, 일 년이 된 수컷이어야 했다. 번제 때 제물이 불에 타면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는 하나님의 뉘이었고, 가축은 제사장의 뉘이었다. 그러나 예배자는 번제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과 감사를 하나님께 바치기 때문에 자기 뉘이 없었다. 가축만 취했던 제사장은 번제와 세트로 바치는 소제나 화목제 등을 통해서 자기 뉘을 추가로 취할 수가 있었다. 자원해서 바치는 화목제(和睦祭)는 화제였지만, 다 태우지 않고, 내장과 기름만 상징적으로 태웠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병과 함께 드려졌다. 화목제의 특징은 예배자에게도 일정한 뉘이 주어진 데 있었다. 동물의 가슴은 요제로 흔들고, 오른쪽 뒤 넓적다리는 거제로 높이 쳐든 다음 가축과 함께 제사장에게 주어지고, 나머지는 예배자가 가져다가 가족친지이웃들과 더 불어 그날로 다 먹어야 했고, 먹다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다. 화목제로 바친 고기는 예배자이든, 제사장이든 그것을 결코 혼자서 독식할 수가 없었다. 반드시 제사를 드린 바로 그 날에 모두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화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와 자연관계에서까지 두루 이뤄져야 진정으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크든 작든 동물이 화목제물로써 희생되면,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만 받으시고, 살코

기는 고스란히 예배공동체의 음식물로 하사(下賜)하시어 구성원들의 관계회복에 쓰이게 하셨다. 이런 맥락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대신(對神), 대인(對人), 대(對)자연관계에서 속죄와 구원, 화목과 일치, 연대와 결속, 나눔과 친교를 위한 완전하고 위대한 선물이었음을 의미한다.

3-6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는 유대교인들이 613개의 계명들과 규례(율타리법들)를 지키는 목적과는 상치되는 말씀이다. 유대교인들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땅을 지켜 내거나 빼앗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유대전통에서는 모든 유대인의 영혼들이 토라를 받던 시기에 존재했었고 그곳에 있었으며 시내산 언약에 동의했다고 말한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님의 피를 인하여 하늘 가나안땅을 값없이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요 감사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3-6절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빛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한 것이다.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05: 새 계명(요일 2:7-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박모세의 요한 수도원에 걸린 사도 요한의 이미지.
기도를 할 때 이마를 땅에 대고해서 뺨이 생겼다고 한다.

요한일서에 요한이 편지를 쓴 목적에 관한 언급이 10회 나온다. 그 가운데 8회가 2장에 언급되었다. 1장 4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고, 5장 13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고 했다.

2장 1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12-13절에서는 “자녀들아

(children),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요. 아버지들아(fathers),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요. 청년들아(young men),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했다. 요한은 12-13절에서 “쓰다”를 현재형으로 말한 반면, 14절에서는 “쓰다”를 과거형으로 말하였다. “아이들아(children),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요, 아버지들아(fathers),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요, 청년들아(young men),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하였다. 21절에서는 다시 현재형을 써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었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리스도인들을 “자녀들아,” “아버지들아,” “청년들아”라고 부르면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

나눔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쓴다고 하였다. 이것은 이 편지의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할 뿐 아니라, 이미 믿고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려는데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요한은 소식을 전하는(proclaim) 목적을 3회 언급하였다. 1장 1-3절에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본 “생명의 말씀”(혹은 “영원한 생명”) 곧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귄과 성도의 사귄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장 5절에서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고 하였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7-8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에서 “옛 계명”은 모세가 전한 계명, 곧 레위기 19장 18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를 말한다.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마 22:39-40)에 속한다고 하셨듯이, 십계명 5-10계명의 압축이다. 바울도 로마서 13장 9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고 하였다.

“새 계명”은 제2모세 혹은 재림 모세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곧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를 말한다. 이것이 7-8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의 의미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2절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이 인류에게 보이신 참 사랑이 예수님과 요한이 말한 “새 계명” 곧 그리스도인들이 이웃 혹은 형제를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할지에 대한 몇 가지 표준이 된다는 점을 담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먼저 사랑’이었다는 점이다. 1-2절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고 했고, 4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으며, 로마서 3장 25절에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유는]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고 했다.

둘째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권한과 자유를 제한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그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을 대신해서 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셋째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차별이 없었다는 점이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평하셨다는 점이다.

넷째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정의로웠다는 점이다. 그 정의로운 사랑은 죄를 벌하신 것과 그 벌을 대신 받으신 것에서 나타났다. 이 정의로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이다.

그리고 3-6절은 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 빛과 생명과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 증거라고 말한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9-11절은 “빛 가운데 있는” 자와 “어둠에 있는 자” 그리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로 나뉜다. 9-11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고,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는” 자이다. 반면에 “어둠에 있는 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이고,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요한일서에는 ‘빛과 어둠’에 대한 말씀이 많다. 빛이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1:5).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1:6). 반면에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귀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1:7). 요한복음에도 ‘빛과 어둠’에 관한 말씀들이 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요 8:12, 9:5), “사람들의 빛”이시며(요 1:4),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시다(요 12:46). 그러므로 “빛을 미워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이고(요 3:20),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이다(요 3:19).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자이고(요 12:46),

“생명의 빛을 얻을” 자이다(요 8:12). 그리고 이 빛에 거하는 자는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이다(요 11:9).

요한일서에는 ‘사랑과 미움’에 대한 말씀이 많다. 사랑하는 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3:18).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이다(3:10).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3:14).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이다(3:15).

15-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과 “세상으로부터 온 것”으로 나뉜다. 15-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있는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2:1, 요 17:8), “진리의 성령”이신 “보혜사” 이시다(요 15:26). 반면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3:1). 세상은 믿음의 식구들을 미워한다(3:13).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다(5:19). 세상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곳이다(4:1).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는 곳이다(4:3).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다(2:2).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곳이 아니다(4:9, 4:14). 믿는 자들에게 세상은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이다(5:4).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4:8, 12, 16). 따라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이다(4:7).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이다”(4:20).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4:11, 21). 또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다(요 15:23).〉

하나님의 사랑06: 기름 부음(I)(요일 2:18-20)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침례탕 (에베소의 사도요한의 기념교회 경내)

18-20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는 요

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칼의 권세를 가진 박해자 곧 로마황제나 황제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그리스도교를 탄압한 거짓 선지자 666를 말한 것은 아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는 이단자들을 말한다. 1세기 그리스도교 내의 이단자들은 유대인 에비온파(Ebionites)였다.

요한일서에서는 에베소교회들에 침투한 이단자들을 “적그리스도들”(antichrists, 2:18; 4:3), “거짓 선지자들”(false prophets, 4:1), “미혹케 하는 자들”(deceivers, 2:26)로 불렀다. 이 서신이 쓰인 목적들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 이단자들로부터 교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바울과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순교한 이후 에베소를 포함한 아시아 교회에서의 사도 요한의 지도력과 영향력은 매우 컸다. 그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가졌던 사도들 중 유일한 생존자였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 및 말씀에 관한 일차적인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회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장로였다.

에베소교회들에 침투한 이단자들은 영지주의의 경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Ebionites)였을 것이다. 영지주의(Gnosticism)는 AD 1세기에는 확인되지 않은 이단자들이었다.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장 진보된 단계의 영지주의가 요한1서에

담겼다는 것이 신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이었으나 그리스로마 철학의 한 형태인 영지주의가 로마제국의 사상계에 침투한 것은 150년경이었다. 따라서 1세기 그리스도교에 침투한 이단자들은 유대인 에비온파로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후 11:4, 갈 1:6-9). 그리스로마인들은 신화에서 보듯이 다신론 혹은 범신론(스토아철학)을 믿었기 때문에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나 삼위일체를 믿는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유력인사들을 포함해서 다수의 그리스로마인들이 유대교에 입교(대부분은 문의 개종자들 혹은 절반 개종자들이었음.)하였고, 이들의 상당수가 그리스도교에 재개종하였다. 반면에 유대교인들과 예수님(Ἰησοῦς, ‘예슈아’)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에비온파가 교회에 적대적이었다.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에베소교회들뿐 아니라, 시리아교회들, 갈라디아교회들, 그리스교회들까지 거의 모든 교회들에 침투한 이단자들 혹은 적대자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이었다(고후 11:4, 갈 1:6-9).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다고 하였는데(2:22), 그것은 구약성경에서 ‘장차 오실 자’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부인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부인했다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다는 의미이다(2:23. 4:15, 요이 9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였는데(4:2, 요이 7절), 그것은 그들이 유일신론자 혹은 단일신론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현설(Docetism)을 주장한 영지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유대인 에비온파였다.

가현설이란 지상에서 활동한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도케오,’ δόκew), 실제로는 육신이 없는 영이셨다는 주장이다.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한 자들이어서 육체를 포함한 피조물 그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한 반면, 영혼을 포함한 영적세계를 선하다고 생각하였다. 대표적인 인물이 2세기에 활동한 ‘마르시온’(Marcion, AD 84-160)과 ‘케린투스’(Cerinthus, AD 100-?)였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육체를 입으셨을 리가 없고, 악한 물질세계를 지으셨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물질세계를 지은 조물주는 완전하신 하나님보다 불완전한 ‘데미우르고스’(δημιουργός, Demiurge, 만드는 자)라고 주장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은 이러한 불완전한 육체의 세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영지(gnosis)를 알아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예수님은 이 영지를 이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장하였다.

‘데미우르고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플라톤의 저서 <티마이오스>(Timaeus)라고 한다. 책 속에서 ‘티마이오스’는 이데아 세계를 물질세계로 최대한 아름답고 최대한 훌륭하게 모방하여 만든 장인의 이름을 ‘데미우르고스’라고 불렀다고 한

다.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에서 “마지막 때”란 어느 때를 말한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예언대로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 때를 말한다. 요한은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재림의 때나 최후심판의 때를 의미하지 않는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칼의 권세를 가진 박해자가 아니라 이단자들을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해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책, *〈The Daily Study Bible Series: the Letters of John and Jude〉*(The Westminster Press, Philadelphia, Penn, 1976) 60쪽에서 “매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 세상에는 선과 악, 하나님과 적하나님(anti-God)사이에 갈등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리고 매 순간과 모든 결정에서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과 연합하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과 연합하든지해야 하는 선택에 직면한다. 그 선택에 따라서 영생에서 자신의 몫을 보장받거나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갈등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따라서 매우 실제적 의미에서 매시간이 마지막 시간이다(Every hour is the last hour)”고 하였다.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19-20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에게서 나갔다”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나간 자들이 외부 박해자들이 아니라 내부 이단자들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마치 가롯 유다가 공동체의 모임에서 빠져나갔듯이, 한 팀(one team) 공동체의 일원인 듯이 보였으나 그렇지 않았던 실상이 드러난 자들이란 뜻이다. 이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교의 믿음 곧 신앙고백을 공유하지 않았던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은 19절에서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다.”고 하였다. 이들이 바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주장한 유대인 에비온파였다. 이들이 적그리스도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교사들이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고백한 신앙 곧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교가 선포한 복음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신앙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복음을 부인하고 모세가 전한 토라(성문 토라와 구전 토라) 곧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

도의 교회의 기초 곧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들이었던 것이다(아 2:15).

이들 이단자들이 주장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은, 요한이 복음서 13장 2절에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한 것에서 보듯이, 요한이 일서 2장 20절에서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한 것에 상반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고백, 곧 예수님께 배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을 말한다. 이것들은, 27절에 따르면, “참되고 거짓이 없으므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 배워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가르침과 전통은 완전하고 충만하여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추가할 필요나 변개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며, 신약성경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선 자들이다. 이들이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에 상반된 말씀이다. 여기서 “기름 부음”은 온전한 신앙고백에 이어 침수와 견진례로 이뤄졌던 그리스도인 침례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고 하였다. 사도 요한과 동시대에 쓰인 <디다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침수하였고, 그보다 한 세기 가량 후에 쓰인 <사도전승>에 따르면, 예비자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에 대해 각각 신앙고백한 후에 각각 세 차례 침수하였고, 물에서 올라오면, “장로(목사)는 성화된 그 기름을 그에게 바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성유를 바릅니다’”고 하였다. 그들이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감독자(주교목사)는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이들을 성령의 재생의 목욕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신 주 하나님...”하고 기도한 후에 또 “손에 성화된 기름을 붓고 (침례 받은 자)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전능하신 주 성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성유를 당신에게 바릅니다.’”고 하였다. 이것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에 해당된다. 반면에 유대인 예비온파는 예수님을 오실 자로 예언된 메시아로 받아들였으나 예수님의 신성(神性)과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였고, 모세법을 강조하여 계속적으로 지킬 것을 주장하였으며, 마태의 아람어복음서를 빼고는 신약성경 전체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 침례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과과의 사림07: 기름 부음(2)(요일 2:21-29)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의 무덤(에베소의 성 요한 기념교회 경내)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배워서 전해준 가르침과 전통을 말한다. 그 내용이 신약성경 27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이유는 신약

정경의 기준이 사도성 곧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이었기 때문이다. 신약정경 27권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담고 있는 글들로 합격점을 받고 교회들이 정경으로 수용한 글들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교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야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 복음을 들었고, 들은 복음을 믿었고, 죄를 회개하였고, 믿음을 고백하였으며, 침례와 기름 부음의 증거로 견진을 받은 자들이었다. 이뿐 아니라, 예배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진리(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반면에 유대인 에비온파는 예수 그리스도님과 성령님에 관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상반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의 가르침은 거짓된 것이고 “진리에서 나지 않은” 것이다.

22-23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에서 “거짓말”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말한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유대인 에비온파를 말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였으나 율법의 참 뜻을 깨닫게 해준 분으로만 믿었다. 따라서 그분의 신성과 성육신과 화목제물 되

심을 부인하였다. 그러므로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들”이라고 칭하였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한분 야훼만 믿었고, 성령님의 인성도 믿지 않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불과하였다. 사무엘 진너(Samuel Zinner)는 <도마 복음>(The Gospel of Thomas)이란 책에서 그리스도교 이전 유대교에서 이미 지혜와 성령을 동등하게 여겼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30-31쪽. 참고: 지혜서 7:7, 9:17). 이것은 단 일신론을 믿었던 유대인 에비온파가 성령을 지혜로 곧 지혜의 의인화로 가르쳤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고린도에서 그들이 지혜로 침례를 받았다는 뉘앙스를 남겼다고 하였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에서 “침례”와 “말의 지혜”가 에비온파의 주장과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유대인 에비온파가 말하는 의인화된 비인격적인 성령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님이시라고 하였다.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에서 “처음부터”는, 3세기 초에 쓰인 <사도전승>에 따르면, “말씀을 듣기 위해 처음으로 찾아온” 때에 해당된다. <사도전승>은 17장 ‘일과 직업에 대한 (시험) 후에 말씀을 듣는 기간에 대하여’에서 “예비자들은 3년 동안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한편 열성적이고 이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면, 기간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생활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고 하였다.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말씀을 듣고 배운다. 따라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은 예비자로서 시작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지속해서 듣고 배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라는 뜻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는 그리스도교의 정통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이다.

25-26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생이고, 요한이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쓴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자들에게 미혹 당하지 않게 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려는데 있다는 것이다.

바벨론유배(586 BC) 이후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대인들에

게 약속하신 것들은(행 1:4)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가 제2 모세(재림 모세)로 일컫는 그리스도(메시아)의 오심이였다. 둘째가 이스라엘 나라(다윗왕국)의 회복이였다. 셋째가 임마누엘 곧 성령의 내주동거하심이였다. 유대인들은 재림 모세의 오심에 대한 기대를 제2 모세를 예언한 신명기 18장 15-18절, 새 율법과 새 언약시대를 예언한 예레미야 31장 31-33절, 새 성전시대를 예언한 에스겔 37장 25-28절,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를 예언한 이사야 65장 17-18절에서 찾는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같은 유대인들의 기대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이 세운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믿는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하였다. 주후 30년 5월 28일 오순절 날 교회시대(성령시대, 현재종말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어 하늘 가나안땅(기업)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고 믿는다.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27-29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27절의 앞부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회심의 전 과정 곧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동거하심을 ‘기름 부음으로 인치는 견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2-3세기경에 침례는 주로 밤이나 새벽에 알몸상태에서 침수로 거행되었고,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남자와 여자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침례는 세 번의 침수로 거행되었다.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신앙고백, 안수, 침수; 두 번째 아들 예수님께 대한 신앙고백, 안수, 침수; 세 번째 성령님과 교회와 몸의 부활에 대한 신앙고백, 안수, 침수의 순서로 반복되었다.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면, 장로(목사)는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라 주었다.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히폴리투스의 <사도전승>을 번역하고 해제를 쓴 이형우 신부는 이를 일컬어 “제2의 그리스도(alter christus), 즉 그리스도인(christianus)으로 탄생되는 것이다. 여기까지의 예식이 세례성사에 해당된다.”고 썼다. 침례를 받은 자들이 옷을 입고 예배당에 들어오

면, 감독(주교 목사)은 그들에게 안수한 다음에 자기 손에 거룩한 기름을 붓고 그 손으로 다시 안수하고 이마에 십자표시를 하면서 기름을 발라주고 나서 ‘평화의 입맞춤’을 하였다. 이것이 ‘침례식’ 직후에 진행되었던 ‘견진례’였다. 그리고 침례와 견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 곧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과 성도들과의 ‘평화의 입맞춤’(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만 했음.)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 이 과정 곧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동거하심을 ‘기름 부음으로 인치는 견진’은 사도행전 2장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을 것이다.”가 교회예식을 통해서 이뤄지는 과정이었다.

27절 뒷부분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에서 “아무도”는 이단자들을 지칭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로부터 배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내주동거하시는 성령님께서서 그간 배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며, 또 그 같은 것들 곧 신약성경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 거하라는 뜻이다. 28-29절은 그렇게 하면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자랑스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므로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권면이다.

하나님과의 사귄08: 기름 부음(3)(요일 2:20, 27)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



예수님의 성모 마리아의 유적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성모 마리아는 사도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이주하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머물렀다고 전한다.

구별되도록 하셨다. 이 기름을 바른 하나님의 일꾼들은 향기롭고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었다.

관유는 성령님의 임재를 상징하였다. 앞에서 보셨듯이, 구약시대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일꾼들에 한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머리에 발라 거룩히 구별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경우에서 보듯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즉시 하나님의 신(능력)이 임하였다(삼상 10:1-10, 16:13).

신약시대에는 침례가 기름 부음을 상징한다. 예수님의 경우에서 보듯이, 침례 직후에 성령님이 임한 것을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는 침례 직후에 견진례를 시행하였는데, 견진례는 관유를 이마에 발라 십자가 성호를 그어줌으로써 침례를 받은 자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거주를 시작하시는 표지이고, ‘성령의 인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다. 죄를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음을 ‘직인 찍어’ 확인하는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견진성사, 성공회에서는 견진예식, 그리스도교에서는 견진례 또는 입교예식이라고 부른다. 루터교에서는 견진례를 행한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와 같이 약식세례를 행하는 교단들에서는 대부분 입교예식으로 대신한다. 반면에 침례를 베푸는 교단들에서는 대부분 견진례를 생략한다.

중요한 것은 머리에 관유를 바르고 하나님의 신(능력)이 내린 이 특별한 의

출애굽기 30장의 관유는 자연에서 채취된 기름이 아니라 조제된 기름이었다. 올리브유에 향을 적절히 배합하여 정성껏 만든 기름이었다. 하나님은 향기로운 이 기름을 거룩히 구별하였으며, 그 기름을 성막 기구들에 발라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셨다.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기름을 머리에 발라 거룩히 구

식이 구약시대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종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 또는 왕들에 국한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제한 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점이다.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로, 구원의 보증으로, 구원의 인감 찍음으로, 능력이 아닌 세 번째 위격의 성령님으로 모든 성도들을 침례 베풀어주신다. 이것을 ‘성령으로의 침례,’ ‘성령침례’ 혹은 ‘성령세례’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쓰인 침례 혹은 세례란 말은 ‘충만,’ ‘내주,’ ‘동거’를 의미한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기름 부음의 차이

세 번째 위격의 성령님이 성도들의 심령에 거주하시는 축복이 구약시대에는 없던 신약시대만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시대’라 부른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병을 고친다고 해서 성령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 같은 외적(ON의)인 능력의 역사는 구약시대에도 흔했다. 그 같은 것을 일컬어 “약속하신 성령”(the promised Holy Spirit, 엡 1:13)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의 임재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있었고, 하나님의 신, 곧 성령님의 능력(ON)의 역사만 있었으며, 하나님의 신이 친히 그들 마음속에는 계시지 않았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그들 마음속에 항구적으로 임재(IN)하고 계시며, 그 대신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하는 은사는 구약시대와 마찬가지로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에 공적으로 일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사랑의 은사이외에 그 같은 능력의 은사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관유 부음이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셨음을 상징한다는 구약시대의 측면에서 신약시대에도 주의 종들이 도유가 생략된 안수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들은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자들이다(엡 4:12).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뽑힌 자들이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봉사의 일을 하는 은사자들이다. 만인제사장 개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주의 일꾼들이다. 그러나 안수례를 받고 전임(專任)하는 일꾼들과는 책임과 직무에서 차이가 있다.

출애굽기 30장 26-29절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고 한 말씀에서 배워야할 점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세속적인 것들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도, 예배에 쓰이는 모든 기물과 제기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물도 구별되어 바쳐져야 한다. 여기에는 몸과 마음, 겉과 속이 모두 해당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모든 것이 깨끗해야 한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쓰이는 모든 도구와 장소가 성물로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것들은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구약시대에 성소의 모든 도구들은 그 자체가 거룩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관유가 발라짐으로써 비로소 성스러움을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이다.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대로, 본래 죄인이었던 자들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곧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늘 자신들을 세상과 구별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사로 마음을 드려야 한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임직식

세례 요한의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침례나 유대교의 개종침례나 정결침례와도 다르고, 유대인 쿨란공동체가 행한 정결의식하고도 달랐다. 유대교에서 행하는 침례의식(Tevilat Keilim)은 반복적인 정결례로써 그리스도교에서 행하는 단회적인 침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다만 유대교 개종자에게 요구되는 침례는 단회에 그친다. 유대교인들은 정결례를 위한 침례탕(Mikvah)을 구비해놓고 있다. 유대교에서의 침례는 미슈나 구전이 정한 정결례(Tohoroth)이지 회개나 죄사함을 받기 위한 침례가 아니다. 유대인들은 출산이나 월경, 배우자와의 잠자리 뒤에도 침례탕에 들어가 부정(treyf)을 정(kosher)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회당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 새로 구입한 부정한 식기를 침례탕(Mikvah)이나 자연수(강, 호수, 바다 등)에 담갔다가 꺼냄으로써 정(kosher)하게 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예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새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교회에 멤버로 가입하기 위한 것이다. 유대교의 개종침례는 유대인과 혈통이 다른 남녀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받는 의식이며 유대인들은 받지 않는다. 남자 개종자는 할례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세례 요한한테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 쿨란공동체는 개인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정결의식을 행한 후에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정결의식은 단회(單回)의식이 아니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침례는 단회의식이었고, 그 어떤 공동체에도 가입을 권유하지 않았으며, 그 누구를

믿거나 신앙을 고백하도록 권하지 않았고, 오직 오실 자 그리스도와 그의 시대를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죄를 회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본래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었으며, 회개가 필요치 아니한 분이셨다. 이뿐 아니라, 세례 요한의 침례가 예수님 자신의 임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더더욱 불필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즉 임직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침례는 다르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받지만, 그분은 그 누구를 믿거나 소유가 되실 수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실체였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침례로 기름을 부어 왕들의 왕과 주들의 주로 삼으셨다. 그 사실을 입증한 것이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재하신 것과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눅 3:21-22)는 음성이었다. 이후로 기독교에서는 침례가 성령님으로의 기름 부음 또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시간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고후 1:22, 5:5)는 말씀의 확증으로 침례직후에 기름을 이마에 바르는 인침(견진) 의식을 치렀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09: 그리스도인의 신분(요일 3:1)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데살로니가에 소재한 성모 마리아 성당 돔 천정 벽화
예수님의 요한 좌우에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라고 썼다.
Ekklesia Panagia Dexia (The Blessed Virgin Mary)

요한은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사랑의 하나님은 당신만의 특별한 권리를 몇 가지 내려놓으셨다.

첫째,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의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내려놓으셨다. 하나님은 당신처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고등한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이 특권을 그들과 나눔으로써 그들로부터

더 모독을 당하시고 도전받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리 하셨다. 천사이든 인간이든 만들어진 것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필연적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둘째, 하나님은 죄인들을 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시적으로 내려놓으셨다. 피조물들의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피조물들끼리의 관계도 깨뜨렸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든 좋았던 세상에 생로병사를 비롯한 많은 고통과 번뇌가 유입되고 만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용서하고 구원할 방도를 마련하셨다.

셋째, 완전하고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은 친히 외아들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사람들처럼 희로애락과 생로병사를 겪으셨다.

넷째,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신 독생자 하나님을 인간들의 죄를 대

속하기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흘린 피를 통하여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사죄와 구원의 은총을 내리셨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피조물이 서야 할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 대신 설 자로 선택된 인간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시고, 독생자 하나님에게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도록 결정하신 분이시다. 독생자 하나님을 죽기까지 낫추시고 믿고 회개하는 인간들을 높이기로 결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다섯째, 이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려고 속죄제물이 되셨다.

여섯째, 이 독생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아들이 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본디 하나님의 외아들이셨으나 이제는 만아들이 되셨다. 본디 하나님께는 외아들만 있었으나 이제는 많은 자녀들을 두게 되셨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은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만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1장 6절은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고 하였다.

‘외아들’과 ‘만아들’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외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뿐이라는 뜻이고, ‘만아들’은 아버지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첫 소절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 6:9)이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란 엄청난 선언을 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대 선언이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였으며, 로마서 8장 16절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였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였고, 에베소서 1장 5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다.

일곱째, 이 독생자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하려고 부활의 첫 열매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덤에 갇힌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외아들의 신분에서 맏아들이 되신 것처럼, 부활에 있어서도 첫 열매가 되셨다.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줄줄이 그분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희생이요 크신 사랑이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큰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그러하도다.”는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뜻이다. 천지대군(天地大君)이신 하나님, 천상천하 가장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자녀란 것이다. 조선시대에 아버지는 두 종류가 있었다. 첫째는 낳으시고 길러주시는 부친이고, 둘째는 나라의 임금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사신들과 선비들이 연경(북경)에서 가져온 서적들을 통해서 가톨릭신앙이 처음 전래되었을 때 깨달은 것은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천지대군이 계시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인물들 가운데 황사영이 있었다.

황사영은 영특하고 뛰어난 재간이 있어 1790년에 16세의 어린 나이로 진사시(進士試)에 급제하였다. 이를 대견하고 기특하게 생각한 정조(正祖)가 친히 탑전(임금의 의자)으로 그를 불러 손목을 잡고 그에게 “네가 20세가 되거든 내 계로 오너라. 내가 네게 벼슬을 주고 나라의 큰 소임을 맡기겠노라.”고 약속하였다. 이에 그는 임금의 옥수(玉手)를 잡았던 이들이 하는 풍습에 따라 왕이 손수 잡아준 손목에 붉은 비단을 감고 다녔고, 부와 권력을 약속받았던 이 소년은 그 후 세계를 가슴에 품었던 정약종(다산 정약용의 셋째형)의 제자가 되었다. 그에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후, “내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

고 심판하실 제일 높은 임금을 알았으니 그분의 신하가 되는 것이 군자의 마땅한 도리이다”고 고백하였다.

그는 20세에 이르렀으나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세속에 대한 미련을 버려 더 이상 전시(殿試)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매번 백지를 냈는데, 임금은 그가 급제하지 못함을 이상히 여겨 대신들에게 사영이 충분히 공부하여 응시하도록 이르게 하였다. 후에 정조(正祖)는 그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면서 그에게 연민의 정을 표했는데, 그는 임금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로지 복음전도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그 후 백서사건(1801)으로 체포되어 의금부에 끌려가 23일간 취조와 형벌 끝에 대역부도한 죄인의 판결을 받고 27세의 나이로 능지처참 형을 받았고, 그의 어머니는 거제도 로 귀양을, 두 살배기 아들은 추자도에 버려져 촌부가 주워 키웠으며, 부인은 제주도 모슬포에서 관비로 38년을 살았다.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사람들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 사실은 황사영이 의금부 취조 때에 밝힌 “나는 양학(洋學)을 한지 11년이 되는데, 양학을 시작한 이듬해에 조정에서는 집집마다 이것을 엄금하였으며, 친척, 친구들까지도 휘방하고 배척하였다.”고 한 증언에서 잘 드러난다. 그러나 황사영은 “나는 백번이나 숙고한 끝에 양학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또 그것이 구세(救世)의 양약(良藥)임을 알고 성심껏 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천지대군이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갖는 특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과과의 사립10: 주의 재림(요일 3:2)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에서 전반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세 소절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들아”이다. 이 호칭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로마서 8장 32절은 하나님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분”이라고 하였고, 요한일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였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사도 행전 15장 25절은 바나바를 일컬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라고 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였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다. 로마서 12장 10절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하였고, 요한일서 4장 21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았다고 하였다. 요한일서 2장 10절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였고,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도 하고 사랑을 주는 자들이기도 하다.

둘째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란 구절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값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녀이다(고전 6:20, 7:23). 바울도 요한보다는 20여 년 전에 에베소교인들에게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스런 자녀가 되었는지, 또 그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할지를 설명한바가 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인들에게 한 권면이 훗날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에베소교인들에게 한 권면과 큰 틀에서 동일하다.

셋째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다.”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이다.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형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곧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할 때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오름을 막 시작하신 직후 변형산(다보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신령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 때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17장 2절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고 했고, 마가복음 9장 3절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고 했으며, 누가복음 9장 29절은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다.”고 하였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은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마 17:5)고 했는데,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 하셨을 때의 장면과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 얼굴에 난 광채를 연상시킨다(출 34:29-35).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7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려 싸우더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에서 후반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는 세 소절로 나뉘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그가 나타나시면”이다. 이 말씀의 뜻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께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신다는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에서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신다.”고 했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고 했으며,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고 하였다. 또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하였다. 베드로도 전서 1장 13절에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고, 후서 3장 14절에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였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

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고 하였다. 베드로도 전서 1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고 했고, 5장 4절에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고 하였다.

둘째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이다. 여기서 “그와 같을 줄”은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이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1-52절에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란 뜻이다. 그러나 “그와 같을 줄”과 “그와 같은 형상”이 “그의 참모습”처럼 되리란 뜻은 아니다. 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중 나타나시는 것처럼 부활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분과 함께 영광중에 나타날 것이란 뜻이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최후의 심판(Stefan Lochner, c. 1435, wallraf-Richartz Museum, cologne 콜른, 독일)
 독자의 좌측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독자의 우측은 저주 받은 자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

셋째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이다. 여기서 “그의 참모습 그대로”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빌립 보서 2장 6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고 하였고, 히브리서 1장 3절도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고 하였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점을 말해준다. 우리가 장래에는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성삼위의 제2격 신(神)으로

라.”고 했다. 여기까지는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란 점을 말해준다. 우리가 장래에는 육신을 입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 성삼위의 제2격 신(神)으로

서의 참모습 곧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대로 볼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도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고, 마가복음 13장 26절도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하였으며, 누가복음 21장 27절도 “그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요한복음 17장 22절에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라고 하였고, 24절에서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고 하셨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요한복음 17장 24절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의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다.”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

마태는 이때에 사람들에게 대한 보상과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경고하였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하였고, 19장 28절에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였으며, 25장 31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19장 28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와 요한계시록 3장 21장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간직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과의 사림II: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일 3:3-24)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에서 주를 향한 소망은 2절에서 언급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때에 우리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혹은 그분처럼 변화될 것과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분의 참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베드로후서 3장 14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권면과 동일하다.

요한일서에는 ‘~ 같이 ... 하라’ 혹은 ‘~ 대로 ... 하라’는 권면이 유난히 많다. 1장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림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했고, 2장 6절에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고 하였다. 또 2장 18절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고 하였다. 이 같은 권면은 5장까지 계속된다.

2장 27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3장 2절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장 7절 “자녀들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3장 12절 “가인 같이 하지 말라.”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의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같은 구절은 총 12번 가운데 3장 12절 “가인 같이 하지 말라.”만 빼고 나머지 11번 모두가 성삼위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서 “~ 하심같이” 혹은 “~ 하심대로” 하라고 했다.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는데 맥락이 같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기를 바랐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요한은 3장에서 구조주의적으로 마귀의 자녀들의 악행(병든 상태)을 들춰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선행(건강한 상태) 곧 형제사랑을 강조하였다.

4-6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과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로 구분 지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이고,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자들”이다. 4절에서 “죄를 짓는 자” 곧 불법을 행하는 자는 6절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와 상반된다. 5절에서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6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범죄하지 아니한다.” 반면에 “범죄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하였다.

7-8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요한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과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로 구분 지었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일을 하는 자들은 “죄를 짓는 자들”이며 “처음부터 범죄”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로운” 자들은 “마귀의 일을 멸한다.” 8절 하반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마귀의 일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다. 두 영적 권세 곧 그리스도와 마귀는 각각 군사들을 거느린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의로움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군사들은 미혹함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무력화시킨다.

9-12절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यो,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씨(seed)가 그들의 속에 거하는” 자들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고, “범죄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반면에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고,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13-14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였다. 이들 구절들에서도 요한은 대조법을 썼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와 “형제를 미워하는 자,” “세상이 미워하는” 자와 세상이 사랑하는 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자가 서로 상반된 대구들이다.

15-17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하였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영생이 없다고 했다. 반면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물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고 하였다.

18-24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하였다. 여기서도 요한은 서로 상반된 대구들을 사용하였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자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 진리에 속한 자와 거짓에 속한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그것들이다. “진리에 속한” 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자이고,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 자이다. 여기서 “굳세게 하다”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다’ 혹은 ‘마음을 편히 가지다’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기 때문에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지키고 행하여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였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이 주신 옛 계명(레 19:18, 34)이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 계명이다(요 13:34).

하나님과 사람12: 하나님은 사랑(1)(요일 4:1-10)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요한일서 4장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고 하였다. 요한은 여기에서도 대조법을 써서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 등으로 구분 지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거짓 선지자,” “세상에 속한” 것,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으로 지목된 된 자들은 영지주의 경향을 띤 율법주의 에비온파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나사렛당’(Notzrim)과 ‘에비온파’(Ebionites)가 있었다. 나사렛당은 유대교의 계명들을 준수했지만, 그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랍비들이 만든 율타리 법들의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이들은 유대-로마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펠라’와 ‘페트라’로 피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변절자로 낙인찍혔다. 에비온파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이단이었다.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바울의 글들은 무시했으며, 마태복음만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단일신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 성육신, 동정녀 탄생 등을 부인하였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주장하였다(고후 11:4, 갈 1:6-9, 딤후 1:3, 6:3, 히 13:9).

유대인들은 지상 가나안땅과 이스라엘 나라를 얻기 위해 첫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체결하였고, 그 때 받은 율법(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이 땅과 나라를 빼앗긴 채 노예와 떠돌이가 된 원인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율

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빼앗긴 지상의 땅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것에 집착해왔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문자적으로 율법과 규례를 지켜왔다. 유대교는 영적인 종교가 아니다. 교리를 믿는 종교도 아니다. 율법을 실천하고 행하는 민족종교이다.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하늘 가나안땅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한 후에 침례를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복음의 내용을 믿고 실천하는 세계 종교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영적 종교이다. 그러므로 요한은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권면하였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7-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에서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상반된 표현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 곧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자이다. 반면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곧 하나님과 사귀어 없는 자이다.

여기서 요한은 사랑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톨스토이의 글과 연결된다. 이 글에서 톨스토이는 가난하지만 착한 구두수선공 마르틴이 추운 어느 겨울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세 차례 돌본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한 것이었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특히 톨스토이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는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주목하였다.

또 테레사 수녀는 가난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또는 현현(계시)으로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극빈자들에게서 또 모든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테레사의 확신이였다. 그러므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행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 되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였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든 이들에게,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빵이나 치료보다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끔찍한 가난은 고독이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가장 심각한 질병은 나병

이나 결핵이나 에이즈가 아니라 자신이 불청객이라는 느낌이라고 했다. 세상에는 빵에 대한 허기보다 사랑과 가치 평가에 대한 허기가 더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돈이나 빵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저들의 이 깊은 사랑에 대한 갈망을 달래 줄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거기에 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저는 천국이 어떨지 확실히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심판을 받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좋은 일을 했는지 묻지 않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번은 수행 신부에게 왜 양로원의 사람들이 입구 곁에 앉아서 모두 문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커다란 허기, 곧 사랑에의 허기를 느끼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비록 양로원이 물질적으로는 모두 갖춰져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자녀들에게 잊혀진, 자녀들에게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신의 가족들안에도 이런 가난, 이런 허기를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라고 했다.

하나님의 사랑

9-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하였다.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3-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다”에 연결된다. 이것이 스위스 신학자 카를 바르트(Karl Barth, 1886-1968)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발견할 수 없는 분이시다’고 말한 이유이다.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인간이 서야 할 죽음과 저주의 자리에 대신 설 자로 선택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배반하고 죄 범한 인간에게 영생의 축복을 마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오히려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자신에게는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죽음을 대신 받기로 결정하셨다. 또 하나

님은 인간의 몫을 당신께서 받는 대신에 당신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춤으로써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벌을 받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흘린 보혈이었다. 우리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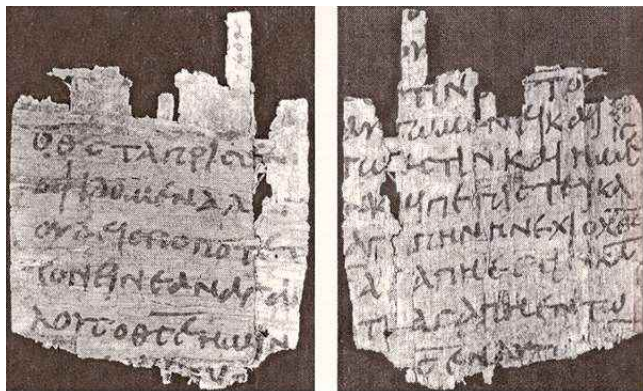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사랑의 특성을 관심, 책임, 존중, 이해, 나눔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이 다섯 가지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것이 관심과 책임이다. 2차 대전 후 패전국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산을 하나 두고 두 개의 영아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시설과 음식이 좋은 영아원 아이들의 사망률이 시설이 나쁘고 가난한 영아원보다 60%나 높았다고 한다. 원인은 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의 차이에 있었다고 한다. 가난했지만 부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의 생명력이 끈질겼던 것이다. 또 날씨가 험악한 날 밤에 왕진을 와달라는 한 가난한 노동자의 청을 받은 의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살려야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위험을 무릅썼다. 그 의사의 도움으로 노동자(구두제조공이자 교회 목사인 외삼촌 리처드 로이드)가 키우는 어린 아이가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 1863-1945)라는 이 아이는 훗날 영국의 수상(1916-1922)이 되었고, 국교인 성공회 신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 로이드 조지의 더 자세하고 감동적인 출생이야기가 아래 인터넷주소에 있습니다.:

<http://www.economicsmagaz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2530>;

http://kccs.info/with_home/bbs/board.php?bo_table=test&wr_id=33&sca=&sf1=wr_subject&stx=%B7%CE%C0%CC%B5%E5&sop=and&page=0

하나님과 사랑(2)(요일 4:11-21)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



요한일 4:11-12과 14-17의 앞과 뒤(P.Oxy 402, 3/117171)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에서 “이같이”는 9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에서 “이렇게”에 연결된다. 그리고 “이렇게”와 “이같이”에는 9-10절에서 언급된 네 가지 하나님의 사

랑의 특징을 말한다. 첫 번째 특징은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자기 제한의 사랑 곧 당신의 권리와 자유를 우리를 위해서 제한하시는 사랑을 말한다. 두 번째 특징은 9절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헌신적 사랑을 말한다. 세 번째 특징은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먼저 사랑 혹은 내리 사랑을 말한다. 네 번째 특징은 10절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희생적 사랑을 말한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는 조건적인 사랑 또는 타율적 사랑으로 오독되기 쉬운 구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하고 서로 사랑해야한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랑하라’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감동되면 하고, 감동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조건적인 또는 타율적인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계명이다. 조건에 상관없이, 감동이 있거나 없거나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억지로라도 반드시 지켜야하는 하나님의 규범이다. 이 하나님의 규범을 무조건으로 따르는 것이, 철학자 칸트의 의견을 빌리자면, 순수한 것이고, 자율적인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정언적(categorical)인 것이다. 반면에 조건적인 사랑은 불순한 것이고, 조건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율적인 것이다. 조건적으로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가언적(hypothetic)인 것이다. 정언적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값없이, 은혜로, 먼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당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제한으로, 자발적 희생으로, 자발적 헌신으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삼으신다는 뜻이고, 정언적 사랑이란 뜻이다. 반면에 가언적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이용하며 착취하는 ‘사랑하는 척하는’ 가짜 사랑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는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은 아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다. 유대교 신비주의 카발라인들에 따르면, 이 사랑은 ‘감춰진 일자’ ‘아인 소프’(En Sof)이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발산)된 열 가지 ‘세피롯’(Sefirot) 곧 하나님의 ‘쉐키나’(Shekhinah)들 혹은 하나님의 속성들의 네 번째 것인 ‘헤세드’(Hesed)에 해당된다.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은 아인 소프가 창조한 최초의 인간 아담 카드몬(Adam Kadmon)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속성 혹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라 말할 수 있는 열 개의 세피롯을 담는 그릇이었다고 말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이 열 개의 세피롯을 아담과 이브가 갖고 있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세피롯의 상위 세 개 곧 왕관(Keter 케테르), 지혜(Chokhmah, 호크마), 이해(Binah, 비나)는 부분적으로 깨졌고, 나머지 일곱 개 곧 사랑(Chesed, 헤세드), 능력(Geburah, 게브라), 영광(Tiferet, 티페레트), 승리(Netzach, 네짜흐), 존귀(Hod, 호드), 기초(Yesod, 예소드) 그리고 나라(Malkut, 말쿠트)는 완전히 깨져 버렸다고 말한다(대상 29:11). 유대인들은 이를 원상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신들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언약의 내용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책무를 완수하여 세피롯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지를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세피롯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회복되어 우리 안에 있게 되므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의 세피롯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쉼키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안다.”가 된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곧 성령님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들(고전 12:7-11)과 성령의 열매들(갈 5:22-23)이 다 유대교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세피롯과도 피차 연결된다. 그러므로 14-15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와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와 연결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16-21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는 앞서 말한 사랑에 관한 말씀들의 요약이자 반복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되면, 그는 심판 날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되고, 오히려 담대함을 갖게 된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신뢰와 믿음이 있고,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이나 불안이나 의심이나 미움이나 질투가 없기 때문이다. 인간관계에서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사람을 미워하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19-21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의 뜻이다.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글에서 사람은 이런 저런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음으로써 살아간다고 하였다.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일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뿔뿔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 주시지 않았고, 인간이 하나로 뭉쳐 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했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지, 정말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랑 속에 사는 사람 곧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하나님과과의 사립14: 하나님은 사랑(3)(요일 5:1-8)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니”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에서 “난 자” 혹은 “낳으신”은 헬라어 ‘gegennētai’(has been born, “난 자”), ‘gennēsanta’(having begotten, “낳으신”), ‘gegennēmenon’(having been begotten, “난 자”)을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낳은”(begotten)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여성이 잉태하여 낳은 자녀를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나온 자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독생자’(only begotten Son, 요 3:16)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드셨다’(created)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다’(God became the Father of Jesus)는 뜻이다. 따라서 이 말에는 자연(육체)적 출산의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니라, 영적 출산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출현을 ‘발생’(generation), 성령님의 출현을 ‘발출’(procession)이라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시작된 적이 없고 끝도 없으시다. 따라서 발생의 의미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난 자” 곧 ‘하나님이 영원히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뜻이다. 또 발출의 의미는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오시는’(proceeding) 분이시다는 뜻이다(요 15:26).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다”는 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님으로 믿는 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이란 뜻이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에 연결된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에 연결된다.

‘외아들’과 ‘맏아들’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외아들’은 아버지가 낳으신 자식이 하나뿐이란 뜻이고, ‘맏아들’은 아버지가 낳으신 자식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의 첫 소절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 6:9)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란 엄청난 선언을 하셨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대 선언이다. 로마서 8장 15-1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

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고 했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고 하였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였고, 에베소서 1장 5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요한은 본문 1절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하였다. 요한은 여기서 가족애를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가족이 그러하듯이, 아버지가 낳으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비잔틴시대의 주화(미카엘 4세, AD 1034-41)
전면에 왼손으로 복음서를 안고, 오른손으로 강복하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IC XC NIKA)라고 새겼다.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는 세 가지 사랑의 일체를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요 13:34, 15:12)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일체임을 말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같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같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같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고 하였다. 계명들을 억지로 지키면 짐이 되지만, 사랑으로 지키면 짐이 되지 않는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에 연결된다. 이런 이유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기는 것은 그분의 군대가 이기는 것이고,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군사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이기는 것이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이기신, 무덤을 이기신,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시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였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적장과 적군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개전장군이 되셨고, 월계관을 받아쓰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군사들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분과 함께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월계관을 받아쓰게 되며,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가르침이다.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전투를 앞두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였고, 꿈에 “이 표식<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 X(Ch)와 P(r)를 겹쳐놓은 표식>으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는 환상을 보았으며, 이 표식을 자기 군대의 군기(라바룸)와 병사들의 방패에 새긴 후 전투에 임함으로써 312년 10월 28일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 로마제국의 아우구스투스(정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여 콘스탄티누스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리스도 때문에 황제의 자리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이 표식으로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문구는 주후 350년 베트라니오 황제의 주화에 새겨짐으로써 로마제국내의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에도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베트라니오 로마황제의 주화(AD 350)

전면에 월계관을 쓰고, 동체갑옷을 입은 베트라니오(Vetranio, AD 350)를 새겼고, 둘레에 우리의 주 베트라니오 경건하고 다복한 아우구스투스(DN VETRANIO PF AVG)라고 썼으며, 뒷면에 손에 군기와 홀을 쥔 베트라니오에게 여신 승리(Nike)가 월계관을 씌우는 장면을 새겼고, 둘레에 “이 표식(XP)으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HOC SIGNO VICTOR ERIS)라고 새겼다. 이 글귀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꿈에 하늘에 나타난 그리스도그림(XP)을 본 직후 들은 음성이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고 성취하신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자매가 되었으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6-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희생과 복음으로 만왕의 왕(Ihsus Kristus Basileus Basileōn) 승리자(Nika)가 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지존에 대한 이미지이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주가 되신 것은 세속적 권력과 권세로 된 것이 아니고, 자기 희생과 자기권한의 제한과 사람들과 같이 되신 동일시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

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는 요한복음 19장 34-35절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에 연결된다.

요한은 복음서와 서신에서 적그리스도요 거짓 교사들인 영지주의 경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의 ‘다른 교훈’ 곧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 성육신, 동정녀 탄생 등을 부인하였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창 찔림으로 “물과 피”를 쏟으셨고(요 19:34-35),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셨으며”(요 19:26), “내가 목마르다”(요 19:28)고 하셨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요 19:30)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요한은 이를 본 자의 증언이 참이라고 하였는데, 그 증언은 진리이신 성령님의 증언과 일치하였다. 이 때문에 초기 그리스도교 때부터 오늘날의 가톨릭미사에 이르기까지 주의 만찬 때 포도주에 물을 섞어왔다.



비잔틴시대의 주화(요한 1세, AD 969-976)
전면에 복음서를 품고 계신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IHSVS XPISTVS BASILEVS BASILE)이라고 새겼다.

또 물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침례에,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에 연결된다. 침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임직한 기름부음이었고, 피 흘리심은 인류의 죄를 단번에 대속하는 대제사장직 수행이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침례를 베푸실 분

이셨고,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님이 임하셨으며 동거하셨다(막 1:9-12). 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가 된다.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15: 하나님은 사랑(4)(요일 5:9-15)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세례 요한의 침례는 유대교인의 정결 침례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 침례하고는 성격이 달랐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침례는 정결이나 죄 사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적 임직을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신” 것이나 “하늘로부터 소리” 곧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스도 곧 메시아임을 증명한 것이었다.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에 연결된다. 또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는 죄와 허물을 피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의 증언도 그토록 효력이 큰데, 허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자유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증언의 효력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라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와 17장 5절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에 연결된다. 베드로도 목격자의 한 사람으로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지금까지 큰 영광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도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삼하 7:14)고 하였다.

게다가 누가복음 10장 22절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그의 아들을 믿는 자이며, “생명(영생)이 있는” 자이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자이고, “자기 안에 증거가” 없는 자이며 “생명이 없는” 자이다. 따라서 요한은 10-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였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갈릴리 남서쪽에 위치한 다보(Тавор, 588m)산
예수님의 변화체현이 있었던 산으로 알려진 곳이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에 연결된다. 요한은 일서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 혹은 “영원한 생명”(1:1-2)이라고 하였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5:11, 20)고 하였다. 또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2:25)이 약속되었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으며”(3:14), 그분을 영접한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5:12)고 하였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에 연결된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다”는 TNIV에서 “This is the confidence we have in approaching God)”이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는 TNIV에서 “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라고 하였다. 이 두 구절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져야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담대함 곧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할 이유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기” 때문이고,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는 요한일서 3장 21절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것”에 연결된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는 하나님이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것을 응답하시는 줄을 안다는 뜻이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하였고,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하셨으며,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다보(Тabor)산과 그 앞에 펼쳐진 이스르엘 골짜기(Jezreel valley)

누가는 예수님께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과 표적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누가복음 3장 21-22절에서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

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고 하였고, 9장 18-20절에서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한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는 신앙고백을 들으셨다고 했으며, 29-32절에서는 다보산으로 추정되는 변형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

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새 베드로와 밋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밋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하였다.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응답이 있는 기도는 은밀히 드리는 기도(마 6:6),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드리는 기도(마 21:22, 막 11:24),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마 26:39), 구제와 같은 선행이 따르는 기도(행 10:4, 31),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기도(빌 4:6), 꾸준한 기도(살전 5:17),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엡 6:18, 유 1:20) 등이다. 특히 예수님은 강청(强請)의 기도(눅 11:5-13), 끈질긴 기도(눅 18:1-8), 겸손의 기도(눅 18:9-14)의 중요성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제나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 언제나 끈질기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 언제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으로 준비기도 하셨고(눅 4:1),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피하셔서 명성의 유혹으로부터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셨다(눅 5:16).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 가셔서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셨고(눅 6:12),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기 전에 즉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시기 전에 홀로 기도하셨다(눅 9:1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도 장소를 택하여 기도하셨다(눅 11:1).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셨다(눅 22:32).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간절히 기도하셨다(눅 22:44).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고, 임종의 순간에도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토록 절실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더 절실해야겠는가?

하나님과과의 사귀16: 중보기도(요일 5:16-21)

“누구든지 형제가 ...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16-17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에서 “구하라”는 중보기도를 의미한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언급된 “도고”가 중보기도이다. 영어성경에는 ‘intercession’으로 나오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써 ‘cession’이란 말에 ‘inter’가 합성된 단어이다. 여기서 ‘inter’는 라틴어로 ‘~의 사이에’란 뜻이고, ‘cession’은 그 어근이 ‘ceed,’ ‘cede,’ ‘cess’로써 ‘go’(가다)라는 뜻이다. 이들 어근은 ‘가다,’ ‘후퇴하다,’ ‘항복하다’의 뜻을 가진 라틴어 ‘cēdere’에서 온 말이다. 또 영어 ‘cession’은 (영토의)할양, (권리의)양도, (재산 등의)양여 등에도 쓰인다. 따라서 중보(도고) 또는 중재의 뜻을 가진 영어 ‘intercession’은 ‘~의 사이로 가다’ 혹은 ‘~의 사이에서 양보(할양, 양도)를 받다’란 뜻이 된다.

구약성경에서 대표적인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간구일 것이다. 창세기 19장 29절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고 하였다. 열왕기상 13장 6절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고 하였다. 이사야 37장 4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탁하였고, 예레미야 37장 3절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부탁 하였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고, 22장 32절에서는 친히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 바울은 성도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

하였고(살전 1:2, 빌 1:4, 9),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골로새서 4장 3절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고 하였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다. 히브리서 13장 18-19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한다.”고 하였고, 야고보서 5장 16절도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였다.

“사망에 이르는 죄”

16-17절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인가? 헬라어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hamartian mē pros thanaton’이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hamartia pros thanaton’이다. 여기서 ‘pros’은 영어로 ‘unto’이고, 우리말로는 ‘~에게로’ 혹은 ‘~까지’란 뜻이다. 따라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사형에 해당되지 아니한 죄를 말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 교리적 혹은 영적으로는 많은 적든 크든 작든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반대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는 죄”는 고의적이고 연속적이며 회개하지 않은 죄이다. 요한은 이 구절을 적을 때 적그리스도(거짓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 성육신, 동정녀 탄생 등을 부인한 영지주의 경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였다. 이들은 완고하여 그리스도교 복음을 받아드리지 않고,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완강히 주장하였다. 그들의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였을 가능성이 높다.

출애굽기 21장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나온다. 타인을 살해한 죄(12-14절), 부모를 때린 죄(15절), 유괴죄(16절), 그리고 부모를 저주한 죄(17절)가 그것들이다. 살인의 종류로 고의적인 살인(12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살인(13절), 실수로 인한 살인이 언급되었다. 고의적인 살인일 경우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살인과 실수로 살인한 경우에는 지정된 도피성에 피신하여 ‘피의 복수자’(고엘하담)로부터 피의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였다(민 35:11). 모세의 율법에 제시된 형벌의 종류를 보면, 상해의 경우는 동일하게 보상하거나(레 24:19, 신 19:21)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서 40대까지의 태형을 가할 수 있었다(신 25:1-3). 그리고 유산을 시키거나 도둑질한 경우와 가축을 죽인 경우에는 금전으로 배상하게 하였고(출 22:1-15), 간음(신 22:21-24)하거나 안식일 법을 어긴 경우(민 15:32-36), 어린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레 20:2)와 주술을 행하는 행위(레 20:27)는 돌로 때려죽이게 하였다. 또 우상숭

배자(신 17:1-7)와 피를 보수하는 자의 친척복수의 경우 칼로 죽이고(민 35:19-21), 장모간과 행음한 제사장의 딸은 화형에 처하게 하였다(레 20:14, 21:9). 그밖에 사형에 해당되는 죄목에는 살인, 부모모욕과 부모구타, 신성모독, 안식일 법 어김, 주술, 거짓 선지자, 간음, 음란, 강간, 근친상간, 비정상적 성행위, 유괴, 우상숭배, 거짓 증거가 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살인, 간음, 배교를 3대악으로 보았다. 예수님은 성령 훼방죄(마 12:28, 막 3:29, 눅 12:10)를 말씀하셨는데, 당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완고함이 사도 요한 시대의 에비온파의 것들과 같았다. 히브리서 6장 4-6절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한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18-21절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에서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해져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곧 부활과 하늘 가나안땅이란 기업을 약속 받은 자들이고, 장차 주어질 이것을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인치시며 선취하도록 인도하실 뿐, 주님의 재림 때까지 혹은 죽어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낙원에 이르기까지는 여전히 불완전하여 죄와 허물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육체(본능, “내 속에 거하는 죄,”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롬 7:17, 23) 가운데 살기 때문이다.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칭의함(무죄선언)을 받고 거듭남(중생)으로써 초기성화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교회생활(광야생활)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성화를 이뤄가는 자들이지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자들이 아니다. 그 단적인 증거가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이다. 성경 66권은 회개와 인내를 강조한 말씀이고, 회복과 구원을 약속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8-20절 “하나님께서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는 말씀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강조한 3무(三無) 또는 3P로부터의 자유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무는 무벌(無罰), 무구속(無拘束), 무죄(無罪)를 말하고, 3P로부터의 자유는 죄의 형벌(punishment), 죄의 권세(power), 죄의 실재(presence)로부터의 자유 곧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롬 6:16-22)이 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3P 즉 죄의 형벌(punishment), 죄의 권세(power), 죄의 실재(presence)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자원함으로 순종의 종(16절), 의의 종(18절), 하나님의 종(22절)이 된다고 했고, 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16절)고도 하였다. 바울은 두 종류의 종노릇을 언급하였는데, 죄의 종노릇과 사랑의 종노릇이 그것들이다. 죄의 종노릇은 피차 멸망하는 길이요, 사랑의 종노릇은 피차 상생하는 길이다. 요한이 형제 사랑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듯이,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15절에서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했고,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16-17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하였다.

하나님과의 사귄17: 그리스도교 장로(요이 1:1)

그리스도교 장로는 본래 제사장(사제)이 아니었다.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에서 장로는 사도 요한을 말한 것이다. 위계상으로 장로보다 상위였을 사도가 어떻게 그보다 아래인 장로라 할 수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좀 장황하게 설명해보려고 한다.

사도시대의 교회는 하루 세 번 오전 오후 저녁에 동물제사를 바쳤던 성전보다는 하루 세 번 오전 오후 저녁에 일어서서(아미다) 18개의 기도문(쉐모네 에스레이)을 바쳤던 유대교 회당의 성격이 더 강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유대교인들이 하루 세 번하는 쉘모네 에스레이 대신에 하루 세 번 주기도문을 하도록 권했고, 유대교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하는 금식대신에 수요일과 금요일에 금식하도록 권하였다. 그리스도교가 392년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기 전까지 예배당 구조는 성전구조를 본뜬 유대교 회당구조를 따랐다. 그래서 출입구가 동쪽에 있었고, 성전에서 메노라(등대)가 성소에, 법궤가 서쪽 끝 지성소에 놓였듯이, 또 회당에서 13세 이상의 계명의 아들들이 서는 성소에 메노라가 휘장 뒤 지성소에 두루마리성경궤(법궤)가 놓였듯이, 예배당의 구조와 배치가 동일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으므로 남녀와 신분의 차별이 없었고, 성소와 지성소의 벽(휘장)이 없었으며, 누구나 예배당(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 또 유대교인들과는 달리 매주 일 주의 만찬을 행하였다.

보조자들이었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예배와 의식에만 종사했던 자들이었으므로 성전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 역할이 중단되었다. 바벨론 유배이후 70년(586-516 BC)간 성전예배가 중단되었고, 주후 70년 이후 지금까지 성전예배는 중단되고 있다. 유대인들은 단 한분 하나님 야훼만을 믿으며, 성전도 단 한 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세워진 성전만 인정한다. 따라서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폐쇄이후 지금까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이 중지된 상태에 있다.

이스라엘 바깥 이방나라들에서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들을 믿었고, 그들을 모신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으며, 남성 제사장뿐 아니라 여성 제사장들의 숫자도 매우 많았다. 그런데 이들 남녀 제사장들,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들의 제사장들,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신전의 제사장들, 바쿠스(디오니소스) 축제의 제사장들은 모두 성장(聖娼)들이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여성 제

사장들을 허용하지 않았던 여러 이유들의 하나였다. 또 다른 이유들에는 성경 시대에 여성들이 남자들의 소유물(재산)에 불과했고,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며, 게다가 계명(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에서는 13세 이상의 ‘계명의 아들’(Bar Mitzvah)들 곧 13세 이상의 남자들만을 이스라엘로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계명들을 지켜야할 의무자들이 아니었다. 그 때문에도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교 예배는 유대교 회당 기도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리스로마세계에서 예루살렘성전은 주후 70년에, 이방인 신전들은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된 392년에 완전히 폐쇄 또는 붕괴되었고 따라서 이방인 제사장들도 모두 역사에서 사라졌다. 지중해 연안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제사장들이 사라진 직후부터 반대로 그리스도교예배는 기도회 성격에서 제사예배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것이 가톨릭교회의 미사예배(성체성사)이다. 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주의 만찬에서의 빵과 포도주가 성찬기도직후 성체(聖體) 곧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신앙의 신비’에 있다. 따라서 이 예배를 진행하는 장로들이 점차 제사장(사제)들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오늘날 가톨릭신부들을 사제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예배는 동물제사예배가 아니므로 제사장들이 없었다. 그리스도교에는 집사와 장로들만이 있었다. 집사와 장로가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에 해당된다는 개념은 국교가 된 이후 그리스도교 예배를 제사예배로 발전시킨 로마가톨릭교회의 주장일 뿐이다.

그리스도교 예배는 성전의 제사예배가 아니라 회당의 기도회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성경시대에 유대교 회당에는 설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회당에는 복수(3명)의 남성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회당장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회당의 관리와 민원을 해결하는 공회원들이었다. 이들은 예배와 교육의 책임은 물론이고, 율법규정에 따라 샅을 받는 유일한 고용인이었던 집사로 하여금 곤장을 치게 하거나 파문을 시키는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마 10:17, 막 5:22, 눅 7:3, 21:12, 행 22:19). 예수님, 바울, 바나바 등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설교자가 따로 없었기 때문이다(막 1:21, 눅 6:6, 행 13:15, 19:8). 회당에서는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오전기도회 때 해당 주의 ‘파르샤’(모세오경을 54개로 나눈 것)와 ‘하프타라’(파르샤와 연관된 역사서와 예언서의 몇 개의 구절)를 낭독자가 읽는다. 설교는 이 부분을 해설해 주는 것으로써(행 28:23) 필요할 경우 회당장들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가 할 수 있었다.

유대교 회당에 설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이유는 유대교가 교리종교가 아니고 실천종교이기 때문이었고, ‘쉐모네 에스레이’(일명 ‘아미다’)라 불리

는 18개의 기도문을 낭송하기 위한 집회의 특성상 전담 설교자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회당에 설교자가 따로 없었고 회당장이 여러 명이었던 증거는 신약성경에 많다.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3장 14-15절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파르샤와 하프타라)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이다.

초기 그리스도교에도 복수(3명)의 남성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지역교회의 당회장(감독자와 치리자)들이었다. 초기 예루살렘교회의 장로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였다. 사도 야고보가 주후 44년에 참수를 당하자 그의 빈자리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메웠다. 사도들은 순회전도를 위해서 자리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의 몫이 되었다(행 15:4, 6, 13, 고전 15:7, 갈 1:19, 2:12). 바울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설립한 후 복수의 장로들을 선출하여 장립한 것은 바로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들에 필적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 세 명의 장로들이 있었다.

개개의 회당에 3명의 회당장 장로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선교지 교회들에 3명의 장로들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개교회의 장로들은 지역교회의 목자(목사)와 감독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가 신약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져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직책이 양무리를 보살피는 목자와 감독자임을 주지시켰다. 동일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를 일컬어 ‘장로’라고 하였다(벧전 5:1, 요이 1:1, 요삼 1:1).

개교회의 남성 장로들이 반드시 설교자일 필요는 없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지역교회를 감독하고 목양하는 남성 장로들만의 몫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세기 말까지는 사도, 전도자, 선지자(예언자), 교사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순회 목회자들이었다. 이 순회목회자들 가운데 소수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성례를 집례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맡아하는 남성 장로 설교자는 2세기 초 이그나티우스에 의해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그나티우스가 서머나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언급한 주교/감독의 직무는 다수 장로들의 으뜸 곧 오늘날의 담임 목사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장로들은 16세기에 칼빈과 존 녹스의 평신도 장로 대의제 도입에서 비롯되었다. 원칙은 회중에 의해 선출된 회중의 대표가 치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그리스도교는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국가교회체제였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20인, 60인, 200인의 시의회들에서 남성들만으로 장로들이 선출되었고, 칼빈은 이들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 바가 있다. 존 녹스 역시 칼빈이 제네바에 확립시킨 개혁교회 장로회 제도를 도입하여 스코틀랜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 정착시켰다. 스코틀랜드에서 회중이 선출한 장로들과 사제(장로)들로 구성된 당회(session)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것은 1563년부터였다. 이때 장로의 임기는 제네바에서와 마찬가지로 1년이었으나 인적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1578년부터는 종신직으로 바꿨다.

‘목사’라는 호칭은 ‘사제(제사장)’(장로 곧 목양자)라는 말을 ‘목사’로 바꾼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미사’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을 ‘주의 만찬상’으로 바꾼 개혁가였다. 이로써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시대나 미사 예배에서처럼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제단도 사제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가톨릭교회에서 부제(신학대학원 졸업반 학생들)로 정교회에서 보제로, 성공회에서 보조자(대학원 졸업 후 보조자 고시에 합격한 후 보조자 서품을 받은 자)로 불리는 사제의 말단계급인 집사는 감리교에서는 수련목, 한국루터교회와 기독교장로회에서는 준목, 예수회장로회에서는 강도사에 해당된다. 이상의 보조자들은 평신도 집사들과는 달리 제사장들을 보조했던 레위인들에 해당된다. 그것은 마치 평신도 장로들이 사제 장로들과 차별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구약시대의 레위인과 제사장 제도를 그리스도교에 도입한 것이 과연 옳은지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과 그의 사랑18: 택하심을 받은 부녀(요이 1:1-13)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요한이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에서 “택함을 받은 부녀”는 교회를, “그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다.

복음서에 회당장 아이로에게 “열두 살 먹은 외딸이” 있었고, 병들어 죽어가다가 예수님 덕분에 살아난 기사가 나온다(마 9:18-26, 막 5:21-43, 눅 8:40-56). 이 일화에 십이 년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댄 직후 나음을 입은 사건이 첨가되었다. 이 두 여성의 공통점은 ‘12’란 숫자이다. 여기서 12란 숫자는 열두 부족 곧 이스라엘을 의미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깊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상태를 상징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신부 또는 여성에 해당되었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로 보았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낳은 자녀들이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다.”고 했는데, 여기서 “너희”는 교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아내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낳은 자녀이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고 했고,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했으며, 31절에서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와 “자유 있는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비유로써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곧 교회가 낳은 자녀이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고 하였고, 17절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고 했는데, 여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비유로써 교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곧 교회가 낳은 자녀이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계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고, 9절에서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고 하였는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10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교회를 의미한다. 그 거룩한 성 곧 교회의 성민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혹은 아내이다. 여기서 “신부”는 육체적 생물학적 의미가 아니고, 교회의 순결성을 말한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이므로 딸린 자녀들이 많다.

“서로 사랑하자”

1-3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은 교회와 그것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부녀”란 말로써 표현될 수 있는데, “부녀”란 ‘숙녀’(kyria, lady)를 뜻한다. 또 “부녀와 그의 자녀”로 표현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심을 받은”(eklekte, elect) 자들이다. 목회자인 장로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로써 이 “부녀와 그의 자녀” 곧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목회자에게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살 자라고 했다.

4-6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 또는 “진리를 행하는 자”가 계명대로 행하는 자란 점을 말해준다. 그리고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란 점도 말해준다. 이 계명은 주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행하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된다고 하였다.

7-9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

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에 연결된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주장한 영지주의 성향을 띤 유대인 에비온파이다. 이런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권하였고,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한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 자란 말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도 모시지 못한 자란 뜻이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 하였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0-13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하느니라.”는 사랑의 한계 또는 경계에 대해서 말한 것이고, “네 자매의 자녀들”은 여러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며, 그들이 보내는 문안으로 요한이서를 마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주장한 자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곧 교회를 허무는 여우들이었다. 아가서 2장 15절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고 하였다. 사도시대의 교회들은 막 꽃이 피던 때였다. 교회를 허는 여우들은 잡거나 몰아내야 할 대상이었지, 복음으로 교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싸워서 물리쳐야 할 대상이었지, 사랑이나 온정을 베풀어야 할 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순한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적대자들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9절에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서신에 언급된 ‘서로 사랑’을 아가페 사랑보다 열등하고 저급한 사랑이라고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

여 기도하라”(마 5:44)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에 비해서 ‘서로 사랑’과 ‘사랑의 한계’를 말한 요한서신의 사랑은 월등히 저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한이 말한 “서로 사랑”이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닌 것은 요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계명대로 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라고 지속적으로 권했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 주님의 계명대로 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또 적그리스도를 교회에 들이지 말아야했던 이유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의 교회들에 몰래 침투한 이들 적그리스도들과의 싸움에서 많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바울이 고린도교회에서 받았던 상처가 고린도후서 10-13장에 상세히 담겨 있다. 이때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고린도까지 원정을 해야 했다. 그들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바울의 원정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다음에는 디모데가 고린도 원정에 나섰지만 그도 역시 실패하였다. 결국 싸움은 디도가 나선 다음에야 이길 수 있었고, 고린도교회와 바울 사이에 평온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 무렵이 주후 56년경이었다. 이 일뿐 아니라, 에베소에서의 유대인들의 핍박과 소요로 인해서 바울 일행은 서둘러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끝내야했다. 이밖에도 바울은 유대교 회당에 끌려가 유대인들로부터 39대의 매를 5번 이상 맞았고, 옥에도 수없이 갇혀야 했다. 사랑에도 끊을 것은 끊는 기술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속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공의가 있었음을 깨달아야한다.

하나님의 사랑: 네 영혼이 잘됨 같이(1)(요삼 1:1-8)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요한삼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에서 장로 요한이 “진리 안에서 사랑한” 가이오는 누구인가? ‘가이오’(Gaius)란 이름은 당대에 ‘루기오’(Lucius, 행 13:1, 롬 16:21)란 이름 다음으로 가장 흔한 이름이

었다고 한다. ‘가이오’는 ‘기뻐하다’(rejoice)란 뜻의 라틴어 ‘gaudere’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이 가이오(Gaius Julius Caesar)였고, 그의 조카이자 양아들(후계자)이었던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도 가이오 옥타비우스(Gaius Octavius)였다. 신약성경에도 여러 명의 가이오가 언급되었는데, 모두가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가이오는 바울이 침례를 베푼 고린도 사람으로서(고전 1:14) 바울과 고린도교회를 돌보아 주는 집주인이었다(롬 16:23). 두 번째는 주후 57년 말 에베소에서 바울과 동행한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였고(행 19:29), 세 번째는 주후 57년 말에 바울이 3차 선교를 마치고 고린도에서 3개월간 겨울을 보낸 후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모아준 거금의 예루살렘교회 후원금을 가지고 58년 봄에 고린도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갈라디아 교회들을 대표하여 아시아(드로아)까지 동행한 더베 사람 가이오였다(행 20:4). 네 번째는 요한 삼서에 언급된 가이오인데, 이 사람은 버가모 교회의 초대감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내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란 뜻이다.

2절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삼박자 축복론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성구이다. 삼박자 축복은 삼중축복으로도 불리는데, 영혼이 잘되는 축복, 범사에 잘되는 축복, 건강하게 되는 축복을 말한다. 그러나 이 삼박자 축복론은 구약성경의 가르침을 그리스도교에 문자적으로 적용시킨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삼박자 축복론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목적을 두게 하지 않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는 삶에 목적을 두게 함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성공주의 결과주의 공리주의 실용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같은 주의주장들의 특징은 성공과 바라는 결과가 선이고 축복이라는 가르침이다.

‘peri pantōn’(모든 것에 관하여)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영육의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을 말한다.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euchomai)고 했다. 그리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잘되고 건강하게 지내기를 위해서”라고 말했다.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리고 ‘kathos euodoutai sou he psyche’(네 영혼이 잘됨 같이)는 3-4절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에 연결된다. 3-4절은 “영혼이 잘됨”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구절들이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임을 말한다. 따라서 2절의 뜻은 ‘사랑 받는 자여(Agapete), 네 영혼이 잘됨 같이(kathos euodoutai sou he psyche) 곧 네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모든 것에 관하여(peri panton) 곧 네 자신이 잘 되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에서도(se euodousthai kai hygiainein) 그렇게 행하기를 기도한다(euchomai).’는 뜻이다.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 ‘프시케’(psyche)는 사람 곧 영육 모두를 말한 것일 수도 있다. 프시케가 ‘혼,’ ‘영혼,’ ‘존재,’ ‘사람,’ ‘생명체’ 등을 뜻하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는 ‘네페쉬’(נֶפֶשׁ)란 말로 쓰였는데, 이 말은 ‘존재,’ ‘사람,’ ‘생명체,’ ‘짐승’ 등을 뜻하는 말이다. 구약성경 39권이 완성된 페르시아 시대까지 근동세계에는 영혼 또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 나라와 가나안 영토를 지키기 위해 혹은 빼앗긴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민족종교이다. 따라서 ‘네페쉬’는 일원론적인 개념이다. 영과 육의 세계, 빛과 어둠의 세계, 영혼과 육체와 같은 이원론 개념은 그리스에서 발전된 개념으로써 헬라시대에 근동세계에 알려졌고, 신약성경에서 강조되었으며, 신약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다만 구약성경이 신약성경 이해의 또 다른 핵심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는 구약성경의 일원론 개념과 헬라시대의 이원론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영혼’ 또는 ‘혼’으로 번역되는 ‘프시케’(psyche)란 말과 ‘음부’로 번역되는 ‘하데스’(Hades)란 말이다. 그리스신화에서 하데스는 낙원에 해당되는 ‘엘리시온’(Elysian Fields)과 지옥에 해당되는 ‘타르타로스’(Tartarus)가 함께 있는 깊은 지하세계, 음부의 세계 곧 죽음의 세계를 뜻한다. 그러나 구약성경에서 이것에

해당되는 ‘스올’(Sheol)은 ‘보이지 않는 세계’ 혹은 ‘죽은 자들의 세계’ 곧 ‘무덤’이란 뜻이다. 따라서 ‘스올’은 죄를 짓고 벌 받아 가는 곳이 아니라, 죽으면 누구나 다 가는 곳을 말한다. 이들 단어들 ‘하데스’와 ‘스올’은 죽음의 세계란 점에서 신약성경에서 혼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네 영혼이 잘됨 같이”에서 “영혼”은 사람의 본질일 수도 있고, 사람(생명체) 그 자체일 수도 있다. 또 “네 영혼이 잘됨 같이”는 ‘가이오’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말한 것일 수 있다.

또 3-4절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는 요한이서 1장 4-6절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에 연결된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5-8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에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떠돌이 전도자들을 말한다. 이 무렵 떠돌이(순회) 사도들은 이미 대부분 소천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남은 떠돌이 예언자들과 전도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었을 것이다. 주후 70년경에 쓰인 마태복음 25장에는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한” 자들에게는 영생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갈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가 실려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고 하셨다. 바울은 주후 60년대 초에 쓴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감도될 자격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라야 하며(딤후 3:2, 딤후 1:8),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도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라야한다고 했다(딤후 5:10).

가이오는 위의 말씀들을 충성스럽게 실천에 옮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가이오의 착한 행위는 그로부터 대접을 받은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회중에게 알려졌다. 따라서 장로 요한은 가이오에게 “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

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주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주후 100년경에 쓰인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은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접대’편에서 떠돌이 전도자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식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복음의 지침” 곧 예수님과 사도들의 지시를 자기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에 관해서는 복음의 지침에 따라 이렇게들 하시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사도는 마치 주님처럼 영접 받을 일입니다. 그는 그러나 하루만 머물러야 합니다. 만일 사흘을 머물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떠날 때에는 (다른 곳에) 유숙할 때까지 (필요한) 빵 외에 (다른 것은)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가 돈을 요구한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영으로 말하는 모든 예언자를 여러분은 시험하거나 판단하지 마시오. 사실 모든 죄가 용서받겠지만,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예언자가 아니고 오직 주님의 생활 태도를 지녀야만 예언자입니다.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는 그 생활 태도로써 밝혀질 것입니다. 식탁을 (마련하라고) 영으로 명하는 모든 예언자는 바로 그 식탁에서는 먹지 않습니다. 만일 먹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예언자가 만일 가르치는 것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영으로 말한다면 “내게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을 주시오.” 하거든 여러분은 그의 말을 듣지 말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빈궁한 이들을 위하여 달라고 하거든 아무도 그를 심판하지 마시오.

하나님과과의 사림20: 네 영혼이 잘됨 같이(2)(요삼 1:9-15)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요한삼서는 지역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첫째, ‘가이오’는 요한삼서의 수신자이며 요한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큼 훌륭한 인물이었다. 가이오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복음의 지침” 곧 예수님과 사도들의 지시를 충성스럽게 실천에 옮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가이오의 착한 행위는 그로부터 대접을 받은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회중에게 알려졌다. 사도 요한도 그 소문을 듣고 있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 가이오는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였다. 가이오는 사도요 목회자요 장로인 요한을 매우 기쁘게 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주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둘째, ‘디오드레베’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복음의 지침” 곧 예수님과 사도들의 지시를 어기고 떠돌이 전도자들을 무시하며 영접하지 아니한 자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서는 안 될 자였다.

중국 전국시대 송(宋)나라에 술을 만들어 파는 업주가 있었다. 술맛이 일품이었고, 고객에게 무척 친절하였지만, 술이 팔리지 않아 만들어 놓은 술이 변질되어 버리기 일쑤였다. 업주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웃에 사는 양청(楊靑)이란 사람을 찾아가 물었다. 그가 답하기를, “자네 말이야, 집에서 사나운 개(猛犬)를 키우고 있지 않는가? 술을 사러간 고객에게 으르렁대고 물려고 덤비니, 누가 자네 집으로 술을 사러 가겠는가?”고 했다고 한다.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회사든, 교회든, 국가든, 어느 크고 작은 집단이든 간에 사나운 개가 버티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지를 않게 되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디오드레베가 바로 교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사나운 개였던 것이다. ‘디오드레베’란 ‘양육 받음’(nourished by Jupiter)이란 뜻인데, 그는 양육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육을 받아야할 자였다. 이런 우려를 금치 못한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였다.

디오드레베는 으뜸 되기를 좋아한 사람이었다. 9-10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이런 지도자가 판치는 집단은 앞서 한비자의 글에서 으르렁대는 사나운 개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 것처럼 반드시 망하고 만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6-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또 23장 10-12절에서는 “너희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섬기는 자’ 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것과 싸우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남이나 남의 것을 비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섬기는 자’ 또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항상 자신이나 자신의 것에 대해서 부족을 느끼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만에 빠지지 않고 부단히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남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익은 곡식은 머리를 숙인다고 하지 않는가? 익은 곡식 사이에서 고개를 쳐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쪽정이거나 가라지일 것이다. 가짜가 언제나 큰소리 치고 가짜가 언제나 고개를 쳐드는 법이다. 따라서 참 지도자의 모습은 겸손히 자기 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디오드레베는 사도요 목회자요 장로인 요한을 멸시하고 접대하지 않았다. 9절에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에서 알 수 있다. 디오드레베는 주의 종들을 악한 말로 중상 모략하였고, 접대하지 못하도록 훼방한 사람이었다. 10절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고 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오드레베는 반드시 그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자였다. 10-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다.”고 한 말씀에서 알 수 있다.

셋째, 요한은 데메드리오를 본받아야 할 자로 추천하였다. 데메드리오는 가이오처럼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자였다. 12절은 데메드리오가 그 일로 못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사도 요한과 그의 일행으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자라고 하였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데메드리오의 선행을 본받으라는 취지로 요한삼서를 써서 보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고 저주의 말씀을 하셨는데,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적용해보았다.

첫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이다(마 23:13).

둘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자이다(마 23:15).

“데메드리오는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셋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사랑과 믿음은 버리는 자이다(마 23:23).

넷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자이다(마 23:25).

다섯째,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이다(마 23:27).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회사에 있으면, 회사를 떠나는 인재들이 생기게 된다. 그러나 교회에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이 아무리 많다하더라도 그들을 핑계 삼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거나 성경의 권위와 변화의 능력마저 무시하는 건 스스로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가이오와 데메드리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류상품이라고 가정해 보면, 디오드레베와 같은 인물은 가짜요 모조품이다. 가짜가 극성을 부린다고 해서 진품을 탓하면서 가짜 취급할 수는 없지 않는가? 오늘날 일부 잘못된 신앙인들과 교회들을 탓하면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비방하는 인물들은 그들이 누구건 간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거나, 10절처럼, 고의적으로 악한 말로 망령되어 폄하하며 무시하는 자들일 것이다. 가짜를 본 후에 진짜를 폄하한다고 진짜가 가짜가 되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

주후 57년 말정에 에베소에는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은장이 ‘데메드리오’가 있었다. 가이오는 흔한 이름이었던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흔치 않은 이름이었지만, 이들은 이름만 같을 뿐 요한삼서에 나오는 가이오와 데메드리오하고는 다른 인물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데메드리오’(Demetrius)는 백성의 어머니란 뜻이다. 같은 이름으로 에베소에 은장이(Silversmith)가 있었다. 그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은감실 곧 은으로 아르테미스 여신의 모형 신전들을 만들어 적지 아니한 돈을 벌고 있었는데, 바울과 그 일행의 전도사역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는 설교로 인해서 사업에 피해를 입게 되자 동업자들을 충동하여 큰 소요를 일으켰다. 이 소요 때 에베소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폭도들에게 붙들려 연극장으로 끌려갔었다(행19:23-41).

요한삼서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는 ‘데마’(골4:14; 딤후4:10; 몬1:24)와 동일한 인물로서 요한이 빌라델비아의 감독으로 임명한 인물(Apostolic Constitutions)로 추정되고 있으나 확실치는 않다. 아무튼 데메드리오의 선한 행위들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신 19:15, 요일 5:7, 8) 입증되었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하였으며, 요한 자신이 보기에다 칭찬할 만하였다.

13-14절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는 요한이서 1장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지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러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에 연결된다.